

692.1/100 (2)  
7-2-10



예산군 효행사례 학술세미나

##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원활용방안 모색-

예산문화원  
1032

- 일시: 2002.10.16(수) 오후 1시~6시
- 장소: 예산문화원 소공연장
- 주관: 충남발전연구원
- 후원: 예산군.예산문화원



# 행 사 일 정

◆ 등 록 (13:00)

◆ 개 회 식 (13:30)

▷ 사 회 : 오 석 민

- 국민의례
- 개 회 사 : 이 해 준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 축 사 : 박 종 순 (예산군수)

◆ 주제발표(13:45 ~ 14:55)

- 제 1 주제 발표 - 예산군 효행사례의 현황

발표 : 임선빈(본원 충청학연구부장) 토론 : 이효범(공주대 교수, 효문화연구소장)

- 제 2 주제 발표 -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발표 : 윤용혁 (공주대 교수) 토론 : 서의식(서울산업대 교수)

◆ 휴 식(14:55 ~ 15:10)

◆ 주제발표(15:10 ~ 16:55)

▷ 사 회 : 권 영 현

- 제 3 주제 발표 - 심청전 근원설화와 원홍장 이야기

발표 : 허원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토론 : 박광수(목원대 강사)

- 제 4 주제 발표 - 원홍장전의 실상과 심청전의 관계

발표 : 사재동(충남대 명예교수) 토론 : 이항복(예산향토문화연구소장)

- 제 5 주제 발표 - 예산군 효행사례의 활용방안

발표 : 오석민(본원 연구위원) 토론 : 이경진(공주대 교수)

◆ 휴 식(16:55 ~ 17:10)

◆ 종합토론(17:10 ~ 17:50)

▷ 사 회 : 임 선 빈

발표자 전원, 권영현(본원 디자인팀장), 황인선(고덕중 교사)

◆ 종합정리 및 폐회(17:50 ~ 18:00)



# 개 회 사

충·효·예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진 예산에서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라는 주제로 예산군의 지역 정체성 확립과 자원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자리에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박종순 예산군수님과 각급 기관장님, 그리고 예산군민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제 발표와 토론에 참여해 주실 사재동 교수님과 이항복 선생님을 비롯한 전문가 여러분, 효행과 지역문화연구에 관심을 갖고 원근 각지에서 참석해 주신 향토사가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孝’는 전통시대 윤리의 근원이 되었던 시대정신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이곳 예산군은 일찍이 수많은 효자·효녀·효부가 살아온 터전으로, 효를 몸소 실천한 선조들의 효자·효부 정려가 지금도 예산군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특히 ‘의좋은 형제’ 이야기로 알려진 이성만 형제와 심청전 근원설화의 하나인 「원홍장전」의 탄생지이기도 합니다.

본 세미나는 예산군의 효행사례를 찾아보고, ‘효’를 문화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여러 교수님과 각계의 저명인사들께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훌륭한 의견들이 제시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 자리를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孝’의 의미가 새롭게 다가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본 심포지엄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2. 10. 16.

충남발전연구원 부설 충남역사문화연구소장 이 해 준

# 축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온 누리에 청명한 가을빛이 가득한 풍요로운 수확의 계절의 맞이하여 오늘 예산군의 효행과 우애사례를 통한 충·효·예의 고장인 예산의 정체성 확립과 관광상품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이처럼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느라 수고하신 충남발전연구원 이해준 역사문화연구소장님을 비롯한 연구진 여러분, 그리고 학계 교수님과 자문위원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사간 바쁘신 중에도 오늘 이 자리를 더욱 빛내 주시기 위하여 참석하여 주신 각급기관 단체장님과 예산군민 여러분께도 반가운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통시대는 윤리의 시대였으며, 그 중심에 효가 있었습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윤리의 내용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나, 부모와 자식간의 '효도'와 '자애'라는 덕목은 아직까지도 귀감이 되며, 앞으로도 계속 존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효와 관련된 유적은 과거의 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자원의 큰 가치를 갖습니다.

이 훌륭한 유적·유산이 우리군에는 전국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여 월등하게 많은 효자와 효부가 배출되어 관련 자원을 잘 활용하면 예산군의 이미지 제고 및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큰 귀감이 되리라 생각하며, 나아가서는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진 우리군의 실존인물인 이성만·이순 형제야 말로 우리군만의 독특하고 확실한 관광자원이라 생각하며, 「의좋은 형제」를 예산군의 브랜드와 함께 관광상품화하면 예산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시켜 지역경제를 크게 활성화 시킬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21세기는 경쟁의 시대이며 지방자치야말로 살아남기 위한 하나의 기업경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그들만의 독특한 관광산업 및 활용방안을 내세우는 이때 우리군 역시 관광산업을 통하여 경영 마인드를 제고해야 할 때라 생각하며

오늘 이 자리야 말로 우리군이 발전할 수 있는 토대의 시간이라는 생각을 해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군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이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면서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 10. 16.

예 산 군 수 박 종 순





# 목 차

☐ 발표논문

- |                                   |     |
|-----------------------------------|-----|
| □ 제1주제 : 예산군 효행사례의 현황 .....       | 3   |
| 임 선 빈 (본원 충청학연구부장)                |     |
| □ 제2주제 :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 | 27  |
| 윤 용 혁 (공주대 교수)                    |     |
| □ 제3주제 : 심청전 근원설화와 원홍장 이야기 .....  | 55  |
| 허 원 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
| □ 제4주제 : 원홍장전의 실상과 심청전의 관계 .....  | 71  |
| 사 재 동 (충남대 명예교수)                  |     |
| □ 제5주제 : 예산군 효행사례의 활용방안 .....     | 117 |
| 오 석 민 (본원 연구위원)                   |     |

## 부록

- 예산군 지역정체성의 캐릭터 활용화 방안 ..... 149  
권 영 현 (본원 디자인팀장)
- 『동국삼강행실도』의 예산군 효자도 ..... 155



## 제 1 주제

# 예산군 효행 사례의 현황

임 선 빈

(충남발전연구원 총칭학연구부장)



# 예산군 효행사례의 현황

임 선 빈(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부장)

1. 머리말
2. 효행의 포장과정과 포장의 종류
3. 문헌을 통해 본 예산군 효행사례
4. 예산군 효행관련 유적과 유물
5. 맺음말 : 예산군 효행사례의 성격과 제언

## 1. 머리말

효는 자녀가 부모에 대하여 경애의 감정에 토대를 두고 행하는 행위이다. 이러한 행위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동양 고유의 것이라고만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일찍이 부모와 자녀간의 효가 도덕규범의 기초가 되고, 더욱 확대되어 국가로부터 가족에 이르기까지 최우선의 가르침으로 정착하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일찍부터 효자에 대한 칭송이나 포장이 행해졌다. 효자에 대해 국가에서 포장한 최초의 사례는 신라 경덕왕 14년(755)의 일로, 웅천주 판적향에 사는 향덕이 아버지를 봉양하기 위해 할고(割股)의 효를 행하자, 그에게 상물을 내리고 문려를 정표하였다.<sup>1)</sup> 유교가 국가의 통치이데올로기로 채택된 고려시대에는 효자(孝子)·순손(順孫)·의부(義夫)·절부(節婦)에 대한 국가의 포장이 수시로 이루어졌고, 기전체 사서인 『고려사』에는 효우열전이 설정되어 있기도 하다.<sup>2)</sup> 조선시대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삼강오리의 보급이 줄기차게 추구되었으며, 태조 원년 7월에 정표정책의 방침을 밝힌 이후, 조선의 역대 왕들은 충·효·열을 적극적으로 권장하였다. 특히 조선후기에는 조선중기의 충·효·열 행적에 대한 포장이 뒤늦게 대규모로 이루어지기도 하였다.<sup>3)</sup>

충효의 고장으로 일컬어지는 예산에도 전통시대에 많은 효행사례들이 있었으며, 오늘

1) 『삼국사기』 권9, 신라본기 9, 경덕왕 14년. 권48, 열전 8, 향덕. 지금의 공주시 소학동에 향덕의 유적이 남아 있다.

2) 『고려사』 권121, 열전 34, 충의·효우.

3) 조선시대 충·효·열에 대한 포장에 대해서는 박주, 『조선시대의 정표정책』(1990, 일조각)과 『조선시대의 효와 여성』(2000, 국학자료원) 참조.

날에도 효행관련 유적과 유물이 많이 남아있다. 본고는 이와 같은 예산지역의 효행에 대한 조사결과를 정리한 것이다.<sup>4)</sup> 먼저 전통시대의 효행에 대한 포장(褒獎)을 이해하기 위해 충·효·열에 대한 포장이 이루어진 절차와 과정, 포장의 종류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예산군의 효행사례가 어떠했는지를 살피기 위해 문헌에 나타난 효행사례를 찾아 정리하였다. 분석대상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역사서, 『동국삼강행실도』와 같은 윤리서, 지리지와 읍지, 『효행등제등록』 등이다. 나아가 문헌자료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진 예산지역 효행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하였다. 이와 같은 예산군의 효행사례와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는 예산군의 지역 정체성확립과 관련 자원의 활용방안을 모색하는 데 기초적인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 2. 효행의 포장과정과 포장의 종류

동양 전통시대의 유교사회에서 충·효·열의 행적을 한 사람은, 충신(忠臣)·충노(忠奴), 효자(孝子)·효녀(孝女)·효부(孝婦), 열녀(烈女)·열부(烈婦)·절부(節婦)라고 불리웠다. 조선시대에 국가에서는 수시로 충·효·열 덕목을 강조하였고, 이를 권장하기 위해 충·효·열 행적을 한 사람에게는 국가의 포장이 행해졌다. 조선초기에 편찬된 『경국대전』의 예전 장권조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효도, 우애, 절의 등의 선행을 한 자는 (효자, 순손, 절부, 나라를 위하여 죽은 자의 자손, 목족, 구환과 같은 등속이다.) 해마다 연말[歲杪]에 본조[예조]가 정기적으로 기록하여 왕에게 아뢰어[錄啓] 장권한다. (상직을 주거나 혹은 상물을 주며, 더욱 특이한 자는 정문을 세워주고 복호를 해 준다. 수신한 처에게도 또한 복호를 해 준다.)<sup>5)</sup>

이와같은 『경국대전』의 규정은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전시기를 통해 유효한 것이었다. 포장의 절차와 과정, 포장의 종류에 대하여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포장의 절차와 과정

#### (1) 행적발현과 향증공론 형성

충·효·열 행적이 있었던 인물이 국가로부터 포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인물의 행적[실적]을 발현해야 한다. 현재 살아 있는 인물이면, 100년이나 200년 전에 죽은 인물이면, 그 인물의 행적이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 그리하여 지역별로 사족이나 유생들 사이

4) 예산지역의 효행사례에 대한 현지조사는 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부의 오석민·홍제연·이춘진과 함께 진행하였고, 예산군 현지에서는 황인선·강희진이 참여하였다.

5) 『경국대전』 권3, 예전 장권조.

에 포장의 당위성이나 필요성, 아쉬움 등이 공론화되어야만 한다.

후손이나 지역민의 필요에 의하여 인물의 행적이 상신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국가가 정기적으로 혹은 특정 시기에 국가적 필요에 의하여 삼강인물의 행적을 찾아내어 표창하는 경우도 있다.

이같은 충·효·열 인물의 행적 발현이 당대의 인물이거나 생존한 경우에는 소문이나 칭송이 근거가 되겠지만, 사후 수세대가 지난 경우에는 묻혀 있거나 잘 알려지지 않았던 행적이 대개 후손들에 의하여 되살려지는 경우도 많다. 이 경우 후손들의 사회적 명망이나 지도력, 사회경제적 지위가 크게 작용한다.

## (2) 정려 포장의 청원 절차

인물의 행적이 뛰어나고 향중에서 공론이 형성되면 발론자가 중심이 되어 연명으로 정려 포장을 상신(청원)하게 되는데, 이때 만들어지는 문서가 천장(薦狀 : 추천서)이다. 이 천장은 대개 군내 유생들의 연명으로 성주(군수, 현감)에게 올려지는 것이 보통이고, 이를 수령은 상급기관인 감영(관찰사)에 이관하여 예조에 품의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 1차에 정려 포장이 결정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대개는 2~3차의 상신이 있고, 안될 경우에는 도내 유생들에 의한 2단계의 천장이 관찰사에게 올려진다.

관찰사에게 상서하여 예조에 품의되어 왕의 윤허를 받게 되면 모든 절차가 끝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는 암행어사에게 상서하거나 왕에게 직접 상서하기도 한다. 이런 경우는 관로를 통한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따른 긴급 청원 같은 형태인데, 암행어사가 지방에 파견되었을 때 민원사항으로 올리는 방법과, 직접 왕의 행차 중에 ‘북이나 팽가리를 두드려’[격쟁(擊鐙)] 사연을 아뢰는 방식이 그것이다.

## (3) 예조의 실사와 포장 결정

이상과 같은 추천과 청원의 절차가 이루어지면 해당 부서인 예조에서는 삼강 행적에 대한 사실 여부를 현지 지방관에게 조사토록 하며, 실적이 확인되면 왕에게 아뢰어 허락을 받아 포장을 하게 된다. 이때에 작성되는 문서가 예조 입안이며, 이 예조의 입안문서에 따라 포장의 내용도 결정된다. 포장 가운데 가장 영예로운 것이 정려의 건립이다. 대개의 경우 예조 입안문서의 지시를 받아서 각 지방 고을에서는 정려나 정문을 건립하게 된다.

## 2) 충·효·열 포장의 종류

유교적 기본 덕목인 충·효·열 삼강 인물에 대한 포장 정책은 여러 가지 형태로 이루어졌다. 우리가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것이 바로 정려(정문)의 건립이지만, 그 외에도 행적의 수준과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포장이 이루어졌다. 『조선왕조실록』에 산견된 내용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은 포장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加資・蠲其徭役・蠲戶役・貢納免除・軍役減免・給豆米・給綿布・給復・給衣糧・錄用子孫・免軍役・免其子孫之鄉役・免身役・免役・免賤・復戶・復立旌門・賜物・賜物有差・賜米・賜米菽・賜米有差・賜祭・賞物・賞物復戶・賞米・賞職・賞布物・叙用・贖身給復・隨才叙用・收還旌閭・陞資錄用・量宜注授・旌閭・旌門・旌門復戶・旌門叙用・旌表門閭・題給米布・除職・贈諡收用・贈職・追贈・土官職叙用・褒贈・恤典 등

이 들 포장의 종류를 유형별로 정리하면, 크게 정문류(旌門類)・복호류(復戶類)・상직류(賞職類)・상물류(賞物類)로 나누어 볼 수 있다.

### (1) 정문류(旌門類)

삼강의 행적이 뛰어난 경우 국가는 정려의 건립을 결정한 명정(命旌)을 내려준다. 조선시대의 정려(旌閭)는 예조와 의정부의 심사를 거쳐 국왕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는 가장 높은 단계의 표창으로, 삼강의 윤리를 실천한 사람인 충신・효자・열녀(절부)에게만 주어지는 조치였다. 명정이 내려지면, 대개 별도의 정려각을 마련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집의 대문에 명정 현판을 게판[旌門]하기도 한다. 명예표창인 정려에는 실질적인 표창인 상물(賞物)・상직(賞職)・복호(復戶)도 수반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 (2) 복호류(復戶類)

복호(復戶)는 조선시대 국가가 가가호호에 부과하는 요역의 부담을 면제하거나 감면하여 주는 조치를 말한다. 요역은 주로 지방관청이나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토목과 영선, 특정 물품의 생산과 수송 등에 동원하는 노역을 말한다. 복호의 혜택은 행적이 뛰어난 효자・열녀 외에도 수혜대상이 매우 다양하였다.<sup>6)</sup>

복호는 수혜기간에 따라 영구히 복호의 혜택을 받는 영년(永年) 복호와 한정된 시기만을 복호하는 한년(限年) 복호로 구분할 수 있다. 원래 복호는 신역(身役)만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수령들이 그 뜻을 모르고 전세(田稅)・공부(貢賦)까지 면제하는 사례가 많았고, 여러 궁가의 복호 남용이 많아 1629년(인조 7)에는 왕명에 의해 이를 엄히 할 것을 법으로 정하기도 하였다.

노비와 같은 천인이 천인신분에서 벗어나는 것을 면천(免賤)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복호류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다.

6) 조선시대의 복호는 그 대상자에 따라 왕족・권장・진출・특수인・군호・정역 등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조선왕조실록』에는 ① 양계의 금・은 채광호, ② 각종 재해를 당한 고을의 호, ③ 노병시정 군호, ④ 해청 채포군호, ⑤ 제주・호남지역의 조운 부역자, ⑥ 자원하여 토지를 개간하여 사는 자, ⑦ 돼지・소・말 축산자, ⑧ 유민가운데 환래한 자, ⑨ 승려환속자 등도 복호를 받고 있었음이 기록되어 있다.



### (3) 상직류(賞職類)

충·효의 행적에 대한 대가로 국왕이 관직(官職)이나 관계(官階)를 하사하는 경우가 있다. 상직(賞職)은 당사자가 살아 있을 때 관직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죽은 후에 관직이나 관계를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를 증직(贈職)이라고 한다. 이미 관직이나 관계를 지니고 있는 사람에게는 전보다 높은 관직이나 관계를 하사한다.

조선은 개국과 함께 국가에 공로를 끼치고 죽은 관인 등에게 정 1품 이하의 관직을 증직하였다. 1407년(태종 7)을 전후하여서는 명유·절신·효행자를 비롯하여 과거급제 후에 관직을 받지 못하고 죽은 자 등에게도 증직하는 보다 확대되고 체계화된 증직제도를 재정비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토대가 되어 『경국대전』의 편찬과 함께 명문화되면서 큰 변동없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되었다. 증직의 사령장은 교지(敎旨)의 형식을 취하였는데, 사령장을 받은 자가 이것을 베껴써서 증직자의 묘 앞에 두고 제사를 지낸 뒤에 이들 묘소에 나아가 불사르는 분황의 의식을 행하였다.<sup>7)</sup>

### (4) 상물류(賞物類)

상물(賞物)은 왕이 의복이나 물건·음식 등을 상으로 내리는 것을 말한다. 특히 왕의 의복이 내려지는 경우는 왕의 각별한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어서 더욱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경향이였다. 대개 살아 있는 경우에 한하였지만, 자손에게도 내려지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상물은 앞에 든 복호나 증직, 혹은 정려의 명과 함께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상물(賞物)이라는 표현 외에 사물(賜物)이나 식물(食物)이라는 표현이 사용되기도 한다.

한편, 『후속록』에는 ‘충신·효자·순손·열녀로서 가난하여 빌어먹는 자가 있으면 해마다 쌀 5석, 사철 의복 1벌을 계문하여 제공하고 진휼한다’는 규정이 있다.

## 3. 문헌을 통해 본 예산군 효행사례

예산군의 효행사례를 찾아볼 수 있는 관련 서적(자료)으로는 역사서, 윤리서, 지리지·읍지의 인물조, 예조에서 작성한 효행관련 등록류 등이 있다. 충·효·열은 전통시대의 중요한 유교덕목이었다. 그리하여 역사서를 편찬할 때에는 충·효·열에 관한 인물들을 중요하게 다루었다. 윤리서와 국가의 포장정책에 따라 예조에서 작성한 등록류는 보다 구체적이다. 지리지·읍지의 인물조는 지역별로 삼강행적의 인물을 이어가려는 의지 때문에 효행인물이 많이 기록되어 있다.

7) 오늘날에도 비록 그 명칭이 다르기는 하나 독립유공자, 전사한 군인과 경찰, 각종 순직공무원 등에게 계급을 올려주거나 훈장·상장을 수여하는 추서도 조선시대의 증직제도와 뜻을 같이하는 것이다.

## 1) 역사서

『삼국사기』·『삼국유사』·『고려사』 등에서는 예산 지역의 효행 인물을 찾을 수 없고, 『조선왕조실록』에서 처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420년(세종 2)의 호장 이성만에 관한 기사이다.<sup>8)</sup> 이후 『철종실록』까지의 역대 『실록』에서 예산 지역의 효행 인물을 찾아보면, 대흥현의 효자 2건, 예산현의 효자 2건, 덕산군의 효자 4건 등으로 모두 8건이다.(표1 참조)

<표 1> 『실록』에 기록된 예산군의 효행 포장사례

연대	고을	성명	행적	포상내용	근거
1420	대흥	戶長 李成萬	양구채, 양지, 시묘, 우애	정문, 복호	『세종실록』 7, 세종 2년 1월 경신조.
1428	대흥	金順	3년 시묘	예조의 계	『세종실록』 42, 세종 10년 10월 병오조.
1454	예산	(李千海 子) 李開祐	단지	서용	『단종실록』 12, 단종 2년 8월 병신조.
1464				정려,복호,서용	『세조실록』 34, 세조 10년 9월 무진조.
1535	예산	鄉吏 方萌	효행 특이	상물, 복호	『중종실록』 79, 중종 30년 3월 갑신조.
1547	덕산	校生 金應臣	시병, 시묘	정문, 복호	『명종실록』 6, 명종 2년 12월 정축조.
1807	덕산	士人 李德采	효행	증직	『순조실록』 10, 순조 7년 3월 기미조.
1829	덕산	士人 吳命瀾	효행	정려	『순조실록』 30, 순조 29년 3월 을사조.
1831	덕산	士人 吳命熙	효행	정려	『순조실록』 32, 순조 31년 6월 신축조.

## 2) 윤리서

우리나라에서 편찬된 효행과 관련된 윤리서로는 『효행록』, 『삼강행실도』, 『속삼강행실도』, 『동국신속삼강행실도』, 『오륜행실도』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예산 지역의 효행 인물로는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에 이성만, 박충, 방맹, 이문경, 박원충, 백춘복, 윤희·풍이 등이 수록되어 있다(대흥현 2건, 덕산현 2건, 예산현 3건).<sup>9)</sup> 이는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많은 수치이며,<sup>10)</sup> 신분상으로도 호장, 유학, 향리, 서인, 사노 등 다양하다.(표2 참조)

8) 『동국신속삼강행실도』 효자도에서는 李成萬이 고려시대 大興의 인물로 기록되어 있으나, 『고려사』에서는 이성만에 관해 확인되지 않는다.

9) 이외에도 事迹이 확인되지 않아 효자도는 수록되어 있지 않지만, 예산현의 金勤·李開右에게 정려가 내려졌음이 기록되어 있다.

10) 『동국삼강행실도』(원·속·신속)에 수록되어 있는 효자도는 모두 742건이며, 이 가운데 충청도의 효자도는 79건이다.

<표 2> 『동국신속삼강행실도』에 수록된 예산군 지역 효행 인물

수록부분		권수	지역	시대	인물	행적	포상	비고
東國新續三綱 行實圖	孝子圖	卷一	大興縣	고려	李成萬	成萬守墳	정문	
	(孝子圖)	(卷一)	禮山縣	조선	金勤 · 李開右		정문	無事迹人
	孝子圖	卷三	禮山縣	조선	幼學 朴忠	朴忠廬墓	정문	
	孝子圖	卷四	禮山縣	조선	鄉吏 方萌	方萌廬墓	정문(중종)	
	孝子圖	卷五	禮山縣	조선	奉事 李文卿	文卿居廬	정문(명종)	
	孝子圖	卷七	大興縣	조선	幼學 朴元忠	元忠孝友	정문(광해군)	
	孝子圖	卷八	德山縣	조선	庶人 白春福	春福斷指	정문(광해군)	
	孝子圖	卷八	德山縣	조선	私奴 允熙 · 風伊	二子誠孝	정문(광해군)	

### 3) 지리지 · 읍지

지리지에 예산군의 효행 인물이 등재되어 있는 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에서 부터인데, 대흥현에 고려조 효자 이성만, 예산현에 조선조의 효자 김근과 이개우가 기록되어 있다.<sup>11)</sup>

대흥 - 효자 - 고려 - 李成萬 : 성만이 그 아우 순과 더불어 모두 지극한 효성이어 부모가 죽으매, 성만은 아버지의 분묘를 지키고, 순은 어머니의 분묘를 지키면서 각각 애통과 경근을 다하였으며, 3년의 복제를 마치고는 아침에는 아우가 형의 집으로 가고, 저녁에는 형이 아우의 집을 찾았으며, 한 가지의 음식이 생겨도 서로 모여 만나지 않으면 서로 먹지 않았다. 이 사실이 임금에게 보고되어 정문을 세워 표창하였다.

예산 - 효자 - 본조 - 金勤, 李開右 : 모두 정문을 세워 표창했다.

조선후기의 읍지인 『여지도서』에는 효행 인물로 대흥군에 11건(12명), 덕산현에 17건(20명), 예산현에 12건(12명) 등이 있다. 이들에 대한 포장내용을 보면, 대흥군의 경우 정려 7건, 상직 2건, 복호 2건이며, 덕산현은 정려 17건, 증직 10건(6건은 정려와 중복), 복호 6건이고, 예산현은 정려 10건, 증직 1건, 가자 1건, 제직(除職) 1건, 향천(鄉薦) 2건이다.<sup>12)</sup> (표3 참조)

『충청도읍지』(영조~헌종연간)에는 「덕산현지」와 「예산현지」만 수록되어 있고, 「대흥현지」는 빠져 있다. 「덕산현지」 인물조에는 효자 18인, 효녀 3인이 수록되어 있고, 「예산현지」 인물조에는 효자 11인, 효부 1인이 수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여지도서』에 포함되어 있는 인물이다. 『호서읍지』(1871)에는 3개 군현의 읍지가 모두 수록되어 있다. 그러나 「예산현읍지」와 「덕산군지」의 충·효·열 인물조는 『충청도읍지』와 내용이 같으며, 「대흥군지」는 효자 12인(10건), 효녀 1인, 효(부) 1인이

11)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효행분포는 충청도 40건, 전국 합계 334건이다.

12) 『여지도서』의 효행분포는 충청도 453건, 전국 합계 2,306건이다.

기록되어 있는데, 『여지도서』의 기록에서 추가된 인물은 효자 1건(김방언·치화 부자) 뿐이다.<sup>13)</sup> 『[호서]읍지』(1895)에는 덕산현지만 수록되어 있는데, 인물조가 설정되어 있지 않다.

<표 3> 『여지도서』에 수록된 예산군 지역 효행 인물

지 역	구분	성명	신분	행적	포상내역	비 고
대흥군	효자	李成萬		孝友	旌閭	[고려]
대흥군	효자	崔承立		孝行	旌閭(顯宗朝)	
대흥군	효자	尹思誠	士人	孝友檢行(鄉里薦)	賞職(不就)	
대흥군	효자	朴元忠		孝行	旌門	郡東十里炭防村
대흥군	효녀	姜氏	僉使(朴枝帶妻)	13세에 斷指(母病)	復戶	
대흥군	효자	車命徵·敬徵兄弟	士人	孝行	復戶(을사), 旌閭(정묘)	
대흥군	효자	牟萬重	士人	孝行	旌閭(영조)	
대흥군	효자	崔望回	良人	孝行	旌閭(무오)	
대흥군	효자	田斤金	良人	孝行	旌閭(영조)	
대흥군	효(부)	權氏	進士(李星規妻)	孝行	復戶	<호서읍지>정조7년 子 道永의 子 上言으로 旌閭
대흥군	효자	俞受基	士人	孝	贈職(지평)	
덕산현	효자	趙克善	掌令	斷指(父病)	旌閭(현종 오), 증직	학행
덕산현	효자	朴承休	執義	孝友, 割指(母病)	旌閭	縣東場村面石谷里, 孝敬家
덕산현	효자	朴承健	掌令	孝	贈職, 旌閭	承休의 弟, 縣東場村面石谷里, 孝敬家
덕산현	효자	李甲俊	司果	割股·斷指(母病)	旌閭	縣北別羅山村
덕산현	효녀	李氏	(李甲俊 兩女)	至孝, 斷指(父病)	給復	居縣北別羅山村
덕산현	효자	申晶	學生	至孝, 妻 朴氏와 斷指(母病)	旌閭	縣北古縣內
덕산현	효자	楊萬榮	佐郎	誠孝出天	旌閭(숙종조)	大德山面
덕산현	효자	洪啓聖	學生	斫十指·割左右股(父母病)	給復	居縣北大也面
덕산현	효자	朴尙胄	學生	斷指(3)·割股(부모병)	贈職(持平)	執義承休之子
덕산현	효자	成漢翼·成雲翼	學生·生員	割指(母病), 果次割指(父病)	雲翼贈職(佐郎)	兄弟, 奴石堅割指
덕산현	효자	崔俊發·崔俊天·崔俊克	忠義	割指(母病), 3年廬墓	給復	3兄弟, 居縣北外面
덕산현	효자	李稔	李義培(韓山)의 庶子	嘗糞(母病), 3年歡粥(母喪)	贈職(司僕僉正)	
덕산현	효자	崔景望	老職通政	斷指(父病)	給復	居縣北外也面
덕산현	효자	李弘肇	同知	孝行	給復	居縣東佳佐村
덕산현	효자	尹東雨	學生	割股(父病)	給復	居縣西於雲洞
덕산현	효자	李後發	學生	嘗糞·斷指(母病)	賞物(給米)	
덕산현	효녀	再介	私婢	割股·嘗糞(母病), 3年不與其夫同處(母喪)	旌閭	縣南大德山面

13) 金邦彦·致和 부자는 士人으로 함께 孝行으로 今上(정조조)에 그의 아들 敬烟이 상언하여 특별히 兩世旌閭가 내려졌다.

예산현	효자	李思儉	處士	管羹・鯁魚(무한전), 廬墓		
예산현	효자	金勤		事跡無傳焉	旌門	
예산현	효자	李開右		事跡無傳焉	旌門	
예산현	효자	李文卿	直長	(속삼강행실에 수록)	旌門	吾元里綠野村 掌令 李思恭의 子, 處士 李思儉의 侄
예산현	효자	朴忠		孝友, 廬墓3年, 朝夕之奠, 동생과同居, 明宗國恤에 心喪3年	旌閭(만력 원년)	左承旨 崔顯의 계로 정려 건립, 其子孫十世勿侵事
예산현	효자	方萌	戶長	事跡無傳焉	旌門	邑內香泉洞
예산현	효자	金孟		事跡無傳焉	旌石(?)	邑內回龍洞
예산현	효자	李壽燦		斷指(母病)	除職, 贈職(金吾郎)	
예산현	효자	鄭世翊	郡守	斷指(母病)	鄉薦	
예산현	효자	鄭世良		斷指(母病), 3年枕土啜粥	鄉薦	鄭世翊의 弟
예산현	효자	朴信興		氷魚, 追喪, 肅宗・景宗國恤에 心喪, 戊申亂에 號哭	旌門(충효), 가자(戊寅)	吾元里泉洞里
예산현	효부	申氏	進士李尙賓妻	남편사후 시어머니를 정성껏 모심	旌門	大枝洞內項里

#### 4) 예조의 효행관련 등록

조선시대 각 관청에서는 문서를 모아 등록으로 성책(成冊)하고 있었는데, 예조에서는 일찍부터 충·효·열과 관련 있는 등록을 작성하고 있었다. 이 가운데 『충효등록』·『효행등제등록』·『충·효·열등제등록』 등이 규장각 자료로 현존하고 있다.<sup>14)</sup> 이 자료들은 충·효·열 관련자료 가운데 가장 생생한 1차자료라고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효행등제등록의 예산지역 효행포상사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4> 효행등제등록의 예산지역 효행포상사례

지역	효행인물	포상시기	포상내용	비고
대흥군	崔承立	1659년(현종 원년)	旌閭	여지도서 등, 정려현존(광시면 노전리 양지뜸).
대흥군	黃氏(朴聖望 妻)	1674년(현종 15)	復戶	
대흥군	莫之(私婢)	1674년(현종 15)	復戶	
대흥군	成大顯	1674년(현종 15)	除職	
대흥군	朴承休	1687년(숙종 13)	旌閭	여지도서 등, 정려현존(광시면 신대리 현암)
대흥군	尹壽英	1716년(숙종 42)	復戶	
대흥군	徐應持	1716년(숙종 42)	贈職	
대흥군	姜師臣	1723년(경종 3)	旌閭	

14) 『忠孝騰錄』은 1638년(인조 16)~1741년(영조 17)의 기록으로 예조에서 충·효·열의 표창에 관련된 啓目を 모은 책이다. 필사본으로 원래 8책이었으나, 7책이 현전하고 있다. 『孝行等第騰錄』은 1655년(효종 6)~1788년(정조 12)의 기록으로 예조에서 孝行等第單子를 모아 엮은 책이다. 총 40차에 걸쳐 충·효·열의 모범이 된 사람에게 표창을 한 기록을 수록하고 있다. 효행등제등록의 속편이라 할 수 있는 『忠孝烈等第騰錄』은 1789년(정조 13)~1854년(철종 5)의 기록으로 10차에 걸친 충·효·열로 표창된 명단이 수록된 예조의 등록이다.

대흥군	金士男	1723년(경종 3)	賞物	
대흥군	金仁錫	1723년(경종 3)	賞物	
대흥군	朴萬元	1723년(경종 3)	復戶	
대흥군	俞受基	1729년~1736년	贈職	여지도서 등
대흥군	李商泰	1729년~1736년	贈職	
대흥군	李東根	1729년(영조 5)	復戶	
대흥군	申命徵	1746년(영조 22)	復戶	
대흥군	權氏(李聖規 妻)	1746년(영조 22)	復戶	여지도서 등, 李道永 母
대흥군	車敬徵·車命徵(兄弟)	1746년(영조 22)	旌閭	여지도서 등, 정려현존(신양면 서계양리)
대흥군	金邦彦·金致和(父子)	1783년(정조 7)	旌閭	호서읍지, 정려현존(광시면 신흥리)
대흥군	權氏(李道永 母)	1783년(정조 7)	旌閭	호서읍지, 李聖規 妻
대흥군	馬召史(李雙龍 妻)	1854년(철종 5)	孝婦復戶	
덕산현	李石男(私奴)	1655년(효종6)	旌閭	
덕산현	趙克善·趙鼎教	1664년(현종 5) 1875년(고종 12)	旌閭	여지도서 등, 정려현존(봉산면 시동리)
덕산현	裴壽男	1666년(현종 7)	賞物	
덕산현	裴戒男	1666년(현종 7)	賞物	
덕산현	魚氏(李光胄 妻)	1666년(현종 7)	食物題給	
덕산현	裴應男	1666년(현종 7)	賞物	
덕산현	全현(前監役)	1669년(현종 10)	旌閭	
덕산현	魚氏(李光胄 妻)	1697년(숙종 23)	復戶	
덕산현	申晶	1699년(현종 10) 1803년 ?	旌閭	여지도서 등, 정려현존(봉산면 대지리 2구)
덕산현	朴氏(申晶 妻)	1699년(현종 10)	旌閭	정려현존(봉산면 대지리 2구)
덕산현	朴承健	1703년(숙종 29)	旌閭, 贈職	여지도서 등
덕산현	成漢翼	1703년(숙종 29)	除職	여지도서 등
덕산현	洪啓聖(學生)	1703년(숙종 29)	旌閭, 給復	여지도서 등
덕산현	楊萬榮(佐郎)	1706년(숙종 32)	贈職, 旌閭	여지도서 등
덕산현	金碩輝·重輝(兄弟)	1713년(숙종 39)	復戶	
덕산현	(李日章 妻)	1713년(숙종 39)	復戶	
덕산현	尹氏(李汝珪 妻)	1713년(숙종 39)	復戶	
덕산현	金氏(趙揔 妻)	1713년(숙종 39)	復戶	
덕산현	崔俊發	1713년(숙종 39)	復戶	여지도서 등
덕산현	崔俊天	1713년(숙종 39)	復戶	여지도서 등
덕산현	崔俊克	1713년(숙종 39)	復戶	여지도서 등
덕산현	李秬	1713년(숙종 39)	贈職	여지도서 등
덕산현	申漢明	1716년(숙종 42)	賞物	
덕산현	韓鎡	1716년(숙종 42)	賞物	
덕산현	韓鑑	1716년(숙종 42)	賞物	
덕산현	尹東雨	1716년(숙종 42)	復戶	여지도서 등
덕산현	李相植·相栽(兄弟)	1719년(숙종 45)	復戶	
덕산현	趙萬熙	1719년(숙종 45)	復戶	
덕산현	申尙業	1719년(숙종 45)	復戶	
덕산현	李弘肇	1721년(경종 1)	除職	1729 복호
덕산현	李弘肇	1729년(영조 5)	復戶	여지도서 등
덕산현	崔景望	1729년(영조 5)	復戶	여지도서 등
덕산현	崔氏(李俊傑 妻)	1729~1736	旌閭	
덕산현	趙哲尙	1729년(영조 5)	免役	
덕산현	李夢休	1729년~1736년	贈職	
덕산현	金召史(金甲俊 妻)	1746년(영조 22)	復戶	
덕산현	劉世俊	1747년(영조 23)	復戶	
덕산현	趙啓熙	1747년(영조 23)	復戶	
덕산현	朴瑞夏 女兒	1754년~1756년	復戶	
덕산현	俞介閭	1754년~1756년	復戶	
덕산현	李奎	1754년~1756년	贈職	
덕산현	尹健厚	1794년(정조 18)	贈職	
덕산현	鄭東赫	1796년(정조 20)	復戶	

예산현	李壽赤	1666년(현종 7)	除職	
예산현	金男(私奴)	1674년(현종15)	賞物	
예산현	李友彬	1674년(현종15)	除職	
예산현	閔綰	1674년(현종15)	除職	
예산현	申氏(進士 李尙賓 妻)	1674년(현종15)	旌閭	여지도서 등
예산현	鄭世翊	1682년(숙종 8)	賞物	여지도서 등
예산현	鄭世良	1682년(숙종 8)	賞物	여지도서 등
예산현	劉太益	1691년(숙종17)	賞物	
예산현	康萬采(康植 子)	1703년(숙종29)	復戶	
예산현	康萬龜(康植 子)	1703년(숙종29)	復戶	
예산현	10歲 女兒	1703년(숙종29)	復戶	
예산현	辛仲榮 女兒 2人	1713년(숙종39)	旌閭	
예산현	趙榮遠	1723년(경종 3)	復戶	
예산현	朴信興	1723년(경종 3)	賞物	1747 정려
예산현	朴召史(郭論生 妻)	1729년(영조 5)	復戶	
예산현	姜氏(金泰壁 妻)	1729~1736	旌閭	
예산현	禹氏(韓弘祚 妻)	1739~1741	旌閭	
예산현	朴信興	1747년(영조23)	旌閭	여지도서 등, 정려현존(오가면 원천리 3구)
예산현	趙榮遠	1786년(정조 10)	贈職	
예산현	俞漢八	1794년(정조18)	贈職	
예산현	尹氏(朴魯淳 妻)	1794년(정조 18)	孝婦復戶	
공주목	李興甲	1729년(영조5)~1736년(영조12)	孝子碑	효행등제등록(공주), 효자비현존(신양면 차동리 대촌)

## 4. 예산군 효행관련 유적과 유물

### 1) 정려 · 정문 · 정려비

대개 정려 유적은 건물로 남아 있다. 이들 건물들은 정려문, 정려각, 정려비각, 정려비 등 다양하게 부르면서 모두 같은 것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흔히 ‘정문(旌門)’을 받았다’고 할 때의 정문은 원래 정문을 받은 사람이나 후손의 집 대문에 명정문을 게판하는 형태이다.

명정을 받은 이후에 후손이나 지방관청에서 물자를 대어 별도의 정려각을 건립하거나, 비석을 세우고 비각을 마련하면 이를 마을 입구에 세우는데,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말하는 정려문, 정려각, 정려비각이다. 대개 건축물로서 이들 유적은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나, 사실 수차례에 걸쳐 중수, 보수되어 고건축적 의미가 남아 있는 경우가 드물다. 원래의 명정 현판문이 남아 있을 경우 당대의 사적으로서 의미가 전해지지만, 이들 역시 후대에 다시 개판하여 원형을 손상한 경우가 더 많다.

명정 현판문의 형태는 먼저 ① 충신·효자·열녀의 구분, ② 포장을 받는 사람의 신분과 성명, ③ 명정년대의 순으로 기록된다. 예를 들면 효자 김방언 정문(광시면 신흥리)의 경우,

- ① 효자(孝子)
- ② 학생 김방언지문(學生 金邦彦之門)
- ③ 상지칠년계묘오월 일 명정(上之七年癸卯五月 日 命旌)

이라 하여 효자로 학생(신분) 김방언이 1783년(정조 7) 5월에 명정을 받았음을 명기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명정 연대 또는 정려 건립 연대는 적혀있지 않고, 창건 및 중건 연대가 적힌 경우도 있다.

정려의 건립비용은 예조의 입안에 관청에서 재목이나 기와, 목수나 장인들을 지급하라는 지시가 있는 경우도 있고, 후손들이 직접 재물을 모아서 건립하는 경우도 있다. 사례로 보면 가문의 사회적 위세와 정치력이 있는 경우 관청에서 건립을 독려, 내지는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려건립 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대문간에 명정만을 게재하면서 정문으로 있다가, 후일 가문의 후손들이 물자를 모아서 별도의 정려를 건립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려 건물 안에는 명정 현판만이 아니라, 흔히 정려기나 정려 상량문이 걸려 있기도 한다. 내용은 건물의 위치, 건립의 주체인물, 건립의 배경과 건립과정, 건립의 목적과 운영방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려 상량문은 정려각이 세워져 있으면 족보의 지장록(誌狀錄)이나 관련된 인물의 문집 속에서 찾아지기도 한다. 한편 정려 건립에 참여한 사람들의 인명이나 물자와 재원을 마련한 인물들의 명단이 기록된 모연문(募緣文), 의연록(義捐錄), 용하기(用下記 : 지출부) 등도 정려각에 게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남아있는 대부분의 정려는 와가(瓦家)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에는 반드시 정려가 와가로만 이루어졌던 것은 아닌 듯 하다. 영조조에 정려를 받은 양인 전근금의 경우 현재 광시면 미금리에 효자비만 남아 있지만, 과거에 와가가 아닌 초가(草家)의 정려였음이 사진으로 전해진다. 아마 조선시대의 정려건립은 신분이 낮거나 경제력이 미약할 경우 초가의 정려도 많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삼강 포장의 과정을 거쳤다고 하여 모두 정려 건립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급복이나 증직은 받았으나 정려 건립까지는 이루지 못한 사례들도 많다. 그런데 조선이 망하고 일제의 지배하에 들어가면서, 효열 행적이 뛰어났으나 정려건립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이들의 행적이, 전통적인 방식의 포장절차를 거치지 않고 후손들에 의해 정려가 건립된 경우도 있다.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시대의 예조에서 행하던 정려의 포장과 명정을 경학원(經學院) 등에서 행하였다.

앞서 소개한 효행관련 문헌에서 예산군에 건립되었던 효행정려는 실록에서 5건, 『삼강행실도』에서 9건, 『여지도서』 22건, 『충청도읍지』 15건, 『호서읍지』 24건, 『효행동제등록』 23건 등으로 모두 42건이 확인된다. 이 가운데 현전하는 정려(혹은 효행비)는 15건 뿐이다. 나머지 27건의 정려는 과거 예산군지역에 한때 건립되었으나, 후손의 이주나 관리 소홀로 인해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일제강점기에 편찬된 읍지인 『조선환여승람』에서는 예산군 지역에 42기의 정려가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또한



효행정려가 현존하고 있는데도 읍지 등에 실려있지 않은 경우가 5건이나 되었는데, 이들은 대체로 19세기 말에 명정을 받았거나,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정려이다. <표 5>는 예산군의 효행정려에 대한 문헌조사와 현지조사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총 65건(77명)의 효행 정려가 확인되었는데, 이 가운데 34건의 정려가 현존하고 있었다.

예산군의 명정 사례 가운데 이성만 형제, 차명징·경징 형제, 김방언·치화 부자, 신희·박씨 부부, 윤희·풍이, 강만채·만구 형제, 신중영 여아 2인, 장진급·형식 부자, 김상준·현하 부자, 박희적·기택 조손, 이희정·장씨 부부, 최순홍·필현 숙질, 인영원·성주배씨 부부 등은 형제·부자·부부 등이 함께 효행정려를 받고 있다. 특히 이성만 형제의 경우와 같이 형제가 함께 효행정려를 받는 사례에서 예산군은 효만이 아니라 우애가 깊은 고장이었음을 알 수 있다.

예산군 효행정려의 시기별·지역별 분포를 정리한 것이 <표 6>이다.<sup>15)</sup> 시기별 분포는 조선전기의 명정사례가 8건, 17·18세기 27건, 19세기·20세기초 21건이고, 일제강점기에 건립된 정려가 2건이며, 7건은 명정시기가 자세하지 않았다. 지역별 분포는 대흥지역과 예산지역이 각각 16건인데 비해 덕산지역이 30건으로 단연 많은 수를 보이고 있다.<sup>16)</sup> 그러나 예산군 최초의 정려는 대흥지역의 인물인 이성만이었으며, 조선전기에는 주로 예산지역에서 많은 효행사례가 있었다. 덕산지역의 효행사례는 조선전기보다는 조선후기에 집중되어 있다.

본관이 확인된 32건의 정려 가운데에는 한산이씨가 3건으로 가장 많았고, 김해김씨, 밀양박씨, 인동장씨, 평산신씨, 한양조씨 등이 2건이었으며, 그 외 19 성관이 1건씩이었다.<sup>17)</sup> 예산지역 효자의 배출은 특정성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여러 성관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신분적으로도 사인(士人)만이 아니라, 호장(이성만, 방맹), 양인(최망희, 전근금), 서인(백춘복), 사노(윤희·풍이, 이석남), 사비(재개) 등의 정려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호장(향리)인 이성만과 방맹의 정려만 현존하고, 하층민의 정려는 남아 있지 않다.<sup>18)</sup> 조선시대에는 정려에 따른 본인과 후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있었지만, 조선이 망한 일제시대 이후에는 혜택은 사라지고 정려관리가 후손들의 부담으로 작용하다 보니,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는 하층민의 경우에는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무너져 사라졌을 것으로 추측된다.

15) 시기별 분포는 효행자의 생존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고, 명정시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16) 지역의 구분은 오늘날의 예산군이 전통시대의 대흥·덕산·예산 고을이 1914년에 통합된 점을 고려하여, 대흥지역, 덕산지역, 예산지역으로 구분하였다.

17) 정려건립이 1건씩 확인된 성관은 경주김씨·경주이씨·경주최씨·공산정씨·광산김씨·교동인씨·김녕김씨·나주전씨·신천강씨·신평이씨·연안차씨·온양정씨·울산박씨·전주이씨·창녕방씨·청주한씨·청해이씨·탐진최씨·평산박씨 등이다. 효부인 경우는 남편의 성관에 따랐다.

18) 양인 전근금의 경우는 정려는 사라지고, 효자비만 남아 있다.

<표 5> 예산 지역의 효행정려

지역	유형	명정대상	본관	신분	명정 시기	관련문헌								정려 현존 여부	비 고
						실록	삼강 행실도	여지 도서	충청도 읍지	호서 읍지	효행동 계등록	조선환 여승람			
대흥군	효자	李成萬 兄弟		戶長	세종2 (1420)	○	○	○		○		○	○	고려, 효자비, 대흥면 동서리	
대흥군	효자	崔承立	탐진		현종1 (1659)			○		○	○	○	○	광시면 노전리 양지뜸	
대흥군	효자	朴元忠			광해군		○	○		○		○	×		
대흥군	효자	車命徵 · 敬徵 兄弟	연안	士人	영조22 (1746)			○		○	○	○	○	신양면 서계양리 두련리	
대흥군	효자	牟萬重		士人	영조			○		○		○	×		
대흥군	효자	崔望回		良人	영조14 (1748)			○		○			×		
대흥군	효자	田斤金	나주	良人	영조			○		○		●	○	효자비 현존, 광시면 미곡리	
대흥군	효자	金邦彦 · 致和 父子	김녕		정조7 (1783)					○	○	○	○	광시면 신흥리	
대흥군	효자	俞受基								○		○	×		
대흥군	효자	姜師臣			경종3 (1723)						○		×		
대흥군	효부	李道永 母 權 氏			정조7 (1783)						○	○	×		
덕산현	효자	趙克善	한양		현종5 (1664)			○	○	○	○	○	○	학행, 봉산면 시동리	
덕산현	효자	朴承休	밀양		숙종13 (1687)			○	○	○	○	○	○	호란호종, 광시면 신대리 현암	
덕산현	효자	朴承健			숙종29 (1703)			○	○	○	○		×		
덕산현	효자	李甲俊		司果				○	○	○		○	×		
덕산현	효자	申晶	평산	學生	현종10 (1669)			○	○	○	○	○	○	처 박씨와 함께 斷指, 봉산면 대지리	
덕산현	효부	申晶 妻 朴氏	평산		현종10 (1669)			○			○	○	○	봉산면 대지리	
덕산현	효자	楊萬榮		佐郎	숙종32 (1706)			○	○	○	○	○	×		
덕산현	효녀	再介		私婢				○	○	○		○	×	割股, 嘗糞, 3년상.	
덕산현	효자	趙鼎教	한양		고종12 (1875)						○	○	○	봉산면 시동리	
덕산현	효자	金應臣		校生	명종2 (1547)	○							×	3년상	
덕산현	효자	吳命瀟		士人	순조29 (1829)	○							×		
덕산현	효자	吳命熙		士人	순조31 (1831)	○							×		
덕산현	효자	白春福		庶人	광해조		○						×		
덕산현	효자	允熙 · 風伊		私奴	광해조		○						×		

덕산현	효자	李石男		私奴	효종6 (1655)							○		×	
덕산현	효자	全현		진 감 역	현종10 (1669)							○		×	
덕산현	효자	洪啓聖		학생	숙종29 (1703)							○		×	
덕산현		李俊傑 妻 崔氏			1729~ 1736							○		×	
예산현	효자	金勤						○	○	○	○		○	×	
예산현	효자	李開祐(右)			세조10 (1464)	○	○	○	○	○			○	×	李千海 子
예산현	효자	李文卿		直長	명종			○	○	○	○			×	
예산현	효자	朴忠			선조6 (1573)			○	○	○	○		○	×	(만력원년)시묘,朝夕之奠
예산현	효자	方萌	창녕	戶長	중종			○	○	○	○		●	○	예산읍 대회리 삼티공원
예산현	효자	金孟								○	○		○	×	
예산현	효자	朴信興			영조23 (1747)				○	○	○	○	○	○	오가면 원천리, 무신란 *관련고문서 24점 소장
예산현	효부	李尙賓 妻 申氏	한산	進士	현종15 (1674)				○	○	○	○	●	○	대술면 상항리, 남편사후 시부모를 모심
예산현	효자	康萬采 · 萬龜兄弟	신천		1883							○		○	신암면 용궁리 *관련고문서 18점 소장
예산현	효녀	辛仲榮 女兒 2人			숙종39 (1713)							○		×	
예산현	효부	金泰璧 妻 姜氏			1729~ 1736							○		×	
예산현	효부	韓弘祚 妻 禹氏			1739~ 1741							○		×	
공주목 (대흥)	효자	李興甲	전주		1729~ 1736							○		○	효자비, 신양면 차동리
	효자	李尙胄											○	×	
	효자	李世胄											○	×	
	효자	李祥	신평		세종조								○	×	
(덕산)	효자	李奎	청해		고종28 (1890)								○	○	고덕면 사리
(덕산)	효자	朴鐵昶	평산		1893								●	○	고덕면 사리
(덕산)	효자	鄭海悅	공산		1927								○	○	고덕면 상몽리
(덕산)	효자	李禹榮	경주		1905								○	○	고덕면 상장리
(대흥)	효자	張眞汲 · 亨植父子	인동		1868 · 1862								○	○	광시면 신흥리
(예산)	효자	李承瑜	한산		1904								●	○	대술면 방산리 *관련고문서 4점 소장
(덕산)	효자	金義載	경주		1891								○	○	夫婦雙旌, 봉산면 고도리

(덕산)	효자	金相俊 · 顯慶父子	김해		1892								●	○	봉산면 당곡리
(덕산)	효자	李厚植	한산		1905								○	○	봉산면 봉림리 *관련고문서 1점 소장
(덕산)	효자	朴熙績 · 基宅祖孫	밀양		· 1862								○	○	봉산면 고도리
(덕산)	효자	張胤植	인동		1868								○	○	삼교읍 원산리
(예산)	효자	金 鈺	광산		1816								○	○	신암면 중경리
(대흥)	효자	鄭鶴秀	온양		1870								○	○	신양면 시왕리 중불운리
(덕산)	효자	金昌祚	김해		1881								○	○	고덕면 몽곡리
(덕산)	효	李義楨 · 張氏夫婦											○	×	(덕산면 광천리)
(대흥)	효자	崔舜紅 · 弼賢叔姪	경주		1875									○	신양면 서계양리
(예산)	효자	韓慎默	청주		1884									○	대술면 마전리 중삼
(예산)	효자	玄鎮默			1887									○	신암면 별리
(대흥)	효자	朴道漢	울산		1892									○	신양면 황계리
(덕산)	효자 효부	印榮源 · 星州裴氏 夫婦	교동		1927									○	덕산면 낙상리
계		65건 (77명)				5	9	22	15	24	23	42	34		

<표 6> 예산 지역 효행정려의 시기별·지역별 분포

	대흥지역 (대흥면,광시면,신양면,웅봉면)	덕산지역 (덕산면,삼교읍,고덕면,봉산면)	예산지역 (대술면,예산읍,오가면,신암면)	미상	계
조선전기 (15·16세기)	이성만(1420) [1]	김용신(1547) [1]	김근, 이개우(1464), 이문 경(명종), 박충(1573), 방맹 (중종) [5]	이상(세종 ) [1]	8
조선후기 (17·18세기)	최승립(1659), 박원충(광해 군), 차명정·경정 형제 (1746), 모만중(영조), 최망 희(1748), 전근금(영조), 김 방언·치화 부자(1783), 강 사신(1723), 이도영 모 권 씨(1783), 이홍갑(←공주 목, 1729) [10]	조극선(1664), 박승휴 (1687), 박승건(1703), 신호 (1669), 신호 처 박씨 (1669), 양만영(1706), 백춘 복(광해), 윤희·풍이(광 해), 이석남(1655), 전현 (1669), 홍계성(1703), 이준 걸 처 최씨(1729) [12]	박신흥(1747), 이상빈 처 신씨(1674), 신중영 여아 2 인(1713), 김태벽 처 강씨 (1729), 한홍조 처 우씨 (1739) [5]		27
19세기~1910	장진급·형식 부자(1868· 1862), 정학수(1870), 최순 홍·필현 숙질(1875), 박도 한(1892) [4]	조정교(1875), 오명흡 (1829), 오명희(1831), 이규 (1890), 박진창(1893), 이우 영(1905), 김의재(1891), 김 상준·현하 부자(1892), 이 후직(1905), 박희적·기택 조손(·1862), 장윤식 (1868), 김창조(1881) [12]	강만채·만구 형제(1883), 이승유(1904), 김갑(1816), 한신목(1884), 현진목 (1887) [5]		21
일제시기		정해열(1927), 인영원·성 주배씨 부부(1927) [2]			2
미상	유수기 [1]	이갑준, 재개, 이희정·장 씨 부부 [3]	김맹 [1]	이상주, 이세주 [2]	7
계	16	30	16	3	65

## 2) 관련 고문서

효행관련 유적의 실상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적과 관련된 문서와 포장과정에 얽힌 역사를 찾아야 한다. 효행유적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정려의 경우, 정려 포장에 관련된 문서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천장(薦狀) : 유교의 덕목인 삼강(三綱 ; 忠·孝·烈)을 장려하고, 향풍(鄉風)을 바로잡기 위해 모범이 될 만한 인물을 중앙이나 지방 관청에 천거하는 일종의 추천서이다. 이렇게 천거되어야 벼슬이 하사되거나 정려(旌閭) 포장을 받게 된다. 문서의 형태는 상서(上書), 의송(議送), 소지(所志), 등장(等狀) 등으로 다양하며, 흔히 지역 유생들의 연명으로 제출된다. 단계별로는 해당 지방관에게 올리는 향천(鄉薦), 도내 유생들이 연명으로 관찰사[감사]에게 올리는 도천(道薦), 그리고 암행어사에게 올리는 형태가 있다. 만약 이 세차례의 청원에도 불구하고 정려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왕에게 직소하는 격쟁(擊錚)이나 상언(上言)의 경우도 있었다.<sup>19)</sup>

② 예조입안(禮曹立案) : 예조가 관찰사로부터 삼강인물의 행적을 상신받아 처결하는 과정에서 정려를 명하는 문서를 작성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조입안이다. 대개의 경우 이 문서에는 정려를 결정하기까지의 절차와 과정, 추천장을 올린 인물, 승정원과 예조의 담당자(次知), 그리고 정려 건립에 관련된 관의 지원내역 등이 있다<sup>20)</sup>.

③ 효행관련 교지(敎旨) : 교지는 국왕이 신하에게 관직·관작·자격·시호·토지·노비 등을 내려주는 문서이다. 효행에 대한 포상에도 국왕의 교지가 내려졌다. 정려의 건립을 명하는 명정교지만이 아니라, 효행자에게 상직이 주어지는 경우에도 교지가 내려졌으며, 죽은 후에 관직을 추증하는 경우에는 추증교지가 내려졌다. 조선시대의 교지를 대한제국시대에는 칙명이라고 하였다.

④ 완문(完文) 및 절목(節目) : 주로 관청에서 정려 관리나 후손들에 대한 특권을 인정해 주는 문서이다. 대개 문중이나 후손들이 해당기관에 진정이나 청원을 하면 이에 대해 중앙의 예조·병조·호조, 혹은 지방관청에서 완문을 발급해 준다. 이들 완문의 주된 내용은 관청이 이서·향임들의 불법적인 명령이나 세금징수, 신역·잡역·환자 등의 면역을 인정하고 확인해 주는 것이다. 문서의 양식은 시행할 내용이 항목별로 적혀 있고, 문서의 말미에 지방관청의 실무자가 확인하여 서명·날인(수결)한 형태이다.

예산군의 효행에 관한 조사과정에서 실제 후손들이 관련 문서들을 모두 보존한 경우는 그리 많지 않았다. 예산지역의 효행조사에서 관련문서가 확인된 사례는 박사문·박신흥 조손(祖孫)의 관련 고문서(1747년 명정), 강만채·강만구 형제의 관련 고문서(1883년 명정), 이승유(1904년 명정)와 이후직(1905년 명정)의 관련 고문서 등이다.

먼저 박사문·박신흥 조손(祖孫)의 관련 고문서로는 모두 24건이 확인되었다. 이를 내용별로 보면 정려를 청하는 상서가 6건(수령에게 올린 상서 3건,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3건), 교지가 10건, 완문 1건, 정려를 받은 후 후손들이 명정에 따른 복호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이를 진정하는 소지가 7건(수령에게 올린 상서 4건, 관찰사에게 올린 상서 1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1건, 기타 1건) 등이다. 강만채·강만구의 효자관련 문서는 모두 18건으로 정려를 청하는 상서가 15건(수령에게 올린 상서 6건, 순상에게 올린 상서 5건, 암행어사에게 올린 상서 3건, 기타 1건), 예조의 입안 1건, 교지 2건 등이다. 이승유 관련 문서는 상서 2건, 칙명 1건이며, 이후직 관련 고문서는 상서 1건 등이다.(표6 참조)

한편 김상준·김현하 부자(1892년 명정)와 전근금(1741년 명정)·박도한(1892년 명정)

19) 조선후기 선비와 서리들이 꼭 알아두어야 할 공문서 작성의 편람인 『儒胥必知』에는 冒頭에 士林上言으로 「효자정려」, 「충신정려」, 「열녀정려」, 「효자증직」, 「충신증직」, 「학행증직」이 실려 있고, 子孫上言으로 「자손이 하는 선조의 효행정려를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선조의 충신정려를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선대의 열녀정문을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효행증직을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충절증직을 위한 상언」, 「자손이 하는 학행증직을 위한 상언」 등이 실려 있다. 『儒胥必知』는 한말 갑오경장때까지 관청과 민간에서 널리 사용되었던 이른바 吏胥體文章인 이두로 쓰여진 공문서식이다. 편자는 알 수 없고, 편찬연대는 「대전통편」이 나온 1785년(정조 9) 이후에 이조에서 공문서식 예규집으로 편찬된 것으로 추측된다.

20) 정려 건립에 필요한 물자와 장인들을 관청에서 지급하라는 구체적인 세부사항 등.

의 경우는 명정과 관련된 예조입안이 고문서의 형태로 남아 있지는 않지만, 김상준·김현하 부자의 예조입안은 정려 내부에 게판되어 있으며(「禮曹立案略」), 전근금의 예조입안은 서책중에 수록되어 있고, 박도한의 예조입안(광서 18년 5월)은 족보에 그 내용이 실려 있다.

<표 7> 예산군의 효행관련 고문서 현황

No	종류	연대	발수급	내용	비고
1	상서	신묘(1711) 2월	(후손)→승監主	선조 박사문의 충신 정문을 청	
2	등장	(1711)	박여홍박만홍박신흥 박신흥(후손) →검순찰사	증조부 박사문의 충신 정문을 청	
3	상서	을축(1745) 3월	유학강시제등(유생) →성주	박신흥의 효자정려 청	17명 연서
4	상서	을축(1745) 5월	유생(?)→순상	박신흥의 효자정려 청	35명 연서
5	등장	미상	예산거민 배필위 →성주?	박신흥의 효자정려 청	어렸을 때 효동, 비록 늙었으나 효동이라 칭
6	등장	정묘(1747) 1월	유학 정석하 등(유생) →순사도주	박신흥의 효자정려 청	38명 연서
7	진정서	미상	吾元面內泉居朴汝仲 春半等→官司主	완문의 성급을 청	박신흥의 증손
8	진정서	기축(1769) 9월	박여중 춘반 등 →관사주	완문의 성급을 청	
9	진정서	기축(1769) 11월	박승록, 박가방마리, 박대길 등 →어사	완문의 성급을 청	고조부(고손)
10	진정서	임술(1802) 10월	박계동 등(5대조 신 홍)→원중 침원	명정물침지은전을 받았다는 것 알림	
11	진정서	정해(1827) 10월	(후손)→성주	완문의 성급을 청	박신흥(7대조), 6명 연서
12	진정서	신묘(1831) 7월	박하열 등(후손) →성주	완문의 성급을 청	박사명(9대조), 박신흥(7대조), 4명 연서
13	진정서	임진(1832) 3월	박하열 등(후손) →순상	완문의 성급을 청	박사명(9대조), 박신흥(7대조), 4명 연서
14	교지	강희47년(1708) 10월	→박신흥	절충장군	납속
15	교지	건륭19(1754)4월 4일	→박신흥	가선대부	年九十八?
16	교지	건륭19년(1754) 12월 28일	→박신흥	가선대부행용양위부호군	
17	교지	건륭21년(1756) 8월 15일	→박신흥	통정대부	年八十一加上
18	교지	건륭22년(1757) 1월	→박신흥	가의대부동지중추부사	
19	교지	건륭22년(1757) 1월	→숙부인 김씨	정부인에 증직	박신흥 처
20	교지	건륭22년(1757) 1월	→통덕랑 박덕진	가의대부 한성부좌윤 증직	박신흥 考
21	교지	건륭22년(1757) 1월	→유인 편씨	정부인에 증직	박신흥 妣
22	교지	건륭22년(1757) 1월	→절충장군행용양위부호군박용석	통정대부장예원판결사에 증직	박신흥 祖考
23	교지	건륭22년(1757) 1월	→학생박사문	통훈대부군자감정에 증직	박신흥 曾祖考
24	완문	건륭15년(1750)	→(박신흥 후손)	박신흥 후손의 혜택	

25	상서	신유(1741) 10월	→성주(예산현감)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73명 연서
26	상서	무진(1808) 2월	→성주(예산현감)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35명 연서
27	상서	무진(1808) 2월	→순상(충청도관찰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99명 연서
28	상서	임인(1842)	→숙의(암행어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31명 연서
29	상서	정사(1857) 10월	→성주(예산현감)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61명 연서
30	상서	정사(1857) 10월	→숙의(암행어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60명 연서
31	상서	정사(1857) 11월	→순상(충청도관찰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103명 연서
32	상서	갑자(1864) 3월	→성주(예산현감)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50명 연서
33	상서	갑자(1864) 3월	→순상(충청도관찰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50명 연서
34	상서	기사(1869) 3월	→순상(충청도관찰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60명 연서
35	상서	임신(1872) 11월	→성주(예산현감)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38명 연서
36	상서	미상	→성주(예산현감)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44명 연서
37	상서	을묘 정월	→순상(충청도관찰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약 84명 연서
38	상서	병?	→숙의(암행어사)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62명 연서
39	상서	신사 12월	→二天?	강만채 강만구효자정려 청	22명 연서
40	입안	광서 9년(1883) 9월	→예조	강만채 강만구에게 효자 정려를 내려주는 내용	
41	교지	광서 18년(1892) 4월	→學生 康萬采	童蒙敎官朝奉大夫 贈職	孝行卓異
42	교지	광서 18년(1892) 4월	→孺人	승인에 증직	강만채 처
43	상서	무신(1848) 12월	→성주	이승유의 효행정려 청	83명 연서
44	상서	기유(1849) 3월	→순상	이승유의 효행정려 청	83명 연서
45	상서	광무 8년(1904) 9월	→장예원	이승유의 효행정려 청	유학 홍대주, 이규청, 유득준 등
46	勅命	광무 8년(1904) 9월 30일	→故學生李承瑜	九品從仕郎中學校敎官 贈職	孝行卓異
47	상서	광무 9년 6월	→禮式院掌禮卿	이후직의 효행정려 청	

### 3) 기타

이 밖에 효행인물의 관련 묘소도 유적지라 할 수 있다. 특히 시묘를 했던 묘소에는 주위에 일화와 관련된 유적지가 종종 남아 있다. 예컨대 차명징·경정의 경우, 관련 유허지로 효자천, 시묘터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삼강의 행적이 널리 알려진 인물의 묘비석이나 행적비, 신도비 같은 비석자료도 있다. 이들 비석 자료는 상세한 행적과 포장의 과정, 관련 인사들의 관계가 정리된 경우가 많아서 귀중한 참고자료가 된다.

한편 정려나 정문 이외에 마을을 효자나 열려마루로 부르거나 하면서 비석을 세우는 경우도 많다. 사실 조선전기에는 정려보다는 비석이 더 일반적이었으며, 대개 ‘효가리’ ‘효자동’ 등으로 자연석에 새기고 그러한 연유를 기록한 경우가 많다. 야곡 조극선의 경우에는 효행 일화와 관련된 지명이 곳곳에 남아 있다.



## 5. 맺음말 : 예산군 효행사례의 성격과 제언

이상 문헌을 통해 본 예산군 효행사례현황 및 현존하는 효행관련 유적과 유물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발표문은 예산군의 효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중간점검의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아직 예산군 효행사례의 구체적인 특성분석에는 미흡한 점이 남아 있다. 더군다나 타 지역의 본격적인 사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의 특징을 추출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 나름대로 예산군 효행사례의 몇 가지 특징을 추출하고, 이에 따른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예산군에서는 많은 효행자들이 배출되었는데, 특히 국가의 포장사례 가운데 최고의 포장인 명정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65건이나 확인되었다. 이들 효행정려의 시기별·지역별 분포를 보면, 최초의 명정사례는 대흥지역의 이성만이지만, 조선전기의 명정은 예산지역에 많았고, 조선후기에는 덕산지역이 압도적인 다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예산군의 효행정려는 특정가문에 치중된 것이 아니고, 여러 성관에 고른 분포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이성만 형제의 경우와 같이 한 집안에서 형제·부자·부부가 함께 명정 받은 사례가 많았다. 이는 예산군의 효행은 효만이 아니라, 우애가 함께 따르는 ‘효우’의 개념이 강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신분상으로는 사족만이 아니라, 향리나 양인·천민의 효행사례도 다수 보이고 있다. 이성만 형제도 조선시대 향리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여말의 호장신분이었고, 향리 방맹, 서인 백춘복, 양인 최망희, 양인 전근금, 사노 윤희·풍이, 사비 재개, 사노 이석남 등이 있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상민(常民)이나 노비의 경우에는 명정되었어도 현재 정려가 남아 있지 않다(전근금의 효자비만 현존). 이는 예산군의 역사에서 앞으로 찾아볼 만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또한 전근금의 효자정려는 1800년대에 세워졌던 초가 정려 사진이 남아 있음을 확인 하였다. 오늘날의 정려는 모두 와가로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다양성을 살려 초가정려를 세우는 것도 의미가 있을 듯 하다.

효행정려와 관련된 현지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고문서를 발굴할 수 있었다. 특히 박사문·박신흥 조손, 강만채·강만구형제와 관련된 일괄문서가 남아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문서의 보존상태는 그다지 양호하지 못하다. 관리 소홀로 자료들이 없어지기 전에 이에 대한 체계적인 수집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현존 정려의 지역적 분포를 고려할 경우, 예산군의 효행정려 관련 사업은 봉산·고덕지역, 대흥·광시지역, 대술지역 등으로 구획하여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sup>21)</sup>

21) 이에 대해서는 「예산군 효행사례의 활용방안」(오석민 발표)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 제 2 주제

대 흥 이성 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윤 용 혁

(공주대학교 교수)



#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비

윤 용 혁(공주대학교 교수)

머리말	2) 이성만 형제의 우애
1. 이성만 형제의 인물	3. 이성만 형제 우애의 현장
1) 이성만 형제의 이름	1) 이성만 형제 우애비
2) 이성만 형제의 시대	2) 효행과 우애의 현장
3) 이성만 형제의 신분	4. 이성만 형제 우애비의 가치
2. 이성만 형제의 행적	맺는말
1) 이성만 형제의 효행	

## 머 리 말

예산군은 군정의 중점사업으로 ‘효운동’을 수 년에 걸쳐 중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예산을 특별히 ‘효향’으로서 강조할 수 있는 근거의 중요한 이유 하나는 바로 대흥면에서의 이성만 형제의 효행 때문이라 할 수 있다.<sup>1)</sup> 대흥 이성만 형제는 고려말 조선초 대흥출신의 유명한 효자이다. 그러나 이들 형제가 특별히 오늘 우리의 시대에 관심을 끄는 것은, 이들의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과 함께 특별하였던 형제 우애의 사실이 기록과 구전의 형태로 오늘에까지 전하기 때문이다. 한밤중에 벼단을 서로 지고 나르던 초등학교 교과서에서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이 이성만 형제의 우애라고 하는 사실은 지역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일이다.

이성만 형제의 효성과 우애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하여 조선조의 각종 자료와 읍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의 효행과 우애를 기리는 비석이 지금도 대흥면 동서리 대흥현 관아의 앞에 위치하고 있다. 「예산 이성만 형제 효제비」라는

1) 이성만 형제의 효행을 근거로 예산이 효를 강조한 것처럼, 공주의 경우도 시정의 중점 사업의 하나로 ‘효의 고장 공주’를 강조하여 왔다. 공주의 경우 ‘효향’으로서의 근거는 8세기 신라시대의 효자 向德에서부터 비롯된다. 향덕은 부모 봉양을 위해 허벅지 살을 베어 유명한 사실이 기록에 전하며 당시 경주의 경덕왕으로부터 정문 건립을 비롯한 특별한 경제적 포상을 받았다. 향덕 및 공주지방의 효행에 대한 역사적 고찰에 대해서는 윤용혁의 논문 「신라효자 향덕과 그 유적」(『백제문화』 11, 1978, 공주대학교 백제문화연구소)과 「공주지방의 효행사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효의 사상과 예술』 1997, 한국예총 공주지부)이 있다.

이름으로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102호로 지정되어 있는 비석이 그것이다.<sup>2)</sup> 이성만 형제의 우애는 금석문 자료에 의해서도 입증되고 있어서, 지역에 있어서 대단히 큰 자긍심을 가질만한 자료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성만 형제비의 중요성에 비하여 이에 대한 치밀한 연구와 고증은 지금까지 거의 이루어진 바가 없다. 이 때문에 비석에 새겨진 문자의 정확한 판독은 말할 것도 없고, 판독된 석문 자료의 경우도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이성만 형제의 인물과 행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은 물론, 심지어는 주인공인 이성만 형제의 정확한 이름마저 각양으로 달리 기재하고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

최근 예산군과 지역민들의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따라 조형물의 조성, 혹은 ‘효도와 우애의 공원’과 같은 시설물 조영이 모색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업에 앞서서, 우선 이성만 형제의 효행이나 그 성격 등을 정확히 파악하는 기초적인 작업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의 내용을 문헌과 비석문 및 구전에 의하여 종합 정리하고, 아울러 우애비의 가치 등을 정리하고자 한다.

## 1. 이성만 형제의 인물

### 1) 이성만 형제의 이름

이성만 형제의 이름과 행적이 오늘까지 기록으로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이들 형제의 특별한 효행 때문이다. 이들 형제의 효행이 어떤 것이었나를 먼저 정리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성만 형제의 효행에 대한 정리에 앞서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이들 형제의 정확한 이름이다. 즉 이성만의 동생에 대해서는 그 이름이 여러 가지 표기상의 차이가 노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형인 이성만에 대해서는, 한자 표기가 ‘李成萬’ ‘李成万’의 두가지가 있다. 조선조의 각종 기록에는 ‘李成萬’으로 되어 있으나, 우애비에는 ‘李成万’으로 새겨져 있는 것이다. 그러나 ‘万’이 ‘萬’의 俗字라는 점에서, 이를 ‘李成萬’으로 통일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성만의 동생이다. 이성만의 동생의 이름에 대해서는 『신증동국여지승람』 『東國三綱行實圖』 등에 ‘李淳’이라 하였지만, 정작 이성만형제 우애비에는 ‘李順’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 하면 이 우애비를 탁본과 함께 본격적으로 釋文한 책에서는 이성만의 동생명을 ‘李順木’으로 판독하였다.<sup>3)</sup> 이 때문에 지금까지 간행된 여러 안

2) 이성만 형제비에 대하여 ‘孝悌碑’라는 명칭은 정확한 것이기는 하지만 매우 어려운 용어이다. 가령 『예산의 맥』에서는 이 비를 ‘孝祭碑’로 오기하고 있다. 이 때문에 필자는 이 비석의 명칭을 ‘효제비’보다는 일반인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우애비’라는 이름으로 사용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편의상 ‘이성만형제 우애비’ 혹은 ‘우애비’라는 이름으로 칭하고자 한다.

내문과 책에서는 동생의 이름이 각양으로 표시되고 있어서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그 단적인 예로 근년 간행된 『예산군지』에서는 같은 책 안에서도 ‘이순’ 혹은 ‘이순목’ 등으로 다르게 기록하고 있다.<sup>4)</sup> 최근에 우애비 앞에 세운 안내판에는 동생의 이름을 ‘이순만(李順萬)’이라는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작명하고 있다. 따라서 동생의 이름에 대해서 이들 상이한 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차제에 이를 ‘결정’하고 통일함으로써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우선 위에서 언급한 이성만의 동생 이름 3종 중 이성만 우애비에서의 ‘李順木’은 ‘李順等’의 착오임을 먼저 밝히고 싶다. 즉 우애비에 새겨진 이성만 동생의 이름은 ‘이순목’이 아닌 ‘李順’이라는 것이다.<sup>5)</sup> 따라서 우애비에 나오는 ‘李順’과 『동국여지승람』이나 『동국삼강행실도』의 ‘李淳’중 어느 쪽을 취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를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이와 관련 『세종실록』의 관련 기록중 ‘이순’의 한자명이 ‘李順’으로 등장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大興戶長 李成萬 與其弟順” 혹은 “李成萬 李順”이라 한 기록이 그것이다.<sup>6)</sup>

이성만의 동생을 ‘李順’이라 한 『세종실록』의 기록은, 문헌자료상 가장 오랜, 최초의 기록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것은 대흥 현지에서 세운 우애비에서의 기록과도 일치한다. 따라서 이성만의 동생 이순의 한자명은 ‘李順’으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 2) 이성만 형제의 시대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성만 형제가 어느 시대에 대흥에서 살았던 인물이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동국여지승람』을 비롯한 각종 읍지류의 기록에는 모두 ‘고려’의 인물로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이성만형제 우애비의 문화재안내문에는 이들 형제가 ‘고려초 효자’로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과연 그가 고려시대의 인물인지에 대해서는 얼른 확정할 수가 없다.

우선 대흥 소재 이성만형제 우애비의 건립 시기는 ‘弘治 10년 2월’, 즉 연산군 3년(1497) 때의 일이다. 그리고 비문에 의하면 그들의 효행이 조정에 알려진 것은 영락 16년 11월 즉 세종 즉위년(1418) 知申事 河演의 보고에 의한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형제

3)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금석문편)』 pp.231-233. 이 금석문편의 정리는 충남지역 금석문자료에 대한 본격적인 정리이며 탁본과 판독 및 번역을 동시에 수록하고 있어서 대단히 유익한 정리이다. 본고 작성시에도 이 책에 수록된 이성만형제 우애비의 탁본을 활용하였는데, 모호한 글자의 판독을 위하여 이 비석에 대한 탁본을 다시 떠보았으나 근년 마모가 더 진행되어 여기에 제시한 탁본자료보다 선명하지 않았다.

4) 금석문편에서는 ‘이순목’으로, 인물편에서는 ‘이순’으로 기재하고 있다. (예산군 『예산군지』 2000) 이성만 동생의 이름 표기에 대한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서는 지역신문인 『무한신문』에서도 지적된 바 있다.

5) 이성만 우애비의 판독은 기본적으로 『예산군지』(1987)와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1993)의 것을 참고하면서, 차제에 이를 재검토하여 약간 수정된 것을 본고에 수록한다.

6) 『세종실록』 7, 세종 2년 정월 경신

에 대한 세종의 포상은 세종 2년(1420) 정월에 이루어졌다. 세종 즉위 직후 전국에 교서를 내려 효자, 節婦, 順孫을 찾아 보고하도록 하였고, 그 결과 수 백명이 보고 되었는데, 그중 왕과 좌, 우의정이 함께한 서류 심사를 통하여 41인이 선발되었던 것이다.<sup>7)</sup>

효자 등에 대한 포상은 조선의 건국 초기부터 조치되었으나, 세종대에는 특히 많은 인물이 여러 차례 선발되어 포상되었다.<sup>8)</sup> 1418년 8월 세종이 즉위한 직후인 11월 5일, 지신사 하연이 1차 포상 대상자를 보고한 것을 보면, 당시의 포상은 세종의 즉위를 기념하여 민심의 수습책으로 이루어졌던 것 같다.

이성만 형제에 대한 당시의 포상이 그의 생존시에 이루어진 것이었다고 한다면, 이성만 형제는 고려 말에 태어나 조선 초에 살았던 인물이 된다. 이성만 형제의 생존 여부와 관련하여 세종 초 그와 함께 포상되었던 인물들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세종 2년 이성만 형제와 함께 포상된 인물은 도합 41인으로 그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성만 형제를 포함하여 이를 순서대로 열거한다.

李成萬 · 李順 (大興 戶長)

林上左(海美 船軍)

朴 粦(유)

金 閔 (仁同)

沈 氏 (珍原 學生 李格의 妻)

高 氏 (公州居住 현감 鄭自丘의 처)

耿(경)氏(沔川 少監 沈仁富의 처)

召史 (瑞山 私奴 莫金의 처) 나이 54세

許氏 (連山 及第 金問의 妻)

徐氏 (大丘 郎將 金穰(내)의 처) 나이 48세

藥加伊(善山 船軍 趙乙生の 처)

佛非 (學生 金구의 처)

金氏 (咸昌 前 權務 朴希俊의 처) 나이 47세

鄭氏 (永川 郎將 李鮮의 처)

吳氏 (迎日 典提控 李登의 처)

裴氏 (金海 前 錄事 尹弘道の 처)

石氏 (宜寧 學生 沈致의 처)

韓氏 (陝川 前 長興庫 副使 張友良의 처)

7) 『세종실록』 7, 세종 2년 정월 경신

8)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효자 열녀 등에 대한 포상은 태조 원년(1392) 7월 공식 천명된 이후 태조대 19명, 정종대 2명, 태종대 39명이었으나, 세종대 이르러 240명이 포창되었으며 그중 145명이 효자였다. 박주에 의하면 실록에 나타난 태조-숙종년간 포창자의 총 수는 2,597명에 이른다. 박주 「중앙집권체제의 강화와 정표정책」,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일조각, 1990, pp.15-29 참조.



召史 (全州 記官 李瓊의 처)  
 劉氏 (井邑 散員 陳慶의 처) 생존  
 韓氏 (錦山 副正 林英順의 처) 61세  
 召史 (前 散員 李益의 처) 67세  
 朴씨 (光州 別將 洪璵의 처) 51세  
 羅氏 (羅州 翰林 趙탁의 처)  
 林氏 (泰仁 前 司正 朴造의 처)  
 文邦貴 (濟州 前 注簿)

權 景 (서울 남부 거주 前 正)  
 全思禮 (中部 거주 幼學)  
 林 暮 (公州 前 判撫山縣事)  
 兪仁奉 (舒川)  
 林 雨 (海美 前 別將)  
 鄭孝新 (幼學)  
 沈 腆 (安陰 散員)  
 田益修 (善山 學生)  
 申孝良 (咸昌 幼學)  
 申孝溫 (幼學)  
 金生禹 (務安 生員)  
 鄭安義 (海美 幼學)  
 姜用珍 (晉州 前 郎將)  
 鄭 坤 (金堤 前 交授官)  
 崔保民 (光州 生員)

위에 열거한 인물중 앞쪽은 대체로 旌門 건립 및 요역 면제의 포창이고 뒤쪽은 관직 제수에 의한 포상이다. 그리고 그중에는 당시의 나이를 기재한 경우도 있는데, 요역의 면제 및 관직 제수의 포상에서 볼 때 이는 모두 생존 인물에 대한 포상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성만 형제 역시 포상 당시 생존해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이성만 형제 우애비의 비문 중에는 “효자 대흥호장 이성만과 이순 등을 왕이 불러들였다(孝子 大興戶長 李成萬 李順等 王召內)”고 새겨져 있다. 『세종실록』에는 이러한 기록이 보이지 않지만, 세종 초 대흥호장 이성만 형제는 생존해 있었던 것이다.

대흥호장 이성만 형제가 세종 초 생존인물이라는 점은 확실한 것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몇가지 유의되는 점이 있다. 첫째는 대흥 이성만 형제가 효행에 대한 포상으로 마을에 정문이 건립되고 집안의 요역을 면제받는 경우였다는 점이다. 정문 건립과 요역 면제는 당시 거의 여성의 경우였고, 남성의 경우 이성만 형제와 제주의

문방귀를 제외한 전원이 관직 제수를 받는 케이스였다. 따라서 대흥 이성만 형제와 제주 문방귀만이 관직 제수 대신 정문건립 요역면제의 포상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일까 궁금해진다. 둘째는 다른 인물들이 거의 ‘학생’이나 ‘유학’ 혹은 관직명 등을 칭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성만 형제만이 ‘호장’이라는 명칭이 칭해지고 있음도 주목된다. 셋째는 41인의 등장 인물중 이성만 형제가 가장 먼저 언급되고 있는 점이다.

이성만이 ‘대흥호장’으로 언급된 ‘호장’은 아무래도 고려조에 그가 가지고 있었던 직책이었다고 보아진다. 그가 세종조 포상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고 그 행적이 장황하게 설명되는데도 다른 남성 포상자와는 달리 관직 제수에서 제외되고 여성과 함께 정문건립 집안에 대한 요역면제의 포상이 이루어진 것은 이성만 형제가 다른 이보다 훨씬 연로한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일단 이성만 형제의 생존 시기를 고려말 조선초, 14세기 후반에서 15세기 초까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만일 이성만이 70수를 하였고, 포상이 행해진 세종 2년으로부터 3년을 더 살았다고 가정한다면(세종 5년) 그의 생몰년은 1364-1423이 된다. 이러한 가정에 의한 그의 생년 1364년은 고려 공민왕 13년이고, 조선왕조의 건국(1392)시 그의 나이 29세가 된다. 대략 이같은 계산이라면 이성만 형제를 고려조의 인물로 포함시키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 요컨대, 효자 이성만은 고려말인 14세기 후반에 출생하여 15세기 조선 초까지 생존한 인물이라고 단정할 수 있다. 좀더 주관적인 억측을 더한다면 대략 고려 공민왕대에 출생하여 조선 세종조까지 생존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 3) 이성만 형제의 신분

이성만 형제의 인물과 관련하여 이들이 어떤 신분, 어떤 처지에 있었던 인물이었을가에 대하여 마지막으로 생각해보고자 한다. 14, 5세기에 지방의 농촌에 거주한 인물이라고 하면 일단은 평범한 양인 신분의 농민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성만 형제에 대해서는 기록에 ‘대흥 호장’이라는 신분이 명시되어 있다. 『세종실록지리지』 충청도 대흥현조에서도 “土姓 三 李韓白”이라 하여 조선 초까지 이씨는 한씨, 백씨와 더불어 대흥의 가장 대표적인 토착 성씨였음을 알 수 있다.<sup>9)</sup> 여기에서의 이씨가 바로 이성만의 집안인 것이다. 현재로서 이성만의 본관이나 족보상의 계보 등은 확인되고 있지 않는데, 아마도 대흥을 본관으로 하는 이씨였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sup>10)</sup>

‘대흥호장’이라고 한다면, 당시 이성만 형제가 대흥현에서 비교적 유력한 지주층의 인

9) ‘土姓’은 고려 이래 성씨 관계의 ‘古籍’에 기재되어 있는 성씨로서, 현지에 토착하면서 지배적인 위치에 있던 유력한 씨족을 말한다. 그 기원은 고려 태조 23년 경의 군현별 토성의 分定에서 비롯되었으며, 각 읍마다 성씨록이 작성 비치되어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이수건 「토성의 형성과 내부구조」 『한국중세사학회연구』 일조각, 1984, pp.34-35 참조.

10) 토성의 경우 현지의 군현을 본관으로 하는 예도 많았다. 가령 이씨와 함께 대흥의 유력한 토성으로 기재된 한씨 역시 대흥을 본관으로 하고 있었으며, 고려초부터 중앙 관직에 진출, 12세기에는 韓維忠(평장사), 韓文俊(평장사)과 같은 고위 관직자를 배출하고 있다.

물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호장은 고려 초기 호족에서부터 출발한다. 신라 말 고려초에 각 지방은 유력한 재지 세력이 등장하여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대흥의 경우 역시 백제 임존성의 전통을 이은 지역으로서, 또 고려 초의 통일전쟁에서 대규모의 전쟁이 야기된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흥에 상당한 세력의 재지 호족세력이 존재하였으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들 재지 호족은 고려의 통일과 중앙집권화 정책의 진전에 의하여 중앙권력에 편입되고 유력한 이들은 중앙으로부터 향직을 제수 받아 세습하게 된다. 그 향직중 가장 높은 최고위직이 바로 ‘호장’이다. 따라서 이성만 형제가 대흥의 호장이었다는 사실은 그 선대가 대흥지역의 유력한 인물이었으며 고려조 대대로 대흥의 행정 등에 간여하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였던 집안이라는 사실을 말해준다. 고려 말 조선초에 이르면 물론 이같은 지방사회에서의 호장의 권력과 지위가 많이 약화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대흥지방에서 이성만 형제는 여전히 유력한 집안의 하나로 인정받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15세기 태조-성종년간에 포창된 효자녀 300명중 향리급 이하의 군인, 평민, 노비가 도합 12%(20명)에 불과하다는 점도 당시 정부의 포창이 일정 이상의 신분층에 집중되어 있었던 사정을 전하고 있다.<sup>11)</sup> 이점에서 이성만 형제가 평범한 농촌의 평민 신분이 아니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성만 형제가 대흥의 유력한 호장이었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경제적 사정이 어떠하였을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성만 형제 선대의 경우 대흥의 유력한 재지세력으로서 일정한 지방사회에서의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당한 재력을 두루 갖추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해석일 것이다.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의 후퇴와 함께 고려말 조선초 이성만 형제의 경제적 형편도 이에 따라 훨씬 후퇴된 상태였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그러나 여전히 토지와 노비와 어느정도의 부를 갖춘, 상대적 기준에서 여유 있는 집안이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이성만의 효행과 관련하여 『세종실록』 등에서는 이들 형제가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를 봉양하였을 뿐만 아니라 “매양 봄 가을에는 酒食을 갖추어 부모의 사랑하는 친구를 맞아 잔치를 베풀으로써 그 마음을 즐겁게 하였다”<sup>12)</sup>고 한다. 당시의 농촌 실정에서 봄 가을로 부모의 친지들을 모아 잔치를 베풀다는 것은, 효성이 아무리 지극하더라도 웬만한 경제적 여유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대부분의 ‘효자’가 병든 부모를 정성으로 치병하는 사례, 혹은 부모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등의 사례인데 비하여,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경제적인 뒷받침 없이는 불가능한 매우 드문 효행사례라는 점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이성만 형제는 당시 대흥에서 농사를 업으로하는 ‘농민’이었겠지만, 그들이 단순하고 평범한 농민은 아니었다. 적어도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당시 대흥에서는 꽤나 높은 집안이었다. 조선시대 자료인 『동국삼강행실도』에서 이성만 형제를 그리면서 의관을 제대로 갖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데, 사실적인 것은 아니지만 이점에서 참고할만한 점이 있다

11) 박주, 앞의 『조선시대의 정표정책』 pp.59-65. 이에 의하면 300명의 효자녀 포상자중 문무반이 46%(89명), 생원·진사 등 예비관료층이 32%(62명) 등으로 상위신분이 거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다. 호장을 포함하는 향리층 등은 10%(20명)의 비중이다.

12) 『세종실록』 7, 세종 2년 정월 경신

고 생각된다. 다만 사회적 혹은 경제적으로 선대에 비하여 이들 형제의 형편이 다소 약화된 점은 있었을 법하다.

## 2. 이성만 형제의 행적

### 1) 이성만 형제의 효행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역사에 남게 된 것은 그들의 우애 때문이라기보다는, 효행 때문이었다. 이 점에서 우선 이성만 형제의 효행에 대하여 먼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성만 형제의 효행에 대한 옛 문헌에서의 기록을 먼저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 ■ 『세종실록』 (세종2년 정월 경신)

대흥 호장 이성만은 그 아우 順과 더불어 부모를 잘 섬겨 마음을 다하여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매양 봄 가을에는 술과 음식을 갖추어 부모의 아끼는 친구들을 모시고 잔치를 베풀어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하였다. 돌아가신 뒤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 (大興戶長 李成萬 與其弟順 事父母 盡心 甘旨奉養 每春秋 具酒食 致父母所愛親舊宴樂 以悅其心 及沒兄守母墳 弟守父墳)

#### ■ 대흥 이성만 형제 우애비 (연산군 3년, 1497)

충청도 대흥호장 이성만과 李順 등은 부모가 살아계실 때는 맛있는 음식으로 봉양하고 봄가을에는 맛있는 음식으로 부모님이 아끼는 친척으로 함께하여 그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렸다. 돌아가신 뒤에는 형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무덤을 지켰다. (忠淸道 大興戶長 李成萬李順等 父母生時 甘旨奉養 春秋滋饌 父母所愛親戚 以悅其心 及沒兄守母墳 弟守父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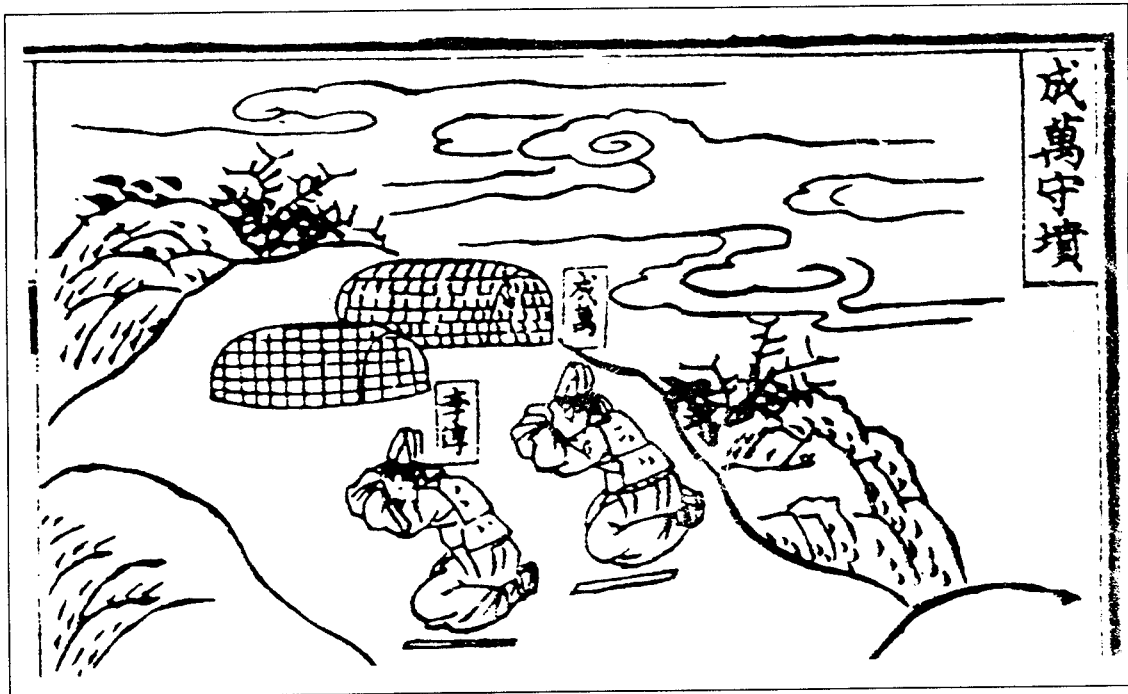
####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0, 충청도 대흥현 인물)

이성만과 동생 淳은 모두 효성이 지극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성만은 어머니의 무덤을 지키고 淳은 아버지의 무덤을 지켜 각기 애통과 敬謹하기를 다하여 3년의 喪期를 마쳤다.

위의 기록에는 이성만 형제의 효행이 두 가지로 크게 정리되어 있다. 즉 부모님 생전에는 부모의 친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守墳’ 즉 부모의 산소를 지키는 廬墓를 행했다는 것이다. 부모 사후 부모의 묘소를 지키는 여묘는 조선시대라면 ‘효자’의 필수과목이라 할

만큼 일반화된 행위이다. 여묘는 묘소 옆에 초막을 짓고 일정기간(보통 3년의 喪期)을 슬퍼하며 지내는 것인데 그 기간동안 사회생활을 중단하는 것이어서 쉬운 일은 아니었다. 이성만 형제의 守墳은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3년의 喪期동안 행해진 전형적인 廬墓의 사례였다. 『동국삼강행실도』는 전통윤리의 대표적 사례를 모아 그림으로 정리한 조선시대의 흥미있는 자료인데, 여기에 이성만 형제의 행적이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다. 비록 당대의 것이 아니고 다분히 도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 이성만 형제의 인물과 행적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라는 점에서 매우 흥미있는 자료이다.

(그림) 부모 묘소를 모시고 있는 이성만 형제(『동국삼강행실도』)



이 그림에는 이성만 이순 두 형제의 모습이 그림으로 묘사되어 있고, 이들이 3년상 기간중 부모묘소에서 정성들여 여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그런데 앞에 언급한 부모 친지에 대한 잔치는 ‘효행’의 사례로서는 거의 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사례이다. 고려 조선조에 있어서의 일반적인 효행의 유형은 여묘 이외에 부모 看病이 있다. 간병의 방법으로 허벅지 살을 베어 봉양하거나, 손가락을 자르거나, 환자 상태의 진단을 위하여 대변의 맛을 보거나, 난치병을 기도로 치유하는 사례들이다. 간병 이외에는 전란시에 부모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던진 사례, 부모 원수에 대한 복수 등이 있다.<sup>13)</sup> 이러한 유형에 비추어 볼 때 대흥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고려 혹은 조선시대

13) 이희덕 「유교정치 이념의 성립과 효사상의 전개」 및 「유교의 실천윤리」 『고려 유교정치사상의 연구』 일조각, 1984  
윤용혁 「공주지방의 효행사례에 대한 역사적 고찰」 『효의 사상과 예술』 한국예총 공주지부, 1997

다른 이의 효행사례와는 그 유형이 크게 다르다는 점을 우선 주목하게 된다.

부모 생전 부모의 친지들을 춘추로 초대하여 잔치를 베푼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주목된다. 첫째 전통적인 ‘효행’의 일반적 유형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극히 이례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이같은 효행이 가능했던 배경의 하나로서는 이성만 형제가 경제적으로 비교적 여유가 있는 집안이었기 때문일 것임은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다. 둘째는 이 효행례는 매우 생활적이고 자연스러운 효행사례여서, 오늘을 사는 현대의 우리들에게도 바로 적용 가능한 효행사례라는 점이다. 옛날의 효행사례 대부분은 그 정신적 측면을 논외로 한다면 거의 오늘날 실행 불가능한 사례들이다. 사회생활을 전폐하는 여묘 3년이나, 간병을 위하여 허벅지를 베고 손가락을 자르거나, 기도하여 한겨울에 잉어나 딸기를 구한다는 이야기는 말하자면 오늘의 우리에게는 현실성 없는 전설적 이야기에 불과한 때문이다. 그러나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극히 생활적이며, 오늘에 있어서도 일반화할 수 있는 극히 현실적인 사례라는 점이다.

이성만 형제의 효행 사례, 특히 친지들을 초청하여 종종 잔치를 베풀으로써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은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많다. 남에게 베푸는 것을 통하여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행복한 사람들만이 가능한 일이다. 호장 이성만의 가족이 선대로부터 극히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며, 인격적으로도 극히 성숙한 부모와 가족, 말하자면 ‘모범가정’이었음을 짐작하게 된다. 한가지 덧붙인다면 이성만의 부모중 아마 모친이 먼저 작고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이 모친의 무덤을, 그리고 동생 순이 아버지 무덤을 여묘한 것에서 이를 짐작할 수 있다. 만일 아버지가 먼저 작고하였다면 형인 성만이 선친의 묘를 먼저 지키게 되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홍호장 이성만 형제는 그 효행으로 인하여 세종임금으로부터 포상을 받게 된다. 그 내용은 “마을에 旌門을 세워 포창하고, 그 집의 요역을 면제”케 하는 것이었다.<sup>14)</sup>

## 2) 이성만 형제의 우애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많은 시사를 주고 지금도 일반화하거나 적용 가능한 드문 효행사례라는 점에서 우리의 관심을 끈다. 그러나 이성만 형제의 행적중보다 중요한 것은 이성만과 이순 두 형제간의 우애이다. 전통적인 우리의 가정윤리에서는 孝와 烈 등 상하관계에서의 윤리가 강조된 반면, 형제간의 우애와 같은 상대적으로 수평적인 관계에서의 윤리는 덜 중요시되었다. 이는 수직적 윤리가 잡히면 이에 따라 자연히 수평관계에서의 윤리도 함께 안정된다는 생각에서였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충, 효, 열의 무수한 사례에도 불구하고 형제 우애에 대한 사례는 별로 기록에 남지 않게 되었다. 이성만 형제의 우애도 따지고 보면, 그의 효행 때문에 남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그의 효행에 대한 언급에 형제간의 우애 이야기가 덧붙여 전해지게

14) 『세종실록』 7, 세종 2년 정월 경신

된 것이다.

먼저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한 옛 기록을 인용하고자 한다.

■ 『세종실록』 (세종2년 정월 경신)

“매양 아침 저녁에 형제가 서로 오고가고 하여 한 상에서 같이 먹고, 비록 음식 하나를 얻어도 반드시 함께 먹었다.”(每朝夕 兄弟相往 食共一案 雖得一味 必與共食)

■ 대흥 이성만 형제 우애비 (연산군 3년, 1497)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에 오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에 가서 아침 저녁으로 함께 식사하였다. 맛있는 음식 하나를 얻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먹지 않았다.”(朝則兄至弟家 暮則弟就兄家 朝夕全拱餐 得一美味 不集不食)

■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20, 충청도 대흥현 인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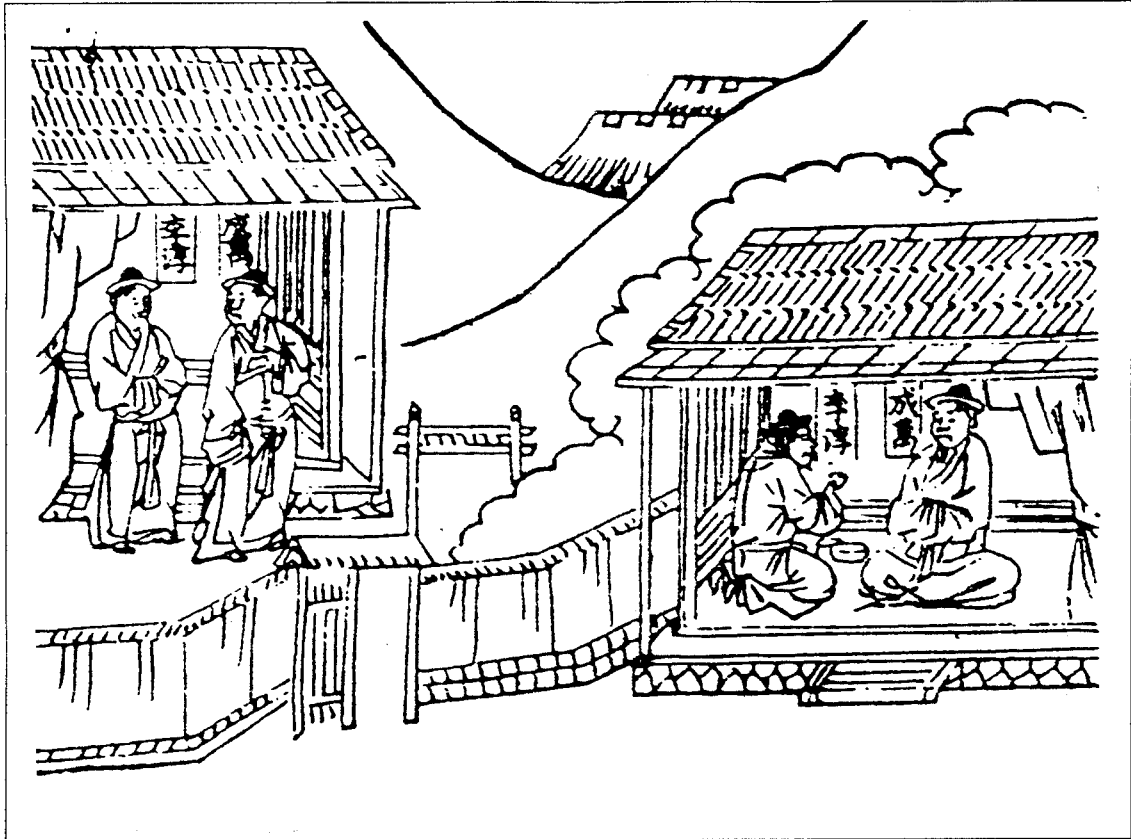
“아침에는 아우가 형 집에 오고, 저녁에는 형이 아우 집에 가서, 음식 하나를 얻어도 함께 모이지 않으면 서로 먹는 법이 없었다.”(朝則弟就兄家 暮則兄就弟家 得一味不相會 則不相食)

이성만과 이순, 이들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는 두 가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하나는 아침 저녁으로 서로 간에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에,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을 찾았다는 것이다. 『동국여지승람』에서는 이를 바꾸어서 아침에는 동생이, 저녁에는 형이 간 것으로 반대로 되어 있는데, 아침에 형이 먼저 아우의 집을 찾았다는 『세종실록』이나 우애비의 기록이 이른 기록일 뿐아니라 더 자연스러워 보인다. ‘형님 먼저, 아우 먼저’의 형제간의 우애와 애정의 한 전형인 것이다. 또 하나는 이들 형제가 음식을 항상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다. 아침 저녁 식사를 항상 함께 나눌 수 있었다는 것은 형제의 집이 그렇게 먼거리가 아니었음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어떠한 음식을 함께 함으로써 형제간의 정을 항상 확인하고 나와 나의 구별이 없는 일체된 생활을 영위하였던 것이다.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동국삼강행실도』에는 이성만의 효행과 우애를 그림으로 그린 것이 있는데, 이 그림에는 쇠문이 있는 울타리를 사이로 하여 좌, 우 2채의 집이 있고 각 집에 이성만과 이순 형제가 있는 모습이 보인다. 왼쪽은 형제가 마루 밖 뜰에서 있는 모습이고, 오른쪽은 형제가 방 안에 있는 모습을 묘사하였다. 이 그림은 형제가 서로 아침 저녁으로 아우네, 형네를 각각 찾아간 모습인 것이다. 그림에 그려진 이 두 채의 집중 왼쪽이 동생 순의 집이고, 오른쪽이 형인 성만의 집일 것이다. 오른쪽 형의 집에서는 형 성만이 방 가운데 팔을 소매에 넣고 정좌한 반면, 동생은 무릎을 꿇고 있어 여기가 형의 집이며 저녁에 동생이 형의 집에 찾아온 모습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왼쪽은 두

사람이 모두 밖에 서있지만, 동생 순이 좀더 안쪽에 위치하여 소매에 손을 넣은 모습으로 서있어, 여기가 동생의 집이며 아침에 형이 방문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림) 매일 아침저녁, 서로의 집을 찾는 이성만 형제의 모습 (『동국삼강행실도』)



문헌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해서는 밤중에 벗가리를 서로 몰래 가져다 놓는 유명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한다.

“옛날이 여기 그 참 우애좋은 성제(형제), 이성만 성제가 살았다는 겨. 근디 서루(서로)를 생각해 보니 아무래두 자기보다는 성이 부족할 거 같구, 또 성은 동생이 부족할 거 같구 허니, 서로 벗가리를 갖다가 날랐다는 겨. 그리 서루 그러니께, 하루는 내 벼를 갖다가 성의게 뒀으니게 내가 즉을(적을)텐데, 되려 많어지구, 형은 또 내가 아우게 갖다 뒀는디 또 자기 벼가 많어지구 이상하거든. 서루 바꿔치기를 했던 말여. 그런 짓을 반복되게 했다 이거여. 그러니까 인저 그런 짓을 몇번 서루 반복되다가 서루 만났어. 벼가리를 줌어지구, 벼집을 줌어지구 서루 만났어. 달밤이 만나니, 이렇기 보니께, 한 사람은 형이요, 한사람은 아우라 이거여. 그 때서 그 두 성제가 말이지, 우애 짚은(깊은) 성제덜이 마주 붙잡구, 지게를 줌어진 채 서루 붙잡구 눈물을 흘리면서, 정다운 우애지심을 갖다 베풀었다는 얘기여.” (1999.6.29. 대흥면 동서리 거주 79세 윤호영 구술) 15)

15) 예산군 『예산군지』 하, 2000, pp.1477-1478



다음은 이 같은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한 구전을 정리한 한 예이다.

옛날(고려 말) 대흥현의 마을에 형제간에 우애가 매우 좋고 부모에게는 효성이 지극한 형제가 살고 있었는데, 형은 후일에 대흥 촌장이 되었던 이성만이요 동생은 순이다. 형은 윗들거리 마을(현 대흥면 상중리)에 살고 동생은 오리골마을(현 광시면 월송리)에 살고 있었다.

동생 순이 마침내 분가해서 따로 살고 농사도 따로 짓게 되었다. 형은 아우가 새살림을 냈으니 소용되는 것이 많을 것이라 하여 농사 지은 벼를 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동생은 형이 조상의 제사를 받들고 있으니 벼라도 더 가져다주어야겠다고 생각하였다. 동생은 형이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밤에 몰래 벼 한 섬을 형의 집에 갖다놓고 온다. 형도 역시 동생에게 벼섬을 준다해도 안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밤에 아우네 집에 살며시 갖다 놓고 오고, 이들 형제는 이상도 하다고 생각하게 된다. 난데없는 벼섬을 잠만 자고 나면 누가 가져다 놓는 것이다. 서로가 이렇게 밤마다 두 형제가 큰 집 작은 집을 왕래하자면 개방이다리(佳芳橋)를 건너야 된다. 어느날 어두운 밤길에 마침내 이 개방이다리에서 형제가 서로 마주치게 되었다. 그제야 서로 벼섬이 밤마다 느는 까닭을 알게 되었다.<sup>16)</sup>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 에피소드는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이 이야기가 초등학교의 국어 교과서에 실려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이야기가 옛날에 실제 있었던 실화라는 것, 그리고 그 이야기가 대흥 이성만 형제 이야기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지 않을 뿐이다. 1964년 이후 초등학교 2학년 2학기 국어 교과서에 실린 이성만 형제 이야기는 <의좋은 형제>라는 제목으로, 어린이들 수준에 맞추어 다음과 같이 각색되어 있다.<sup>17)</sup>

(그림) 달밤에 서로 맞닥뜨린 ‘의좋은 형제’ (2차교육과정 초등 『국어』 2-2, 삽화)



16) 이항복 『예산-예산의 문화유적탐방기』 내포문화연구원, 1999, p.196

17) 필자가 확인한 교과서는 1964년에 첫 판을 찍은 1971년과 1972년의 초등 2-2 국어 교과서이다. 공주시 우성면 소재 웅진교육박물관과 대전시의 한밭교육박물관 소장본을 참고하였다.

## ■ 의종은 형제

옛날 어느 시골에 형제가 의종게 살고 있었습니다. 형제는 같은 논에 벼를 심어서, 부지런히 김을 매고 거름을 주어 잘 가꾸었습니다. 벼는 무럭무럭 자라서, 가을이 되자 곧 베어들리게 되었습니다.

“형님, 벼가 잘 되었지요. 이렇게 잘 여물었어요.”

“참 잘 되었다. 이제 곧 베어야 할 거야.”

누렇게 익은 논을 바라보며 형제는 기뻐하였습니다.

이튿날 이른 아침부터, 형제는 벼를 베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은 동쪽에서 베어 오셔요. 저는 서쪽에서 베어 갈 테니.”

“그래라, 누가 더 많이 베나 내기를 할까?”

형제는 부지런히 벼를 베었습니다. 뜨거운 해님이 쨍쨍 쬔었습니다. 형제는 온통 땀에 젖었지만, 쉬지 않고 열심히 베어 나갔습니다. 넓은 논도 어느 덧 다 베어, 흰한 벌판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누가 많이 베었나 한 군데 쌓아보자.”

형제는 자기가 베 벼를 각각 쌓기 시작하였습니다. 형님은 동쪽에 커다란 난가리가 되게 벼를 쌓았습니다. 동생은 서쪽에 높다랗게 쌓았습니다.

“누가 많이 베었을까?”

서로 대 보았지만, 둘이 똑 같았습니다. 형제는 서로 한 더미씩 의종게 나누어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그날 밤, 동생은 저녁을 먹고 나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벼를 형님과 똑같이 나누어 가졌지만, 잘 생각해보니 암만해도 안됐어. 형님 댁엔 식구가 많거든.”

동생은 형님에게 벼를 보내 드리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먼저 말을 하였다가는 형님이 받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웁지, 형님 몰래 갖다 드려야지.”

동생은 깜깜한 논으로 가서, 벼를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이제 이만하면 형님이 더 많겠지.”

동생은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날 밤에 형님도 이런 생각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동생과 똑같이 벼를 나눴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못 했어. 동생은 새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살림에 드는 것이 더 많을거야.”

형님은 밤중에 논으로 나갔습니다.

“영차!”

형님은 자기의 벼를 동생의 난가리에 갖다 쌓았습니다.

“자, 이만하면 되겠지. 아마 살림에 도움이 될거야.”

형님도 웃으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동생이 아무 것도 모르고 쿵쿵 자고 있을 것을 생각하니, 펄 기뻐합니다. 날이 밝아서 해가 동쪽 하늘에 떠오르기 시작하였습니다.

동생은 논에 나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제 밤에 그만큼 많은 벼를 형님 난가리에 옮겨 놓았는데, 이게 어찌된 셈입니까? 벼는 조금도 줄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한데, 어찌된 일일까?’

동생은 고개를 가웃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형님도 눈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형님의 날가리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형님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형님은 또 몰래 눈으로 가서, 자기의 벼를 동생의 날가리에 쌓았습니다.

“이만하면 동생 것이 더 많겠지.”

형님은 기뻐하며 동생의 날가리를 쳐다보았습니다.

형님이 집으로 돌아간 뒤, 이번에는 동생이 눈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벼를 꿈꿈 짹어지고 가서 형님의 날가리에 잔뜩 쌓았습니다. 그 이튿날 아침, 형님과 동생은 몰래 다시 눈에 나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날가리는 여전히 똑같이 쌓여 있었습니다.

“참 이상도 하다.”

“참 이상도 하다.”

형님과 동생은 아무리 생각해도 까닭을 몰랐습니다.

다시 밤이 되자, 형님과 동생은 몰래 눈으로 가서, 벼를 또 나르기 시작하였습니다. 깜깜한 어둠 속에, 저 쪽에서 누가 읊니다. 형님은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때, 동생도 우뚝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이 때였습니다. 구름 사이에서 달님이 환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아이구, 형님 아니십니까?”

“아, 너였구나!”

이제야 형제는 벼 날가리가 줄어들지 않은 까닭을 알았습니다. 형제는 저도 모르게 벼단을 내던지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열싸안았습니다.

하늘에서 달님이 웃으며 보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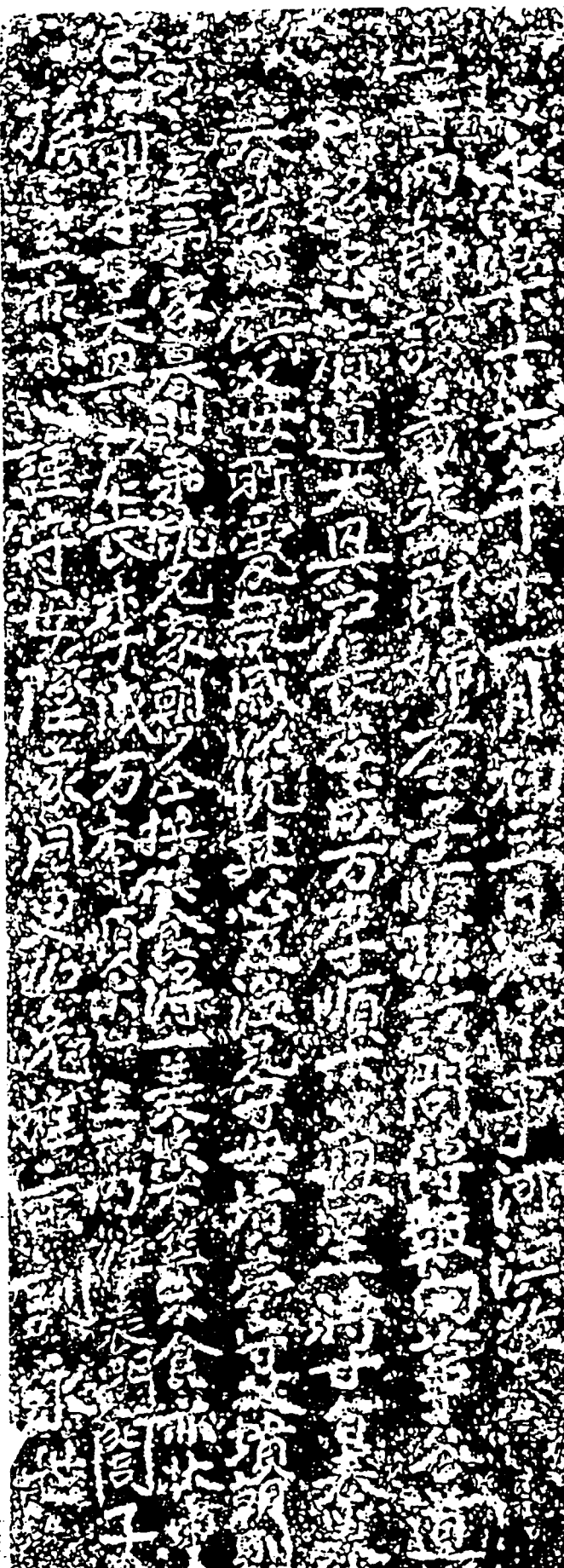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가 어떻게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리게 되었는지는 무척 궁금한 부분이며, 이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조사 확인을 필요로 한다.

### 3. 이성만 형제 우애의 현장

#### 1) 이성만 형제 우애비

연산군 3년(1497)에 세워진 이성만 형제 우애비는 현재 예산군 대흥면 동서리, 대흥관아 바로 앞에 세워진 비각 안에 안치되어 있다. 1978년 현재의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 하며, 1983년 9월 29일자로 ‘예산 이성만형제 효제비’라는 명칭으로 충남도유형문화재 102호로 지정되었다. 동서리 우애비의 바로 입구 노변에 거주하고 있는 이수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이 우애비는 원래 상중리, 옷밭골(옥박골?) 예당저수지변에 세워져 있었다고 한다.

前  
面



左  
側  
面



비석의 실측치는 전체 높이 145cm, 비의 몸돌 110cm, 이수 35cm로 보고되어 있으나 정확하지 않아 보고자마다 차이를 보이고 있다.<sup>18)</sup> 그 이유는 비석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보는 비석처럼 정연하게 다듬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다소 부정형하기 때문이다. 특히 비문을 새긴 앞면이 전체적으로 배가 불러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반면 글씨를 새기지 않은 뒷면은 오히려 두부 모를 자른 것처럼 깨끗하게 平板形으로 治石되어 있다.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깨끗이 치석된 면에 글자를 새기는 대신, 부정형하고 거칠게 치석한 반대면을 이용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는 알른 판단되지는 않는다. 우애비의 석재를 기왕에 절터나 관아에서 사용하다 유출된 돌을 재활용한 탓이 아닐까 추측해 본다.

우애비의 석질은 화강석재이며 비신과 이수의 구분은 있으나 이를 別石으로 만든 것은 아니다. 이수의 윗쪽에 복발 형태의 부조를 하였고 마모로 인하여 잘 보이지는 않으나 원래는 이수에 伏蓮의 무늬를 조각하였다. 이러한 형태는 대흥 동헌 안에 옮겨져 있는 웅주 태실비(영조 29년, 1753 건립)와 비슷한 유형이다.<sup>19)</sup> 비석의 면이 거칠고 다소 부정형하며 후면 측면 일부(향우측)는 균열로 인하여 아래쪽 일부가 떨어져나가고 위쪽으로는 세로로 금이 내려가 있는 등 석재가 손상되어 있다.

이제 비문의 전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비문의 판독은 그 동안 책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sup>20)</sup>, 여기에서는 기왕의 판독을 참고하면서 이를 다소 수정하였다.

#### (전면)

永樂十六年十一月初三日知申事河演敬奉  
王旨內節該義夫節婦孝子順孫訪問傳報向事各道  
□移忠清道大興戶長李成萬李順等父母生時甘旨奉養  
春秋滋饌父母所愛親戚以悅其心及沒兄守母墳弟守父墳朝則  
兄至弟家暮則弟就兄家朝夕全拱餐得一美味不集不食亦狀  
啓向前孝子大興戶長李成萬李順等王召內旌表門閭子  
孫孫亦小心謹守母墜家風更加勉旌示訓永世

#### (좌측면)

弘治拾年丁巳二月 日立

18) 백제문화개발연구원 『충남지역의 문화유적』 9, 예산군편, 1995, p.329. 한편 『예산의 맥』에서는 높이 203cm, 폭 43.5cm, 두께 25cm라 하였고, 가장 최근의 자료인 『문화유적지도-예산군』(충남발전연구원, 2001, pp.210-211)에서는 전체 높이 145cm, 비신 높이 119.6cm, 폭 51.2cm, 두께 15cm, 이수 35cm이라 하여 책마다 차이가 있다. 최근에 세운 우애비의 안내판에서는 '높이 142cm, 폭 43.5cm, 두께 25cm'라고 적고 있어서 앞의 실측치와도 차이가 있다. 이같은 차이는 기본적으로는 비석의 부정형함 때문으로, 수작업에 의한 실측의 한계를 말해준다.

19) 웅주 태실은 광시면 월송리 태봉산에서 옮겨온 것이라 한다.(이항복, 앞의 『예산』 p.192)

20) 예산군 『예산군지』, 1987

충청남도 『문화유적총람』 금석문편(하) 1993, p.223

종래 비석의 판독에 있어서는 글자수가 도합 173자라 하였으나, 필자는 167자로 파악하였다.<sup>21)</sup> 비문의 판독에 다소 모호한 부분이 있어 정확한 해석이 어려우나, 기왕의 해석을 참고하면서 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 <전면>

영락 16년 11월 초3일에 지신사 하연(河演)은 삼가 왕지를 받들어 각도에서 義夫 節婦 효자 손순을 방문하여 보고하도록 하였다. 충청도 대흥호장 이성만과 이순 등이 부모 살아생전에 기쁨으로 봉양하고 봄가을로 맛있는 반찬으로 부모가 사랑하는 친척들에게 베풀어서 그 마음을 기쁘게 하였다. (부모가) 돌아가시자 형은 어머니의 산소를 지키고 아우는 아버지의 산소를 지켰다. 또 아침에는 형이 아우의 집에 이르고 저녁에는 아우가 형의 집에 가서 조석으로 함께 음식을 나누고, 맛있는 것을 한가지라도 얻게 되면 반드시 음식을 함께 하였다. 장계를 올렸더니 효자 대흥호장 이성만과 이순 등을 왕이 불러들이고 마을에 정문을 내려, 자자손손이 삼가 가풍을 지켜 떨어뜨리지 말고 힘쓰기를 더하여 교훈을 영세토록 보이게 하였다.



(그림) 이성만 형제 우애비

#### <좌측면>

홍치 10년 정축 2월 일에 세움

한편 이 비석의 건립은 세종 2년(1420) 이성만 형제의 포상으로부터 거의 80년이 지난 연산군 3년(1497)에야 이루어졌다. 비석의 건립자, 글쓴이, 지은이 등의 기록도 없이 건립 연대만 표시되어 있고, 글씨체는 형식에 덜 구애되어 자유롭게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 글자의 크기가 고르지 않으며 글자체도 정자 대신 간자(약자)가 여러 곳에서 사용되

21) 판독을 위하여 비문의 탁본을 하였으나, 탁본의 상태는 『문화유적총람』(금석문편, 충청남도, 1993)의 것보다 상태가 좋지 않았다. 이는 풍화에 의한 비문의 마모가 계속 진행된 결과로 생각된다.

고(興, 万, 全, 得), 이두식 표기도 보이고 있다.

대흥의 마을사람들이 과거 이성만 형제의 효행을 기려 이를 기념하고 동시에, 효가리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 2) 효행과 우애의 현장 - 거주지와 부모 산소

이성만 형제 우애비와 관련하여 가장 알고 싶은 문제의 하나는 이성만 형제가 과연 대흥의 어디에 거주하고 있었을까하는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형은 윗들거리 마을(현 대흥면 상중리)에 살고 동생은 오리골마을(현 광시면 월송리)에 살고 있었다”하고, 佳芳橋(개방이다리)를 사이로 하여 떨어져 있었다고 한다.<sup>22)</sup>

우선 이성만이 윗들거리(대흥면 상중리)에 살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필자는 이성만이 살던 마을은 원래 비석이 있었던 마을이 아닐까 생각한다. 연산군대에 우애비의 비석을 세울 때, 비를 이성만의 마을 앞에 세웠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게 생각되기 때문이다. 또 형제의 집이 가방교를 사이로 떨어져 있었다는 것과는 부합한다. 그런데 이수 여사의 증언에 의하면 우애비는 원래 현재 위치에서 수 백m 떨어진 저수지의 물가에 서있었으며, 한동안 물 가에 너머진 채 버려져 있다가 현재 위치로 옮겨진 것이라 한다. 그 원 위치는 원래, 없어진 간선도로변이었으며 지금은 저수지에 잠겨버린 가방교에서 가까운 지점, 옷밥(옥박)거리라고 하는 마을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대흥 호장 이성만의 집은 바로 가방교 근처, 지금은 마을이 소멸된 예당저수지변이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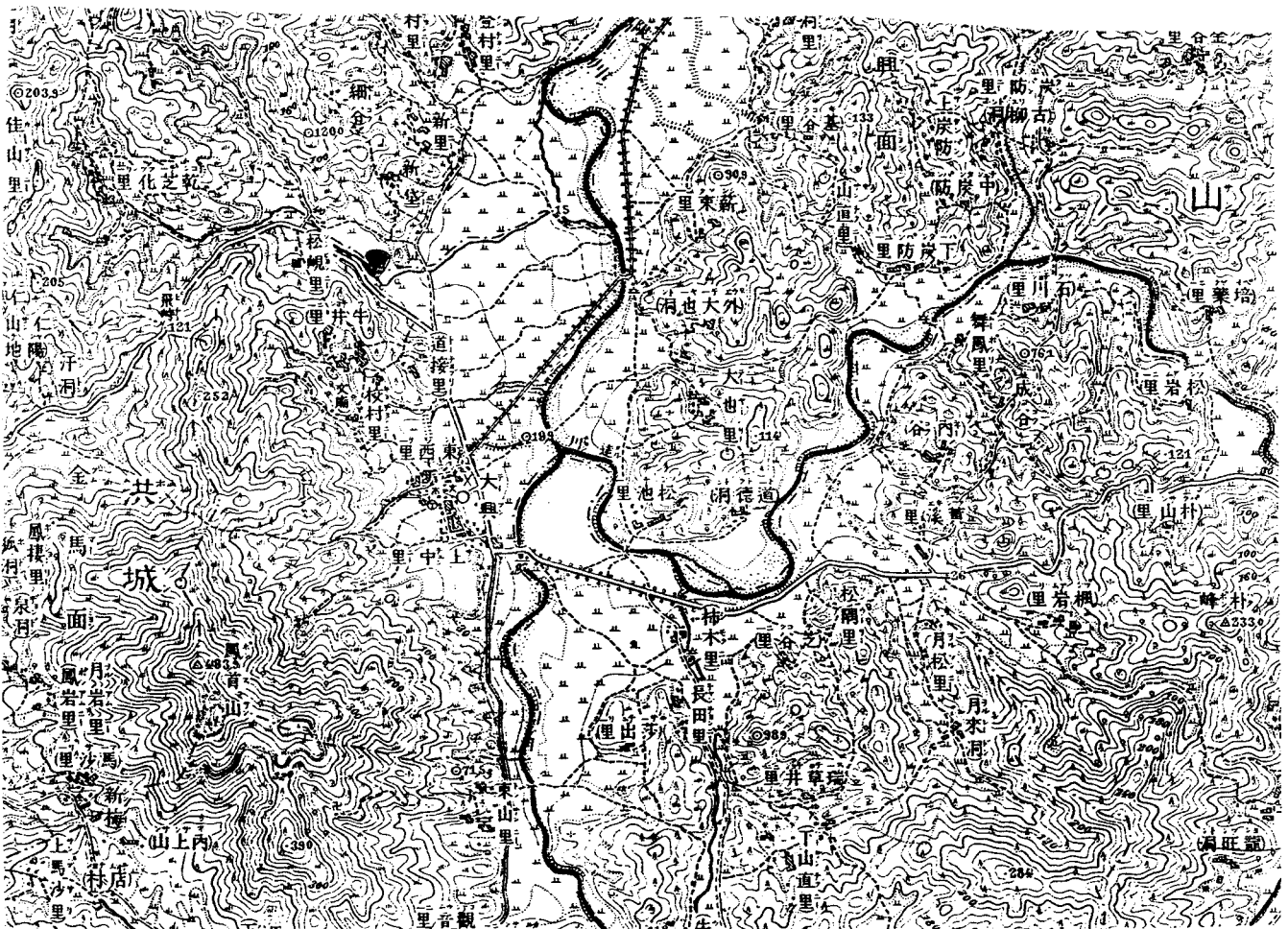
다음으로 동생 순의 집은 광시면의 월송리 ‘오리골 마을’이라는 언급이 있다. 이성만 형제는 아침 저녁 서로 집을 왔다갔다하며 식사를 함께 하였다. 이점을 생각하면, 두 집의 거리는 아침 저녁을 오가며 식사가 가능한 거리였다는 이야기이다. 이 정도 거리라면 지금으로 계산한다면 가령 2km 내외의 거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한번 다녀오는데 1시간 이내의 거리가 되기 때문이다. 광시면 월송리는 지금은 예당저수지의 건너편이 되어 있어, 동산교 다리를 건너 우회하여 들어가야만 한다. 예당저수지가 조성되기 전의 상태를 보여주는 1920년대의 지도에 의하면, 광시 쪽에서 북류하는 奈川과 신양에서 서류하는 達川이 동서리 마을의 동쪽 건너편에서 합류하여 예산을 쪽으로 북류하는 무한천이 되고 있다. 가방교는 상중리 앞의 奈川에 놓인 다리이며, 다리를 건너면 월송리의 신양방면 국도로 연결되는 도로가 만들어져 있어 상중리와 월송리는 거의東西의 직선 도로상에 위치하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상중리는 월송리의 오리골 마을에서 대략 3km 거리이다. 식사를 같이 할 수 없는 거리인 것은 아니지만, 다소 먼 느낌이 있고, 지형적으로도 후미진 곳이어서 동의하기에는 다소 주저되는 감이 있다. 오히려 같은 방향에서 좀더 가까운 곳이면서(2km미만) 경작지를 끼고 있는 지역을 찾아보면 어떨까 한다. 가령 월

22) 이항복 『예산-예산의 문화유적탐방기』 p.196

송리 못미처 예당저수지변의 장전리 일대는 넓은 경작지를 끼고 있고, 임존산 기슭의 대홍 치소나 형 이성만의 마을이 한눈에 들어오는 경관적으로도 대단히 훌륭한 지점이다. 분명한 고증이 불가능하다면 동생 이순의 마을을 이 부근에 상징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한가지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형제 우애비의 존재로 인하여 이성만의 주거가 대홍면의 상중리라는 것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생 이순의 집이 가방교 건너편에 있었다면 광시면 장전리 혹은 월송리 일대가 그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두 형제가 살던 마을 사이에는 지금은 예당저수지에 수몰된 저평한 경작지가 널리 전개되는 지형이다. 형 이성만이 대홍면 상중리에, 동생 이순이 지금의 저수지 건너 광시면 월송리 혹은 장전리에 거주하고 있었으리라는 것은 가능한 추정이라고 생각되는데, 필자는 근접성, 상징성, 경관 등의 측면을 고려하여 장전리 쪽으로 손을 들고 싶다. 23)

(지도) 1920년대 5만지도



23) 예당저수지에서 약간 남쪽 광시면 은사리에도 '오리골'이라는 마을이 있다. 그러나 이곳은 상중리의 비석 원 위치에서 거의 6km 가까운 거리여서 다소 멀다는 느낌이다. 이점에서 광시면 은사리의 오리골은 부합하지 않는다.



이성만 형제 우애의 현장이 상중리와 장전리(월송리) 간의 지역이었다고 한다면, 이들 형제의 효행의 중요 현장의 하나가 부모 산소였다. 그렇다면 3년동안 시묘를 하였던 형제 효도의 현장인 이성만 형제 부모의 산소는 어디쯤이었을까.

예산군에 대한 지표조사 자료에 의하면, 대흥면 상중리와 광시면 장전리(월송리) 부근의 고분 분포 지역은 다음과 같다.

(지도) 상중리 부근의 고분 분포지도



- 9. 마사리 고분 (광시면 마사리 산수골)
- 10. 구례리 절골 고분 (광시면 구례리 절골)
- 12. 분도골 고분 (광시면 은사리 분도골)
- 7. 미곡리 고분 (광시면 미곡리)

- 5. 용왕동 고분 (신양면 죽천리 용왕동)
- 8. 다박골 고분 (신양면 황계리 다박골)
- 13. 대야리 대골 고분 (대흥면 대야리 대골)
- 14. 대야리 고분 (대흥면 대야리)

\* 번호는 보고서에서의 지도에 표시한 번호이며, 순서는 시계 반대방향  
순서로 필자가 정리

이들 주변의 고분군이 밀집하여 분포하는 것은 대흥지역이 백제 이래로 인구 밀집 지역이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동시에 유구가 남겨진 이들 고분의 시기도 백제로부터 고려, 조선조에 이르는 장기간에 걸치는 것이겠지만,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가 이루어진 바가 전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들 고분군의 시대적 성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성만의 마을이 奈川의 서쪽에 있어서 부모 산소의 위치도 내를 건너지 않는 쪽이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보면 위에 열거한 주변의 고분군중, 이성만 형제 부모의 묘소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는 광시면의 마사리(9), 구례리(10), 은사리(12) 등으로 좁혀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단계에서 지나친 추정은 억측이 될 가능성이 많으므로 앞으로 대흥지역 고분군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질 때, 이 문제도 관심의 범위에 두어 함께 고찰할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 4. 이성만 형제 우애비의 가치

대흥에 이성만 형제의 우애비가 남아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비석이 바로 그들의 효행과 우애의 상징과 증거이기 때문이다. 유교적 가치관과 사회도덕을 중요시하였던 우리나라에서 효행과 우애의 이야기는 일일이 예를 들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 또한 그 많은 사례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성만 형제의 행적과 그 비석은 몇 가지 점에서 다른 많은 사례들과 구별되고 있다. 이 우애비의 가치를 논의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나라의 효행 관련 문화재 지정현황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sup>24)</sup>

다음의 표는 지정문화재 목록을 검토하면서 필자가 직접 작성한 것이기 때문에 혹 누락된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음에서 보는 것처럼, 많은 효 관련 문화재중 지정문화재는 의외로 많지 않다는 점을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만 형제비가 많지 않은 지정 문화재중의 하나라는 점을 우선 확인하게 된다. 이제 이성만 형제비의 가치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4) 문화재관리국, 『지정문화재목록』 (1997. 12. 31 통계)에 의함.

우리나라의 효행 관련 유적 지정 현황

지역별	지정사항	문화재 명칭	소재지	지정연월일
충남	도 유형문화재 99호 도 유형문화재 102호 도 유형문화재 108호 도 문화재자료 339호	공주 효자 향덕비 예산 이성만형제 효제비 효교비 卜間 효자비	공주시 소학동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연기군 서면 신대리 홍성군 금마면 신곡리	1981.12. 31 1983. 9. 29 1984. 7. 26 1995. 10. 7
경북	도 유형문화재 38호 도 기념물 115호 도 문화재자료 112호	김자수 효자비 경주 孫順 유허 成豐世 효자비	안동시 안기동 경주시 현곡면 소현리 고령군 다산면 나정리	1973. 8. 31 1996. 12. 5 1985. 8. 5
경남	도 유형문화재 148호 도 문화재자료 52호 도 문화재자료 183호	효자리 비 三臺堂 효자비 烈孝辛氏之閭 비석	양산시 중부동 산청군 단성면 사월리 창녕군 도천면 도천리	1976. 12. 20 1983. 7. 20 1991. 12. 23
전북	도 유형문화재 144호 도 기념물 43호	효자 정려비 및 旌板 孝感泉	임실군 임실읍 정월리 고창군 신탄면 외화리	1993. 8. 31 1980. 3. 8

첫째, 이성만 형제비는 지정문화재중에서는 연대가 확실하게 밝혀져 있는 가장 오랜 효 관련 비석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다. 효행 관련 사적으로는 신라효자로서 공주에 향덕 관련 유적, 그리고 경주에 손순 관련 유허가 있지만, 손순 유허는 단순히 공간을 기념으로 지정한 것이고, 공주의 향덕비는 18세기에 제작된 비석이다. 안동의 金自粹(1351-1413)는 고려말 조선초의 인물로서 ‘고려 도관찰사’ 운운의 비가 있지만, 건립시기가 불분명하고 또 비석이라기보다는 마을의 표석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산청의 효감천은 조선초의 인물 오준(1444-1494)과 관련이 있지만, 샘에 관련된 설화일 뿐, 실제 샘의 조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성만 형제비는 건립 시기가 분명하고 우리나라에서 현전하는 효행비로서는 가장 오래된 문화재로 생각된다.

둘째, 이성만 형제비는 孝鄉으로서의 예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이다. 예산군은 최근 수년동안 지역 이미지를 상징하는 작업으로서 효를 강조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왔다. 효가 반드시 특정지역의 전유물이 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산군이 이를 집중 부각한 것은 괄목할만한 전통적인 효행 사례에 그 근거가 있다.<sup>25)</sup> 그리고 예산 지역의 효행 사례 중에서 이성만 형제의 효행이야말로 그 중심에 위치하여 있다고 할 것이다. <sup>26)</sup>

25) 임선빈 박사는 금번 예산지역의 효 관련 유적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예산(예산, 대흥, 덕산)이 다수의 효,열 인사를 배출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특히 조선조 그림(효자도, 열녀도 등)을 덧붙인 윤리 지침서로 유명한 『동국삼강행실도』에 예산군의 효열 인물이 무려 10명에 이른 점을 특기하고 있다.

26) 예산의 옛이름 ‘鳥山’은 까마귀를 상징한다. 예산의 기원설화에 해당하는 향천사 전설에 까마귀의 등장도 이와 연결되어 있다. 그런데 까마귀는 동물중 효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왔다. ‘反哺之孝’라는 것도 까마귀의 이야기이다. 이러한 점에서 필자는 예산의 효향 이미지와 까마귀를 연결시키는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셋째, 이성만 형제비는 형제 우애와 관련한 우애비로서는 유일한 문화재이다. 효행 관련 사적은 많지만, 우애비 혹은 형제 우애에 관한 구체적 자료는 많지 않다. 더욱이 형제 우애를 칭송하는 우애비로서는 현존하는 우리나라 유일의 문화재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적지 않다. 더욱이 이성만 형제의 우애 이야기가 오랜 동안 교과서에 실리면서, 이것이 전 국민의 국민교육의 교재가 되어왔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는 특별한 것이다.

## 맺 는 말

본고에서는 고려 효자로 혹은 형제 우애의 이야기로 널리 알려진 이성만 형제와 예산군 대흥면 상중리 소재 우애비에 대하여 검토, 정리하였다. 이에 의하여 얻어진 결론을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성만 형제의 이름 가운데 종래 동생의 이름이 책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으나, 이순이 맞는 이름이다. 동생 이순의 한자명은 ‘李淳’(동국여지승람, 동국삼강행실도)과 ‘李順’(우애비, 세종실록) 가운데 후자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

2) 이성만 형제의 생존 시기는 고려 말 조선 초, 14-15세기에 걸치는 시기이다. 주관적인 억측을 허락 한다면 대략 고려 공민왕대에 출생하여 조선 세종조까지 생존한 인물이었을 것으로 필자는 추측한다.

3) 이성만 형제의 신분은 고려 호장 출신으로서, 일반 농민과는 구별되는 일종의 대흥지역 ‘유지’의 신분이었다. 경제적 형편도 상대적으로 다소 여유 있는 쪽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성만 형제 선대의 경우 대흥의 유력한 재지세력으로서 일정한 정치적 사회적 영향력과 함께 상당한 재력을 두루 갖추었으나 15세기 당대에 이르러 사회적 경제적 형편은 전대에 비하여 다소 약화된 듯하다.

4) 이성만 형제의 효행은 부모님 생전에는 부모의 친지를 초청하여 정기적으로 잔치를 베풀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는 ‘守墳’ 즉 부모의 산소를 지키는 廬墓를 행했다는 것이다. 이들 형제간의 우애에 대한 이야기는 아침 저녁으로 형제 간에 집을 찾았고, 식사를 거의 같이 할만큼 친밀하였다는 것이다. 문헌기록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성만 형제의 우애에 대해서는 밤중에 벗가리를 서로 몰래 가져다 놓는 유명한 이야기가 구전으로 전한다. 이 이야기는 오랜동안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려, 지금에도 대단히 유명한 이야기이다.

5) 이성만의 거주지는 대흥면 상중리가 틀림이 없다고 생각된다. 동생은 가방교의 건너편 마을, 아마도 현재 광시면의 장전리(월송리)에 살고 있었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된다.

6) 1497년(연산 3년) 비석 건립. 대흥의 마을사람들이 과거 이성만 형제의 효행을 기려 이를 기념하고 동시에, 효가리로서의 자부심을 확인하고 후손들을 교훈하기 위하여

건립한 것으로 생각된다.

7) 이성만 형제 우애비는 연대가 확실한 것중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효행비로서, 효행으로서의 예산의 역사적 당위성을 입증하는 근거자료이다. 동시에 형제 우애를 칭송하는 우애비로서는 우리나라 유일의 문화재이다.

이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몇가지 제언을 덧붙임으로써 본고를 맺고자 한다.

1)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의 행적을 근거로 하여, 우애비가 있는 지역 일대를 역사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장기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성만 형제비는 그 형제 우애의 이야기가 초등학교 교과서를 통하여 전국에 널리 알려져 있다는 점, 그리고 인근에 예당저수지, 임존성, 대흥 관아 등 관광개발 가능성이 높은 素材가 집중하여 위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투자의 효과가 충분한 자료이다.

2) 공원의 이름은 이성만 형제의 행적이 부각되면서 일반성이 있는 것으로서 가령 ‘형제우애의 공원’ 등으로 구상해 볼 수 있다. 이 공원의 이미지에 예산의 상징 새인 까마귀와 연결하여 ‘반포지효’ ‘예산과 오산’ 등의 연상을 통하여 지역 이미지를 극대화하는 아이디어를 구현한다.

3) 역사공원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하여 대흥 동헌 및 대흥 척화비의 문화재 지정을 적극 추진하고, 현재 대흥 초등학교 구내에 남아 있는 조선조 布政亭(見思亭)의 터 및 연못을 정비하여 공원 조성에 활용한다.

4) 이성만 형제의 효행과 우애를 군내 아동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예산군 지역교과서(초등학교)를 보완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군내 각급 학교에 배포한다.

5) 동생 이순의 마을을 확정하여 형 이성만의 마을과 연결하는, ‘효도와 우애의 길’과 같은 청소년 단체활동을 염두에 둔 도보로를 개발한다.

6) 우애비가 세워진 11월 3일(원래는 음력이지만, 양력으로)을 ‘효도와 우애의 날’ 등 군지정 기념일로 지정하여 대흥 지역 관광자원 홍보 기회로 활용한다.

7) 대흥 지역의 역사 관광자원을 종합하고, 이를 덕산과 연결하여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체계적인 관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제 3 주제

## 심청전 근원설화와 원홍장 이야기

허 원 기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선임연구원)





# 심청전 근원 설화와 元洪莊 이야기

허 원 기(한국정신문화연구원 장서각 선임연구원)

1. 문제제기
2. 자료의 성격과 전승 시기 검토
3. 서사적 구성요소 검토
4. 판소리와 관련성 검토
5. 맺음말

## 1. 문제제기

조선후기에 형성된 <심청전>은 설화, 소설, 무가, 판소리 등 여러 방식으로 전승되었다. 개화기 이후로는 창극, 연극, 영화, 무용, 오페라 등 양식으로 재구성되어 전승되면서 우리 문화의 중요한 기층을 형성해 왔다. 이렇게 전승된 심청 이야기는 한국인을 울리고 웃기며 우리와 희로애락을 함께 해온 뿌리깊은 문화유산이며, 한국인의 심성 속에서 여전히 그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심청전>은 춘향전과 함께 한국 고소설 작품 가운데 가장 널리 읽혀지고, 가장 많이 연구된 작품이기도 하다. 이러한 소설 <심청전>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하나는 ‘說話小說’이라는 점이며, 다른 하나는 ‘판소리系 小說’이라는 점<sup>1)</sup>이다.

그간 <심청전>에 대한 연구는 매우 방대하게 축적되었다. 異本연구, 근원 설화론, 주제론, 배경 사상론 등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졌으며, 방법론에 있어서도 사회학적·정신분석학적·구조주의적 접근 등이 다양하게 이루어져 왔다.<sup>2)</sup>

특히 설화소설이라는 명칭을 얻기까지 한 <심청전>의 근원설화에 대한 연구는 여타 판소리계소설에 비해 매우 다양한 양상을 띠며 전개되었다. 심청전이야말로 이전의 다양한 설화들을 수용하여 재창조한 작품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는 국내와 국외의 설화들이 다양하게 거론되었다. 국내의 것으로는 ‘玉果縣聖德山觀音寺緣起

1) 정하영, 『沈淸傳』, 『韓國古典小說作品論』(집문당, 1997), 542면 참조.

2) <심청전>연구의 역사와 전반적인 동향은 鄭夏英의 『沈淸傳』, 『古典小說研究』(일지사, 1993)과 인권의 『심청전 연구사와 그 문제점』, 『심청전 연구』(태학사, 1999) 등에서 거듭 논의된 바 있다.

說話, 黃泉巫歌 바리공주, ‘심청굿 무가 사설’, ‘孝女知恩說話’, ‘居陀知說話’ 등이 거론되었고, 국외의 것으로는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 ‘目連尊子說話’, 일본의 ‘小夜姬說話’ 등이 거론되었다. 그리고 ‘심청이야기’가 孝行說話, 人身供儀說話, 開眼說話, 再生說話 등 주로 네 가지 話素를 소재원천으로 활용하고 있음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러한 근원설화 연구는 심청전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기존의 근원설화연구는 단순한 대비고찰에서 끝나는 경우가 많아, 설화와 소설의 관계가 유리되어 있다. 적어도 근원설화로 논의되기 위해서는 설화와 소설의 유기적이고 직접적인 수수관계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국외의 설화들이 과연 어떠한 경로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영향을 줄 수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한다. 그리고 위에서 거론된 다양한 설화들이 심청전에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위상에서 수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름대로의 차등적 위상을 가지고 소설에 수용되었을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논의된 근원설화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 대비적 위상을 밝혀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요즈음 玉果縣聖德山觀音寺緣起說話에 나타나는 ‘元洪莊이야기’의 원자료가 새롭게 발견<sup>3)</sup>되었다.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의 중요한 근원설화로 인정되던 바였으므로, 이 자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원홍장이야기’가 여타 근원설화들 속에서 지니는 위상이 구체적으로 해명되어야 할 줄로 안다. 또한 설화가 소설화되는 데에는 나름대로의 원리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설화가 판소리체통의 소설로 변할 때에 작용하는 원리도 해명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러한 여러 문제점에 유의하여 필자는 우선 ‘원홍장이야기’를 여타 심청전 근원설화와 비교하여 그 전반적 위상을 점검하고자 한다. 그리고 ‘원홍장이야기’가 판소리계 소설로 변환될 수 있는 소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하는 문제도 해명해 보고자 한다. 즉, ‘원홍장이야기’를 <심청전>의 두 가지 특성인 ‘설화적 성격’과 ‘판소리적 성격’에 비추어 해명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논문은 ‘원홍장이야기’의 설화적 위상을 점검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이고, ‘원홍장이야기’의 판소리적 성격을 해명하는 것이 두 번째 과제인 셈이다. 첫 번째 과제는 전승자료의 성격과 전승시기의 검토, 서사적 요소들의 구성요소들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두 번째 과제는 원홍장이야기와 판소리의 성격을 비교 검토하는 방식으로 해명해 보고자 한다.

3) 최근 순천 송광사 박물관 수장고에 소장된 목판본이 새롭게 발견되었다.

## 2. 자료의 성격과 전승 시기 검토

지금까지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거론되는 국내설화로는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sup>4)</sup>의 원홍장이야기’, ‘黃泉巫歌 바리공주’, ‘심청굿 무가 사설’, ‘孝女知恩說話’, ‘居陀知說話’ 등이 있다. 이들이 전승되는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면 심청전의 전승양상에 비추어 양자의 관련양상을 더욱 명확해 질 수 있다.

먼저 ‘원홍장이야기’를 살펴보자. ‘원홍장이야기’는 순천 송광사 박물관 수장고에 보관되어 있는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에 실려 있다. 이것은 목판본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조선총독부에서 1911년에 간행한 『朝鮮寺刹史料』에도 활자화된 것이 실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목판본 원본의 초서를 활자화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판독상의 오류 및 미판독 글자들이 많아서 그 줄거리만을 대략 이해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러므로 우선 목판본 원본을 근거로 半草書를 재판독하는 작업이 필요한 상태<sup>5)</sup>이다. 이 자료는 擁正 己酉年(1729)<sup>6)</sup>에 송광사의 白梅禪師가 觀音寺의 長老인 優閑禪師의 구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sup>7)</sup>고 한다.

‘事蹟記’의 내용은 크게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다. 전반부는 寺刹緣起說話의 성격을 지닌 ‘원홍장이야기’이며, 후반부는 절이 생긴 후 중창했던 기록과 ‘全羅左道玉果縣觀音寺遊山錄’을 수록하였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원홍장이야기’는 전반부이며, 관음사의 사찰연기설화에 액자형식<sup>8)</sup>으로 담겨진 이야기라 할 수 있다. 사찰연기설화라는 것은 불교의 전파와 교화를 목적으로 하는 불교설화의 일종으로, 사찰이나 암자등의 창건유래나 절터를 잡게된 유래, 절 이름 命名 유래에 관한 설화<sup>9)</sup>이다. 이것은 ‘원홍장이야기’가 바로 관음사라는 사찰이 형성되게된 배경을 서술하기 위한 기능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원홍장 이야기에는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난다. 원홍장 이야기의 불교적인 성격은 심청전의 불교적인 성격과 공통점을 지니고 있지만 그 보다 정도가 강하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 또한 사찰연기설화는 신화나 민담보다는 전설에 가깝다. 전설의 시공간은 신화나 민담에 비해 더욱 구체적으로 나타나며 구체적인 증거물을 제시하려 한다. 원홍장 이야기에 이 같은 성격이 잘 나타난다. 그래서 ‘晉國 永康丁亥<sup>10)</sup> 五月’, ‘忠淸道 大興縣’, ‘大興縣 弘法寺’, ‘蘇浪浦’, ‘甘露寺 앞 포구’, ‘豊

4) 이하 사적기로 약칭함.

5) 판독한 내용은 논문의 말미에 부록으로 실었다.

6) 조선의 영조 5년에 해당한다.

7) 崙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9a-9b면)

8) 액자구조는 헤르베르트 자이들러(Herbert Seidler)에 의해 시도된 이론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재선의 「액자소설의 원질과 계승」, 『한국단편소설의 연구』(일조각, 1979), 95면에 소개된 바 있으며, 사재동의 「불교계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연구」(아세아문화사, 1977), 18-22면과, 홍순석의 「寺刹緣起說話研究」, 『說話文學研究(下)』(단국대학교출판부, 1998)에서 논의된 바 있다.

9) 홍순석, 「寺刹緣起說話 研究」, 『說話文學研究(下)』(단국대학교출판부, 1998), 291면

10) 永康연간은 晉 惠帝때이며 300년에 해당하고, 정해년은 267년에 해당하므로 양자 중 하나는 착오가 있는 듯 하다.

德縣 擎天寺’, ‘樂安 땅 斷橋 결’, ‘玉果縣’ 등 구체적인 시간과 장소가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원홍장은 관음의 화신으로 지칭<sup>11)</sup>된다. 이렇게 사찰연기설화이기 때문에 불교적인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시공간을 배경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국내의 심청전 근원설화와는 변별적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리고 ‘원홍장이야기’는 그 전승 시기와 전승자, 전승지역이 명시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擁正 己酉年(1729)에 송광사의 白梅禪師가 觀音寺의 長老인 優閑禪師의 구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sup>12)</sup>고 했는데, 이를 통해서 전승시기와 전승자는 물론이려니와 전승지역도 추정해 볼 수 있다. ‘원홍장이야기’가 기록된 시기를 1729년이라고 본다면 ‘원홍장이야기’는 아마도 그 이전부터 인근지역에 널리 전승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사찰연기설화는 대체로 그 이전에 전하던 설화들을 수용하여 형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홍장이야기’의 전승시기는 적어도 18세기 초반기 이전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심청전이 성립하기 이전<sup>13)</sup>의 시기이므로 심청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 그 점에서,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과의 관계를 생각할 때 더욱 긴밀한 관련을 가지게 된다.

설화가 소설화될 경우에는 첫째, 文字定着化가 이루어지며, 둘째, 多量化되며, 셋째, 具體化되고 寫實的으로 서술되며, 넷째, 個人化되며, 다섯째, 증보와 삭제가 함께 일어난다는 점들<sup>14)</sup>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원홍장이야기는 특히 주목할 만 하다.

첫째, ‘사적기’는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송광사의 白梅禪師가 觀音寺의 長老인 優閑禪師의 구술을 듣고 이를 정리하여 수록했다는 점이 그것이다. 이를 통해 소설화되고 있는 설화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원홍장 이야기는 다른 설화에 비해 등장 인물의 수가 많고 그에 따라 사건이 복잡해지며, 배경이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등 설화가 多量化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셋째, 위에서도 살펴보았듯이 등장인물과 시간적 공간적 배경이 구체화되고 있으며, 사실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넷째, 집단전승에서 개인전승으로 전승이 개인화 되어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구전되던 설화가 문자로 정착되면서 상대적으로 개인화 되기 때문이다. 다섯째, 증보와 삭제가 함께 일어나고 있는 점인데, 이것은 優閑禪師의 구술을 증보하거나 삭제(芟繁增削)하여 썼다는 白梅禪師의 기록<sup>15)</sup>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사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문자화되는 과정에서 창조적 개작이 일어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소설화되어 가는 것이다.

11) 蓋弘莊與聖德俱是觀音隨應之身歟.(『事蹟記』, 8a-8b)

12) 皆擁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9a-9b면)

13) 심청전에 대한 최초의 기록은 趙秀三의 『秋齋紀異』에 나타나는데, 조수삼은 1762년에 태어나 1849년에 죽었다. 그러므로 심청전은 대략 18세기 중반 무렵까지 형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14) 崔來沃, 「說話와 그 小說化 過程에 대한 構造的 分析」, 『국문학연구』 제7집(서울대 국문학연구회, 1968), 114-117면 참조.

15) 皆擁正己酉暮春, 碧梧門人白梅子, 因德閑子之所述, 芟繁增削而書.(『玉果顯聖德山觀音寺事蹟』, 9a-9b면)

심청전과 관련하여 거론된 두 번째 근원설화로는 黃泉巫歌가 있다. 황천무가는 죽은 이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무속제의에서 巫覡에 의해 구송·전송되고 있는 무가<sup>16)</sup>들을 말한다. 이들 중 심청전과 관련을 지닌 것으로 논의된 것으로는 오구굿계 서사무가 <바리공주>가 있다.<sup>17)</sup> <바리공주>는 전국적으로 전송되고 있는 서사무가로, 일명 ‘바리데기’, ‘오구풀이’, ‘칠공주’, ‘巫祖전설’이라고도 한다. 죽은 사람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기 위해 베풀어지는 오구굿, 진오귀굿, 씻김굿 등의 무속의식에서 구연된다. 서사적 내용을 차치하더라도, 판소리의 창자인 광대가 무속적 유대를 가지고 있고, 무가가 판소리와 음악적 측면에서 공유하는 면이 적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심청전과 일련의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설 심청전을 읽거나 판소리 심청가를 듣는 이들의 태도는 많은 점에서 차이가 있다. 죽은 자의 영혼을 위로하고 저승으로 인도하려는 의도에서 마련된 서사무가 <바리공주>는 죽음과 관련된 종교적이며 신화적인 기능을 중시할 수밖에 없다.<sup>18)</sup> 그러므로 오락과 흥미와 교훈을 본격적으로 추구하는 소설이나 판소리와는 다를 수밖에 없다. 또한 심청전의 경우는 판소리보다 소설이 선행했다는 견해가 굳어지고 있다. 판소리 보다 소설이 선행했다면, 무가가 소설화하는 방식이 해명되어야 할 터인데, 그것을 해명하는 것은 매우 요원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판소리의 무가적 기원과 관련하여 심청전의 기원을 탐색하는 작업은 설득력이 약하다.

세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근원설화로는 ‘심청굿 무가 사설’이 있다. 심청굿은 동해안 일대에서 무당들이 주재하는 洞祭인 豐漁祭 또는 別神굿에서 행해지는데, 이때 무녀에 의해 심청가가 창으로 불려진다. 이 자리에서 심청가는 어부들이 바다에 나가 어업을 할 때, 어부들의 눈망울이 맑게 되어 어업을 잘할 수 있게 해주는 주술적인 기능을 한다<sup>19)</sup>고 한다. 그렇지만 심청굿 무가의 사설은 무속신화로서의 성격은 약하고 한 편의 구비서사시로서 노년층 여성에게 인기가 높은 자료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자료는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춘향가와 내용이 거의 같기 때문에 주목을 끄는 자료이다. 그러나 심청굿의 심청무가는, 서사무가 바리공주와 같은 류의 자료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무가와 판소리, 혹은 무가와 소설의 선후관계를 실증적으로 해명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수신에 대한 희생제의는 무속제의로서 오랜 전통을 지닌 것으로 생각되나, 구송하는 심청굿무가의 사설은 오히려 소설이나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아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심청전에 선행하는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판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네 번째로 거론할 수 있는 근원설화로는 ‘孝女知恩說話’가 있다. 이 설화는 『三國史記』에 전해지는데 같은 이야기가 『三國遺事』에는 ‘貧女養母’라는 제목으로 실려 있다. 삼국사기에서는 딸이 몸을 팔아 어머니를 봉양하고 그에 대해 사회적으로 보응을 받는 효행설화로 끝나고 있지만, 삼국유사에서는 왕이 하사한 집을 절로 삼아 兩尊寺라 하였다는

16) 金泰坤, 『黃泉巫歌研究』, (창우사, 1966), 21면 참조.

17) 김태곤, 『황천무가연구』(창우사, 1966). 32면.

18) 물론 서사무가에서도 오락적인 기능이 경시되는 것은 아니지만, 기능상 종교적인 측면이 중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을 하는 것이다.

19) 이것은 소설에서 심청이 풍랑을 멎게 하기 위해 희생제의를 치른 것과는 다른 점이다.

사찰연기설화가 부연되어 있다. 삼국사기는 유교적 덕목인 효를 선양하기 위한 의도에서 효행부분에 중점이 두어진 반면, 삼국유사는 불교적 성격 때문에 사찰연기설화가 부연된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는 1174년에, 삼국유사는 1281년경에 편찬된 것으로 그 연대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바리공주’·‘심청국 무가 사설’과는 다르고, ‘원흥장이야기’와는 그 성격이 같다. 심청전보다는 먼저 전승된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심청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객관적인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료이라는 점은 ‘원흥장이야기’와 동일하다. 다만 시기적으로는 ‘원흥장이야기’가 ‘효녀지은설화’보다는 판소리와 가까운 시기에 전승되었다는 점이 다르다.

다섯째로 들 수 있는 자료는 ‘居陀知說話’이다. 이 설화는 『삼국유사』에 수록되어 있다. 연대가 분명하고 심청전보다 이전에 전승되던 자료이므로 위의 ‘孝女知恩說話’와 성격이 유사하다.

국외의 근원설화로 인도는 ‘專童子·法妙長者說話’<sup>20)</sup>, 目連尊者說話, 일본의 ‘小夜姫說話’ 등이 거론되었다. 인도의 佛典說話인 ‘專童子·法妙長者說話’, 일본의 ‘小夜姫說話’ 등은 김태준이 거론한 바<sup>21)</sup> 있다. 그러나 불전설화인 專童子·法妙長者說話의 문헌적 근거를 밝히지 않아 그 문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이다. 일본의 사요히메(小野姫)설화는 이와 다르지만 이 설화가 심청전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었다는 증거를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했다. 이는 ‘專童子·法妙長者說話’도 마찬가지이다. 이들 설화가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상태에서 그것들이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작용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약하다. 우리나라에서도 전승된 것으로 알려진 국외의 근원설화로 目連尊者說話가 있다. 목련존자이야기는 『目連經』이 전해지면서 우리나라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고려 예종 원년(1106)에 孟蘭盆齋를 올리고 명망있는 중을 불러 目連經을 강의했다는 기록<sup>22)</sup>이 보인다. 그 후로 목련경은 널리 유포되었으며, 목련경은 우리나라 어느 절에서나 찾아볼 수 있는 흔한 경전이 되었다. 목련경은 위에서도 말했지만 우란분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우란분재는 거꾸로 매달린 듯한 지옥의 고통에서 선망 부모들과 유주무주한 고히들의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불교행사<sup>23)</sup>이며 일명 백중이라고도 불렸다. 이때에 목련경은 講唱형식으로 불려진 듯 하다. 그리고 이러한 목련경의 강창은 판소리의 전승방식과 비교해볼 때 형식적으로 매우 유사했던 것<sup>24)</sup>으로 여겨지므로 심청전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자료라 할 수 있다.

20) 法妙童子라고도 지칭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法妙童子라는 명칭은 김태준의 『조선소설사』에서 서술된 것에서부터 비롯되었는데, 김태준의 그 다음의 서술내용을 자세히 보면 法妙長者가 맞는 명칭임을 알 수 있다.

21) 김태준, 『조선소설사』(학예사, 1939), 145-150면.

22) 『高麗史』, 「世家」12, 睿宗 元年 七月 癸卯 甲辰條. 참조

23) 박광수, 「韓國 目連傳承의 流通樣相」, 『孟蘭盆齋와 目連傳承의 文化史』(중앙문화사, 2000), 403면 참조.

24) 이점에 대해서는 김학주, 「중국의 강창문학과 판소리」, 『동아문화』6집(서울대 동아문화연구소, 1966)과 성현자, 「판소리와 중국 강창문학의 대비 연구」, 『진단학보』53·54(진단학회, 1982) 및 이수웅, 「심청가와 강창문학의 관계고」, 『안동문화』3(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2)등에서 논의된 바 있다.

### 3. 서사적 구성요소 검토

소설과 판소리에 나타난 심청이야기는 孝行說話, 人身供犧說話, 開眼說話, 再生說話 등으로 네 가지 話素<sup>25)</sup>를 중요한 소재원천으로 하여 구성되었다. 우선 네 가지 화소에 비추어 이들 근원설화들을 심청전과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등장인물들의 양상을 통해 각 설화들의 친소관계를 검토해 보려 한다.

우리나라의 효행설화들은 대체로 희생효도이야기로 나타나는데, 그 사건전개 과정을 요약하면 다음<sup>26)</sup>과 같다.

- ① 효자(또는 효녀)
- ② 희생(가장 소중한 것을 바침)
- ③ 기적(또는 협조자)
- ④ 부모의 문제 해결

‘원홍장이야기’는 이러한 효행설화의 사건전개 과정에 온전히 부합하는 효행설화의 화소를 지니고 있다. 즉 다음과 같이,

- ① 효녀(원홍장)
- ② 희생(자기 몸을 판다)
- ③ 기적(중국 사신을 만나 황후가 된다)
- ④ 부모의 문제 해결(盲父가 눈을 뜬다)

의 과정을 밟으며 사건이 전개된다. 또한 자기 몸을 佛前에 바친다는 점에서 人身供犧說話의 요소를 지니고 있으며, 자신의 몸을 바쳐 아버지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에서 開眼說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다만, 원홍장은 이승의 세계를 떠나 저승의 세계를 다녀오는 것이 않으므로 再生說話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물론 가난한 맹인의 딸이 황후가 된다는 설정은 그가 이승에서 신분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나는 정도로 큰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도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재생설화의 요소를 온전히 갖추지는 못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의 세 가지 화소와 직접적인 관련성을 온전히 구비하고 있다. 일단 화소별로 볼 때, ‘원홍장이야기’는 심청전과 매우 친근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25) 최운식은 그의 『沈清傳研究』(집문당, 1982)에서 ‘胎夢說話’를 추가했으나, 우리나라 일대기형식의 전기소설에는 태몽설화가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태몽설화를 심청전의 근본적이며 특징적인 화소로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에 여기에서는 거론하지 않는다.

26) 최래옥, 「심청전의 총체적 분석」, 『심청전 연구』(태학사, 1999), 46면 참조.

등장인물들의 형상도 ‘원홍장이야기’와 심청전은 매우 유사하다. 효녀 심청과 원홍장, 심봉사와 원봉사, 송나라 황제와 진나라 황제, 몽은(은)사 화주승<sup>27)</sup>과 대홍사 화주승 法空, 중국 사신과 남경 船人 등이 서로 같은 서사적 기능을 담당한다. 다만 심청전에 등장하는 뽕덕어미, 장승상부인, 용왕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경판계열 심청전에는 뽕덕어미와 장승상부인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할 때, ‘원홍장이야기’와 심청전의 인물구성은 매우 유사하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나타난 원홍장의 모습에는 효녀의 모습과 동시에 중생들을 구제하는 觀音菩薩의 형상이 투영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黃泉巫歌 바리공주 이야기’도 전형적인 효행설화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 즉,

- ①효녀(바리공주)
- ②희생(죽어서 저승으로 간다)
- ③기적(저승의 神藥을 얻는다)
- ④부모의 문제 해결(죽은 부모를 살린다)

와 같은 효행설화의 전개과정을 온전히 갖추고 있다. 그리고 비록 신에게 자신의 몸을 제물로 직접 바치는 것은 아니지만 어찌했던 부모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고, 저승의 여러 신들을 위해 몸을 던져 봉사했다는 점에서 人身供儀說話의 요소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강하게 나타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리고 죽어 저승에 갔다가 돌아오므로 再生說話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바리공주의 부모는 당초에 맹인이 아니었으므로, 開眼說話의 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요컨대, 효행설화와 재생설화 화소는 온전히 나타나고, 인신공희화소는 약하게 나타나며, 개안설화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으로 보면 ‘바리공주이야기’는 ‘원홍장이야기’에 비해서 심청전과의 화소적 근접성이 떨어진다.

등장인물의 구성에도 유사점은 있으나 심청전과의 친근성은 떨어진다. 주인공인 바리공주와 심청이 여성으로서 고난을 극복하고 효도한다는 점에서는 같으나, 신분적인 위상이 다르고 이 때문에 신분상승과정 유무가 다르게 나타난다. 또한 심청의 아버지는 맹인이었으나, 바리공주의 아버지는 그렇지 않다. 더군다나 이들을 제외한 다른 등장 인물들은 서로 간의 유사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심청굿무가사설’은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와 내용이 거의 유사하므로 심청이야기가 가진 네 가지의 주요화소인 孝行說話, 人身供儀說話, 開眼說話, 再生說話의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심청전과 관련하여 여타 근원설화에 비해 화소적 근접성이 가장 높다. 또한 등장인물들도 심청전과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2장에서도 살폈듯이 소설 심청전이나 판소리 심청가보다 후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점이 큰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孝女知恩說話’에는 효행설화의 화소가 강하게 나타난다. 효녀가 눈먼 어머니를 위해

27) 경판계열에서는 ‘명월산 운심동 개법당 화주승’으로 나타난다.



자신을 희생하여 종살이 하다가 화랑인 孝宗郎을 만나 기적적인 도움을 얻어 어머니를 풍족하게 봉양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그러나 개안화소와 재생화소가 나타나지 않으며, 남의 집 종으로 자신을 팔기는 하지만 그것이 인신공희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등장인물로 보면 심청과 지은은 효녀로서 동일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고난의 정도가 심청이 지은에 비해 강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라 보응의 양상도 더욱 극적이며 거대하게 이루어진다. 그리고 눈먼 이가 지은에게는 어머니로 심청에게는 아버지로 나타나는 점도 다른 점이다. 도움을 주는 인물로 중국 황제와 신라 국왕이 나타나는 점은 서로 유사하다고 하겠지만 그 중간 매체가 되는 인물들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심청전과 효녀지은설화는 효행설화로서의 유사성을 찾아볼 수는 있으나 여타 서사적 화소와 상황들은 가깝다고 하기 어렵다.

‘居陀知說話’에는 人身供犧話素가 잘 나타나 있지만, 심청전의 가장 중요한 화소인 孝行話素가 나타나 있지 않다. 그리고 여타 開眼話素나 再生話素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화소적 접근도가 매우 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더군다나 등장인물들의 관련성은 매우 떨어진다. 주인공이 거타지설화에서는 남성인데 반해 심청전에서는 여성이며, 여타 서사적 줄거리에도 상당한 차이점이 있다.

국외의 설화인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는 효행설화・개안설화・재생설화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나 그 문헌소재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고, 그 문헌소재를 확인할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유통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길이 없으므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인정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주인공이 남자인 점, 황제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등은 심청이야기와 상이한 점이다.

일본의 ‘사요히메(小夜姬)설화’에는 효행설화, 개안설화, 인신공희설화 화소가 잘 나타나 있으나, 재생설화 화소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심청과 小夜姬는 효녀로서 산 제물이 되고 각기 아버지와 어머니의 눈을 뜨게 했다는 점에서 유사한 인물이다. 그리고 小夜姬 이야기에는 황제대신에 大和國司가 등장하는 점도 유사하다. 비교적 심청전설화와 닮은꼴을 이루고 있지만, 2장에서 논한 바와 같이, 이 설화가 우리나라에서 전승되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심청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근원설화로 볼 수는 없다.

위의 두 가지 국외설화에 비해 ‘目連尊子說話’는 우리나라에서 널리 전승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청전의 근원설화로 논의할 근거가 강하다. ‘목련존자이야기’에는 효행설화, 재생설화의 화소가 나타나지만, 심청전의 중요한 화소인 인신공희설화, 개안설화 화소가 나타나 있지 않다. 국내에 널리 전승되었던 국외설화임에도 불구하고 화소적 접근도에서는 많이 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심청전에서는 주인공이 여성이지만 ‘목련존자이야기’는 남성이 주인공이라는 점이 다르다. 심청전에는 화주승이 다라 등장하지만, 목련존자 스스로가 佛力을 지닌 승려라는 점도 상이하다. 심청은 이승에서 아버지를 구원하고, 목련존자는 저승에서 어머니를 구원한다. 그 밖의 등장 인물들은 서로 유사한 점을 찾아보기 어렵다. 그러나 모두 불교적인 성격을 지녔고, 효행을 주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 4. 판소리와 의 관련성 검토

3장과 4장에서는 설화적인 측면에서 심청전의 근원설화의 위상을 검토해 보았다. 본장에서는 판소리적인 측면에서 근원설화들의 위상을 점검해 보고자 한다.

‘원홍장이야기’는 상황묘사와 감정묘사 뛰어나며, 대동사회의 이상을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서 판소리적 성격과 가깝다고 할 수 있다. 판소리는 설화와 같이 기억하기 쉬운 줄거리를 전달하는데 중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줄거리보다는 각각의 상황과 정서를 이면에 맞게 해석하고 묘사하는 것을 중시한다. ‘원홍장이야기’에서 이러한 측면이 판소리와 같은 정도로 강하게 부각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야기 서술과정에서 이러한 면들이 중시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성공이 원봉사를 설득·감화시켜 홍장을 보시 받는 대목’, ‘홍장이 아버지와 헤어지는 대목’, ‘진나라의 사신이 홍장과 만나는 대목’, ‘황제와 홍장이 만나는 대목’ 등에는 상황묘사와 정황묘사가 설화적인 차원을 넘어서고 있다. 특히 홍장이 아버지와 헤어지는 대목을 묘사하면서,

딸과 아버지가 애도해 마지않을 뿐 아니라, 산천도 빛이 변하고, 해와 달도 빛을 잃었으며, 새와 짐승도 슬피 울고, 길에서 (이 광경을) 보고들은 이들이 마음 아파하지 않는 이 없었다.<sup>28)</sup>

라고 서술하고 있는 것은 그 상황과 감정을 묘사하는 수준이 매우 탁월함을 보여준다. 산천초목과 해와 달, 새와 짐승에까지 감정을 이입하고 있는 것은 자연물을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판소리의 일반적인 정서 표현 기법과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또한 기법면에서 회곡적 대화체 문장이 자주 사용된다. ‘성공이 원봉사를 설득·감화시키는 대목’과 ‘홍장이 진나라 사자와 만나는 대목’을 비롯하여 이러한 기법은 자주 사용되고 있다.

주제면에서 볼 때, 판소리에는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이 모두가 생명적 동질감을 느끼고 생명문화의 보편적 이상을 구현하려하는 이상이 나타나 있다<sup>29)</sup>. ‘원홍장이야기’에서도 이러한 이상이 잘 나타난다. 중생의 회노애락을 감싸고 풀어주려는 원홍장의 誓願과 이를 실현하는 관음의 모습에서 빈부귀천 남녀노소의 구별이 없이 만인을 공덕으로 포용하는 모습은 대동사회의 이상과 다르지 않다.

그리고 ‘원홍장이야기’의 전승배경이 판소리의 주요 전승지역과 가깝다는 점에서도 판소리와 의 친근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원홍장이야기’는 기법적인 면과 주제적인 측면에서 매우 가까운 판소리와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그러므로 여타 심청전 근원설화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판소

28) 非但女與父哀悼不已, 山川變色, 日月無光, 禽獸亦哀號, 道路觀聽者無不痛楚. (『事蹟記』, 3a)

29)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판소리의 신명풀이 미학』(박이정, 2001) 186-230면에서 자세히 논의된 바 있다.

리로 부르기에 용이한 작품이다.

‘黃泉巫歌 바리공주’와 ‘심청굿무가’는 창자와 반주자와 청중에 의해, 마당에서 연행된다는 점에서 판소리의 연행방식과 유사한 면이 있다. 창과 아니리로 연행된다는 점에서도 판소리 형식과 유사하다. ‘바리공주’는 그렇다고 볼 수 없지만, ‘심청굿무가’는 내용면에서도 판소리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적 유사성이 오히려 판소리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점이 그다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孝女知恩說話’와 ‘居陀知說話’는 판소리와 유사점을 찾기가 어렵다. 효녀지은설화는 서민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판소리와 유사한 점이 있지만 ‘울리고 웃기기’의 양상이 극적이지 못하다는 점에서 설화적 성격이 여전히 강하다. 거타지설화는 서민의 이야기가 아니고 탁월한 능력을 지닌 영웅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판소리와는 역시 거리가 있다.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는 그 전승방식을 확인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일본의 ‘小夜姬說話’도 그 전승방식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目連尊子說話’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널리 전승되었던 것으로 俗講僧에 의해 講唱형식으로 불리어졌으리라 여겨진다. 이러한 강창형식은 판소리와 매우 유사한 점이 있다. 『釋譜詳節』과 『月印釋譜』에 수록된 ‘목련존자이야기’를 보면, 언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려한 구어체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한문・한자숙어 등을 배제하고 순우리말을 적절히 사용하고 있다. 그리고 대화체 문장을 써서 실제 회화에 가까운 문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들은 판소리와 유사한 점이다. 또한 목련은 우란분재를 베풀고, 심청은 맹인잔치를 베풀다. 목련과 심청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희생적인 효도를 했을 뿐 만 아니라, 어려운 입장에 놓인 중생들을 위해서 대동잔치를 벌인다. 이러한 후반부 대동잔치는 판소리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sup>30)</sup>인데, 그러한 점에서도 ‘목련존자이야기’는 판소리와 친근성을 지니고 있다.

## 5. 맺음말

지금까지 필자는 ‘원홍장이야기’를 중심으로 하여 그것이 심청전 근원설화들 사이에서 지니고 있는 위상과, 심청전 근원설화들의 판소리적 성격을 아울러 검토해 보았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원홍장이야기’가 심청전과 가장 가까운 근원설화이며, 판소리로의 발전 가능성도 상당히 포함하고 있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내용을 계통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홍장이야기’는 寺刹緣起說話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이 부분을 제거해내면 심청전과 그 성격이 매우 유사하고 전승시기와 전승장소로 볼 때도 소설 심청전 및 판소리

30) 이에 대해서는 필자의 『판소리의 신명풀이 미학』(박이정, 2001) 186-196면에서 자세히 논의한 바 있다.

심청가와 매우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둘째, ‘홍장이야기’는 서사적인 면에서 심청전과 더욱 깊은 관련성을 지닌다. 심청전의 가장 중요한 서사적 화소라 할 수 있는, 孝行話素, 人身供犧話素, 開眼話素가 모두 나타난다. 등장인물도 효녀 심청과 효녀 원홍장, 아버지인 심봉사와 원봉사, 몽은(운)사 화주승<sup>31)</sup>과 대홍사 화주승 法空, 남경상인과 중국사신, 중국의 황제 등은 서로가 같은 기능을 서사적으로 수행하는 인물들로 동질성을 지니고 있다.

셋째, ‘홍장이야기’는 상황묘사와 감정묘사에 뛰어나고, 대동사회를 추구하는 주제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판소리계소설로의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점들은 여타의 ‘黃泉巫歌 바리공주’, ‘심청굿 무가 사설’, ‘孝女知恩說話’, ‘居陀知說話’ 등 국내 근원설화와 인도의 ‘專童子·法妙長者說話’, ‘目連尊子說話’, 일본의 ‘小夜姬說話’ 등 국외 근원설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 더욱 친근성을 지니는 요소이다. 이로써 ‘홍장이야기’ 여타의 근원설화들에 비해 심청전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 있는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심청전과 홍장이야기의 구체적인 면밀한 비교연구가 뒤따라야 하겠으나, 다음 발표에서 이 주제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므로 본 논의에서는 생략하도록 한다.

---

31) 경판계열에서는 ‘명월산 운심동 개법당 화주승’으로 나타난다.

## 【참고문헌】

- 古 鏡, 「관음사사적기와 심청전: 심청전은 창작작품이 아니다」, 『불교사상』4, 불교사상사, 1974.
- 광민, 『관음사연기설화』, 성덕산관음사, 1998.
- 김기동, 「심청전의 배경론: 새로운 해석을 위하여」, 『무애양주동박사화연기념논문집』, 탐구당, 1963.
- 김기동, 「판소리계소설 심청전」, 『한국고전소설연구』, 교학연구사, 1983.
- 김대숙, 「愚父賢女說話와 심청전」, 『판소리연구』4, 판소리학회, 1993.
- 김상일, 「심청전의 기원」, 『월간문학』31-2, 월간문학사, 1971.
- 김우중, 「심청탄생설화고: 국문학의 사상적 계보를 찾아서」, 『현대문학』 83-85, 현대문학사, 1961-1962.
- 김태곤, 「심청전의 근원설화: 무가를 통한 고찰」, 『문리학총』, 경희대, 1967.
- 김태곤, 『황천무가연구』, 창우사, 1966.
- 김태준, 「심청전의 연구」,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 노태조, 「목련전과 심청전의 대비 고찰」, 『어문연구』23, 어문연구회, 1992.
- 박성의, 「동화 전설등 설화의 소설화」, 『한국고대소설사』, 일신사, 1958.
- 박성의, 「심청전과 내외 각국 설화」, 『한국문학배경연구』, 선명문화사, 1973.
- 사재동, 「심청전 연구서설」, 『한국고전소설연구』, 새문사, 1974.
- 성택승, 「효행위와 맹안득명담: 맹안득명 모티브와 심청전」, 『고려·조선시대 서사문학 발전의 연구』,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1993.
- 신동일, 「심청전의 설화적 고찰」, 『육사논문집』7, 1969.
- 운양자, 「출천효녀 심청소저는 원봉사의 딸 홍장이다」, 『불교』76, 불교사, 1930.
- 유영대, 「심청가의 배경공간」, 『한국민속학보』7, 한국민속학회, 1996.
- 유우선, 「심청전의 근원설화와 배경사상」, 『용봉논집』11, 전남대 인문과학연구소, 1981.
- 이상준, 「심청전근원설화재고: 옥과관음사연기설화를 중심으로」, 연세대 석사논문, 1983.
- 이수웅, 「심청가와 강창문학의 상관성」, 『안동문화』3, 안동대 안동문화연구소, 1982.
- 이혜화, 「심청전의 용사상적 고찰: 백령도전승을 중심으로」, 『한국고소설사의 시각』, 국학자료원, 1996.
- 인천광역시 용진군, 『심청전 배경지 고증: 용역결과보고서』(인천광역시 용진군 편), 1998.
- 장덕순, 「심청전 연구」, 『고전소설연구』, 국어국문학회, 1979.
- 정하영, 「심청전 근원설화 연구 서설」, 『국어문학』21, 전북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80.
- 정하영, 「심청전의 제재적 근원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논문, 1983.
- 주왕산, 「설화 전설의 소설화: 심청전」, 『조선고대소설사』, 정음사, 1950.
- 최성규, 「심청전 근원설화의 원형적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1985.
- 허원기, 「신명풀이로 본 판소리의 연행방식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박사논문, 2000.
- 황패강, 「심청 설화의 분석: 인류적 향수를 중심으로」, 『국어국문학』31, 국어국문학회, 1966.

## 【早 稿】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蹟

余少時，遊歷諸山，幸到觀音寺，私聞長老之說。聖蹟曰，

忠清道大興縣，有一盲人，其姓元，其名良，早喪配耦，鰥居窮困，仍鮮族黨，無所依賴。惟一少女，名洪莊，生而淑美，態度不凡，性識通敏，常以至誠勤養其盲父也。志切反哺跬步不忘，非特晨昏臥起，左枝右梧而侍側，亦衣服之需·飲食之味，無不稱旨。一境咸稱其大孝，名聞華夏焉。其盲父適有故出上邑路，逢一僧，乃弘法寺法堂幹善，稱名性空者也。忽見盲者趨拜曰，“欲與君同成金剛不朽之因，幸公爲我大施也。”盲者言，“以我奚丐求。”“若所欲，豈不難哉？”化士再拜而起曰“吾受勸軸之日，夢有金人誥吾曰，明朝，出路口逢盲人，卽爲汝之大檀越也。是以懇請。”盲人籌思移時而言曰，“家無斗儲，野乏尺壤，雖欲，奚爲？止有一少女，以此與之，卽賣而以爲法堂經營之資。”是時，女年二八，化士欣然。告別，非但女與父哀悼不已，山川變色，日月無光，禽獸亦哀號，道路觀聽者，無不痛楚于衷焉。女跋涉道途，心力疲困，乃憩於蘇浪浦岸。擡頭西望，須臾，碧海上，兩紅船自西而東，疾如飛箭，來泊津頭，是乃中州涓人之船。船上金冠玉佩繡衣使者，熟視此女之韶顏絕色，卽親拜謝於前曰，“真是后也。”女變色曰，“是何言歟？”使者曰，“吾晉國人也。永康丁亥五月辛酉，皇后崩，自是，上常惻然不已。一夜夢有神人白‘上新皇后生於東國，今已長成，端正勝於前皇后，更勿爲遊者而哀也。’上欠伸而覺，明日卽備幣帛四萬端，金銀珍寶都載兩船，又擇善相慧利者爲使者。申命直馳東國，持此物色衣樣求得。小臣猥荷此任，受命以來，夙夜憂懼，今幸覩盛儀，乃敢發言。”女歎曰，“頃篋相應，一身之去留，何難之有，蓋所持幣帛幾許？”使者答焉，“滿載兩船珍寶。”女微笑而言曰，“我身非我身，乃父種善之奇貨，兩船都附化士，遂與計偕入上國”朝謁之時，月貌星眸，光彩照人，上視而歎曰，“以海隅之鰥域而如是之人哉！”由是有寵，所言皆從焉。后稟性雅善彌天慈威，欲行淨業，乃勅石匠，以瑪瑙造塔三千，分列諸國後，后曰，“身雖登於寶位，豈能忘乎本國！”又勅成五十三佛·五百聖衆與十六羅漢，點畢。使舟人載三石船，送本國，浮海中流，不施篙櫓，風帆浪楫，任其所之，幸泊甘露寺前浦，因安於此寺還了。石匠雖老志願弘深，使其子又造塔，移置金剛寺四度塔，則運立於豐德縣擎天寺後。又素願成就，募父曰，“爺之福田，吾何獨無表！精造佛與塔，移安于大興縣弘法寺。如是往復五度，功德圓滿，志願已畢。然所欠者，自願佛也，則歸別宮，倩工鑄成觀音一尊，令叔人載石船送東國。臨行 后申命曰，“此像則須隨其所止處，而奉安也。”叔人受命向東國，漂流海中，已及暮矣。一朝忽隨風飄泊於樂安地斷橋側無河，此土邊守，疑是荒唐船也，追捕甚急之會，此石船無風自動入於渺茫中。翌日，玉果處女聖德氏，無端自出海上，獨立望遠，天海雲波縹緲中，一葉小石船，如有引物而來前。聖德奉觀船上金相觀音，忽發敬心，投體拜畢，親負觀音，輕如鴻毛，行到此嶺，重若泰山，一步不移，卽休安置。仍建大伽藍，扁其額曰 聖德山觀音寺，良有以也。蓋弘莊與聖德，俱是觀音隨應之身歟！豈特牟尼分身百億於塵刹也。當時，化士性空得其財，不逾月斷功，盲人元良，從前別女之哀淚，盲眼忽明，具享休福而終壽九十五。此皆聖感冥應之跡，不可以泯沒者也。余所聞於長老者，止此而已。至若峯岩四圍之逶迤，溪壑一帶之清冽，人煙之叢絕，洞府之幽闐，來者目之可略也。豈擁正己酉暮春，碧梧門人白梅子，因優閑子之所述，芟繁增削而書之。復記前後重創之跡，附之卷尾。

## 제 4 주제

# 원홍장전의 실상과 심청전의 관계

사 재 동

(충남대학교 명예교수)





# 「元洪莊傳」의 實相과 「심청전」의 關係

사 재 동(충남대학교 명예교수)

I. 序 論	5. 장르적 性向
II. 「元洪莊傳」의 形成經緯	IV. 「元洪莊傳」과 「심청전」의 關係
1. 形成의 背景	1. 構造・內容面에서
2. 形成의 主體	2. 主題・思想面에서
3. 形成의 實際	3. 構成・形態面에서
III. 「元洪莊傳」의 文學的 實相	V. 「元洪莊傳」의 文化史的 位相
1. 構造와 內容	1. 文學史的 位置
2. 主題와 思想	2. 藝術史的 位置
3. 構成과 形態	3. 文化史的 位置
4. 文體와 表現	VI. 結 論

## I. 序 論

이 「원홍장전」은 그동안 ‘관음사연기전설’로만 알려져 왔지만, 기실 불교계 효행문학으로 아주 우수한 작품이라 하겠다. 그것이 비록 단편이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 독자적 작품의 제반 요건을 갖추고 감동적인 내용을 통하여 그 기능을 발휘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처럼 「원홍장전」은 그 문학적 실상과 문학사적 위상이 매우 뛰어난다는 점에서, 그만큼 학계의 주목을 받았어야 마땅하다. 나아가 이 작품은 너무도 유명한 불교계 효행소설 「심청전」과 대등한 가치를 지니고, 어떤 상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진다. 이 두 작품이 각기 독립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지만, 그 상관성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지금 이 「원홍장전」은 그 자체의 가치나 중요성보다는 「심청전」과의 관계를 전제로 학계나 문화계에서 혼란한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원홍장전」은 「심청전」의 원형이라거나 「심청전」으로 개작되었다는 성급한 논의와 함께, 심지어는 「심청전」과 동일시하는 경향까지 나타나게 되었다.<sup>1)</sup> 따라서 이 「홍장전」의 실상과 위상 그리고 「심청전」과의 관계는 본격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절실한 터다.

1) 이러한 혼란상에 학계·문화계·언론계가 휩쓸리고 있는 바, 최근 《심청국제학술 심포지엄》(곡성군청, 2001)과 <곡성군 심청사업, 심충취재>(뉴스 라이프 3, 뉴스 라이프사, 2002)에서 잘 드러나 있다.

그동안 이 「원홍장전」은 독립된 작품이라고 본격적으로 공인·연구된 바가 별로 없는 것 같다. 다만 이 작품이 「심청전」과의 관계선 상에서 단편적으로 논의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우선 이 「원홍장전」은 「심청전」의 근원설화 중의 하나라고 거론된 적이 있고<sup>2)</sup>, 이것이 판소리 「심청가」의 원형설화라고 논의되기도 하였다.<sup>3)</sup> 한편 이 작품이 「심청전」의 원형으로 취급된 바도 없지 않았다.<sup>4)</sup> 나아가 이 「원홍장전」의 「심청전」으로 개작되었다는 견해까지<sup>5)</sup> 나오게 되었다. 더구나 어떤 지역에서는 이 「원홍장전」이 거의 그대로 「심청전」인양 성급한 주장을 하며 「원홍장전」의 유관지역을 「심청전」의 발상지로 건장부회하려는 풍조까지<sup>6)</sup> 일고 있는 형편이다.

여기서 우리는 「원홍장전」이 독립된 작품으로 공인되어야 하고, 독자적으로 평가·논의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작품과 「심청전」의 관계가 깊다손치더라도, 이 두 작품간의 선후와 거리는 결코 단순치 않기에, 그 사이에 매개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된다.

그리하여 본고에서는 첫째 「원홍장전」의 형성경위를 검토하고, 둘째 「원홍장전」의 문학적 실상을 고찰하며, 셋째 「원홍장전」과 「심청전」의 관계를 추적하겠다. 그리하여 「원홍장전」의 문화사적 위상을 어림하는 데에 하나의 방향을 잡아 보려고 한다. 이 논고의 원전은 송광사 소장 「玉果縣聖德山觀音寺事記」로 한다. 이 원전은 옹정 7년(1729) 옥과현 관음사에서 개판하고, 건륭 16년(1751)에 중간한 목판 26면본이다. 매면(판광 22.5cm×18.5cm) 7행, 1행 10자로 반초서 달필이다. 이 작품은 18면을 차지하고 있다.

## II. 「元洪莊傳」의 形成經緯

이 작품의 기반과 계통을 검토하는 기초작업은 필수적이다. 그런데 이 작품이 작자와 연대 등에서 투명·확실히 않으므로 그 논의 범위는 넓어지고 그 방법은 막연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작품의 중심무대를 기준하여 몇 가지 방향을 설정하게 된다. 그것이 바로 이 작품에 대한 형성의 배경이요, 형성의 주체이며, 형성의 실체이다. 이러한 세 가지 측면에서 밝혀지는 실태와 그것들의 유기적인 연계망이 타당성을 유지할 때, 이 작품은 그 실상과 위상을 비로소 확보하게 된다. 실제로 어떠한 환경과 기반·전통 위에서, 어느 계층이 주체가 되어, 이 작품을 어떻게 형성시켰는가를 올바르게 밝힐 때, 이 작품은 그제야 안전한 연구의 대상으로 대두되겠기 때문이다. 여기서 위 분야별로 적절한 방법론을 통하여 이를 개관할 것이다.

2) 김태준, 조선소설사, 학예사, 1939, pp.149~150.

최운식, 심청전 연구, 집문당, 1982, p.167.

3) 김동욱, 판소리 발생고, 한국가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61, pp.289~310 참조.

4) 광민편저, 심청전의 원형, 관음사의 연기설화, 성덕사 관음사, 1998.

5) 古鐘, 관음사적기와 심청전, 심청전의 원형, 흥법사의 연기설화, 이매원장군 유적사편찬회, 2000, p.58.

6) 백원규 등, 관음사 사적과 전남곡성 심청이미지 사업 답사 보고, 예산군청, 2001 및 주기(1) 참조.

## 1. 形成의 背景

이 「원홍장전」이 형성된 배경은 광범하고 복합적이지만, 이 작품의 주요 무대 ‘忠淸道 大興縣’·‘蘇浪浦’, 지금의 충남 예산군을 중심으로 논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작품에 보이는 사찰명에 근거하여 부여군(금강사), 경기도 화성군(홍법사), 개풍군(감로사·경천사), 전남 곡성군(관음사)과 중국측의 무대 ‘晉國’(永康)등을 확대·연결시킬 수가 있겠다. 여기서는 역사·지리적 환경과 종교·윤리적 기반, 그리고 문학·문화적 전통 등을 개관하게 될 것이다.

첫째, 역사·지리적 환경에 대해서다. 이 충청남도는 백제때 웅진도성의 관할에서 당나라 웅진도독부에 소속되었다가, 신라에 병합된 뒤에는 웅주의 영역에 들었다. 신라가 쇠퇴할 때, 후백제와 후고구려가 운주(홍성)와 공주(공주)에서 활약하였고, 931년(태조 14) 고려에 통합되었다. 995년(성종 14) 관제개정에 따라서 전국을 10도로 나눌 때, 그중 河南道가 되어 운주·공주 등 11개 주를 관할하였다. 1106년(예종 1)에는 關內道와 中原道를 합쳐 楊廣忠淸州道라 칭하였고, 1171년(명종 1)에는 두 도로 나누었으나, 1315년(충숙왕 2)에 다시 합쳐 楊廣道라 하였다가 1356년(공민왕 5)에 비로소 忠淸道라 개칭하였다. 이것이 바로 ‘忠淸道’의 상한선이라 하겠다. 그후 조선시대에 들어 와서는 1395년(태조 4)에 양주·광주의 관할을 경기도로 옮기고, 충주·청주·공주·홍주만을 관할하여 忠淸道의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며 관찰사를 충주에 두었다. 그후로 충청도는 경상도와 경기도 사이에 군현을 주고 받으면서 12군 38현을 관할하고 1598년(선조 31)에 감영을 충주에서 공주로 옮겼다. 이 충청도의 명칭은 그후로 忠公道·淸公道·淸洪道·公淸道·公洪道·忠洪道·公忠道 등으로 자주 바뀌어 왔으니, 그것은 충주·청주와 공주·홍주의 충효 윤리적 층위에 따라 변화된 것이었다. 마침내 행정의 편의상 忠淸左道와 忠淸右道로 나누어졌던 것이 1896년에 8도를 13도로 나눌 때, 충청좌도는 충청북도가 되고 충청우도는 충청남도가 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356년 忠淸道라 개칭되기 시작하여 그것이 충청남도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그 주맥을 거의 그대로 유지하여 왔다는 사실이다.<sup>7)</sup>

다음 예산군과 大興縣의 관계다. 예산군은 禮山·大興·德山이 병합된 지역이다. 예산은 백제 때 烏山縣이라 하였고, 757년(경덕왕 16)에 孤山縣이라 개칭하여 任城郡의 영현으로 삼았다. 대흥은 백제때 任存城 혹은 今州로서, 경덕왕 때 임성군으로 고쳤다. 덕산은 백제 때 馬尸山郡이라고 하였으며, 경덕왕 때 伊山郡으로 고치고 웅주에 예속시켰다. 그 고산현은 919년(태조 2)에 禮山縣으로 개칭되었고, 1018년(현종 9) 천안부에 속한 뒤에 감무를 두었다. 940년(태조 23)에 임성군은 마침내 대흥군으로 개칭되었으며, 1018년에 홍주에 속하였다. 여기서 이 ‘大興’의 명칭이 시작되었음을 알겠다. 이어 1413년(태종

7) 이찬, 충청남도, 연혁,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2,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2, pp.674~676.

13)에 예산·덕산과 함께 대흥에 현감이 임명되었다. 그래서 ‘大興縣’이 확인되는 것은 주목할만한 일이다. 이 대흥현은 1895년 예산·덕산과 함께 군단위로 개편되어 홍주부에 속하였다. 이 대흥군은 1896년 예산군·덕산군과 같이 충청남도에 들어갔다. 1914년 근대적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대흥군은 예산군·덕산군과 함께 예산군으로 통합되면서 대흥면으로 개편되었던 것이다.<sup>8)</sup> 여기서 중시되는 것은 이 작품에서 ‘大興縣’에 ‘弘法寺’가 있다고 기술한 점이다. 지금 예산군·대흥면에서 홍법사는 흔적조차 찾을 수 없고,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에 홍법사가 있음을 확인하게 된다. 이른바 홍법사의 실존을 고증하는 사실과 그것이 작품의 무대로 재구성되는 내막은 다음에 논의코자 한다. 한편 작품 속의 ‘蘇浪浦’는 그 흔적이 같은 군 신암면 신태리의 자연부락인 ‘소랑말’에 남아 있다는 것이 주목된다.

다음은 부여군의 역사다. 현재의 부여군은 백제시대의 所夫里·大山忽(홍산)·加林忽(임천)·珍惡山(석성)까지 아우른다. 특히 부여읍 일대는 소부리 혹은 泗泚라고 하였다. 538년(성왕 16)에 백제는 웅진에서 사비로 도읍을 옮기면서 국호를 南扶餘로 바꾸었다. 이때부터 이 지역에 扶餘의 칭호가 붙기 시작한 것 같다. 그 뒤 6대 120여간 백제의 수도로서 번성기를 맞았고 문화의 꽃을 피웠다. 백제가 멸망한 뒤에는 문무왕이 총관을 두었다가 686년(신문왕 6)에 사비주를 군으로 삼았고, 경덕왕때 웅천주를 응주로 고치면서 부여를 그 속군으로 하였다. 이 부여군에는 석산현·열성현 등이 소속되었다. 부여군은 신라말기에는 후백제의 영역이었다가, 고려의 통일에 따라 그 속군이 되었다. 그뒤 부여군은 河南道에 예속되었고, 예종 이후에는 공주에 속하면서 정식으로 부여군이라 하였다. 여기서 부여군의 명칭이 제대로 정립된 것이라 하겠다. 조선 초기까지는 고려의 제도를 그대로 따르다가, 태종 대에 팔도제를 정비하면서 공주목의 속현이 되었다. 그러면서 부여군은 부여현·홍산현·임천현·석성현 등을 관할하였다. 1895년 팔도제가 폐지되고 전국을 23부로 구획할 때, 공주부의 부여군으로 승격되었다. 1896년 13도제를 채택할 때, 충청남도의 부여군이 되어 1914년 부·군 통합령에 따라, 홍산·임천과 공주의 일부를 편입시켜 은산면 등 16개면을 통할하게 되었다.<sup>9)</sup> 이처럼 부여군은 백제의 천도 이래 왕도권의 역사와 문화를 누리어 왔다. 이 군의 은산면 금곡리에 금강사가 있었다.

한편 경기도 화성군의 역사다. 이 화성군은 수원과 역사적 운명을 같이하였다. 원래 수원 지역은 고구려가 한강 유역을 점유하고 있던 5세기 말엽부터 신라의 삼국통일까지는 고구려 買忽로 불리었다. 신라 통일 후 757년(경덕왕 16) 9주를 두고 군·현의 명칭을 고칠 때, 水城郡이라 하였다. 고려의 영토로 병합되어 934년(태조 17)에 水州로 승격되니, 이때 고을의 명칭은 한남·수성으로 불리었고, 1018년(현종 9)에 知水州事를 두어 정송·용성·광덕·쌍부 등의 현을 영속시켰다. 1271년(원종 12) 몽고병이 대부도에 침입하였을 때, 섬 주민들이 몽고병을 죽이고 부사 안열이 이를 평정시켰다 하여, 그 공으로 수원도호부로 승격되었다. 그뒤 도읍의 명칭은 여러 이유에서 승격 또는 강등되어 달

8) 권태원, 예산군 역사,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15, pp.756~766.

9) 권태원, 부여군 역사, 위 책 10, pp.277~278.

리 불리었지만, 수원부나 수원군으로 계속 내려 왔다. 조선 초기 1394년(태종 3) 한양으로 천도하면서 양광도에서 경기도로 편입되고, 1413년(태종 13) 수원도호부가 되었으며, 1456년(세조 2)에 판관을 두어 진으로 하면서 경사를 수호하는 보의 한 곳이 되었다. 그리하여 경사와의 유기적 관계를 맺어 오다가, 정조는 생부인 사도세자를 1789년(정조 13) 양주 배봉산에서 이곳 화산으로 천장하고, 이곳에 있던 읍치를 모두 팔달산 밑으로 옮겼다. 1793년 수원부를 화성유수부로 승격시키고 각종 시설·문물을 갖춘 화성을 3년에 걸쳐 완공하였다. 이로부터 수원은 화성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하여 1896년에는 경기도 관찰부 소재지가 되었다가, 1910년에 서울로 이전되었다. 이 수원군의 수원면이 읍으로 승격되고, 1949년 수원읍이 시로 승격되면서 나머지 지역은 화성의 명칭을 이어 화성군으로 되었다. 이처럼 화성은 정조 이래 수원의 중심이 되어 오다가 수원시의 분리로 화성군의 명칭이 정착되었다. 이 군의 서신면 홍법리 청명산에 홍법사가 있다.<sup>10)</sup>

그리고는 개풍군의 역사다. 이 개풍군 일대는 원래 고구려의 冬比忽·德忽縣·貞州 지방을 통할하였고, 신라가 이 지역을 장악한 이후 751년(경덕왕 15)에 冬比忽은 開城郡으로, 德勿縣은 德水縣으로 개칭되었다. 후삼국 시대에는 이 지역의 호족인 왕륜의 본거지가 되었다. 개풍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떨친 왕륜의 아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919년(태조 2)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기면서 개성군과 병합하여 開州로 부르다가, 995년(성종 14) 다시 개성부로 고쳤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개성은 신라시대의 개성군보다 지역적으로 확장된 것이라 하겠다. 1018년(현종 9) 개성부는 없어지고 현령을 두어 덕수·감음·정주 등 3현을 관리하여 상서도성에 직속되었다. 1062년(문종 16) 개성부로 승격되면서 우봉군을 편입시켰고, 정주는 1108년(예종 3)에 승천부라 하여 知府事를 두었다가, 1310년(충선왕 2)에는 海豐郡으로 강등되었다. 개성은 대몽 항전기간 강화도로 도읍을 옮기면서 40년 동안 폐허를 면치 못하다가, 1390년에 개성현으로서 경기우도에 속하였다. 조선이 건국되어 1394년 도읍을 한양으로 옮긴 이래, 1442년(세종 24) 해풍군과 덕수현이 합하여 풍덕군이 되었다. 이 풍덕군은 1650년(효종 1) 풍덕도호부로 승격된 적이 있으며, 1823년(순조 23) 부가 폐지되면서 개성부에 예속되었다. 1895년 개성이 관찰부가 되면서 풍덕군은 개성부의 관할이 되었다가, 다시 환원되었다. 1914년 군면 폐합에 따라 풍덕군은 개성군에 병합되기에 이르렀다. 이 풍덕은 1442년 대두된 이래 부침을 거듭하면서 조선 말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했던 것이다. 1930년 개성군의 송도면이 개성부로 승격되면서 개성부에 편입되지 않은 지역은 개풍군으로 포괄되었다. 이처럼 풍덕·개풍은 고려대·조선초의 왕도권 개성과 긴밀히 연계되어 끈질긴 전통을 이어 왔다. 이 군의 광덕면 중련리 부소산에 경천사가 있었고, 서면 전보리 오봉산에 감로사가 있었다.<sup>11)</sup>

끝으로 곡성군의 역사다. 이 지역이 백제의 영역에 들어간 뒤로는 欲乃郡이라 하였고, 옥과지역에는 果之縣이 설치되었다. 이 지역이 통일신라의 지배하에 들어간 뒤 757년(경덕왕 16)에 옥내군은 곡성군으로, 과지현은 玉果縣으로 개칭되었다. 고려초에 곡성은 승

10) 안익승, 화성군 역사, 위 책 25, pp.248~249.

11) 강대욱, 개풍군 역사, 위 책 1, pp.608~610.

평군(순천)의 영현이 되고 옥과는 추성군(담양)의 영현이 되었으나, 1018년(현종 9)에는 곡성은 나주에, 옥과는 보성에 예속되었다. 조선조에 들어서 1413년(태종 13) 곡성현과 옥과현에 모두 현감이 설치되었고, 남원도호부의 예하 진이 되었다. 1895년의 관제개혁으로 곡성군과 옥과군으로 개칭되어 남원부의 관할에 들었다. 그중 옥과군은 1909년 옥산면으로 개칭되어 창평군에 이속되었다가, 1914년 곡성군으로 통합되었다. 이처럼 옥과는 757년 일찍이 등장하여 조선 말기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이다. 여기 곡성군 옥산면 선세리 성덕산에 그 관음사가 있다.<sup>12)</sup>

이상과 같이 이 작품의 환경·무대와 관련된 역사·지리적 여건은 대강 관망되었다. 위와 같은 지역은 거시적으로 볼 때, 서해안의 평야지대로 일찍 역사·문물이 열렸던 터다. 따라서 서해안에 자연 및 인문의 큰 권역을 이루어 왔다. 그 역사·인문의 교류와 상호 발전이 육로보다는 오히려 해로를 통하여 이루어졌다고 보아진다. 이런 점에서 이 지역 전체가 외국과의 문화교류나 문물교역에 있어, 해로를 중심으로 성사되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이는 각 지역의 사료나 읍지 등의 증언을 참조하고 현지답사를 통하여 실증되기 때문이다. 여기서 서해안에 상대되는 중국의 남방해역과 교류·통상할 때는, 으레 해상을 통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따라서 상계한 지역들은 중국과의 관계를 유지·증진하는 데에 있어 가장 편리한 요지였다고 하겠다.

한편 위 ‘晉國’은 ‘永康丁亥’<sup>13)</sup>와 관련되어 있다. 여기 ‘永康’의 연호를 가진 황제는 이른바 西晉의 惠帝인데, 그 재위 기간에는 ‘丁亥’가 없어 불합리한 면이 있다. 이 점에 대하여 김영태 교수는 東晉의 孝武帝가 寧康인 것에 착안하되, 그 발음이 ‘영강’인 점을 고려하고, 그 영강 연간에는 ‘丁亥’(387)가 있음을 검토해서 원래의 영강이 구전과정에서 ‘永康’으로 착오·기재된 것이 아닌가 추정한 바가 있다.<sup>14)</sup> 김교수는 이 점을 매우 조심스럽게 추론하였지만, 이 작품이 구비전승의 변용·기록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합리성을 띤다고 보아진다. 그렇다면 효무제 영강 정해는 백제 진사왕 3년에 해당되므로, 불교가 국가적으로 공인된 지 4년째 되는 해라고 추정된다. 이 때 동진의 영역은 남경에서 元帝가 옹립된 이래, ‘南方偏安’하여 그 나름의 발전·성세를 보이고 확장되어 갔다.<sup>15)</sup> 이러한 영토와 강세로써 당시 한반도 서해안 지역과 문물교류 및 제반교역을 활발히 진행할 수가 있었다. 따라서 이 「원홍장전」의 역사·지리적 배경은 일단 합리적인 조건을 갖추었다고 하겠다.

둘째, 종교·윤리적 기반에 대해서다. 이 작품의 종교적 기반은 주로 불교라고 할 수 밖에 없다. 먼저 예산군의 불교는 백제시대로부터 시작·발전하여 통일신라를 거쳐 고려시대까지 성세를 보여 왔다. 조선시대에는 그 명맥을 겨우 유지하는 가운데, 많은 사찰과 불교문물이 파손·유실되고, 따라서 그 퇴조를 보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이 지

12) 김동수, 곡성군 역사, 위 책 2, pp.688~689.

13) 원전 본문, p.7.

14) 김영태, 성덕산 관음사 연기설화와 역사성, 심청국제학술심포지엄 논문집, 곡성군청, 2001, pp.14~16.

15) 李定一, 中華史綱, 傳記文學出版社, 1986, pp.221~222.

역 주민들의 불교신앙과 불교문화에 대한 전통은 대단한 것이었다. 현전하는 사찰과 사지 그리고 각종 불교유물·유적들이 여기 저기 산재하여 있는 것만 보아도 그 점이 실증된다. 수덕사를 비롯하여 향천사·화암사·대련사·보덕사·정혜사·관음암 등 많은 사찰과 사지 그리고 그 사찰들의 건축·불화·불상·석탑·석등 그리고 각종 불구·공예 내지 경서·경판 등 문화재가 풍부하게 남아 있다. 이러한 불교의 전통과 문화유산이 이 지역 주민들의 불교신앙과 사상, 민중의식을 이끌어 왔던 것이다.

이와 같은 예산지방의 불교적 전통과 신행·사상은 부여군에서도 성황을 보였다. 이 지역의 불교는 백제시대 도성 불교와 직결되어 더욱 큰 세력을 유지하여 왔다. 신라 통일기에 신라불교와 충돌하면서도 조화를 이루어 현상을 유지하다가, 고려대에 이르러 오히려 부흥의 기세를 올리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에 쇠퇴의 일로를 걸은 것은 불가피하였지만, 그 사찰·사지나 불교유물·유적이 현전하는 것을 보면, 그 기반과 전통이 끈질긴 점을 확인한다. 정림사를 비롯하여 고란사·왕흥사·금강사·호암사·도천사 등 많은 사찰과 사지가 역시 많은 불교문화재를 거느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만 하면 부여군의 불교 전통과 문화적 위상이 예산군의 그것에 뒤지지 않는다고 하겠다.

이러한 불교적 실태·실상은 화성군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수원을 중심으로 하는 불교세가 만만치 않게 퍼져 나가고, 그 전통을 유지해 왔기 때문이다. 용주사를 비롯하여 보적사·홍법사·봉림사·화운사·봉래사·수리사·봉령사·만지사·청계사·청련암·백운암·경일암·칠보암 등 수많은 사찰과 사지가 아직도 값진 불교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실 개풍군의 경우는 불교국이라 할 고려의 왕도권을 포함하여, 이 지역의 불교는 크게 떨쳤던 터다. 신라통일 말기에 그 적통을 이어 고려가 불교의 전성시대를 이루면서, 이 지역의 불교가 전국의 중심부로 부상하였기 때문이다. 궁성 내외의 원찰, 비보사상과 관련되어 왕권 무궁과 국태 민안을 기원하는 국찰이 명산·명당에 세워지고 그 후원과 중흥에 국가적 배려가 많았던 게 사실이다. 그 여파로 조선왕조의 배불정책에도 불구하고, 불교의 전통과 대세는 꾸준히 유지되었던 것이다. 원통사를 비롯하여 대흥사·홍왕사·제석사·감로사·경천사·관음사·운흥사·개성사·귀법사·연경사·홍교사·완월사·용흥사·영통사·오룡사 등 수다한 사찰과 사지가 현존하고, 그에 따른 다양하고 값진 불교문화재가 널리 퍼져 있는 실정이다.

이 곡성군의 불교는 백제시대 이래 그 실세를 크게 떨치지 못하고, 그 명맥을 어렵게 유지해 왔다. 관음사를 비롯하여 태안사·도림사·길상암·천태암 등이 영세한 불교유물들을 거느리고 현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 중흥을 꾀하고 교세를 넓히려고 뜻있는 승려들이 많이 노력했던 것은 사실이다. 위 성덕산 관음사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한편 중국의 동진을 전제할 때, 그 때의 불교는 굉장한 성세를 보였다. 동진의 왕실과 귀족사회로부터 불교가 번창하여, 강남·장강유역의 불교가 흥왕을 거듭하였다. 여산 해원 등 고승의 속출로 불교의 발전은 최고조에 달하여 장안의 불교와 교류하면서 중국불

교사의 장강을 이루게 되었다.<sup>16)</sup> 그러기에 동진에서는 국내 불사나 대외 전교에 주력할 여력이 있었다. 그래서 동진 효무제 9년, 침류왕 원년(384)에 인도승 마라난타가 백제에 불교를 전파하여 뿌리를 내리고, 위와 같이 발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따라서 동진의 황후라면 불상·탑상 등을 조성하여 인연 있는 이웃 나라, 특히 고국의 사찰에 보시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했으리라 본다. 이 「원홍장전」에 보이는 대로, 원황후는 그러한 불사·보시를 족히 행할 수 있는 합리적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이다.

이상과 같이 예산군의 불교적 실상과 불교문화적 위상이 위 사찰들을 중심으로 실증되었다. 그리고 이런 불교의 현상은 부여군이나 화성군·개풍군·곡성군의 그것과 같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서해안 지역의 불교권 내지 불교문화권을 형성하여 상호교류와 발전을 도모하여 왔다. 나아가 이 거대한 불교권이 중국의 동진 이래 선진하는 불교문물을 해로로써 흡족히 수용·교류하게 되었다는 당위성이 실증된다. 이로써 위 동진 원황후가 불상·탑상을 조성하여 금강사·감로사·경천사·홍법사 내지 관음사 등에 봉송했다는 사건은 사실 여부간에 그 자체로서 당연하고 타당한 근거를 확보한 터라 하겠다.

이어 이 작품의 윤리적 배경은 충효와 연결된다. 그 중에서도 효행과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다. 원래 이 효행은 모든 종교와 사상을 초월한 원리적이고 보편적인 윤리덕목이다. 그러나 한국윤리사 상에서는 유교와 불교의 효행이 변증법적으로 통합된 실상을 보인다. 적어도 효행에 관해서만은 유·불 간에 공감대와 합일점을 이룩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원홍장전」에서는 불교 중심의 효행을 나타내고 있는 게 사실이다. 흔히들 효행이라면 유교적 덕목으로만 인식하여 왔지만, 실은 불교계의 효행이 보다 입체적이고 절실한 것이다.<sup>17)</sup> 크게는 인과법칙에 기반한 보시·구원의 정신이요 보은의 대방편으로서 어버이에 대한 희생적 보답이 바로 효도·효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한·중 불교계의 효행은 오랜 전통의 유교적 효행과 유기적인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시된다.

이런 전제 아래서 예산군을 중심으로 그 효행을 살펴 보면, 위와 같은 사실이 실증된다. 예산군은 그 필연적이고 역사적인 명칭이 말하듯이 전통적인 윤리의 고장이다. 고금을 통한 충신·열사, 효자·열녀가 많이 배출되고, 이에 호응한 역대 군민들의 일상적 생활윤리가 효행을 주축으로 일관되어 왔기 때문이다. 최근에 조사된 예산의 효행사례에 의하면<sup>18)</sup> 그것은 다른 시·군에 비하여 월등한 성황을 보이는 터다. 위에서 연결·거론된 부여군이나 경기도 화성군·개풍군, 전남 곡성군 등도 윤리적 전통이 엄연하고 그 효행사례도 많은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예산군을 중심으로 하는 이들 시군의 윤리적 전통이 효행을 핵심으로 큰 윤곽과 기반을 유지하고 있는 게 확인된다. 이들 효행사례들은 대부분 유교적 경향을 띠고 있지만, 그 실상에서는 불교계 효행을 포괄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대저 한국 종교·사상사에서 ‘外儒內佛’이란 명제가 있거니와, 이 광역의 효행이

16) 中村元, 中國佛教發達史(上), 天華出版社, 1984, pp.83~101.

17) 노태조, 불교계 효행소설의 형성과 유통 연구, 경상대학교 대학원, 1995, pp.9~15.

18) 임선빈, 예산군의 효행사례의 현황과 성격(발표계획), 충남발전연구원 충청학연구소, 2002, pp.3~6.



바로 이런 범주에 속하는 터라 하겠다.

이에 예산군의 효행적 윤리기반은 불교계의 효행과 접맥될 때, 매우 감동스럽고 전기적인 사례와 서사문맥으로 전개될 가능성 내지 필연성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위 역사·지리적 광역에서 예의의 본산이요 효행의 고장으로 공인된 예산군 내에는 효행의 자궁심에 의하여 원홍장류의 사례와 「원홍장전」 같은 서사물이 형성될 여지와 기반이 족히 마련되었던 것이다.

셋째, 문학·문화적 전통에 대해서다. 기실 이 「원홍장전」을 형성시킨 문학적 전통과 문화적 환경은 이미 간접적으로 제시되었다. 위 어떤 지역에서도 이만한 작품을 형성시킬 수 있는 문학과 문화계를 유지하여 왔기 때문이다. 이 문학적 전통은 대강 세 갈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가문학·유가문학·민간문학이 바로 그것이다.

먼저 불가문학은 승려문학이다. 이 예산군을 중심으로 하는 위 지역의 불교권에서는 승려들이 모든 불경과 역대 불서 내지 문학서를 수용·향유하고, 또한 각종 불교문학을 창작할 수도 있었다. 이 고장의 승려들은 한적하고 정일한 사원 환위 속에서 독경·염불하고 참선·정진하면서, 그들의 깨달은 경지, 통달한 법열, 이행적 체험 등을 예능적 욕구나 포교의 사명으로, 문학의 각 장르를 창작하여 왔던 것이다. 고려시대를 거쳐 조선 시대에 이르러 이 지역의 승려들은 외전이라 하여 유경을 통독하고 뜻있는 선비들과 교유하며, 신불유생들과 효행계의 유·불문학을 누리게도 되었다. 이러한 학승·문승들이 이 지역 불교문학의 전통을 잇고 개척해 나갔던 것이다. 따라서 이 「원홍장전」 같은 작품을 형성·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리고 유가문학은 유생·선비의 문학이다. 위 지역의 유생·선비들은 모두 학자·문인이었다. 따라서 유경이나 사서·백가서 등을 읽고 음미하며, 각종 문장을 지어 내었다. 그들은 여가 있을 때마다 시와 산문을 짓되, 그것을 자적·교유하는 방편으로 삼았고, 윤리적인 내용을 통하여 교화에도 힘써 왔다. 거기서는 효행이 으뜸이요 핵심이었다. 그들은 유교계의 효행을 강조하지만, 효행이라면 비록 불교계의 것이라도 공감·찬동하였던 터다. 나아가 신불유생들은 거사·처사의 이름으로 효행의 유·불문학을 제작하여 포교·교화에 앞장서기도 하였다. 따라서 여기서도 「원홍장전」 같은 작품을 형성·제작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것이다.

이어 민간문학은 역대 민중의 구비문학이다. 이 지역의 민중들은 스스로 구비문학을 창조·향유하면서, 불가문학과 유가문학을 직·간접으로 수용·유통시킨다. 대체로 민요와 설화를 중심으로 구비문학을 향유·창조하면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터다. 특히 불교를 신앙하는 민중들은 불교설화나 「원홍장전」류의 작품이 형성·변용되는 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여 왔던 것이다.

한편 문화적 환경은 위 문학적 전통과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위 광역의 문화적 환경은 불교문화와 유교문화 및 민간문화가 어울려 「원홍장전」 같은 작품을 형성하는 토양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우선 이 지역의 불교문화는 불교언어로써 비롯된다. 이 불교언어는 불교문화를 형성·유통시키는 방편이요 불교문학의 소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지역

명산에 자리한 사찰의 문화가 그 핵심적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그 사찰은 불교건축·회화·조각·공예 등의 미술과, 거기서 연행된 불교음악·무용·연극 등의 연예, 그리고 내부에 수장된 각종 불경·불서·외전 등의 문헌, 나아가 각종 채의와 기도·습의 등의 의례 및 민속을 망라하여, 사찰문화 내지 불교문화를 형성·전개시킨다. 이러한 사원 중심의 불교문화가 「원홍장전」 같은 작품을 생산하는 직·간접의 환경이 되었던 터다.

게다가 이 지역의 유교문화가 향교·서원을 중심으로 윤리적 덕목·제례·예술·풍속 등을 통하여 독자적으로 형성·전개되면서, 사찰문화·불교문화와 합류하여 유·불문화를 창출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승려·선비들의 교유와 신불유생들의 매개가 중요한 역할을 해내게 되었다. 유생들이 산사에 가서 공부하고 생활하면서 스스로 불교문화에 젖어 들고, 불교문학·예술의 제작에 크게 협조하게도 되었다. 실제로 많은 불교문학·예술작품들은 신불문사들에 의하여 제작된 사례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이 지역의 민중들은 신불대중을 중심으로 사찰에 드나들고 불교계와 접촉하면서, 불교문화에 익숙해졌다. 실로 이 지역의 불교문화는 민간문화에 접맥되고 유통되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고 사명을 다하게 되었다. 그래서 민중의 불교문화는 현장적으로 발전·변화·유통되었던 것이다. 여기서 민중적 불교문화가 그 외호·외곽을 이룩하면서, 「원홍장전」 같은 작품을 형성시키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끼쳤으리라 본다. 이런 작품을 제작·유포하는 참된 사명과 구경의 목표가 민중을 감동·교화시키는 데에 있었기 때문이다.

## 2. 形成의 主體

이 「원홍장전」의 본격적인 작자는 명시되지 않았다. 다만 ‘白梅子’가 관음사에 들려 그 절 ‘長老’ ‘優閑子’에게 들은 이야기를 ‘芟繁增削’하여 썼노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白梅子는 제작자가 아니고 기록자라는 것이 밝혀진다. 따라서 優閑子가 일단 이 이야기를 제보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 이야기를 직접 만든 것인지, 누구한테 얻어 들은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이 이야기는 양자 사이에 구전된 것이기에, 일단 불교설화의 한 모습으로 존재했다고 보아진다. 여기서 기록자나 제보자의 의미있는 역할을 결코 배제하지 않으면서, 이 이야기를 구비적 설화라고 전제한다면, 그것은 작자 미상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하다. 따라서 이 작품의 원형적 설화는 속성 그대로 그 원화의 출현이래, 오랜 세월 구전·유통되면서, 복합적인 동참자에 의하여 형성·세련되어 왔다고 보아진다. 이에 이 작품의 형성·유통·정착에 가담한 복합적 동참자를 형성의 주체로 간주하고,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보겠다.

첫째, 작자층의 창작적 기능이다. 이런 작품의 작자는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집단적 작자라거나 공동적 제작이라 보고 작자층이라 하겠다. 먼저 이 작자층의 핵심은 역시 학승·문승이라고 본다. 이런 주제·내용의 작품이라면, 일단 뜻있는 승려, 창작력

이 있는 승려들이 지었다고 보는 게 당연하기 때문이다. 승려들은 어떤 면에서건 매우 문학적이다. 따라서 그들의 수행과정에서 많은 법화를 생산하고 다양한 문학장르를 산출해 왔던 것이다. 그 승려들은 본원적 의욕과 사명감으로 불교문학을 창작하여, 스스로 예술적 욕구를 충족시키고, 그 작성·법열의 경지를 표현·기록하며, 중생을 교화·제도하기 위하여 그에 적합한 법화와 문장을 제작해 냈기 때문이다.

이에 가세하여 작자층에는 신불문사들이 이런 작품들을 창출하는 데에 소중한 역할을 해 왔던 것이다. 재가 학자·문사가 사찰에 넘나들고 승려들과 교유하면서, 승속 간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흥미로운 법화를 만들거나 불교문학 작품을 죽히 만들어 냈기 때문이다. 그들은 재가자·거사이기에 그 법화나 작품의 산출에서 소재나 방향을 자유롭게 선택·운용할 수가 있었다. 그러기에 이 신불문사들의 불교문학 작품들은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여 널리 유통되었던 터다. 따라서 이 작품의 작자층은 당시 학승·문승 내지 신불문사들로서 사찰과 불교계를 드나들며 창작적 기능을 발휘했으리라 본다.

둘째, 전파층의 매개적 역할이다. 이렇게 발단·출현한 원형적 작품들은 바로 유통의 바람을 타게 마련이다. 이러한 작품은 유통의 현장에서만 그 본령을 드러내고 생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매개적 역할은 먼저 포교계의 승려·법사·강사 등이 대중을 교화하고 권선하기 위하여 이런 법화를 광포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중에서도 문승·동령승과 화주승들이 그 전파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였던 터다. 그리고 신불문사·거사들이 이런 법화의 제작층이면서 또한 그 전파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었다. 여기서 이 법화는 변화·성장하여 점차 작품의 면모를 갖추어 가게 되었다. 나아가 신남 신녀가 이런 법화 및 작품을 수용하여 널리 유통시키고, 그 변화·발전의 도정에서 소중한 역할을 해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 전파층의 매개적 역할은 이 작품의 형성·전개에서 주체적 위치에 놓여 있는 것이라 하겠다.

셋째, 수용층의 배양적 기반이다. 이런 계통의 작품이라면, 이 지역의 민중과 승속 대중이 그 배양의 기반이 되었던 게 사실이다. 기실 모든 법화와 작품들은 전파·유통을 본무로 하기에, 수용층의 호응·공감을 얻는 데서 완결되기 때문이다. 일반 승려나 많은 신중들은 물론 세간 민중들은 이런 작품들이 형성·유전되는 출발점이요 도달점이다. 실제로 이 불교계 작품들은 대소간 수용층의 소재·견해·여론을 바탕으로 제작되고, 다시 수용층으로 회향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용층이 그 작품의 형성과정에서 주체가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런 전제 아래서, 전술한 바 이 작품의 이야기를 제보한 優閑子와 이를 듣고 기록한 白梅子의 ‘의미있는 역할’을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원래 구비문학 특히 설화는 공동제작이라는 점에서, 작자미상이라는 게 원칙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화, 서사문학의 조사·연구 상에서, 가장 소중한 주체는 바로 제보자와 기록자라는 것이다. 승속 간에 형성·유통되던 설화계의 작품은 바로 제보자의 소유로 들어가고, 기록자의 책임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원홍장전」의 실제적인 소유자·책임자로서 공동제작의 대표자가 바로 優閑子와 白梅子라고 할 것이다.

이 優閑子是 당시 관음사에 머물던 장노라는 것 이외에 별로 알려진 바가 없다. 그의 법호와 장노라는 것을 미루어 원로 선사라고 짐작이 갈 뿐이다. 그가 이 작품의 이야기를 제보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런데 그 자신이 이 이야기를 꾸며 낸 것인지, 누구에게 들은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에는 제보자의 본분으로 돌아가 남의 이야기를 듣고 전달한 것이라고 보는 게 원칙이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원형적 이야기가 장노 우한자 이전에 형성·유전되었다는 사실이 추정된다. 그런데도 우한자가 이 이야기를 조정하여 구술한 공로는 족히 인정되는 터다. 원래 이야기의 제보자는 유동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취향과 창작력에 맞도록 재구성하는 역할이 필연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한자가 분명한 제보자라면, 그는 이 이야기의 소유자로서 족히 제작자의 역할을 해냈다고 보아진다. 어린 고아를 길러낸 부부가 실제적인 부모가 되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리고 白梅子는 古鏡스님에 의하여 그 이력이 대강 밝혀졌다.<sup>19)</sup> 백매자는 법호로서 법명은 載然이며 송광사의 대강백 碧梧선사의 제자다. 이 스님의 법맥은 조선불교의 양 대산맥인 西山과 浮休, 그 부휴에 이어 碧岩-翠微-栢岩-碧梧-白梅로 이어져 화려·찬연하다. 이처럼 백매자는 한국불교의 정통을 이어받은 종사이며 학승이었다. 그는 수행도 출중하고 학문과 문장에도 뛰어났던 것이다.

이런 학승이 여러 산사를 떠돌다가 젊어서 관음사에 이르러 장노에게 원홍장의 이야기를 듣고 뒷날에 기록했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실제로 남의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기록·문장화하는 것도 창조적 일면이 있다. 한 문사가 어떤 이야기의 구술을 기록할 때는, 이를 소재로 작문하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정착시킬 때, 그 기록자가 마지막 제작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게 된다는 것이었다.

더구나 그 기록자 백매자는 전제한 대로 ‘우한자가 구술한 이야기를 번다한 데는 깎아내고 증첨·산삭하여 이 작품을 썼다’<sup>20)</sup>는 사실이 크게 주목된다. 이것은 어떤 설화류를 소재로, 작품을 제작해 낸 과정을 따르고 있다. 아니 백매자가 우한자의 이야기를 소재로 이 작품을 지어냈다는 사실이 암시되었다고 하겠다. 그래서 우한자의 이야기가 아무리 완벽하다 해도, 백매자의 이런 재창작의 절차를 거쳐서만이 이 작품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더구나 장노 우한자의 행적·위상이 애매한 터이므로, 그의 이야기가 어떤 범위, 어느 수준이었는지 짐작할 도리가 없다. 그러기에 백매자가 이 작품의 제작에 바친 공로가 더욱 돋보이는 터다. 게다가 이 작품의 문장을 보면 능숙하기가 이를 데 없다. 따라서 백매자가 이런 문장력을 가지고, 문학적 창작력을 발휘하여 족히 이런 작품을 제작하였으리라 추정할 수도 있겠다.

한편 역대 문학가들이 서사문학·소설작품 특히 傳奇小說을 지을 때, ‘그 이야기나 사건 등을 남에게 듣고 이를 버릴 수 없어 다만 기록해 둘 뿐이라’는 액자적 방식을 쓰는 경향이 있었다.<sup>21)</sup> 그렇다면 백매자도 이 작품의 정착단계에서 위와 같은 액자적 방식을

19) 古鏡, 觀音寺 事蹟記와 沈淸傳, 佛教思想 4호, 불교사상사, 1974, p.11.

20) 「원홍장전」의 말미에 ‘白梅子因優閑子之所述 芟繁增削書之’라 하였다.

썼을 가능성도 없지 않겠다. 백매자의 식견이나 문장력으로 보아 이러한 작품방식을 알고 썼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백매자는 실제적으로 이 작품의 제작자에 가장 근접한 책임자로서, 형성의 중심적 주체라고 추정된다.

### 3. 形成의 實際

위와 같이 이 작품의 형성의 배경과 형성의 주체를 전제할 때, 그 형성의 실체가 어느 정도 어렵된다. 이 작품은 불교계 효행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사원과 불교계를 중심으로 당시의 학승·문승이나 신불문사들이 주축을 이루어 형성·전개시킨 것이라 하겠다. 그렇다면 이 작품의 주인공 원홍장의 생장지인 예산군을 거점으로 이 작품이 형성된 실마리를 찾을 수밖에 없다.

우선, 이 작품의 역사적 근거로서, 예산군이나 그 주변 지역에 부침하였던 효행 사례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전술한 대로 고금을 통하여 예산 지역의 효행 사례는 가장 빈번하고 저명한 터다. 이러한 사례는 역사화되고 유형화되어, 입체적이고 총합적인 이야기, 가장 저명한 효행담으로 성립될 모든 여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이 무렵에 불교계를 중심으로 원홍장의 효행 실화가 대두되고, 이에 불교의 매신공양효행담을 접맥시킴으로써, 원홍장의 이야기가 발단되었으리라 본다. 여기에는 그런 효녀의 희생적 효행이 실재하였고, 그것이 감동적인 효행담으로 유형화되어 확대·발전하면서, 불교의 그런 획기적인 효행담과 결합함으로써, 원홍장의 이야기로 성립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기실 불교계에서는 경전·불서 안에나 교리·신행의 무성한 법화 가운데에, 매신공양담이 일찍부터 하나의 유형을 이루었고, 그 중에서도 효녀매신효행담이 핵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런 효행담은 감동적인 영험담의 성향을 띠게 되면서, 이에 대중적 신빙성을 더하고 구체적 파급력을 고양시키기 위하여 역사적 효행사실과 결부·조화될 필연성을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역사적 기반과 법화적 필연성에 의하여 창출된 것이 바로 「원홍장전」의 원형이 아니었을까 한다.

이 작품의 원형은 원량의 딸 홍장의 탁이한 효행이 강조·부각되어 인근은 물론 중국에까지 알려졌다라는 사실로부터 자리잡았으리라 본다. 여기까지는 효행의 전범과 이를 만인의 귀감으로 삼으려는 의도 내지 효능이 작용한 게 사실이다. 이 효행담의 성립시키는 전제인 바 ‘충청도 대홍현’의 시절을 상한선으로 잡을 수밖에 없다.

그 후로 불교계의 효녀매신공양의 법화가 여기에 결부되었으리라 본다. 홍법사의 화주승 성공이 부처님의 현몽으로 원량에게 대시주가 되어 달라고 간청하고, 이를 수락하여 유일한 딸을 보시한 데서, 그 점이 확실시된다. 성공이 원홍장을 데리고 다니다가, 진국

21) 韓·中 傳奇小說이 거의 이런 방식을 쓰는 게 보통이지만, 그 중에서 「任氏傳」의 사례를 들면 ‘衆君子聞任氏之事 其深嘆駭 因請既濟傳之以志異云 沈既濟撰’이라 하였다. 王夢鷗, 唐人小說研究(三), 藝文印書館, 1973, p.191.

황제의 현몽에 따라 황후를 찾아 동국에 온 봉명사자를 소랑포에서 만나고, 홍장이 만금 보화를 받아 보시한 후, 진국에 가서 황후가 된 데까지도 효녀매신평양담의 연장이라 하겠다. 이러한 보시가 홍장에게 대복락을 안겨 준 영험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때는 이미 그런 공덕으로 하여 성공이 서원한 불사를 성취하였고, 원량이 눈을 떠 광명을 찾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 원홍장의 이야기는 일단 성립되었던 게 아닌가 한다. 「심청전」도 그렇지만, 대개의 효녀매신평양담이 이런 데서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도의 원홍장 이야기는 위 광범한 지역의 불교권 사찰이나 신중들 사이에서 점차 전파·성행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보시·권선의 법화로 공감·호응을 받으면서, 사찰·불교계 등의 증폭되는 기대를 수용하게 되었을 터다.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원황후는 대비심으로 정법을 닦고, 대작불사를 일으킨다. 원황후가 고국과 부친께 보답·보시를 행하니, 그것이 탑상·불상·보살상·성중상 등을 조성하여 전개한 각개 사찰에 해상으로 송부하는 일이었다. 이로써 이 원홍장의 이야기는 여러 나라의 사찰과 위 감로사·금상사·경천사·홍법사·관음사 등과 결연된 입체적 법화로 정립되었을 터다. 이에 이러한 사찰들은 이러한 인연을 따라, 당사의 탑상·불상·보살상·신중상 내지 사찰 자체의 연기설화를 만들게도 되었었을 것이다.

그 중에서 이 법화를 가장 적극적이고 적절하게 사찰창건사적기로 수용한 데가 바로 잘 알려진 관음사라 하겠다. 이 원홍장의 법화가 관음사사적기의 모습으로 완결된 것은 기록대로 백매자의 ‘少時’에<sup>22)</sup> 장로 우한자의 구술을 통해서라고 보아진다. 기실 이 법화가 각개 사찰이나 승속 간에 널리 유통되면서 많은 이와·이본을 형성시켰을 것이지만, 그 중에서도 이 장로의 구전만이 부각·정착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법화는 장로의 구술과정에서 이미 현전 작품의 얹어리로 조정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 원홍장의 법화는 구비적 작품으로 취급해도 무방할 것이다.

이 홍장의 법화, 관음사 사적기를 소시적에 관음사에서 듣고, 상당 기간 지난 뒤에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어디 어느 절간에선가, 이를 「관음사사적기」로 조정하되, 번다한 것을 깎아내고 증첨·산삭하여 하나의 작품 「원홍장전」으로 완결하였을 것이다. 이것이 백매자의 노년기 ‘雍正己酉’(영조 5, 1729) ‘모춘’이었으니,<sup>23)</sup> 이로써 「원홍장전」은 하나의 독자적 작품으로 완결된 하한선을 보게 되었다. 여기서 이 작품의 상한선을 추적하면 그 배경이 된 각지역 명칭의 역사를 통하여 대강 조선초기 내지 고려후기까지도 소급할 수는 있겠다. 그러나 이것은 이 작품의 전승적 형성과정에 대한 상대연대일 따름이니, 역사적 형성연대를 탐색하는 것은 무리한 일이다.

이 작품의 제작자도 원래 복수·집단적이기에 어떤 구체적 인물로 확정할 수는 없다. 전술한 대로 백매자를 제작층의 대표로 내세운 바, 그 전후와 주변을 자유롭게 맴돌면서 학승·문승 내지 신불문사의 집단적 성향을 제작자의 자질과 능력, 포교적 목적·사명 등에 비추어 살펴보면 무난할 것이다. 따라서 백매자가 이 작품을 기술한 장소가 확인되지

22) 원전 본문, p.1.

23) 원전 본문, p.18.

않았는데도, 이것이 관음사의 사적기로 들어갔다는 인연만으로써 어떤 관계를 건강부회하고 그 전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겠다. 이 「원홍장전」을 독립된 작품으로 인정한다면, 이 작품은 위 광역의 불교권 아니 전국 사찰 및 불교계의 공유재산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이 「원홍장전」은 광범한 배경과 유구한 전통을 가지고 승려 중심의 불교계에 의하여 형성·전개된 보편적 명작으로 공인되었다고 하겠다.

### Ⅲ. 「元洪莊傳」의 文學的 實相

이 작품의 문학적 실상은 그 가치의 전체다. 따라서 이 실상을 밝히는 작업은 엄격히 진행되고, 그 방법론은 문예학에 입각하여 다양하게 적용될 수밖에 없다. 모든 대상을 분석·종합하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론이라면, 이 작품이 그런 방법에 의하여 고구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래서 우선 이 작품을 분석하는 데에 치중하여, 그 구조와 내용을 비롯해서, 그 주제와 사상, 구성과 형태, 문체와 표현 등을 집중적으로 파악하겠다. 그리고 이들 분석 결과를 다 종합하여 그 입체적 실상을 확인하고, 내합되었던 가치를 부각·평가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작품의 본질적 연구로서 문예학적 방법론의 본격적 성과로 자리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모든 결과를 총괄 품평하여 이 작품의 장르를 결정해 주면 되는 터다. 이 작품에 대한 이러한 고찰은 처음으로 시도되는 것이기에, 신중하고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 1. 構造와 內容

이 「원홍장전」은 액자구조를 완벽하게 갖추고 있으니, 도입액자와 종결액자가 바로 그것이다. 그 도입액자는

余少時 遊歷諸山 幸到觀音寺 私聞長老之說 聖跡曰<sup>24)</sup>

이라고 되어 있다. 이어 본문에 전개되는데, 이를 단계별로 나누어 다음과 같다.

- ① 충청도 대흥현에 맹인 원량의 딸 홍장이 아버지와 고단하게 산다.
- ② 그 딸 홍장이 숙미·영민하고 효성이 지극하여 내외로 유명하다.
- ③ 원량이 홍법사 성공의 현몽·간청으로 시주가 되어 딸을 보시한다.
- ④ 홍장이 신심과 효성으로 성공을 따라 아버지와 비극적으로 이별한다.
- ⑤ 홍장이 몸을 팔으려 성공과 두루 다니다가, 바닷가 소랑포에서 쉰다.

24) 원전 본문, p.1.

- ⑥ 홍장이 진국 황제의 현몽·어명으로 황후감을 찾으로 온 사자와 만난다.
- ⑦ 홍장은 봉명사자의 명감으로 황후감이 되어, 두 척의 보물을 받아 성공에게 보시하고 떠난다.
- ⑧ 홍장은 훌륭한 황후가 되어 황제의 총애를 입고, 자비행으로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
- ⑨ 황후는 불법을 흥포하려 탑상·불상·성중상 등을 조성하여, 열국 내지 본국의 여러 사찰로 보낸다.
- ⑩ 황후는 자원불로 관음상을 정조하여 무인 석선편에 보내고, 그것이 옥과현 해변에 닿아, 성덕이 이를 성산에 모셔 관음사를 짓는다.
- ⑪ 황후와 성덕이 관음의 화현이고 부처의 영험·가피가 총만하니, 성공은 불사를 대성하고 원량은 눈을 떠서 95세까지 복락을 누린다.

이러한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종결액자

此皆聖感冥應之跡 不可以泯沒者也 余所聞於長老者 止此而已<sup>25)</sup>

로써 평가·완결되고 있는 터다.

따라서 이 「원홍장전」은 서사문학 특히 傳奇小說로서의 완벽한 구조를 갖추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서사구조를 기준으로 이 작품의 내용을 통관하면 그것이 역사적 사실로 조직되지 않았음을 쉽게 알 수 있다. 몇 가지 역사에 바탕을 둔 것이거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들이 배치된 점은 있다. 가령 그 맹인의 고단한 생활이나 그 자녀의 효행, 시주하여 불사를 하고 성물을 제작하여 배편으로 보내는 일 등은 족히 사실일 수도 있고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작품에서 체보자 내지 기록자가 강조하고 있듯이, 이것은 ‘聖跡’<sup>26)</sup>이요, ‘是觀音隨應之身·牟尼分身百億於塵刹’<sup>27)</sup>이며, ‘此皆聖感冥應之跡’<sup>28)</sup>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불교계 ‘英雄의 一生’<sup>29)</sup>으로 서사문학·소설형태의 윤곽과 구조를 결코 벗어나지 않는다. 직접 그 소재·내용에서, 성공의 부처 현몽이나 원량의 외동딸 보시와 이별, 진국 황제의 현몽과 그 사신들의 황후 탐색, 무량한 보물의 보시와 황후되기, 마지막 관음상의 정조·방송과 성덕의 창사 등이 조직하고 있는 내용은 현실 일상에서 불가능한 효녀영웅담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불교계 신이현상과 그 구조 내용은 종교적 차원에서는 신성하고 거룩한 것으로서, 이른바 신비·기이하다는 점에서 전기소설과 족히 상통·일치되는 것이다. 여기서 이 작품은 사실적 기술이기보다 신이소설의 계통이요 전형적 전기소설의 구조·내용을 구비하였다고 본다. 전술한 대로 이 작품은 도입액자와 함께 평가·완결의 종결액자를 갖추어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때문이다.

25) 원전 본문, p.17.

26) 원전 본문, p.1.

27) 원전 본문, p.16.

28) 원전 본문, pp.16~17.

29) 조동일, ‘영웅의 일생’, 그 문학사적 전개, 동아문화연구 제10집, 서울대학교, 1971, pp.77~87.



## 2. 主題와 思想

이 작품의 주제와 사상은 둘이면서 하나요, 하나이면서 둘이다. 이 주제는 이 작품의 핵심 사상으로서 뚜렷한 의도·목적의 지향하고, 사상은 그 기반과 외곽으로서 이를 조화롭게 뒷받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사상은 그 제작 동기와 직결되어 있는 터다.

첫째,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다. 이 주제는 효·효도·효행에 집결되어 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의 효행은 타고난 것이고 절대적인 것으로 자리하였다. 아버지를 위해서는 매신공양까지 감행하기 때문이다. 이 주제가 으레 효행법화의 주제와 상통하고, 「심청전」의 주제와 상통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승속간에 효행을 강조·선양하는 목적이요 방편이 된다.

이러한 절대적 효행이 주제로 되어 매신공양에 의한 영험·복락으로 직결된다. 절대적 보시·공양이 위없는 영광과 극락의 경지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 작품의 주제는 확대·부각되어, 권선·공덕을 강조하고 중생을 교화·구제하는 불교적 본무를 직지한다. 이러한 주제는 이 작품을 통하여 구체화되고 예각화되며, 사상적 기반에 의하여 보편화되고 전형화되는 것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이 작품이 그 주제를 얼마만큼 무겁게 소화하고 어느 정도 형상화하느냐 하는 점이다. 그런 점에서 이 작품은 그 주제를 사상적으로 튼튼히 감싸고, 구성을 통하여 족히 구상화하고 있는 터다.

둘째, 이 주제의 사상적 기반에 대해서다. 이 작품의 핵심주제를 효행이라 할 때, 그것이 동방권의 보편적 효행사상에 기반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효행사상을 굳이 나누어 본다면, 이 작품에서는 그것이 불교계로 기울어 있음을 알겠다. 상술한 대로 효행의 보편성 내지 공통성을 바탕으로, 그것은 불교에서 한층 절실해지고 더욱 절대시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위 주제와 관련하여 여기서는 효행사상·보은사상·보시사상·영험사상·구제사상 등 불교사상이 복합적으로 입체화되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러한 불교사상은 위 불교적 주제를 감싸서 완전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 이제 이 작품의 주제와 사상을 굳이 나누어 볼 필요도 없거니와, 또한 그리 할 수도 없다. 그만큼 이 작품의 주제·사상이 완벽한 조화·통일을 이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여기서 이 주제와 사상을 순연한 불교 일변도로만 파악할 수는 없겠다. 이 작품 안에 유교 내지 다른 사상이 유별나게 드러나는 것은 없지만, 효행을 중심으로 이것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기 때문이다.

## 3. 構成과 形態

이 작품은 허구적 구조를 바탕으로 소설로서의 구성을 유지·전개시키고 있다. 이 작

품에서는 그 무대와 인물·사건 등이 어울려 족히 소설적 구성을 이룩하고 그 주제·사상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배경과 무대에 대해서다. 먼저 이 작품 상에 나타난 지리적 배경은 위에서 이미 그 윤곽이 잡혀있다. 충남의 예산군을 중심으로 부여군, 경기도 화성군·개풍군 그리고 전남의 곡성군, 나아가 중국의 진국 황도권이 바로 그것이다. 이런 지역은 오랜 역사 속에 지명의 변천을 겪으면서, 엄연히 이 작품의 외곽 영역을 이룩하여 왔다. 이와 같이 역사·지리적 환경을 이룰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종교·윤리적 기반과 문학·문화적 전통 등이 조화되어 광범한 배경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배경은 서해안의 해로를 통하여 상호 교류가 원만하였다는 공동 장점을 갖추고 있다. 그래서 이 원홍장이 아버지의 보시로 홍법사의 성공을 만나서, 소랑포를 통하여 진국의 황후가 된 후에, 정법을 닦고 많은 성물을 조성하여 본국의 감로사·금상사·경천사와 홍법사 그리고 관음사 등에 보내는 일련의 사건을 합리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이 사찰들이 이 작품의 소중한 무대가 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 주인공이나 여타 인물들이 직접 등장한 곳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찰들은 원황후가 보내는 각종 성물을 받아드릴 주체적 여건을 갖추어 왔던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이런 점에서 전개한 사찰들은 고금을 통하여 별다른 문제가 없었다. 진국의 황도 해변에서 해로를 통하여 성물을 보냈을 때, 위 사찰들은 근처 해변의 포구나 그에 직결된 넓은 하천을 거쳐서 족히 받아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관음사와 같이 해변에서 좀 떨어진 사찰이라도, 그 거리를 극복할 만한 인력과 법력이 보장되었던 것이다.

이제 이 작품의 사건진행 상에서 등장인물들이 직접 활동했던 무대를 살펴보겠다. 우선 충청도 대흥현과 원량의 빈곤한 집안이 나온다. 이곳은 지금의 충남 예산군 대흥면이다. 여기서 홍장이 성장하여 고단한 아버지를 효양한 유형은 사실로 있었던 일이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전술한 대로 이곳이 예향이고 효향으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곳의 한 모퉁이에 자리한 홍장의 집은 향촌 초가 하고도 매우 초라한 거처였을 것이다. 고금을 통하여 그런 집, 이런 가정은 흔히 보아 온 터라, 이 사건을 떠받드는 데는 빈궁할수록 효과적이라 하겠다. 그렇게 곤궁한 집에서 무기력한 맹부를 봉양하는 주인공의 정성어린 효행이 더욱 돋보이기 때문이다. 그 집을 통하여 동네나 인근에서 그녀의 효행이 칭송·찬양되었으니, 이런 곳은 이 작품의 소중한 근거·무대라 하겠다. 이리하여 그 효행의 무대는 이 고장, 본국을 벗어나 화하, 중국에까지 넓혀지고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대흥현에 등장한 성공의 본거지 홍법사가 대두된다. 이 사찰은 성공의 무대로 연결되지만, 지금까지도 무대성을 유지하고 있다. 전술한 대로 화성군 서신면 홍법리 청명산, 앞바다가 바라 보이는 곳에 홍법사가 자리하고 있다. 이 사찰은 그 연원이 오래인 듯 7층석탑이 서 있고, 가까운 남양 홍씨들이 광해군 3년 경에, 洪娘의 살신성인 공덕을 기리고, 홍후궁의 현몽·소원에 따라 명황제가 보낸 보살상·무쇠선인상 등을 모시려 홍법사를 중창했다는 것이다.<sup>30)</sup> 지금도 최근에 창건한 ‘洪娘閣’이 있어 홍량의 영정에 향을

피우고, 그 보살석상(실은 비로자나불)과 무쇠선인상(실은 신중상) 2 위를 대웅전에 안치하여 예배하고 있다. 이 사찰의 창건 연기와 홍랑의 전설은 「원홍장전」의 전체 구조를 토착화·역사화 내지 합리화하여 재편성된 내막·면모를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원홍장전」과 연관된 무대, 성공의 활동 사찰로서 유기적인 역할을 다하고 있는 터다.<sup>31)</sup>

다음 원량이 일이 있어 나갔다가 성공을 만난 이웃 마을 또는 고을은 대흥현, 지금의 예산군을 벗어나지 않는 지역으로 합리화되고 있다. 실제로 홍장이 성공에게 보시되어 아버지와 이별할 때, 비통하던 자리, 산천 금수가 울고 동네 사람들이 함께 비탄에 빠졌던 마을이 비극의 무대로서 부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홍장이 성공에게 이끌려 몸을 팔려고 두루다니던 곤욕의 무대 현장이 대흥현, 예산군 권역을 크게 벗어 나지 않았던 것이다. 마침내 홍장과 성공이 피로에 지쳐 잠시 쉬던 蘇浪浦가 지금껏 예산군 내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이다.

이 소랑포는 이 작품의 결정적인 무대다. 이 무대는 전술한 대로 예산군 신암면 신타리의 자연부락 소랑말에 근거하고 있다고 본다. 이 무대가 바다와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고로들의 말에 따르면 옛날에는 바다물이 대흥현까지 들어와 중국과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이다. 당시나 후대에는 삼교천을 매개로 해상과의 연락·교류가 빈번하고 중국과의 교역도 편리하였던 같다. 따라서 지금의 소랑말이 당시의 처지·형편에 따라 소랑포로 불렸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현지 조사에 따르면 소랑말은 포구의 역할을 직접 해냈거나 포구와 직접적인 관계로 하여 소랑포로 불리었을 자연성과 필연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sup>32)</sup>

그렇다면 이 소랑포-소랑말은 이 작품의 사건진행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해내었다. 기실 이 소랑포에서 진국 황제의 봉명사자가 홍장을 황후감으로 판단·확인하고, 홍장도 이를 운명적으로 수용하며, 두 척 큰 배의 보물을 받아 성공·홍법사에 보시하는 중대한 사건이 벌어진다. 그것은 고금에 다시 없는 황후의 영입예요 대시주의 보시재였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소랑포에서 홍장이 고국과 아버지께 이별을 고하고 진국을 향하여 떠났던 것이다.

이어 홍장이 황궁의 대선을 타고 서해를 항해할 때, 그 망망대해와 좌우 원경은 이 작품의 무대를 국제적으로 확대시키게 된다. 이런 무대는 「심청전」이나 해양문학·해상소설 등에서 매우 중시하는 무대와 상통하는 터다. 이 항해 중에서 황후감을 모시는 실내환경·장엄·분위기 등이 모두 이 작품의 중요한 무대로 작용하는 것이다.

마침내 홍장이 도착한 황성, 그 환영의 의전과 황궁까지 모시는 시설·장치, 그 섬세한 절차가 이 작품의 무대로 연결된다. 드디어 홍장이 황제의 환대와 총애 속에서 황후가 되니, 그 대관식의 장엄과 분위기는 너무도 화려한 무대다. 황궁 내의 모든 전각이

30) 사재동, 홍법사 탐방, 2002년 8월 12일, 사찰 창건의 유래와 홍랑전설은 원홍랑의 이야기와 비슷한 데가 있다. 후술 참조.

31) 홍법사의 화성군 서신면 홍법리와 예산군 대흥면과는 삼교천을 사이하여 가까이 교류하고 동일한 생활권을 유지하고 있다. 예산군, 효녀심청 관련자료, p.4.

32) 예산군청 문화공보실 담당관 이무희(40대 남자,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600) 2002년 8월 13일 증언.

원황후의 생활무대요, 그 부부의 거실·침대의 모든 것이 그 행복·영화의 주무대라 하겠다. 거기서 원황후가 정법을 닦고 불사를 일으키어 성물을 제작하고 보내는 황궁내의 도량이 이 작품의 장중한 무대로 상정된다. 그러기에 원황후가 불보살의 영험을 믿고 방송했던 그 성물들이 해로를 따라 닿은 곳과 그 사찰들은 위 직접적인 무대와는 너무도 먼 거리에 자리할 뿐이다.

그런데 위 직접적인 무대설정에서 일견 모순되는 점이 두 군데 정도 나타난다. 먼저 ‘충청도 대흥현’이라 불리던 시절이 저 진국 시대와는 맞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제작·기록층에서 한국의 무대에 충실하면서도, 백제지향적 의욕으로 중국의 왕조를 소급·대응시킨 것이라 보아진다. 기실 설화나 고전소설 등에서는 역사적 서사형태의 허구화나 허구적 서사형태의 역사화 과정에서, 이러한 역사·지리적 혼동·조작이 가끔 일어날 수가 있다. 이런 작품들의 구비적 유통에서는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느라, 제작층·매개층·수용층이 모두 이런 구체적 사실에 거의 무관심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무대에서 홍법사를 대흥현 소속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원황후의 고향 대흥현과 아버지의 복전 홍법사의 관계를 근접·동일시하는 무의식적 의도에서 빚어진 현상이라 보아진다.

둘째, 인물과 성격에 대해서다. 이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로는 원홍장을 비롯하여 그 아버지 원량, 홍법사의 화주 성공, 진국 황제와 봉명사자, 공장과 선원들, 변방직이 군졸과 성덕 등이 조화롭게 언행·활동하고 있다. 여기서는 중요한 등장인물들의 언동을 통하여 그 성격을 유형적으로 검토하겠다. 이 인물들은 그 독자적 성격을 창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진행의 과정에서 그만큼 소중한 기능론 발휘하기 때문이다.

먼저 원홍장은 이 작품의 주인공이다. 그녀는 맏인 원량의 딸로 어렵게 성장하지만, 태어나면서 맑고 아름다우며 태도가 비범한 데다 성품·식견이 통달·민첩하다. 게다가 그녀는 효성이 지극하여 맹부를 봉양하는 데에 정성을 바치고 최선을 다하니, 동네·인근이 대효라 감탄·칭찬하여 마지 않았고, 그 명망이 중국에까지 들리었다. 여기까지는 홍장이 역사적 존재로서 이별의 아픔까지 절실하게 체험한다. 이 지역의 탁이한 효녀로서 현실적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이 홍장은 불심이 절실하여 아버지가 성공의 간청에 감화된 나머지, 자신을 보시로 바쳤을 때, 아무 말없이 그에 응한다. 심지어 홍장은 자신의 몸을 팔아 불사의 자금으로 바치려 성공을 따라 다니는 보시행을 한다. 불가에서 저명한 매신공양을 결심·실천하려는 것이다. 아버지의 무상 보시와 홍장의 절대 서원이 통달하여, 그녀는 황후가 될 행운이 닦아 온다. 홍장은 소랑포에서 진국 황제의 봉명사자를 만나 황후를 모시겠다는 간청을 듣고도 의연하고 당당하여, 이미 그런 운명을 예견하고 받아드릴 준비를 해 왔던 모습이다. 그녀는 봉명사자의 간청에 당연하다는 듯이 응락하고, 그 많은 보물을 받아 아낌없이 성공에게 넘겨 주는 보살행을 한다.

이어 홍장은 진국에 도착하여 황제의 환대로 황후가 되고 무상의 총애를 받고도 드날리지 않고 전아·선량한 품성을 보인다. 원황후의 자비·위엄이 하늘에 가득하고 불법·

정업을 크게 떨치고자 대작불사를 일으켜 황제의 호응·옹위를 받는다. 그리하여 황후는 각종 탑상·불상·신중상 등 성물을 조성하여 열국 내지 본국의 대찰에 보내어 일대 불연을 맺는다. 그리하여 원황후의 자비 화현이 곳곳에 나타나 불국정토를 이룩한다. 여기서 원황후는 자비 화신이 되어 관음보살의 응신으로 추앙되는 것이다. 이로써 원황후는 효행법화의 어떤 효녀나 심청보다도 더욱 수승하고 완벽한 인물·성격과 존상·권능을 두루 갖추었던 것이다.

다음 원량은 홍장의 아버지로 선량한 맹인이다. 고단한 신세로 딸 홍장만을 의지하고 사는 전형적인 맹부형이다. 그는 외출 길에 홍법사 성공의 권선 강청에 못이겨 유일한 딸을 보시하는 청순한 시주로 승화된다. 그리고는 후회도 없이 참회하는 성숙한 거사이기도 하다. 그는 인정이 깊고 착한 아버지로서 부녀의 이별에서 통곡하는 성품을 전형적으로 보이고 있다. 그렇게 딸을 보내고는 말이 없고, 눈을 뜨고도 당연하다는 듯이, 운명을 예견하는 인물·성격이다. 말하자면 심청의 아버지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성공은 홍법사의 화주승이다. 그는 권선·불사에 열성을 다하고 대중 교화에 능통한 승려의 전형이다. 그는 불사의 성취를 서원하고 정성껏 기도하였기에, 부처께서 현몽하여 대시주를 계시받는 권능을 나투고 있다. 그러기에 그는 원량 같이 고단하고 빈한한 맹인을 설득·감화시켜, 그 외동딸을 보시받는 등 능력형 승려이다. 그는 홍장을 팔아 불사에 임하려다가, 진국의 봉명사자를 만나 그녀를 황후감으로 보내고, 무량한 보물을 보시받아 불사를 대성하는 모범적인 승려형이라 하겠다. 이 성공은 권선 불사의 법화에 으레 나오는 화주승의 유형으로서, 「심청전」의 화주승과 상통한다.

또한 봉명사자는 진국에서 으뜸가는 총명·능변의 신하다. 황제가 상배하여 상심하던 중에 신인의 현몽을 얻고, 동국에서 성장한 황후감을 모셔 오도록, 보물을 싣고 파견되는 선발된 사자다. 기실 그는 위풍이 당당하고 벼슬이 높은 데다, 상법에 능하여 인물을 탐색·평가하는 데에서 권능을 발휘하는 전형을 갖추었다. 실제로 그는 두 척의 큰 배에 보물을 가득 싣고 많은 선원을 거느려 동국의 해역 소랑포의 앞바다에 정박·대기하다가, 홍장을 만나 황후감으로 판단하는 지인지감의 인물형이다. 나아가 지혜롭고 단호한 능변으로 홍장을 설득하여 승낙을 받고 그 보배를 모두 내어 주는 걸출한 능력형 외교관이다. 그러기에 이 봉명사자는 「심청전」에서 사공들을 데리고 등장하는 도사공과는 성격과 차원을 달리 하고 있다.

그리고 진국의 황제는 인정이 많고 선정을 베푸는 현군이다. 그러기에 그는 황후를 여의고 고심하다, 신인의 현몽으로 동국에서 성장하는 황후감을 찾아 모시려고, 현명·특출한 사자를 택출하여 무량한 보물과 함께 파송한다. 그리하여 봉명사자의 능력으로 찾아 모신 황후감을 감탄·치하하고 황후로 삼는 최상의 남편형이다. 따라서 원황후를 사랑하고 그 뜻대로 따르며 모든 것을 도와주는, 황후 위주의 황제형이다. 그래서 그는 원황후에게 불가능이 없는 전지전능의 보살이 되게 하는 남성적 보살형이라 하겠다.

한편 성덕은 원래부터 현실적이고 역사적인 인물이 아닌 것 같다. 어쩌면 성산의 여신격이었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관음사를 창건한 영험적 존재로 대두된 것이라 보아진다.

낙안지 단교 옆에 정박한 관음보살 석선이 묘망 중에 있다가, 해안에 나온 성덕을 보고 끌리듯이 닥아 오고, 성덕은 그 배안의 관음상을 우러러 경배하고는 업어다가 성덕산의 명장에 관음사를 세워 모신 신묘한 창건주형이다. 이만 하면 성덕은 신통묘력을 갖춘 보살형으로 승화되는 터다. 그래서 관음보살의 응화신이라 공인된 것이다.

여타의 인물들도 어울려 사건진행의 보조·연결의 역할을 다하였다. 현실적으로 뚜렷한 언행을 드러내지는 않지만, 실로 그 역할이 중요한 것은 물론이다. 모든 사건이나 구조물들에서 연결고리와 접착제가 그다지 소중한 것과 같기 때문이다.

셋째, 사건 전개에 대해서다. 여기서는 사건주지와 사건진행으로 나누어 보겠다. 먼저 이 작품의 사건주지는 다양한 편이다. 가령 맹인불운 주지와 효양맹친 주지, 권선불사 주지와 매신공양 주지, 현몽계시 주지와 신비체험 주지, 보시공덕 주지와 중생교화 주지, 자비영험 주지와 보살화현 주지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러한 사건주지들은 각기 유명할 뿐만 아니라, 사건 전체를 구축하고 있는 부분으로서도 소중한 의미를 지닌다.

원래 이 사건주지들은 흔히 말하는 삽화 이상의 독자성을 띤 이야기덩어리라고 하겠다. 그리하여 위에 열거한 사건주지들은 각기 다양한 서사형태 특히 불교계 소설 등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된다. 그러니까 이런 독자적이며 공통적인 사건주지들이 각양 각색의 작품에 삽입·조화되어 효율적인 사건을 조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의 사건조성은 위에 든 바 저명하고 보편적인 사건주지들이 유기적으로 적절히 조직됨으로써 비로소 이루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조성의 성패는 그 조직의 적합성과 효율성에 매여 있다고 본다. 이 작품에서는 그 사건조성이 위 주지들의 적합하고 효율적인 배치·활용으로써 실제적 성공을 거두었다고 하겠다. 이 점은 다음의 사건진행에서 실증되기 때문이다.

이 사건진행은 ‘발단단계’에서 출발한다. 위 구조의 단계 ①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주인공의 출생·신분과 생활 상태를 제시한다. 충청도 대흥현에서 고단한 맹인 원랑과 그 딸 홍장이 빈한하게 살아가는 정경을 보여 준다.

이것은 ‘예건의 설명단계’로 이어진다. 위 ②가 이에 해당된다. 말하자면 이 사건진행의 가능성과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단계라고 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홍장이 미모·현숙하고 통달·민첩한 데다, 효양에 최선을 다함으로써, 아버지를 위한 일, 아버지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지 순행하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중대사건을 죽히 감당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이어 ‘유발적 사건단계’가 벌어진다. 여기에는 이 ③-④가 해당된다. 이제 사건이 유발되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단계다. 실제로 성공이 부처의 현몽으로 원랑에게 대시주가 되기를 강청·설득하여 마침내 그 딸 홍장을 보시받는 데서, 사건이 유발되고 본격화되기 시작한다. 홍장이 아버지의 간절한 뜻으로 보시하라는 명을 받고 성공을 따라 이별할 때, 그 비극적 장면에서 사건은 상승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다.

그래서 ‘상승적 동작단계’가 이룩된다. 위 ⑤-⑥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사건이 긴장 상태, 착잡한 상황으로 치달는다. 홍장이 성공을 따라 몸을 팔아 공양하려고 두루 다

니는 노정은 매신공양의 실천적 발걸음이다. 말하자면 절실한 구도행각의 일환이다. 나아가 심신이 피로하여 소랑포에 쉬고 있을 때, 진국의 봉명사자를 만나는 것은 사건진행이 급격히 상승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홍장은 황후감으로 간청을 받고 이를 승낙하면서, 그 무량 보물을 성공에게 보시하고 고국을 떠나는 것으로써, 사건진행은 절정에 맞닿아 리만큼 치솟는 것이다.

그러기에 사건진행은 ‘절정’에 다다른다. 여기에는 위 ⑧이 해당된다. 이것은 사건진행이 최고조에 달하고 정상에 오른 정화다. 홍장이 미모·덕행이 빼어나 황제의 찬탄 속에 황후에 오른다. 해에 상응하는 달과 같은 자리, 천하 대국의 국모가 되어 절대 극락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그 전아·지선한 성품과 자비·위엄이 천지에 가득하니 황제의 총애를 독차지하고, 백성의 존숭·찬탄을 한 몸에 받으니, 그것은 감격을 넘어선 안락국의 경지다. 동국 일우에서 빈맹의 딸로 태어난 홍장이 진국의 황후가 되다니, 일월이 다시 빛나고, 전무후무한 천재일우의 절정이 아닐 수 없다.

이래서 ‘하강적 동작단계’가 이어지기 마련이다. 이것은 사건진행의 필연적 현상이요 당연한 귀결이다. 그것은 절정단계의 최고정점을 더욱 높이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연결이다. 여기에는 위 ⑨-⑩이 해당된다. 이제 원황후는 보살의 정점에서 사바세계를 내려다 보며 하화중생의 자비 불사를 행하여 내린다. 명공을 청하여 각종 성물을 조성해서 열국에 보내고, 나아가 본국의 유명 사찰에 자유롭게 보낸다. 그것은 보은·효행의 또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불연을 맺은 본국의 사찰에 이어, 마침내 황후의 본신을 표징한 관음상을 임의로 보내어 옥과현 성덕의 영점으로 성덕산에 관음사를 창건하는 것이다. 이로써 원황후는 보살행을 마치고 점차 보살 자체로 화현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대단원 단계’ 이른다. 여기에는 위 ⑪이 해당된다. 이에 이르러 모든 사건진행은 완벽하게 마무리된다. 그래서 원황후와 성덕이 천백억화신 가운데서 관음의 화신으로 승화됨을 명시한다. 그리고 이 홍장의 보시로써 성공은 대불사를 성취하고 원량은 홍장·황후의 보은·효행으로써 광명을 찾아 95세까지 지극한 복락을 누렸다고 확증시키는 것이다.

이 작품의 사건 전개는 동양 한·중 소설의 전형적 과정과 상통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사건진행은 그 액자구조와 결부되어 전형적 전기소설의 그것과 동일하다. 이 작품에서는 위 무대에서 그 인물들이 이만한 사건을 추진함으로써, 위 주제·사상을 완전히 소화하고 절묘히 구상화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제반 요건은 전형적인 소설, 전기소설의 그것과 완전히 부합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처럼 이 작품의 구성 형태는 이제 전형화되고 보편화되어, 그 장르성향의 평가를 기다리게 되었다. 이러한 구성·형태가 그 유통과정에서 바람직한 변화를 모색한다면, 그 장르적 양상이 복합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터다. 말하자면 이 구성·형태가 정적으로 요약·정화되면 수필적 구성으로 진행되고, 한편 이 구성·형태가 역동적으로 부연·연행되면, 연극·희곡적 구성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 4. 文體와 表現

이 작품의 문체가 산문체로 일관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런 산문체는 대체로 평면적인 모습을 벗어나 입체적인 면모를 보인다. 이 문체가 기본적으로 수필적 문체를 유지하면서 소설적 문체 내지 희곡적 문체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이다.

첫째, 수필적 문체에 대해서다. 흔히 수필적 문체를 산문의 기본이요, 따라서 평면적이라는 게 보통이다. 그런데 이 수필은 원래 단순하면서도 실로 다양한 양식을 포괄하므로, 그 문체가 복합적인 면모를 띠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그 본문에서 서두부분을 들어 보면

忠淸道大興縣，有一盲人，其姓元，其名良。早喪配，耦鰥居困窮，仍鮮族黨，無所依賴。<sup>33)</sup>

라는 정도다. 이만하면 수필적 문체로서 수준이 높고 손색이 없다. 나아가 수필의 관점에서는 이 산문 전체가 복합성을 지닌 수필적 문체라고 볼 수도 있겠다. 상술한 대로 수필의 문체는 그 장르 만큼이나 다양성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다만 이 수필적 문체는 소설적 문체 내지 희곡적 문체의 기반이 되는 게 원칙일 따름이다.

둘째, 소설적 문체에 대해서다. 전술한 바 이 작품이 소설적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전제에서라면, 그것은 소설적 문체로 표현되는 게 당연하다. 그리고 이 소설적 문체가 환경·무대와 인물·성격, 행동·사건 등의 묘사·표현에 그 특징이 있다면, 이 작품은 그 소설적 문체로서 상당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보아진다. 먼저 인물·성격의 묘사장면을 들어 보겠다. 홍장의 인품·성격을 그리는 대목이다.

惟有一少女，名洪莊，生而淑美，態度不凡，性識通敏，常以至誠，勤養其盲父也。至切反哺，跬步不忘。非特晨昏臥起，左枝右梧，而侍側。亦衣服之需，飲食之味，無不稱旨，一境咸稱大孝，名聞華夏焉。<sup>34)</sup>

이와 같이 절실하고 생동감이 넘친다. 여기서 홍장의 미모·덕행과 식견·혜지, 효행·자심 등이 조화·충만되어 부각된다. 따라서 이 홍장이 장차 황후가 되어 온 천하에 은전을 베풀으리라는 예견까지 가능해지는 터다. 이제 그 행동·사건의 묘사 장면을 살펴 보겠다. 홍장이 황후가 되어 황제의 총애를 받고 대작불사를 일으키는 장면이다.

偕入上國，朝謁之，時月貌星眸光彩照人，上視而歎曰“以海隅之鰥域，而有如是之人

33) 원전 본문, pp.1~2.

34) 원전 본문, pp.2~3.



哉.” 由是有寵，所言皆從焉。后稟性雅善，彌天慈威。欲行淨業，乃勅石匠，以瑪瑙造塔三千分，列諸國。<sup>35)</sup>

이렇게 입체적으로 완벽한 표현을 이루고 있다. 황후의 대관식을 응축·전제하고 황후의 미모·자성이 생동하기에, 황제의 총애가 너무도 극진하다. 황후는 하늘에 가득찰 자비·위신력을 발휘하여 정업·불도를 광포하려 공장을 초치해서 마녀탑을 삼천(무수)분이나 조성하고 천하 제국에 보내는 광경이 생생하게 드러난다. 황제의 절대적 후원을 받아 황후는 자비·구제의 권능을 해와 달처럼 발원·결행하니, 그 찬연한 광명을 기리 사해 열국에 두루 비추는 광경이 선연히 떠오르는 것이다. 이쯤 되면 이것은 소설 문체로서 성취된 터라 하겠다.

게다가 여기서 돋보이는 것은 대화와 지문을 적절히 조화시켜 생동감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래 소설적 문체는 지문과 대화를 잘 섞어서 그 입체성과 역동성을 창출하는 게 특징이다. 이 작품의 문체는 도처에 지문과 대화를 잘 엮어서(하술 참조) 소설적 문체의 효능을 회곡적으로 확충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소설적 문체는 바로 회곡적 문체의 성향을 지니면서, 그쪽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비하고 있는 터다.

셋째, 회곡적 문체에 대해서다. 상술한 대로 이 문체는 회곡적 성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서는 사건진행과 관련하여 장면화가 뚜렷해지고, 대화가 발달해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이 대화와 연결되어 지시문의 역할이 돋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이 문체의 장면화는 회곡적 표현의 우선적 요건이라 하겠다. 이것은 극화·연행의 전제조건으로 필연적 현상이기 때문이다. 기실 이 장면화는 사건진행의 7단계와 조응하면서 윤곽을 잡고, 독자적인 생동감을 드러내는 터라 하겠다. 그리하여 그 장면들을 예시하면 대강 이러하다.

맹인 원량이 고단하여 홍장의 효양을 받고 사는 장면  
성공이 원량을 설득·감화시켜 홍장을 보시받는 장면  
홍장이 아버지와 비극적 이별을 하고 성공을 따라 다니는 장면  
홍장이 소랑포에서 봉명사자를 만나 황후감이 되고 크게 보시하는 장면  
홍장이 황후로서 영광을 누리고 자비로써 성물을 광시하는 장면  
성공이 불사를 이루고 원량이 광명을 얻어 복락을 누리는 장면

이러한 장면들이 대화와 지시문을 통하여 사실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기실 이 작품이 극화·연행될 때는 이 장면화의 표현이 그대로 회곡적 문체로 전환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이 문체의 대화를 별도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실로 회곡적 문체는 대화를 본질·생명으로 삼기 때문이다. 이제 그 대화의 뚜렷한 사례를 들면 이러하다. 성공이 원

35) 원전 본문, pp.9~10.

량을 설득·감화시키는 대목이다.

性空者也，忽見盲者，趨拜曰；

“欲與君同成，金剛不朽之因，幸公爲我大施也。”

盲者言；

“以我貧丐求，若所欲，豈不難哉。”

化士再拜，而起曰；

“吾受勸軸之日，夢有金人，誥吾曰，‘明朝出路口，必逢盲人，卽爲汝之檀越也’，是以懇請。”

盲人籌思，移時而言曰；

“家無斗儲，野乏尺壤，雖欲奚爲止。惟有一少女，卽賣，而以爲法堂經營之資。”<sup>36)</sup>

라고 하였다. 이만하면 대화체가 성립되어 희곡문체의 면모를 보이는 터라 하겠다. 그런데 이 정도의 대화라면 소설, 전기소설에서도 얼마든지 발견되는 게 사실이다. 그러나 원래 이 대화체는 희곡문체의 속성이었던 것이 소설에 수용된 것이라 본다. 그래서 이 대화의 정도와 수준에 근거하여, 소설과 희곡의 장르성향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위 대화체보다 더 적극적인 대화부분을 들어 볼 필요가 있다. 홍장이 진국의 봉명사자를 만나는 장면이다.

金冠玉佩繡衣使者，熟視此女之韶顏絕色，卽起拜謝於前曰；

“眞是后也。”

女變色曰；

“是何言歟。”

使者曰；

“吾晉人也。永康丁亥五月辛酉，皇后崩，自是上帝惻然不已。一夜夢，有神人白上，‘新皇后生於東國，今已成長，端正勝於前皇后，更勿爲逝者，而哀也’。上欠身而覺，明日卽備，幣帛四萬端金銀珍寶，都載兩船，又擇善相慧利者，爲使者，申命，‘直馳東國，持此物色，依樣求得’，小臣猥荷此任，受命以來，夙夜畏懼，今幸覩盛儀，乃敢發言。”

女歎曰；

“頃篋相應一身之去留，何難之，有蓋所持幣帛幾許。”

使者答言；

“滿載兩船珍寶。”

女微哂而言曰；

“我身非我身，乃父種善之，奇貨兩船都附化土。”<sup>37)</sup>

36) 원전 본문, pp.3~4.

37) 원전 본문, pp.6~9.

이런 정도의 대사다. 이런 대화는 회곡적 대사 그 자체라고 할 만하다. 특히 이런 대사는 때로 짧은 형태로써 당대의 실제적 회화를 드러내고, 때로는 장황한 형태로 특이한 사건을 응축·표현하기도 한다. 이런 화법은 고금을 통하여 회곡의 문체에서 흔히 사용되던 모형이라 하겠다. 따라서 이런 대화체는 그 지시문과 함께 회곡의 문체를 그대로 이룩하였다고 볼 수밖에 없겠다. 실제로 회곡은 대화의 문학이기 때문이다. 기실 여기서는 지시문이 그 위치를 제대로 차지하고 있다. 위 예문에서만도, 그것이 무대·장치는 물론, 등장인물의 의상·분장, 그리고 행동 내지 표장까지도 명확히 지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대화체는 소설적 문체와 관련하여 검토할 여지가 없지 않다. 실제로 이 정도의 대화체가 소설, 전기소설의 문체 속에 족히 수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이런 대화체가 원래의 소속에도 불구하고 전기소설에서 상용되는 것이 통례가 되어 왔다. 따라서 이 대화체는 회곡적 장르를 성립시키고 나아가 전기소설의 문체에도 수용·기여하는 양면성 내지 입체성을 보인다고 하겠다. 그러기에 이 두 장르의 문체에서 핵심적 공통분모를 이룬다고 보아진다. 다만 회곡에서는 전적으로 대화가 지시문과 조화되어 작품을 이루고, 전기소설에서는 대화가 지문과 어울려 문체를 이룩하는 데서 차이점을 가지고 있는 터다.

따라서 이 대화체는 회곡과 소설의 장르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건·기준이 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회곡과 소설은 대화체를 중심으로 가장 근접한 장르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곡의 대화체가 어떤 계기에 조금 약화되어 지문과 결합되면 소설, 전기소설로 변용되고, 전기소설의 대화체가 어떤 의도에서 한층 강화되어 그 지문을 지시문으로 축약·전용되면 그대로 회곡이 되어 왔던 것이다.<sup>38)</sup> 따라서 이 작품의 문체는 그 관점에 따라 수필적 면모를 유지하면서, 소설 내지 회곡의 모양을 지향하는 입체적 성향을 보이는 터다.

## 5. 장르적 性向

이상의 논의에서 이 「원홍장전」의 장르적 성향은 그 윤곽을 잡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단순한 사찰연기설화에서 벗어났다. 그리하여 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역사적 기술이 아니라는 것도 분명해졌다. 이 작품이 불교계의 권선법화의 일면을 지니어, 불교설화라고 통칭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장르적 범위에 드는 게 아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고 분명한 것은 이 「원홍장전」이 독자적 문학작품이라는 점이다. 이 점은 그 작품 자체가 실증하고 지금까지의 논의가 검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술한 대로 이 작품은 그 형성의 배경과 그 주체가 튼튼하고, 그 형성과정이 유구하고 확실한 전통을 유지하며, 문학으로서의 실상을 확보하고 있는 게 분명하다.

38) 劉瑛, 傳奇與戲曲, 唐代傳奇研究, 正中書局, 1982, p.138.

첫째, 이 작품은 다양한 배경이나 그 자체의 모든 요건 상에서 소설과 상통하고 있다. 실제로 이 작품은 역사·지리적 근거와 사실적 소재로써 창조적으로 재구된 것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 작품은 그 구조와 내용, 주제와 사상, 구성과 형태, 문체와 표현 등 제반 조건에서 전기소설과 일치하는 터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한국의 소설, 전기소설의 하나라고 떼뻗이 규정되는 것이다. 이제 이 「원홍장전」은 우수하고 값진 전기소설로 행세하게 되었다. 이는 중국 역대 전기소설이나 신라·고려 이후 전형적 전기소설, 「금오신화」나 그 유형의 수작들과 대등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는 명품이라 하겠다. 따라서 「심청전」·「춘향전」 등 고전소설, 국문소설과는 계통과 차원을 달리하는 게 사실이다. 이로써 한국문학계와 문화계 내지 대중들은 주옥같은 명작, 전기소설을 발굴·공유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형성된 이래, 위 사찰망을 중심으로 불교계 내지 일반 민중에도 공감대를 이룩하고, 인기리에 유통·전파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술한 제작층·매개층·수용층을 넘나들면서 변화·보완·성장하고 널리 연행되기도 했던 터다. 이 작품은 이러한 유통·연행의 과정을 겪고 환경·조건과 수용층의 요청에 따라서, 그 장르적 변용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저명한 작품들이 으레 그러하듯이, 이 작품은 실제로 수필계나 희곡계의 장르를 모색·지향했으리라 본다.

둘째, 이 작품이 그 시대·환경에 적응하여 구조와 내용을 축약하면 수필로 전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전개한 대로 이 축약된 내용이 수필적 문체와 화합·조화되면, 족히 수필 장르로 변용·운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가령 구비나 문헌을 막론하고 「원홍장의 이야기」는 그 찬사·논평·전장·비지·애제·담화 등 수필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그 이야기를 분위기에 따라 효율적으로 표현할 때, 부득이 수필식을 택하는 게 보통이다.

셋째, 이 작품이 성황리에 유통되고 연행될 때, 그것은 이미 연극형태의 대본으로 적용·활용되는 게 필연적이다. 승속 간에 이 작품을 극화·실연할 경우에 그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그것은 극화·실연의 과정을 필수적으로 밟게 된다. 이 작품이 시대적 요청과 민중적 호응에 따라 좀더 입체화되고 확충될 때는, 으레 그 삽화를 보완하여 장면화를 강화함으로써, 극화·연출을 준비한다. 그래서 그것의 희곡적 구성 위에 문체를 모두 대화로 부각시켜 지시문을 부여하면, 그대로가 희곡으로 전환·전개되는 것이다. 전술한 대로 이 「원홍장전」은 본래 전기소설이더라도, 그 필요와 의도에 따라 대화 위주로 조정되면, 희곡으로 전개되는 것이 매우 용이하고 편리했으리라 본다. 이런 경우의 역현상도 얼마든지 가능했던 터다. 기실 한·중 역대 전기소설들이 거의 모두 극화·연행되어 희곡으로 변성되는 사례가 보편화되었던 것이다. 그래서 명대의 연극·희곡들은 으레 「傳奇」라 하여 전기소설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터다.<sup>39)</sup>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의 희곡적 성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39) 朱承樸, 明清傳奇概說, 名稱和淵源(元山書局, 1983, p.3)에서 「傳奇, 這個名稱, 原來是指唐代的短篇文言小說, …宋金以後轉借爲戲劇的通稱」이라 하였다.

#### IV. 「元洪莊傳」과 「심청전」의 關係

이제 「원홍장전」은 「심청전」과 대등한 독립적 작품이다. 일단 「원홍장전」은 본격적 한문소설 전기소설이고, 「심청전」은 전형적 고전소설 국문소설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전술한 대로, 그 계통과 차원을 달리한다. 그래서 이 「원홍장전」은 지금 「심청전」의 근원설화라거나 그 원형이라는 후대적 평가·논의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다. 이 두 작품은 일견 그 전통·계맥을 같이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쉽다. 이 작품들의 주제·사상과 구조·내용이 비슷하여 상통점이 어렵되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이 두 작품의 동이점을 중심으로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상관성을 검토해 보겠다.<sup>40)</sup>

##### 1. 構造・內容面에서

이 두 작품이 구조와 내용면에서 일견 유사한 면이 보이는 것은 사실이다. 어느 고단한 맹인이 딸의 효양으로 살아가다가 화주승을 만나, 그 딸이 매신공양하여 황후가 되고 마침내 그 눈을 떠운다는 이야기의 윤곽이 근접하여 있기 때문이다. 기실 두 작품 간의 이러한 근접성 내지 유사성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는 있겠다. 그래서 이를 근거하여 이 작품이 「심청전」의 근원설화로나 그 원형으로 논의되어 온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점을 가지고 위와 같이 긴밀한 관계를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에 못지 않게 두 작품 사이에 다른 점도 많기 때문이다.

우선 이 작품들은 형성의 배경, 역사지리적 환경과 종교·윤리적 기반, 문학·문화적 전통 등이 서로 다르다. 「원홍장전」은 충청도 예산군을 중심으로 부여군, 경기도 화성군·개풍군, 전라도 곡성군 등에 직·간접의 기반을 가지고 있는데, 「심청전」은 중국의 남군땅, 황주 나아가 황해도 황주 등 이본에 따라 달리하는 바람에 실제적인 형성기반을 종잡기 어렵다. 그리고 이 두 작품은 형성의 주체나 그 형성과정에서도 좀 다른 점이 있다. 전자는 제작층인 학승·문승을 중심으로 신불문사들이 합세하고 매개층 내지 수용층이 호응·협력하여, 홍장의 사실적 효행담을 근원으로 매신공양영험의 법화와 결부시키고, 효녀영웅담 내지 '영웅의 일생'을 형성시킴으로써, 작품의 원형을 형성·유전시키다가, 완전한 작품으로 기록·정착된 일련의 과정과 계맥이 비교적 선명하지만, 후자는 시발부터 전거가 막연하여 형성의 주체나 그 형성과정 등이 광범하면서도 그 단계와 계통이 그만큼 투명치 못한 것이다.

여기서 이 두 작품이 실제로 다른 점은 작품 자체의 구조다. 전자는 본격적인 전기소

40) 사재동, 「심청전」 연구서설,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중앙문화사, 1994, pp.441~444 참조. 여기서 「심청전」의 원전은 경판본(24장)으로 삼는다.

설로서 도입·종결의 액자까지 갖추고 있는데, 후자는 전형적인 국문소설로서 액자구조를 떠나 보편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터다. 이 두 작품이 소설이라는 점에서는 공질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 하위 장르로서 한문단편 전기소설과 국문장편 고전소설과는 구조·내용면에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러한 구조·내용적 층위와 계통을 떠나서, 이 작품들의 선후·영향 관계를 섣불리 논의할 수는 없겠다.

## 2. 主題・思想面에서

이 두 작품은 주제와 사상면에서 거의 일치하고 있다. 원래 이 작품들은 불교계 효행소설로 공감대를 형성하여 왔던 것 같다. 이 작품들은 주제면에서 희생적 효행으로써 공통점을 이룬다. 그것이 매신공양과 영험으로 확산되는 데서도 두 작품은 방향을 같이 한다. 그리고 두 작품의 주제는 보은의 핵심으로서 효행의 지선을 추구하면서, 중생제도의 구제의식을 강조하고 나선다.

이러한 주제를 뒷받침하고 강화하는 배경사상에서 두 작품이 상통하는 것은 당연하다. 불교계의 효행사상을 비롯하여 매신공양과 영험사상, 보은사상과 응보사상, 무상보시와 구원사상 등이 복합적 불교사상을 조성하고 있다. 이러한 주제와 사상이 하나로 조화된 모습도 두 작품에 함께 나타나는 것이다. 실은 이러한 불교적 주제와 그 배경사상은 이 두 작품에만 공통되는 게 아니다. 한·중의 이른바 불교계 효행소설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만한 공통·공질성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이 주제·사상을 중심으로 두 작품의 관계를 탐색해 보는 것은 가능하고 의미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제·사상이 이 두 작품의 관계를 무조건 밀접하게 밀어붙일 수도 없고, 또한 그래서도 안 된다. 이만한 보편적 공통성 및 공질성이 두 작품의 나머지 독자성과 특이성을 동일하게 용해시키는 데는 무리가 따르기 때문이다.

## 3. 構成・形態面에서

이 두 작품은 실제적인 구성면에서 많은 차이점을 드러낸다. 그만큼 독자성과 특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 그동안 대개는 「심청전」의 무대·인물·사건 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그 이본에 따라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일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교적 원본에 근접하고 있다는 경판 심청전(24장본)을 원전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첫째, 무대에서 두 작품이 많이 다르다. 물론 양쪽의 지명 및 사찰명이 같을 수는 없다. 그런데 전자에서는 충청도 대흥현이 나오고, 진국의 황성·황궁 등이 연결되어 직접 무대로 설정되며, 나아가 광범한 간접무대로 홍법사·금강사·감로사·경천사·관음사 등이 보조적으로 역할하는데, 후자에서는 심청의 생장지 남군땅을 비롯하여 화주송의 명

월산 운심동 개법당이 나오고, 인단소 용궁이 연결되며 심황후의 유리국 황궁이 나올 따름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차이점은 용궁의 유무이다. 두 작품이 해로 행선은 비슷하지만, 용궁은 「원홍장전」에 없다. 이 점은 분명히 양측의 무대적 특징과 전체적 거리를 가늠케 한다.

둘째, 인물에서 두 작품의 주요한 인물들은 비슷한 유형을 보이지만, 여타 부수적 인물들이 수량이나 역할에서 웬만큼 다르다. 이 원홍장이 심청과 비슷한 유형인 것은 물론이다. 다 같이 출천대효로 맹부를 극진히 효양하는 것은 공통점이고, 아버지의 명이나 언약에 따라 매신공양하는 점도 비슷하다. 그리고 중국의 황후가 되어 자비를 베푸는 것도 일치한다. 그래서 둘 다 관음의 화신으로 상징되는 것까지 다르지 않다. 그런데 이 두 작품에서는 각개 주인공을 구상화하는 데서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우선 홍장은 생동하는 개성을 드러내고, 심청은 전형적인 유형성을 나타낸다. 홍장은 미모·숙덕과 효행의 면모가 여실히 묘사되고, 진국의 봉명사자를 만나 수작할 때나 황후가 되어 신심·정법으로써 성물을 보시할 때도 자신의 개성이 뚜렷이 보이게 되는데, 심청은 오직 전세 용왕의 딸로 선덕·효행의 전형으로 설명되고 용왕을 만나거나 황후가 되어서도 다만 지선과 자비의 언행으로 맹부를 사모하게 마련되었다. 게다가 홍장은 황후가 된 후에도 정업을 더하여 불사·보시에 정성을 다하며 아버지를 멀리 둔 채 큰 효행을 하는데, 심청은 일체 신불 내지 불사를 하지 않고 아버지를 가까이 만나 직접 효행을 하는 데서 상당한 차이가 난다.

그리고 원량과 심현은 동일한 유형이다. 다만 원량은 신심을 가지고 화주승의 간청에 그 딸을 보시하고, 심현은 굴형에 빠져 화주승의 구제·권선을 받고 성급하게 공양미를 약속한 차이 뿐이다. 홍법사 성공과 개법당 화주승은 같은 유형이다. 법력과 예언에서 상통하는데, 권선의 적극성은 성공쪽에서 돋보인다. 봉명사자와 남경상고 도사공은 사뭇 다르다. 그 외모·신분·역할·권능 등이 근본적으로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한편 진국의 황제와 유리국의 황제는 같은 인물형이다. 다만 진국 황제는 황후를 총애하는 데서 적극적이고 자상한 면이 있는데, 유리국 황제는 그렇지 못하고 평범하다는 차이 뿐이다. 기타 양측의 인물들은 수량이 다르지만, 그 역할에서는 비슷하거나 이색적인 면을 공유하고 있다. 단지 「원홍장전」에는 「심청전」의 용궁에 나오는 일체의 인물이 나오지 않고, 그대신 성덕이 나오는 점이 특이할 따름이다.

셋째, 사건전개에서 두 작품이 상당히 다른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 사건주지에서는 어느 정도 공통점을 보이지만, 사건진행에서는 많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 두 작품의 사건진행을 적절히 대비시키면서 동이점을 살펴 보겠다.

발단단계에서, 원량은 고단한 맹인으로 딸 홍장과 어렵게 사는데, 심현은 정씨부인과 심청을 낳고 부인이 돌아가 눈이 멀어서 애써 딸을 기른다.

예건의 설명에서, 홍장이 미모·숙덕으로 효양하는 모습이 눈에 보듯이 선명하지만, 심청은 효양의 일환으로 장자네 집에서 품팔이를 하며 살아간다.

유발적 사건단계에서, 원량이 이웃 고을에 갔다가 현몽 계시를 받은 홍법사 성공에게

강청·설득되어 그 딸을 보시하고 비극적 이별을 하는데, 심현은 딸을 마중하러 나가다가 굴형에 빠지고, 이를 구해준 개법당 화주승에게 공양미 300석의 보시를 자청하고, 심청이 남경상고에게 스스로 매신하여 보시한다.

상승적 동작단계에서, 홍장이 성공을 따라 매신하러 두루다니다가, 소랑포에 쉬면서 진국 봉명사자를 만나 황후감으로 승낙하고 무량 보배를 받아 보시한 뒤에 본국을 떠나는데, 심청은 행선날이 되어 비극적 이별로 상고들을 따라 배를 타고 인단소에 빠져서 용궁을 체험한 뒤, 연꽃 속에 쌓이어 유리국 황궁에 이송된다.

절정단계에서, 홍장이 황궁에 도착하여 황후에 올라 황제의 총애를 입고 자비정법으로 대작불사를 일으켜 백성들의 존숭을 받는데, 심청은 꽃 속에서 나와 황후가 되어 자비선정을 베풀게 하고 아버지 생각에 눈물겹다.

하강적 동작단계에서, 원황후는 보은·효도·홍법의 서원으로 각종 성물을 조성하여 열국이나 본국 여러 사찰로 선송하는데, 심황후는 아버지를 만나려 황성에서 맹인잔치를 베풀고, 심현은 고통 속에 황성에 이른다.

대단원단계에서, 불보살의 화현·영험으로 성공은 불사를 이룩하고, 원량은 광명을 찾아 복락 속에서 장수하는데, 심황후와 심현은 맹인잔치에서 만나 감격 끝에 눈을 떠서 복락을 누리니, 모든 맹인이 다 눈을 뜨게 된다.

넷째, 문체와 장르 성향에서, 두 작품이 다른 것은 물론이다. 전자는 한문 소설문체인데, 후자는 국문 소설문체이니 다를 수밖에 없다. 전자는 본격적인 한문소설, 전기소설인데, 후자는 전형적인 국문소설, 고전소설이니 구체적 장르 성향이 같을 수 없다.

이상과 같이 「원홍장전」과 「심청전」은 작품 상호 관계에서 구조·내용의 일면과 주제·사상의 대부분, 사건전개의 일부가 서로 공통·유사점을 유지하고, 나머지 구조·내용의 상당부분, 사건전개의 대부분, 그리고 문체와 장르 성향의 전부가 상이·독특한 양상을 보유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 두 작품은 가깝고도 먼 관계라고 하겠다. 그러기에 두 작품은 보편적인 공통점을 바탕으로 하되 각기 본격적이고 전형적인 독립작품의 실상과 위상을 구비하였다고 본다.

따라서 「원홍장전」은 「심청전」 내지 모든 전기소설·고전소설과 대등한 수작·명품임을 확인한다. 그러기에 이 「원홍장전」을 「심청전」의 근원설화라거나 그 원형이라고 논의함으로써, 전자의 독자성 및 독립성을 인정하지 않은 점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간혹 「원홍장전」이 「심청전」의 선행 작품이라 전제하고, 상호 유사·근접점을 중심으로 그 상관성을 연역해내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원홍장전」이 그 유통과정에서 「심청전」에 영향을 주었으리라는 추정도 해볼 만한 일이라 하겠다. 실제로 「원홍장전」이 「심청전」으로 변모·전개되었다는 가설이 실증되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랜 기간, 실로 복잡·다단한 요건들이 개입·연결되어야 하므로, 그것은 짧은 기간 성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러므로 최근에 마치 「원홍장전」이 바로 「심청전」이라 속단하여, 여러 논란에 휩싸이고, 심청을 기념하는 문화사업을 벌이는 것은 실로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 V. 「元洪莊傳」의 文化史的 位相

이 「원홍장전」은 분명 문학작품이다. 따라서 이것은 널리 유통·연행되면서, 그 생동하는 진면목을 들어내고 그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게 되었다. 위에서 이미 이 작품의 장르적 전개가 유통·연행을 통하여 그 실상을 보였거니와, 그러는 가운데에서 문학사적 역할이 강화되기 시작한다. 기실 이 작품이 전기소설로서 유통·연행되고, 그래서 다시 희곡작품으로 변용·전개되며, 그로부터 축약·유통됨으로써 수필작품으로 변성·전개되었으니, 이러한 계통적 전승이 바로 문학사, 장르사를 이룩하는 것이다. 이러한 문학장르사가 그 유통·연행을 강화하여 미술·음악·무용·연극 등의 예술장르와 결합·성행함으로써, 그 예술장르를 형성하고 그 장르사를 이끌어 가는 게 사실이다. 나아가 이 작품의 문학사 내지 예술사가 조화롭게 전통을 이룰 경우에, 그 주변에서 불교언어·문헌·불교문물·사찰문화·불교윤리·불교민속 등의 문화가 조성되어 그 문화사의 전통을 수립하게 되는 터다.

### 1. 文學史的 位置

이 작품이 위 연관된 사찰들을 중심으로 불교계와 민중에 널리 유통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이 작품은 강독·강담·강창 등의 구비로, 필사본·목판본 등의 문헌으로 널리 유통되면서 많은 이화·이본을 형성하였으리라 본다. 그래서 이것이 문학작품으로 행세하고 기능을 발휘해 온 전통적 계맥이 바로 그 문학사적 위치다. 실제로 이 작품은 그 시대에 상응하여 불교계의 수필·소설·희곡 등과 연계하여 수필사나 소설사, 희곡사 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냈으리라 본다.

이 작품이 당시나 후대의 불교계 효행수필이나 대중적 효행수필의 형성·유통에 영향을 주었던 게 사실이다. 「심청전」에 관하여 여러 수필형태가 나타나 듯이, 이 「원홍장전」에 대해서도 적지않은 수필작품이 형성·부침하여 전통을 이어 왔을 것이다. 적어도 이 홍장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 찬사·논평·전장·비지·애제·담화 등 수필장르가 제작·전승될 가능성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비록 그 작품들은 현전하지 않지만, 이러한 수필적 계맥이 불교계·효행계의 수필사를 이루었으리라고 추정된다.

다음 이 작품이 각개 사찰과 불교계에 널리 유통되면서 그 사찰의 연기설화나 성물연기설화를 형성시켜 불교계 서사문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이 작품이 관음사사적기로서 그 사찰연기설화로 정착된 것이 전형적인 사례라 하겠다. 이런 사적기가 간행·유전되면서, 다른 사찰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찰연기설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실제로 홍법사의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

전술한 바 홍법사연기설화는 홍랑의 전설이라 하여, 홍장의 이야기에 준하는 서사문학·소설형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 구조·내용을 들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경기도 남양반도 해변 서신면 홍법리에 홍만석의 딸 홍랑이 절세미인으로 이름이 난다.
- ② 명나라 사신이 황제의 후궁을 구하려, 이 마을에 와서 아낙네들을 끌어 내어 후궁감을 찾으려 하니 비명과 통곡의 수라장이 된다.
- ③ 홍랑이 깊이 숨어 나오지 않으니 명·조선의 관원들이 삼죽을 멀하고 폐촌을 시키겠다고 위협한다.
- ④ 마침내 홍랑이 모두를 구제하려 결심하고 모래·대추·물 세말씩을 가지고 명나라로 떠난다.
- ⑤ 홍랑은 황제의 후궁이 되었지만, 줄곧 대추와 물만 마시고 백일 순결투쟁을 하다가, 자신은 사후에 보살이 되고 황제를 회개시키겠다는 유언을 남기고 죽는다.
- ⑥ 황제가 애통하다가 큰 병을 얻어 백약이 무효인데, 홍랑이 현몽하여 방탕을 회개하고 성군이 되되, 자신의 혼이 담긴 보살상을 만들어 무식사공 12명과 함께 고향으로 보내달라고 한다.
- ⑦ 황제는 꿈을 깨어 불전에 나가 백일기도로 참회하고 홍랑의 넋을 위로 하며, 공장을 시켜 보살상과 무식사공을 조성하여 보낸다.
- ⑧ 이 성상을 실은 돌배가 고향 앞 바다에 닿으니, 홍씨원로와 홍만석의 꿈에 홍랑이 나타나 그 성상을 모시고 절을 지으라 한다.
- ⑨ 그 원로와 홍만석 등은 이를 확인하고 바다가 보이는 뒷산 청명산에 홍법사를 세운다.<sup>41)</sup>

이런 정도라면 사찰연기설화로도 충분하고, 불교계 서사문학·소설형태 「홍랑전」으로도 손색이 없겠다. 이는 「원홍장전」의 홍법사와 직결되고, 洪莊의 ‘洪’자에 의거하여 그 선행작품을 모방·변환시킨 결과라 하겠다. 그러므로 이 「홍랑전」은 「원홍장전」의 영향 아래, 의도적으로 모작된 작품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선행작품을 모방하면서도 차별화를 위하여 애쓴 흔적이 보인다. 가령 홍랑의 효행을 떠올리지 않고 그 절개와 불심만을 강조한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어쨌든 이 작품은 「원홍장전」의 영향권을 벗어날 길이 없겠다.

이 「홍랑전」은 사찰연기와 성물연기를 겸하고 있거니와, 이와 비슷한 사찰연기설화가 두어 절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이 「원홍장전」과 연결된 사찰이나 그 주변의 사원에는 거의 다 이러한 연기설화가 형성·유전되었을 법하지만, 지금은 경천사와 향천사에 그 잔영이 있어 주목된다. 그 대략만을 거론하겠다.

위 경천사는 고려 초기에 창건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절은 고려 일대와 조선 초기까

41) 사재동이 홍법사 탐방(2002. 8. 12)에서 <홍법사의 유래>와 주지 성은(비구니)스님에게 확인한 내용이다. 이정편저, 한국불교 사찰사전, 홍법사, 불교시대사, 1996, p.645.

지 왕실과 관련하여 흥왕하였고 갖가지 재의가 벌어졌다. 고려 때는 숙종의 기신재(1118), 문경태후의 추모재(1134) 등을 지낸 바가 있고, 그 후에도 이런 재의·행사와 관련하여 인종·의종·공민왕 등이 자주 행차하였다. 지정 때(1341~1367) 원나라의 승상 탈탈이 이 절을 원찰로 삼았고, 晉寧君 강응이 원나라에서 공장을 뽑아 데려다 13층 석탑을 조성했다는 것이다. 이 석탑은 공민왕비 노국공주의 원탑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조선에 이르러 태조 2년(1393) 이 절에서 군신들이 천추절의 기념행사를 가졌고, 그 이듬해에는 그 아버지 환조의 추모재를 지냈으며, 그 6년(1397)에는 신덕왕후의 추모재를 열었다. 세조는 이 절과 그 석탑(국보 제86호)을 매우 존중하여 원찰 원각사를 창건하고, 그 13년(1467) 그 탑을 모방하여 10층석탑(국보 제2호)을 세우게도 되었다.<sup>42)</sup>

이와 같이 이 절과 성물 보탑은 양국 왕실 내지 대가의 원찰로서 각종 재의·행사가 자주 열리니, 실제로 생사간 역대 왕후들과의 관계가 긴밀했던 것이다. 특히 이 13층 석탑은 대단히 장엄한 성물로서 그 조성연기에 양국 왕후의 발원과 공장들의 정성이 깃들어 있기에, 주목할 점이 있다. 위에서 이 경천사가 「원홍장전」의 형성 배경이 되었으리라 추정하였거니와, 이 작품에서 이른바 ‘塔則運立於豐德縣敬天寺’라고<sup>43)</sup> 한 것은 이 석탑의 조성연기설화와 깊은 관계를 지었으리라 보아지기 때문이다. 기실 이 절이 원나라 승상의 원찰로 되었다거나 晉寧君이 원나라 명장을 데려다가 그 보탑을 조성하여 원나라 노국공주의 원탑으로 삼았다는 사실·설화는 원황후가 晉國 寧康황제의 주선으로 석탑을 만들어 보냈다는 이야기와 일맥 상통하는 점이 있는 게 사실이다. 실제로 사찰·성물설화의 속성을 감안할 때, 원황후가 조성하여 보내 세운 그 탑이 바로 위 13층석탑이라고 결부시킬 수가 있겠다. 의외로 위 ‘晉寧君’이 보통명사로 인식·부연되어 ‘晉나라 寧康 황제(君)’로 확대·연설될 수 있다면, 이 탑의 연기담과 원황후가 보시한 탑의 연기담과는 더욱 긴밀한 관계로 얹히어 설화될 가능성이 짙다.

이만 하면 경천사나 그 석탑의 성황과 분위기로 보아, 그 자체로써 서사문학·소설형태의 연기설화가 형성·전개되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고 본다. 대저 사찰·성물의 창건·조성이 왕실·왕후와 직결되고 그들의 생사 간 재의 행사와 결부될 때는, 으레 신비·영험담이 생기고, 이것이 유기적으로 재구성되어 감동적인 연기설화를 산출하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증자료가 인멸된 마당에, 적어도 원홍장의 이야기가 널리 유통되면서, 이 경천사 및 석탑과 결부되거나 그 연기설화와 연결되어 그것들은 교류·영향관계를 맺어 왔으리라고 추정된다.

다음 향천사는 홍장의 고장, 예산군 예산읍 향천리 금오산에 자리한 바, 백제 의자왕 15년(655) 무렵 의각에 의하여 창건되었다 한다. 여기에도 성물조성·사찰창건의 연기설화가 있다. 이 의각이 폭넓은 서원으로 고국을 떠나 일본 백제사에서 수행하다가 큰 뜻을 품고 당나라로 들어가 오자산에서 비장한 각오로 3년 동안, 석불 3,053위와 아미타불상·관음보살상·세지보살상, 16나한상을 조성했다. 그는 수행이 익은 데다 백제에 이바

42) 이정편저, 한국불교 사찰사전, 경천사, p.41.

43) 원전 본문, p.12.

지하려고, 그 성상들을 돌배에 실어 오산현 백포 해안에 이르렀다. 그가 알맞은 절터를 구하지 못하여 몇 달을 머물며 심려하여 기도드리는데, 금오 한 쌍이 날아와 금오산에 절터를 일러 주었으므로, 지금의 그 자리에 절을 창건하고 성상들을 다 모셨다. 지금도 그 많은 불상은 천불전에 남았다 하고, 아미타삼존불은 극락전에 봉안되어 있다. 그런데 이 삼존불은 고려 공민왕이 그 8년(1359) 4월에 조성하였다는 명문이 발견되고, 그 양식이 독특하여 본국 풍과 다르다는 것이다.<sup>44)</sup>

이 연기설화는 역시 성물과 사찰의 연기를 겹하고 있는데, 본국 사람의 원력으로 중국에서 성물을 조성하여 자국 내에 들여 와 사찰을 창건하였다는 점에서, 홍장의 이야기와 유형적 공통점을 갖는다. 더구나 그 삼존상이 노국공주의 공민왕과 결부된 사실과 그 존상의 양식이 이국풍(중국풍)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이 연기설화를 합리화하고 있는 터다. 따라서 홍장의 이야기가 정착·유통되는 과정에서 이 연기전설, 의각의 이야기는 교류·영향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리라 추정된다. 게다가 이 의각의 이야기가 사찰·성물설화로서 그 서사문학·소설형태로 재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양자의 문학적 관계는 더욱 긴밀하였으리라 본다. 따라서 이 「원홍장전」의 서사문학사 상의 위치는 좀더 확고해진다.

이제 이 「원홍장전」이 소설장르와 맺어 온 전통·계맥에 대해서 살펴 보겠다. 이 작품은 위에서 전기소설로 규정되었다. 따라서 이 작품이 그 시대의 전기소설 특히 불교계나 효행계의 작품들과 대등하게 행세하고 교류하면서, 그 기능을 발휘했으리라 본다. 더구나 이 작품은 그 목적과 주제·사상 등에 의거하여 각개 사찰이나 불교계 내지 신증 등에 널리 호응·공감을 얻었으리라는 전제가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당시나 후대의 전기소설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을 것이다. 적어도 이 작품은 불교계 및 효행계의 전기소설사 상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하여 왔을 개연성이 높다고 보아진다.

이어 이 작품은 「심청전」과 같은 고전소설, 국문소설과의 관계도 심상치 않으리라고 본다. 이 작품은 그 형성 동인과 주제·사상 등을 중심으로 당시 국문소설과 대등하게 교섭하고 상호 영향을 미쳤으리라 추정되기 때문이다.<sup>45)</sup> 그 중에서도 불교계의 영험·신기소설이나 보은·효행소설 등에는 실질적인 영향을 주었으리라 생각된다. 이러한 주제·사상은 물론, 영험 신기한 구조·내용, 광활하고 화려한 무대, 완벽한 여성영웅의 전형, 신기·미묘한 사건진행 등이 후대 국문소설의 전범이 되기에 부족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이 「심청전」의 근원설화라거나 그 원형이라 속단하고 그 관계를 규명하려고 시도한 것은 그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시원치 않을 수밖에 없었다. 이 「원홍장전」은 「심청전」에 한정시켜 그 선행적 계통·좌표에 자리할 수도 없고, 「심청전」 역시 「원홍장전」만을 근원·원형·모형으로 삼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술한 대로, 「원홍장전」이 여러 작품들과 교류·상통하면서, 후대적 국문소설에 다양한 영향을 끼쳤다는 관점에서, 그 가운데 이와 가장 근접·유사한 「심청전」이 그

44) 이정편저, 한국불교 사찰사전, 향천사, p.634.

45) 사제동, 국문소설의 형성과정, 불교계 국문소설의 연구, pp.3~10.

영향관계의 중심에 자리하여 왔다고 보는 게 좋겠다. 이런 면에서 이 두 작품의 관계는 ‘성장문학’의 성격, 시간·공간의 자연성과 임의성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하겠다. 그리하여 ‘원홍장’이 ‘심청’으로 변성되고, 그래서 「원홍장전」이 「심청전」으로 이룩되는 과정이 올바르게 밝혀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원홍장전」의 소설사 상의 위치가<sup>46)</sup> 제대로 정립되는 성과를 내리라 본다.

나아가 이 원홍장의 이야기, 그 작품이 전술한 대로 유통·연행되는 과정에서 극화·실현된 나머지, 그것이 전기소설에서 회곡으로 변모·전개되는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겠다. 이런 작품은 흔히 각개 대찰의 재의·행사와 결부되어 극화·연행되는 경우가 많았을 터다. 특히 왕실의 원찰로서 왕후나 공주와 관련된 재의·행사에서는 이런 작품의 극화가 가장 적절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작품은 회곡화되었고, 당대의 불교회곡·효행회곡으로 성립·행세하였을 터다. 이렇게 불교·사찰과 연관된 회곡작품들이 형성되고, 그 시대의 일반 회곡들과 교류·상통하며 하나의 계통을 이루고 있을 때, 이 작품의 회곡형태는 자연 그 선두·중심에 자리하게 되었을 것이다.<sup>47)</sup> 이 작품은 사찰의 재의극·뒷풀이 등에 매우 적합하고, 포교연희나 권선연극 등에 가장 효율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이 작품은 다양한 회곡형태, 가창극본·가무극본·강창극본·대화극본 등을 통하여 그 시대에 상응하는 불교회곡사 내지 일반회곡사 상에서 뚜렷한 위치를 차지해 왔으리라 추정된다.<sup>48)</sup>

## 2. 藝術史的 位置

이 작품이 승속 간에 호응과 공감을 얻어 널리 유통·연행되면서, 그 실세는 예술계에까지 파급되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다. 우선 이 작품은 미술형태로 전개되었던 것이다. 이 원홍장 내지 원황후를 중심으로 그 영정·존상을 모실 전각이 위에 든 관계 사찰들에 건립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녀의 모습이 황후·보살의 실체를 갖추었으므로, 그 전각은 사찰·암자와 같은 신성·청정한 공간으로 성립되었으리라 본다. 이 점은 위 홍법사의 홍랑각을 사례로 유추해 볼 수가 있겠다. 더구나 저 관음사의 원통전을 보면, 그런 전각을 족히 예상할 수 있는 터다. 여기에 모신 관음존상은 바로 원황후의 자원불이다. 그러므로 그 관음보살이 바로 원황후이기에, 관음존상을 모신 전각은 원황후의 전각을 대신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관음보살을 모신 사찰에서는 관음전·홍랑각의 불교건축을 복합적으로 세웠으리라 보아진다. 나아가 홍장의 생가나 고향마을에 동민·중친이나 조정에서 그녀를 기리는 전각을 지을 개연성이 없지 않다.

그리고 이 원홍장·원황후의 초상화·영정이 어엿한 인물화로 그려지게 되었다. 위와 같이 그녀의 전각이 건립되었으면, 그 추모·재의의 대상 초상화·영정 등이 반드시 안

46) 김태준, 조선소설사, 불교문예, pp.26~27.

47) 사재동, 불교회곡의 형성·유통, 한국회곡문학사의 연구Ⅲ, 중앙인문사, 2000, pp.187~188.

48) 사재동, 한국회곡사 연구서설, 한국회곡문학사의 연구Ⅰ, pp.87~89.

치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녀의 전각마다 다양하고 전아하게 그린 그녀의 화상은 불교회화의 정화라 하겠다. 그리고 그런 전각의 사면벽에 홍장·황후의 저명한 행적을 그려 놓으니, 이른바 벽화요 서사화라 하겠다.<sup>49)</sup> 흔히 사찰·전각의 벽화는 서사문맥을 그대로 장면화하여 그림으로써, 불교회화의 장관을 이루는 것이다. 그래서 저 홍법사 홍랑각의 벽화처럼, 그녀의 전각에 펼쳐진 홍장·황후의 행적·서사화는 회화사의 중심에 자리하여 온 것이 아닌가 한다.

이어 그녀의 모습을 존상에 전주어 돌이나 금속으로 조성하거나 흙으로 빚어내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다. 저 관음사의 관음성상이 그러하고, 이에 준하는 각종 성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작품에서 원황후가 조성케 하여 각개 사찰에 보낸 모든 성상들은 다 불교 조각의 극치를 이루는 것들이다. 위에서 그 경천사에 지어 보냈다는 13층석탑은 오늘날 10층만 남은 유품만으로도 국보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터다.<sup>50)</sup> 이처럼 이 작품에 관련된 모든 조각품들은 불교조각사<sup>51)</sup> 내지 일반조각사에서 획기적인 위치를 확보하여 왔다. 한편 그녀의 전각 그 영정·존상에 제례하는 일체의 장엄구·공양구·소도구들이 사원 의례의 관례에 따라 각양 각색으로 제작·활용되었을 것은 물론이다. 이러한 공예품들은 면면하게 제작·전승되어 불교공예사 내지 일반공예사의 일환이 되어 왔던 것이다. 이로써 이 작품이 불교미술사<sup>52)</sup> 내지 일반미술사에 끼친 영향과 그 위치는 족히 어림될 수가 있겠다.

한편 이 작품은 유통·연행과정에서 그에 상응하는 음악을 동반하게 되었다. 이 작품을 연행할 때의 가창음악·가무음악·강창음악·삼입창가 등이 그 주류를 이룬다. 그리고 그녀의 전각, 존상에 제례할 때, 그 찬탄·위무·존송의 기원·청원 등에 따른 음악이 뒤쫓는다. 여기서 이런 음악이 계통을 이루고 불교음악사나 일반음악사 상에 자리할 수 있었다.

이어 이 작품이 적극적으로 연행될 때, 위 음악과 함께 무용이 등장할 수가 있다. 이른바 이 작품의 가무적 연행이 그것이다. 이런 작품이 명찰에서 거행되는 재의·행사에서 가무로 연행될 개연성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그녀의 전각이나 그 앞의 도량에서 그 추모·천도·경찬의 재의가 벌어질 때, 그에 상응하는 불교무용, 작법무가 관현에 맞추어 연행되는 것은 관례적 현상이었다.<sup>53)</sup> 이와 같이 이 작품과 그녀에 관련된 일련의 무용·가무가 그 자체로서 계맥을 이루고, 불교무용사<sup>54)</sup> 내지 일반무용사 상의 한 유파를 형성해 온 것이라 하겠다.

나아가 이 작품은 전술한 바와 같이 음악과 무용 등의 보조를 받아 가장 입체적인 연

49) 한·중 각 사찰의 관음전 또는 원통전의 외벽에 관음의 신통행적을 그려 장엄하고 나아가 교화·설법을 가능케 한 사례가 많은데, 이와 유사한 것이라 본다.

50) 진홍섭 편저, 탑과, 경천사지십층석탑(국보 86호), 국보 6, 예경산업사, 1983, 도판, pp.173~175, 해설, p.234.

51) 강우방, 한국불교조각의 흐름, 대원사, 1999, pp.187~193.

52) 박범훈, 한국불교음악사 연구, 장경각, 2000, pp.318~344.

53) 김법현, 영산재연구, 운주사, 2001, p.35.

54) 김법현, 불교무용, 운주사, 2002, p.87.

극으로 실연되게 마련이었다. 이 작품은 이른바 종합예술적 연극으로 표현됨으로써, 연행의 극치를 이룬다. 위 무용의 경우와 같이, 상계한 명찰에서 왕실의 왕과 왕후, 태자와 공주 등의 애경계 재의·행사에서, 이런 작품이 본격적인 연극으로 연행되는 것은 참으로 의미있고 멋진 일이었다. 이런 때의 연극은 어떤 구애도 받지 않고 화려·찬란하게 거행되니, 실로 다양하고 풍성하게 전개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녀의 생물 기타 탁이한 기념일에 위와 같은 연극을 실연하는 것도 당연하고 필연적이었다. 기실 사원이나 불교계에서 불보살이나 고승대덕, 이에 준하는 명인의 기념일에는 그의 행적에 대한 연극이 벌어져 왔기 때문이다. 이것 역시 왕실의 그것과 같이 화려·찬란하고 다양하게 전개되니, 그 전형적인 장르를 지향하게 되었던 터다. 그것은 불교연극 내지 일반연극의 관례 전통에 따라 가창극과 가무극, 강창극과 대화극 그리고 잡합극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을 터다.<sup>55)</sup> 이와 같이 이 작품 또는 그녀에 관한 연극형태는 그만한 체계를 이루어 당대의 연극장르와 교류·상통하면서, 불교연극사 내지 일반연극사의 흐름에서 소중한 위치를 점유해 온 터라 하겠다. 이로써 이 작품은 불교미술·음악·무용·연극을 통하여 불교예술사 내지 일반예술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제대로 추정되는 터다.

### 3. 文化史的 位置

이 「원홍장전」이 불교계 언어·문헌사에 기여한 것은 작으나마 부인할 수 없다. 이 작품이 불교언어를 창출·유통시킨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 작품에서 활용된 불교언어가 질량면에서 거창한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표현의 묘용에서 보여준 불교언어는 그 표현의 성공만큼 값진 것임에 틀림이 없다. 이런 불교언어가 불교계의 전반적 언어와 호응·상통하고 유통·전개됨으로써, 아려·우수한 과장을 일으키고 그 개발과 발전에 기여한 것은 특기할 만하다. 이 작품이 필사되거나 판본화되어 유통 보급된 것은 문헌사에 이바지한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이 작품이 현전하는 목판본으로 간행된 것은 사찰에서의 판각 관례에 따른 것이지만, 그 독특하고 아려한 필체와 더불어 그 보급의 영역이 넓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 작품은 한·중 불교유통사와 문물교류사를 엿보게 한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동진 때에 불교가 백제로 들어 온 것을 뒷받침하고, 진국 황후로서 정법을 추구하고 그 흥법을 위하여 각종 성물을 조성·송부한 데서, 불교문물의 교류를 증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실 동국불교는 중국의 남부 해역으로부터 이곳 서해안 지역으로 유입·전파된 것으로 보는 게 보편화되어 있는 터다. 실제로 불교계의 교역이라는 것도 중국측에서 동국측으로, 거의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라 보아진다. 그렇다면 이 작품에서 이러한 현상을 실증하고 있는게 아닌가 한다. 기실 탑상·불상·보살상·신중상이나 불화 내지 불경 등 까지도 중국에서 수입하는 경향이 우세하였던 게 사실이다.<sup>56)</sup> 이런 점에서 이 작품은

55) 사재동, 불교연극 연구서설, 불교사상논총, 하산출판사, 1991, p.255.

56) 陳景富, 中韓佛教藝術的交流, 中韓佛教關係一千年, 종교문화출판사, 1999, p.464.

불교문물의 유통양상과 교류현상을 거의 그대로 보여 준다고 하겠다.

그리고 이 작품은 사찰창건에 관한 영험적 동기와 창건 작업에 따르는 실제 상황을 알려 주고 있다. 나아가 이 작품에서는 사찰의 성물유입과 문물교류의 실상을 밝혀, 그 문화의 계통과 체계를 시사하고 있는 터다. 기실 불교문화의 본산이요 현장은 바로 사찰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찰문화의 연원·형성·유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sup>57)</sup> 그중에서도 사찰 내의 재의나 대외의례를 시사해 주는 것도 소중한 점이다. 가령 전개한 왕실 왕족들의 애경계 재의·행사나 그에 따르는 제반절차가 엄중한 법도에 따라 전개된다는 점도 일깨워 준다는 것이다. 이런 흐름이 유관 사찰에서 원황후를 여법하게 모시는 관례를 통하여 역사화되기에, 이 작품과 그녀의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또한 이 작품은 유통·전승을 거듭할수록 효행윤리를 통하여 불교윤리사 내지 일반윤리사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이 작품이 보은·인과·영험·보시·지혜 등 전반적 불교사상의 보급에도 공헌하고, 그것의 생활화 및 윤리화에도 헌신한 것은 물론이다. 그런데 이런 불교사상을 바탕으로 효행윤리를 강조하여 승·속, 상·하의 호응과 공감을 얻은 것은<sup>58)</sup> 이 작품이 불교윤리사의 핵심에 자리한 것을 실증하는 터다.

끝으로 이 작품은 불교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불교민속 상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이 작품은 효행을 민속화하여 왔다. 누구나 태어나면서 효행을 해야 되고 거기에 몸과 마음을 바쳐야 된다는 것이다. 그러기에 맹부나 불우한 처지의 부모를 무조건 효양해야 된다는 민간신앙이 생기게 되었다. 나아가 맹부의 눈을 띄우기 위해서라면 몸을 팔아서, 목숨을 걸고서 최선을 다한다는 신앙이 이제는 매신공양의 불교적 기본사상을 초월하고 있는 터다. 그것이 바로 효행의 생활화·민속화이니, 이 작품이 여기에 막중한 영향을 끼쳤던 것이다. 이에 부모의 간절한 꿈, 딸들의 지고한 꿈이 황후가 되어 자신의 영화와 가정의 부귀를 성취하겠다는 전통적 소망이 민간신앙으로 전환되었다. 이러한 신앙은 매신공양이 무상의 영험을 가져 온다는 불교사상을 앞지른 것이었다. 이러한 민간신앙 그 습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이 작품의 불교민속사 상의 위치라고 하겠다. 이로써 이 작품이 불교언어·문헌, 불교교류·사찰문화, 불교윤리·불교민속 등을 망라하여 불교문화사 상에서 차지하는 위치가<sup>59)</sup> 어느 정도 부각되었다고 보아진다.

## VI. 結 論

이 논고는 이른바 관음사찰연기설화를 문학작품 「元洪莊傳」으로 보고, 종합과학적인 방법론에 의하여 고찰한 논문이다. 여기서는 이 작품의 형성경위, 그 문학적 실상 그리고 「심청전」과의 관계, 나아가 이것이 차지하는 한국문화사 상의 위상 등을 입체적으로

57) 殷玉·明, 中國寺廟文化, 上海人民出版社, 1994, p.572.

58) 노태조, 불교계효행소설의 형성과 유통 연구, pp.9~16.

59) 홍윤식·오출세 등, 불교민속학의 세계, 집문당, 1996, pp.9~16.



거론하였다. 이제까지 논의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이 작품의 형성경위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작품의 형성배경에서, 먼저 역사·지리적 환경이 충청도 대흥현 소량포를 중심으로, 부여군 은산면 금강사, 경기도 화성군 서신면 홍법사, 개풍군 서면 감로사, 동 광덕면 경천사, 전남 곡성군 오산면 관음사 등에 걸쳐, 중국 진국이 자리했던 남부와 해로로 연결됨으로써, 이 작품을 충분히 뒷받침하였다. 이어서 이 종교·윤리적 기반이 충청도 대흥현을 중심으로 위 광범한 환경에서 조성됨으로써, 이 작품을 그만큼 합리화하였고, 이 문학·문화적 전통이 포괄적으로 확립됨으로써, 이 작품의 형성을 타당하게 만들었다. 그리고 이 작품의 형성주체에서, 먼저 작자층의 창작적 기능을 전제하고, 학승·문승을 중심으로 신불문사들을 지목하는 한편, 전파층의 매개적 역할을 중시하며 나아가 수용층의 배양적 기반을 부각시킴으로써, 이 작품의 형성에 직결된 복합적 주체를 파악하였다. 이럴 경우에 그 구체적 작자를 대신하는 구술·제보자로 장로 優閑子를 떠올렸고, 그 실제적 작자의 역할을 해낸 대표적 학승·문승으로 당대 저명한 白梅子를 확정시켰다. 그래서 이 작품은 그러한 복합적 주체가 원홍장의 효행사실을 주축으로 구비적 법화로 형성시킴으로써, 홍법·권선과 윤리·권장의 효율적 방편으로 성장·유통되다가, ‘충청도 대흥현’·‘풍덕현’·‘옥과현’ 등의 명칭사를 상한선으로 고려후기 조선 초기에는 그 원형이 실마리를 잡고, 그 광범한 유전에 비례하여 변화·발전한 나머지, 현전 작품이 엮어리를 이룩하여, 융정 기유 영조 5년(1729)을 하한선으로 제보되고 정착·완결될 것이었다.

2) 이 작품의 문학적 실상을 고찰하였다. 이 작품은 그 구조와 내용면에서 액자구조에 다 진기·영험한 내용을 담아 서사문학·소설형태, 전기소설의 요건과 독자성을 확보하였다. 그 주제는 희생적 효행에 의한 무상복락을 주축으로 매신공양에 따른 무한영험과 보시·구원으로 확대되었고, 그 보은·효행사상, 보시·영험사상 인과·구제사상 등 총합적 불교사상으로 유기적 조화를 이룸으로써, 불교계는 물론 모두의 공감·호응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이 작품의 구성은 광범한 역사·지리적 환경과 구체적이고 적절한 무대에서 원홍장과 원량, 성공과 봉명사자, 진국 황제, 성덕 등이 극적인 이야기를 ‘발단-예견의 설명-유발적 사건-상승적 동작-절정-하강적 동작-대단원’의 과정으로 이끌어 감으로써, 그것은 소설형태, 전기소설의 그것을 제대로 실현하였고, 나아가 회곡의 구성형태를 지향하고 있었다. 여기에 이 작품의 문체는 산문체를 바탕으로 하여 수필적 문체를 유지하고, 소설적 문체를 중심으로 회곡적 문체로까지 뻗치어 입체적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원칙적으로 고전소설, 그 전기소설의 장르로 규정·확보되고, 그 유통·연행을 거친 변화·발전을 전제할 경우, 그것이 축소·조정되어 수필의 장르로, 확대·부연되어 회곡의 장르로 지향·행세할 수 있었다. 이로써 이 작품은 전기소설을 주축으로 입체적 장르 성향을 구비한 바 자립적이고 독특한 수작·명품으로서 독립·행세하였던 것이다.

3) 이 작품의 실상과 「심청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본래 이 두 작품은 별개의 독자성을 지니고 대등한 위치에서 유통·행세하였다는 전제 아래서, 그 유사성과 상이점을 찾아 보았다. 그래서 양자는 그 내용·주지의 일부와 주제·사상의 대부분 면에서 유사·근접점을 발견할 뿐, 나머지 구조와 내용·주지의 상당부분, 주제·사상의 일부 그리고 문체와 장르 전체가 판이한 것이었다. 그러기에 별다른 전제도 없이 「원홍장전」이 바로 「심청전」인양 주장한 것이나 이것이 「심청전」의 근원설화 내지 원형이라고 강조한 것은 재고의 여지를 가지게 되었다. 이 양자를 한 계통으로 놓고 선후 관계를 설정하여 「원홍장전」이 「심청전」으로 전개되었다는 현상이 합리적으로 논증되기까지는 그 거리가 매우 멀고, 실증하기 어려운 우여곡절과 변화요인들이 너무 많다는 게 사실이었다.

4) 이 작품의 문화사적 위상을 추론하였다. 이 작품이 유관 사찰이나 불교계 및 신도 대중 내지 일반민중에 널리 유통·연행되면서, 여러 방면에 큰 영향을 주었다. 먼저 이 작품은 당대나 후대의 고전소설 전기소설에 적지 않아 기여하였으니, 소설사 상의 위치가 현저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이 작품이 축소·조정되어 수필로서 행세하였을 때, 그 또한 당대나 후대의 수필과의 긴밀한 관계를 통하여 수필사 상의 위치가 뚜렷하였을 것이다. 나아가 이 작품이 부연·확산되어 회곡으로 전개되었다면, 이 역시 그 시대에 상응하여 다른 회곡작품들과 교섭·발전함으로써, 회곡사 상의 위치가 매우 돋보였을 터이다. 그리하여 이 문학사 상의 위치가 확고하였으니, 그 역량이 예술장르와의 결합·상승작용을 일으켜 예술사 상에서도 깊은 관계를 맺어 오게 되었다. 이 작품이나 홍장 그리고 유관 문물을 기리기 위한 건축·회화·조각·공예 등 미술적 작품들이 유통·전승되는 과정에서, 그 미술사 상의 위치가 부각되었다. 나아가 이 작품이 사찰이나 불교계를 중심으로 연행될 때, 또는 원홍장·원황후를 기념하려 그 행적이 연출될 때, 그것은 음악과 무용 내지 연극 등을 통해서 여러 계기로 공연되어 왔기에, 그 음악사와 무용사 내지 연극사 상에서 소중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예술사 상의 위치는 그 문화사 상의 영역으로까지 확산되었다. 이 작품이 불교언어 및 문헌의 유통과 무관하지 않았기에, 언어·문헌사 상에 끼친 영향이 없을 수 없었고, 또한 이 작품은 이 광역 사찰들의 왕래나 역대 한·중 불교문물의 교류 등을 실증·촉진하여 왔기에 불교 및 불교문물의 유통·교류사 상에서 중요한 지표가 되었다. 나아가 이 작품은 효행을 통하여 승속 간의 윤리를 정화·상승시킴으로써, 불교윤리사 내지 일반윤리사 상에서 큰 비중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고, 이러한 일련의 불교적 신앙이 민속화되어 오히려 민중과 더욱 친밀하게 되었으니, 이는 그 민속사 상의 위치를 어렵히는 좌표가 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이 작품의 문화사적 위상이 추정되었거니와, 이것은 이 작품의 실상과 가치를 공공연히 실증하는 근거·기반이 되었던 것이다.

이제 「원홍장전」은 그 형성경위가 계통과 전통을 따라 확고하고, 그 작품의 실상이 보편적 기준에 의하여 값지게 평가되며, 「심청전」과는 상당히 다른 특성을 지니고, 그 문

학사·예술사·문화사 상에서 뚜렷한 위상을 점유하는 수작·명품으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원홍장전」 전체나 홍장의 탁이한 행적을 기념하는 문화사업은 예산지방을 중심으로 유관지역에서 얼마든지 벌릴 수가 있겠다. 이만한 작품으로 그만한 전거를 가진 참된 문화사업이라면, 그 자체가 보람찬 일이 되면서 그 고장 내지 한국의 문학·예술·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는 역사적 업적이 되겠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런 「원홍장전」을 비약적 전거로 삼아서, 「심청전」의 원형·발상지를 탐색하거나 심청의 본색·고향을 유추하는 문화사업은 이제 심사·숙고해 볼 일이다. 원래 「심청전」은 「원홍장전」과 달라서, 작품 자체의 실상이나 소설사 상의 위상으로 보아, 심청은 어디까지나 창정된 여성 영웅이지 특정한 시대, 일정한 지역을 고향으로 성장한 역사적 인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단지 「심청전」이 「원홍장전」과 그 주제·사상과 기본정신에서 유사·근접하기에, 그 유관사업으로 심청 사업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다. 이 「심청전」이 그만큼 보편화되고 유명한 작품이기에, 언제 어디서나 그 문화사업을 벌려, 그 문학적 가치를 선양하거나 심청의 효행을 본받을 수가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여기서 명심할 점은 그 문화사업을 벌리는 지역이 심청의 생장 마을이고, 따라서 이 곳이 「심청전」의 본거지·발상지라는 주장만 유보·제거하자는 것이다. 그런 주장이 득세하여 그럴 듯한 기념물을 남겨 놓을 때, 차후 소설사 상에서 큰 과오를 범하고 착오를 일으킬 수도 있겠기 때문이다.



## 제 5 주제

# 예산군 효행 사례의 활용방안

오 석 민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예산군 효행 · 우애관련자원의 활용방안

오 석 민(충남발전연구원 연구위원)

- I. 연구 개요
    - 1. 과업의 목적과 범위
    - 2. 연구의 과정과 방법
  - II. 관련자원의 현황 및 개발방향
    - 1. 관련자원의 현황 분석
    - 2. 문화환경 및 관련 개발계획 검토
    - 3. 개발의 기본방향
  - III. 부문별 단위 사업 (예상)
    - 1. 정비 · 관리 방안
    - 2. 관련자원의 활용방안
  - IV. 관련 Complex 조성계획
    - 1. 조성의 필요성 및 기준
    - 2. 사업 예시
    - 3. 사업 예시
    - 4. 사업 예시
    - 5. 사업 예시
  - V. 단계별 추진전략
- 부록

## I. 연구 개요

### 1. 과업의 목적과 범위

전통시대는 윤리의 시대였으며, 그 중심에 효(孝)가 있었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윤리의 내용 또한 달라지게 마련이나, 부모와 자식간의 '효도'와 '자애(慈愛)'라는 덕목은 아직까지 귀감이 되며, 앞으로도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본다. 또한 효와 관련된 유적은 과거의 문화유산이라는 점에서 역사자원의 가치를 갖는다.

예산군에는 전국의 다른 시·군에 비하여 월등할 정도로 많은 효자와 효부가 배출되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제1주제 발표 참조) 더욱이 전국적으로 유일한 우애비가 현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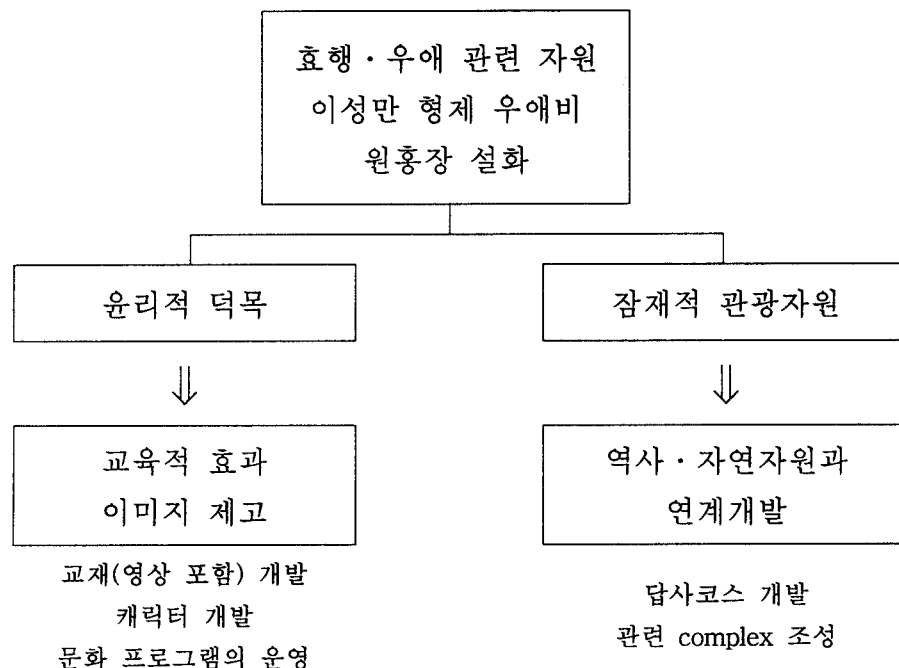
고 있으며, 심청전의 근원 설화로서 평가를 받는 원홍장과의 연관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역사·문화자원이 여타 시·군보다 많다는 사실은 군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청소년에 대한 교육적 효과의 측면에서 볼 때 큰 강점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와 더불어 예산군에는 수덕사를 위시한 다양한 역사자원이 산재하고 있다. 또한 덕산 온천관광단지가 이미 널리 알려져 있고, 최근 확장공사가 한창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예산군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의 지위가 확고하며, 그 개발 가능성도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예산군의 관련 자원의 활용은, 군의 이미지 제고, 그리고 교육적 목적, 특히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활용 프로그램의 개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련 자원과의 연계 개발 효과까지 노려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먼저 예산군의 효행·우애 관련 자료의 현황과 그 성격을 분석하고, 심청전의 유력한 근원 설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원홍장전의 성격 및 이성만 형제 우애비의 특징을 살펴본 후에, 다른 역사문화자원을 중심으로 한 문화환경 및 관련 개발계획을 검토한 후에, 활용방안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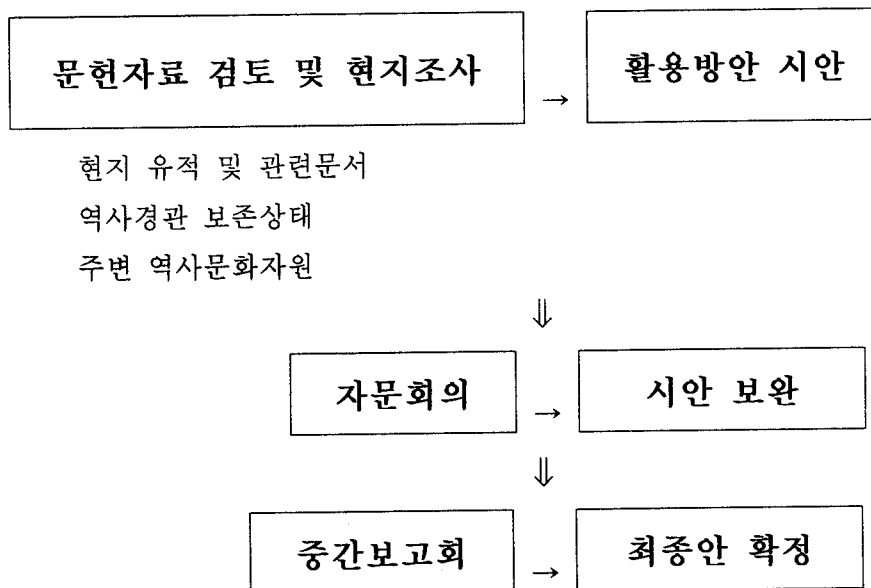
그리고 이 같은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관련 유적의 보수와 복원 등 정비·관리 방안을 강구하며, 답사코스, 관련 문화 프로그램 개발, 문화상품의 개발 등의 활용안을 제시한다. 또한 효행·우애 관련 자원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거나 또는 여타 역사문화자원과 인접한 지역을 택하여 핵심 개발지구로 조성하는 방안을 제시할 것이다.





## 2. 연구의 과정과 방법

본 연구는 먼저 문헌을 통하여 검토한 자료와 현지를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기초자료로 삼는다. 그리고 기초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활용방안의 시안을 마련하고, 자문회의를 거쳐 보완한다. 최종적으로 중간보고회를 통하여 군 관계자 및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안을 확정하는 순서를 밟게 될 것이다.



기초자료는 효행·우애 관련 문헌자료를 검토한 후에, 현지를 방문하여 정려 등을 살펴보고, 관련 후손들이 소장하는 관련문서를 열람하는 방식으로 수집되었다. 기초조사와 관리현황에 대한 파악이 최우선의 과제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현지조사에서는 ‘전통마을’로서의 경관이 보존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역사적 경관의 유지가 큰 변수가 되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주변 역사문화자원, 특히 유교문화자원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었다. 동일 주제의 범주에 속하는 자원과는 연계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II. 관련자원의 현황 및 개발방향

### 1. 관련자원의 현황 분석

예산 관내 효행·우애 관련 자료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현재까지 확인된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었다. (향후 보완조사 이후 보완 예정)

① 현전 정려가 있는 경우, 한 집안에서 형제·부자·부부가 함께 명정받은 사례가 다수 (14건/총 32건)

: 이는 관련 문증과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을 때,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② 양반 가문만이 아니라 향리층의 효행 사례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여러 측면에서 예산군을 대표할 수 있는 이성만 형제의 경우도 이에 해당함

다만 고려 말~조선 초의 인물로, 특히 호장(戶長)의 지위를 고려할 때, 조선 후기의 향리와는 구별되는 높은 지위를 향유하였을 것으로 판단됨

③ 천민의 명정 사실은 많으나, 현전하는 경우는 없음 : 향후 연구 과제

④ 현전 정려의 지역적·시기별 편차가 두드러지게 나타남 : 향후 연구 과제

① 대흥·광시·신양 : 총 11건 중 정조 이전 7건

② 고덕·봉산 : 총 10건 중 정조 이후 8건

- 위의 5개 읍·면이 전체 32건 가운데 21건 차지 (65.6%)

→ 활용 가능성 ① : 덕산관광단지와 연계

② : 임존성·예당저수지·이성만 형제 우애비

⑤ 다양한 정문·정려각 형태

- 초가 정려(田斤金)에서 ~ 경복궁 중건에 참여한 장인이 건립한 정려(張胤植)까지 (확인 중) <별첨 사진 참조>

→ 관련시설 조성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자원

⑥ 조선시대 대표적인 사례를 모아 편찬한 『新續東國三綱行實圖』의 총 742건(충청도 79건) 중 예산군이 7건을 점하고 있음

→ 관련시설 조성시 다양한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자원

⑦ 정리를 받은 후손들이 소장한 일괄 문서가 많음

- 이에 대한 적절한 보존·관리 대책의 필요성

→ 정리를 마친 후 자료집 간행을 통하여 예산군의 역사자원으로 활용

⑧ 이성만 형제 우애비

- 우애비로는 전국 유일의 사례이며

- 초등학교 교과서에 실린 이야기의 원본으로 추정됨

→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일화로서 활용의 가치가 높음

(예시 : 예산군의 상징으로서 캐릭터 개발 등)

※ 권영현의 발표문 참조

⑨ 「원홍장전」

- 원홍장의 출생지로 대홍현을 적시하고 있는 불교 관음신앙의 인신공회 유형의 설화로서,

- 「심청전」의 근원설화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 작품

- 과거 사찰에서 극화시켜서 연행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 새로운 현대적 양식으로 극화시킬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

예산군을 대표하는 여성으로 부각시킬 필요

⇒ 전국 시·군과의 비교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현상  
일 수도 있으므로, 선점하는 전략이 필요

<예산군 효행 관련 정려 현황>

	정 려	소 재 지	건립시기	관리상태
1	李成萬・李順 兄弟 孝子碑	대흥 동서리	1497년	상
2	韓氏 孝子・孝婦・烈女 三旌閣	대술 마전리	1507년, 1884년	상
3	崔承立 旌閣	광시 노전리	1659년(효종 10)	중
4	趙克善・趙鼎教 정려	봉산 시동리	1664년 1875년	상
5	申鼎 및 효부 밀양박씨 정려	봉산 대지리	1669년	중
6	이상빈 처 申氏 旌門	대술 상항리	1674년(현종 15)	상
7	朴承休 旌閣	광시 신대리	1687년(숙종 13)	상
8	이홍갑 孝子碑	신양 차동리	1729년~1736년	상
9	田斤金 孝子碑	광시 미곡리	1741년	상
10	車命徵・車敬徵 旌閣	신양 서계양리	1746년(영조 22)	상
11	朴信興 旌閣	오가 원천리	1747년	상
12	方萌 旌閣	예산 대회리	1773년(영조 49)	상
13	金邦彦 金致和 父子 旌閣	광신 신흥리	1783년(정조 7)	상
14	金鈴 旌閣	신암 종경리	1816년(순조 16)	상
15	張眞汲 張亨植 父子 旌閣	광시 신흥리	1862년, 1868년	상
16	朴熙績 朴基宅 정려	봉산 고도리	1862년(철종 13)	중
17	鄭鶴秀 旌閣	신양 시왕리	1870년(고종 7)	상
18	崔舜紅・崔弼賢 旌閣	신양 서계양리	1875년(고종 12)	중
19	金昌祚孝子旌閣	고덕 몽곡리	1881년	중
20	康萬采, 康萬龜 형제 旌閣	신암 용궁리	1883년	상
21	玄鎮默 정려	신암 별리	1887년	상
22	李奎 旌閣	고덕 사리	1890년(고종 27)	중
23	金義載와 열녀 창원황씨 정려	봉산 고도리	1891년(고종 28)	상
24	金相俊, 金顯厦 父子 旌閣	봉산 당곡리	1892년(고종 29)	상
25	朴道漢 旌閣	신양 황계리	1892년(고종 29)	상
26	朴鎮和 旌閣	고덕 사리	1893년	중
27	이승유 정려	대술 방산리	1904년	상
28	張胤植 旌閣	삼교 월산리	1905년	상
29	李禹榮 旌閣	고덕 상장리	1905년	하
30	李厚植 旌閣	봉산 봉림리	1905년	상
31	인영원과 성주배씨 정려[雙孝閣]	덕산 낙상리	1927년	상
32	鄭治邦, 鄭海悅 忠孝旌閣	고덕 상봉리	1927년	상

## 2. 문화환경 및 관련 개발계획 검토

효행·우애 관련 자원의 활용 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우선적인 고려 사항은 문화재 현황이다. 역사 자원으로서는 동일 범주의 자원에 속하므로 연계개발의 가능성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예산군 관내 지정 문화재 현황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1.>과 같다.

<표 1. 예산 군 관내 지정문화재 읍·면별 현황>

번호	유형	명칭	위치
1	문화재자료(有形)	間良里 幢竿支柱	예산읍 간양리
2	도 지정 記念物	禮山山城	산성리
3	도 지정 記念物	禮山湖西銀行本店	예산리
4	문화재자료(有形)	香泉寺浮屠	향천리
	문화재자료(有形)	香泉寺千佛殿	향천리
	문화재자료(有形)	香泉寺 九層石塔	향천리
5	도 지정 記念物	禮山鄉校	향천리
6	국가 지정 寶物	禮山神橋石造菩薩立像	삼교읍 신리
7	국가 지정 寶物	李穡影幀	이리
8	문화재자료(記念物)	金正喜의墓	신암면 용궁리
	국가 지정 寶物	禮山金正喜 宗家遺物	용궁리
	문화재자료(記念物)	月城尉墓	용궁리
	국가 지정 天然記念物	禮山의 白松	용궁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和順翁主紅門	용궁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金正喜先生 遺物 (婚書紙生員試卷, 農祥之室)	용궁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金正喜先生 故宅	용궁리
	도 지정 記念物	金正喜先生 遺蹟	용궁리
	도 지정 記念物	金正喜先生 筆跡岩刻文	용궁리
9	도 지정 記念物	都廣 先生 墓一圓	웅봉면 지석리
10	국가 지정 重要民俗資料	남은들喪典	덕산면 광천리
11	국가 지정 重要無形文化財	大木匠	대동리
12	도 지정 記念物	德山鄉校	사동리
13	문화재자료(有形)	德山溫泉 地球乳	사동리
14	도 지정 記念物	李應魯 先生 事蹟地	사천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修德寺 三層石塔	사천리
	문화재자료(有形)	修德寺遺物(거문고)	사천리
	문화재자료(有形)	日樂寺鐵佛	사천리
	문화재자료(有形)	修德寺 七層石塔	사천리
	국가 지정 寶物	修德寺盧舍那佛掛佛幀	사천리
	국가 지정 國寶	修德寺大雄殿	사천리
15	문화재자료(有形)	禮山邑 三層石塔	상가리
16	문화재자료(有形)	南延君의 碑	상가리
	도 지정 記念物	禮山 伽倻寺址	상가리
	도 지정 記念物	南延君의墓	상가리
17	문화재자료(有形)	報德寺石燈	상가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報德寺極樂殿	상가리
18	문화재자료(有形)	上加里彌勒佛	상가리
19	국가 지정 寶物	尹奉吉義士 遺品	시양리
	국가 지정 史蹟	梅軒尹奉吉義士 事蹟地	시양리
20	도 지정 無形文化財	小木匠	읍내리
21	국가 지정 重要民俗資料	裨負商遺品	읍내리
22	문화재자료(有形)	石谷里彌勒佛	고덕면 석곡리
	문화재자료(有形)	石谷里石塔	석곡리
23	국가 지정 重要民俗資料	禮山鄭東鎭 家屋	오추리
24	도 지정 有形文化財	田日祥影幀 및 閑遊圖	호읍리
25	문화재자료(有形)	李穡將軍旌閭	봉산면 김치리
26	문화재자료(有形)	鄭大泳家屋	봉림리
	문화재자료(有形)	李義培 神道碑	봉림리
27	국가 지정 寶物	禮山花田里 四面石佛	화전리
28	도 지정 記念物	禮山孝橋里 埋香碑	효교리
29	도 지정 記念物	大興鄉校	대흥면 교촌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禮山李成萬兄弟孝悌碑	동서리
	문화재자료(有形)	李漢植家屋	동서리
	국가 지정 史蹟	大興任存城	상증리
30	문화재자료(有形)	朴基星家屋	하탄방리
31	도 지정 記念物	崔益鉉先生墓	광시면 관음리
32	문화재자료(有形)	大蓮寺 三層石塔	동산리
	문화재자료(有形)	大蓮寺 圓通寶殿	동산리
33	문화재자료(記念物)	金漢鍾義士生家址	신흥리
34	문화재자료(記念物)	趙翼先生墓誌	신양면 신양리
	문화재자료(記念物)	趙翼先生墓	신양리
35	도 지정 有形文化財	李廣任先生 故宅	대술면 방산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禮山上項里 石佛	상항리
	도 지정 有形文化財	李南桂先生 故宅	상항리
36	문화재자료(記念物)	姜民瞻將軍墓	이치리
37	문화재자료(有形)	長福里 三層石塔	장북리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덕산면에 총 22건(전체의 33.3%)으로 지정문화재가 집중 분포한다는 사실이다. 조선시대 덕산 고을의 치소(治所)이기도 했거니와, 조선 후기 이후 명당으로 꼽히는 내포의 중심 가야산을 끼고 있어서, 이와 관련된 문화유산들이 보존되고 있기 때문이다.

뒤를 이어 신암면이 총 9건으로 많으나, 모두 추사 김정희 선생, 그리고 그 선대인 월성위(月城尉)와 화순옹주(和順翁主) 내외와 관련된 것들이다. 다음으로는 예산읍(7건), 대흥면·봉산면·대술면(각 5건), 고덕면과 광시면(각 4건), 삼교읍과 신양면(각 2건), 응봉면(1건)의 순이다.

이를 권역별로 묶으면, ① 덕산면 사동리-상가리-시양리-읍내리 일원, ② 덕산면 사천리, ③ 신암면 용궁리, ④ 대흥면 교촌리-동서리-상중리 및 광시면 동산리, ⑤ 예산읍 향천리, ⑥ 대술면 방산리-상항리 등을 문화재 밀집 지역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①는 덕산온천-윤봉길 의사 관련유적-남연군 묘로, ②는 수덕사로 이미 전국적인 명성을 알리고 있는 관광명소이며, ③의 추사고택은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용이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내방객들이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는 답사지이다. ④는 예당저수지와 임존성로 대표되는 곳이지만, 외부로부터의 접근이 어려워 다만 낚시꾼들의 발길이 이어질 뿐이다. ⑤는 외부에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나, 예산군민의 산책코스로 이용되고 있으며, ⑥은 수려한 경관과 함께 비지정 문화재도 많이 보존되고 있어서 잠재적 가능성이 매우 큰 곳이다.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역사자원, 최근 조성된 전시관 또는 축제, 그리고 자연자원 또한 고려하여야 한다. 특히 관광코스의 개발 등 연계개발을 모색할 때에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명승으로 손꼽혔던 곳에는 선현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으므로, 역사자원으로 보아도 무방한 경우도 허다하다. 예산 관내의 주요 현황을 읍·면별로 살펴보면 아래의 <표 2.>와 같다.

<표 2. 관내 기타 주요 관광자원 (비지정문화재 포함)>

이 름	위 치
예산 국제품물제	
민족음악원	오가면 양막리
이존창 생가지	신암면 신중리
덕산온천관광지	덕산면 사동리
보부상유품전시관	덕산면 시량리
윤봉길의사기념관	덕산면 시량리
한국고건축박물관	덕산면 대동리
예당저수지	대흥면-광시면-응봉면 일원
아계 이산해 선생 묘역 및 유품	대술면 방산리

예산군에서 주최하는 국제풍물제는 2001년에 시작되었다. 2회에 걸쳐 많은 청중을 동원하였다고는 하나, 앞으로의 성공 여부를 단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외국 음악과 함께, 현대적 감각에 맞게 전통 음악을 바꾸려는 실험정신에서, 여느 향토축제에서 느낄 수 없는 참신함을 맛볼 수 있다. 더욱이 민족음악원이 오가면 양막리에 위치한 인연으로 능동적으로 풍물제에 참여하고 있으므로, 국제풍물제와 연계시킨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은 충분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게 한다.

이존창 생가지는 당진군 우강면과 합덕읍에 소재하는 솔피성지 및 합덕성당과의 연관성에서 살펴볼 수 있는 소위 ‘내포고회’의 중요 유산 가운데 하나이다. 그러나 그 성격상 효행·우애 관련 자원과 함께 살펴보기는 힘들다.

덕산온천관광지, 보부상유품전시관, 윤봉길의사기념관은 덕산권 관광자원으로 묶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한국고건축박물관의 경우 수덕사와 연계개발의 가능성이 크다.

아계 이산해 선생 묘역 및 유품은 문화재로 지정된 바도 없고, 널리 알려진 자원도 아니다. 그러나 상항리의 석불(石佛), 이광임선생 고택, 이남규선생 고택과 함께 효자와 열녀의 정려가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 더욱이 저수지에 일부 구역이 수몰되었으나, 식생을 비롯한 역사적 경관이 잘 보존되어 있어서, 조선시대 선비 마을[班村]으로서 활용가치가 큰 편이다.

한편 예산 관외라 하더라도 인접한 자원은 연계개발의 가능성이 높다. 주변 시·군의 주요 역사·문화 자원의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관외 주요 역사·문화자원>

이 름	위 치
외암민속마을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맹씨행단	아산시 배방면 중리
온양민속박물관	아산시 권곡동
온양온천	아산시 온천동 일원
도고온천	아산시 도고면 일원
솔피성지	당진군 우강면 송산리
합덕성당	당진군 합덕읍 합덕리
서산마애삼존불	서산시 운산면 용현리
개심사	서산시 운산면 신창리
문수사	서산시 운산면 태봉리
해미읍성	서산시 해미면 읍내리
용봉산 자연휴양림	홍성군 홍북면 상하리·신경리
세심천온천	홍성군
홍주읍성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일원
홍주의사총	홍성군 홍성읍 대교리
노은단	홍성군

외암민속마을, 맹씨행단, 온양민속박물관은 역사 또는 민속자원으로서의 가치도 높고, 대외적인 지명도를 갖춘 관광지이다. 특히 맹씨행단과 외암민속마을의 경우 616번 지방도를 이용하면 대술로 이어지는 경로에 해당하므로, 방산리, 나아가서 예당저수지변 자원과의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의 솔피성지와 합덕성당은 예산의 이존창 생가지와 함께 32번 국도변에 위치한 천주교 성지들이다. 이들을 경유하면 신암면 용궁리 일원의 추사 관련 유적들로 연결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추사고택의 경우, 사회적 지명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일괄 유적으로서 그 자체 만으로도 내방객들의 관심을 끌만한 요소가 많다. 그러나 현재까지 도로체계가 미흡하여, 예산군 관내의 다른 자원과의 연계가 힘든 상황이다. 주변 도로망을 정비할 때에는 고덕과 봉산 일원을 경유하여 덕산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서산시 운산면과 해미면의 자원들은 덕산면 일원의 유산들과 함께 가야산 일원의 역사·문화자원으로 묶을 수 있는 대상들이다. 가야산 순환코스의 개발은 두 시·군에게 모두 득이 될 수 있는 전략이라고 판단된다.

홍성군 북동부는 위치상으로 대홍-광시과 덕산 사이에 위치고 있다. 따라서 양 지역을 연결하는 이동로상의 자원으로서 일정 부분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의 도로 여건으로는 응봉-삼교를 거치는 것이 훨씬 편리하게 되어 있다. 홍성군 관광이 활성화되었을 때를 대비한다면, 예산 대홍 - 홍성 금마·홍북 - 예산 덕산으로 이어지는 연계도로를 구상할 수도 있을 듯하다.

지역	효행·우애 자원	지정문화재	비지정 자원	연계 가능권
덕산·고덕·봉산	12건	22	온천, 보부상, 윤봉길, 건축박물관	서산시 운산/해미
신암	3건	9		(당진 천주교 성지) (고덕)
대홍·광시·신양	11건	11	예당저수지	예당저수지-대술-아산
예산	1건	7		
대술 (상항·방산 중심)	3건	5	이산해 관련 유품 방산저수지	아산 방면 / 예당저수지

**\* 진행중인 개발계획**

- 내포문화권 개발사업
- 녹색 그린웨이 사업(평지형, 수림터널형, 친수형)
- 수영장 등 수변물놀이 스포츠 시설



- 예당저수지 주변 수변 마arina
- 테마관광상품 개발
- 농촌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
- 관광교통체계(장항선 복선화) 및 지역내 교통체계 개선

### 3. 개발의 기본방향

효(孝)는 전통시대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윤리항목[綱常] 가운데 하나였다. 소위 조선시대 삼강오륜은 결코 범할 수 없는 절대 윤리로서 기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현대에 와서 효도는 그 비중이 약화되어, 다만 권장되어야 할 윤리적 덕목으로 간주되고 있을 뿐이다.

물론 남녀평등에 의하여 여자의 정절을 강요하고 칭송하였던 열(烈)의 덕목이 명맥조차 유지하지 못하는 상황과 비교할 수는 없다. 그렇다 하더라도 효의 강제성은 이미 과거사가 되어 버렸다. 그리고 많은 부분은 실천 윤리로서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렸다. 예를 들어, 지금 효의 기본이었다 할 수 있는 부모상을 당하여 2년이 넘게 시묘살이를 할 수는 없는 노릇이며, 제례를 예법에 맞게 그대로 따르기도 어렵다.

따라서 효의 현대적 의미를 되새기는 사업이라 해도, 과거의 행실을 반복·답습하는 방식은 지양하여야 한다. 오히려 구체적인 덕목을 강요하기보다는 효의 본 뜻을 되새김으로써 교육적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 그리고 하나의 역사문화자원으로 인식하고, 나아가서 다른 관광자원과의 연계 개발의 가능성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더욱 철저하게 기초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를 위한 조사과정에서 알려지지 않았던 몇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고, 추가 확인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일부 실마리를 찾은 유적의 경우, 추가 조사를 통하여 확인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 행정조직망을 동원할 수 있다면, 보다 효율적인 조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를 통하여 수집·정리된 관련 유품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될 필요가 있다. 무관심으로 훼손되는 사례가 많고, 때로는 종교상의 이유 등으로 후손들 스스로 폐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최근 골동품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지면서, 도난 등의 사고에 대한 증언도 적지 않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된 유품은 적극적으로 전시·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 효행·우애 관련 유산 또한 이제는 ‘잊혀진’ 또는 ‘잊혀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 다른 역사문화자원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활용가치를 가졌기 때문이다. 특히 관련 문증과의 연계를 모색한다면, 주민의 정체성 확립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미 산업사회로 진입한 상황이므로, 문화자원은 상품으로 개발되었을 때 효과를 극대화될 것이다.<sup>1)</sup> 물론 음악, 영화, 공연, 문학 등과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도 문화재 부문

1) 현재까지 문화산업 또는 문화상품이라는 개념은 일정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논란을 벌이는 단계라 할 수 있다. 문화산업에 대한 일반적 이론에 대한 소개서로는 다음과 같은 저서가 참고가 될

은 관련 백서에 수록되지도 않을 정도로 독자성이 약한 것이 사실이다.<sup>2)</sup> 특히 효행·우애 관련 자원의 경우, 상품화 가능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낼 수도 있다.

우선 역사자원의 상품화에 대해서는, 최근 ‘문화재 산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로,<sup>3)</sup> 이미지 제고를 통한 간접적 효과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관광산업의 주요 자원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관람대상으로서의 역사문화자원의 중요성은 새삼 부언할 필요도 없거니와, 문화컨텐츠의 주 대상으로서, 차별적 경쟁력의 확보대상으로서의 의미는 결코 무시할 수는 없다.

효행·우애 관련자원의 상품화 가능성도 논란거리이다.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에서 효행·우애 관련 유적의 경우, 단순한 답사코스의 개발도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 그러나 다른 자원과 연계 개발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자원의 다양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전통시대의 문화유산, 특히 유교유산의 일부로서 여타 자원과의 연계를 고려하는 방식이 좋을 듯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접근할 때, 예산군에는 효행·우애 관련 자원과 연계 개발할 수 있는 대상이 적지 않다. 주변에 여타 역사자원, 특히 유교 관련 유적이 집중되어 있다면, 체험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는 곳으로 개발할 수도 있다. 이러한 곳은 핵심사업지구가 될 것이다.

그러나 효행에 관한 사회적 관심이 저조한 상태에서, 지금 당장 개발 사업에 착수하는 것은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역사·문화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대단위 개발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시작되어야 할 사안이며, 그렇지 못할 경우라면, 미래를 대비하여 차분한 준비 단계로서, 군 차원에서 접근 가능한 복안을 마련하고, 자체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을 듯하다.

다행히 내포 관련 개발사업이 서해안고속도로의 개통과 더불어 본격화되기 시작하였고, 내포의 자원에 대한 외부의 관심도 고조되기 시작하였다. 최대의 수요층이 거주하는 서울·수도권과 고속도로에 의하여 연결되었으므로, 그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내포 개발사업의 추진 자체가 본격화되지 않았으므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내포 개발사업의 추진과의 관련성을 고려에 두면서, 자체적으로 추진이 가능한 사업을 구분하여 제시하게 될 것이다.

---

수 있다. 박기성, 1992, 『대중문화와 문화산업』, 평민사; 도정일, 1987, 『문화산업론』, 나남.

그러나 본 보고서가 경험적 연구에 속하고, 또한 정책적 제안을 위한 것이므로, 본래의 어의에 충실한 선에서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본고에서 잠정적으로, 문화산업을 ‘가격을 갖는 상품으로서 문화를 생산·유통·소비하는 활동’에 한정하고, 문화상품은 ‘이윤을 목적으로 삼는 기업에서 생산하는 유·무형의 문화요소’로 사용하는 선에서 그칠 것이다.

또한 문화는 인류학에서 기본 개념으로 삼기는 하나, 산업으로서 문화를 논의할 때는 생활양식(way of life) 등의 의미로 사용하기는 곤란하다. 본고에서는 잠정적으로 인간의 물질 생활에 대비되는, 즉 정신 생활과 관계된 측면을 의미한다는 선에서 그치고자 한다.

2) 문화체육부에서 발간된 백서에서는 부문별 성과를 논함에 있어서, 영화, 출판, 만화, 음반, 비디오, 컴퓨터 게임, 저작권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화체육부, 1997, 『문화산업백서』.

3) 이대희 외, 1994, 『우리 나라 문화산업의 현황과 수출 진흥방안』,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p.p 223~250.

한편 효행·우애 관련 자원은 캐릭터의 고안, 교재와 비디오의 제작 등으로 홍보 효과를 높일 수 있다고 본다. 현대적 감각에 맞춘 디자인으로서 시각적 효과를 노리고, 이미지 제고의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별도 제시) 교재와 비디오는 대중용으로 제작하여, 특히 관련 후손들을 통하여 보급한다면 소기의 목적으로 달성하는 데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철저한 기초조사

: 자원의 망실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 체계적인 관리

: 특히 관련 문종과의 연계

\* 유교자원의 일부로서 다른 자원과의 연계개발 모색

: 자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 개발 여건 성숙 이전

: 군 자체 사업으로 추진 가능한 대안 제시

### Ⅲ. 부문별 단위 사업 (예상)

#### 1. 정비 · 관리 방안

현재 한국 사회에서 문화재의 정비라 함은 단순한 보수 · 복원, 그리고 주변 환경의 정비 차원에 그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효율적인 보존’이라는 대명제를 전제로 한다면, 반드시 소위 ‘건조물’의 보수, 편의시설을 포함한 주변 환경의 정리에 그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나아가서 유적이 전해지는 현 위치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 사실 대표적인 효행 · 우애 관련이라 할 수 있는 정려(旌閭)는 그 후손, 특히 종택[宗宅]이 옮기면 따라서 옮기는 것이 상례였다. 마을 입구에 위치했던 정려가 입구가 달라졌음에도 원 위치를 고집할 필요도 없다고 본다.

정려를 세우는 목적이, 해당 인물을 높이고,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널리 권장하고 장려하는 데에 있다면, 사회적 변화에 맞추어 옮겨 세우는 것도 고려할 만한 방안이다. 이러한 입장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는 것은, 마을의 상징으로 적합한 정려를 마을 입구로 이전(移建)하는 사업이다. 교통의 발달에 따라 도로망이 재편되면서 마을 입구가 변한 사례는 드물지 않다.

따라서 마을에 그대로 존치시키기를 원하는 정려인 경우, 새로운 마을 입구 또는 중앙에 옮겨 출입하는 주민들이 항상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려를 세운 본 뜻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 1회에 한하여 보수 · 정비를 하고, 그 이후에는 정기적인 보수를 행할 때 일정 한도의 지원금 외에는 자체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문제는 관리 소홀로 훼손되거나 또는 종교적 이유 등으로 후손들 스스로 폐기하는 관련 유적의 보존 문제이다. 유적은 원 위치에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따른다고 하여도, 머지 않은 장래에 망실될 것이 분명한 유적을 방치하는 것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스스로 폐기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유품들을 수집 · 정비 · 관리하는 것이, 본연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관리 부실로 망실이 우려되는 정려를 포함하여, 교지 · 천장 등 관련 문서 등이 대상이 될 것이다. 이 자료들에 대하여 적절한 보존 조치를 강구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 효행 · 우애 관련 유산을 포함하여, 주변 유품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박물관전시시설**의 설립 운영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① 정려와 같은 시설을 위하여 야외 전시장을 마련하고, ② 고문건 등을 수장 ·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③ 관련 후손들의 집회 및 청소년을 위한 교육 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 시설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야외에 전시할 정려는, 관리가 어려워 이건을 원하는 경우, 그리고 이미 망실되었으나 복원이 가능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때에 따라서 원 위치에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복제품을 전시할 수도 있다. 이견하는 정려 등의 경우, 원 위치에 표석(表石)을 세워 고증 자료로 남게 하여야 할 것이다.

현존하는 것은 대부분 목조 와가의 정려각(旌閭閣)이다. 그러나 최근 개·보수하는 과정에서 정려각을 신축한 경우가 많으며, 그 이전에는 초가 정려각, (사진 참조) 정문(旌門) 등 다양한 형태의 명정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초가 정려 등 원형을 복원하고, 전통적 조경을 가미한다면 야외전시공원으로서의 경관과 품격을 유지하는 데에 큰 무리는 없을 듯하다.

실내 전시공간은 관련 문서를 포함한 관련 유품의 전시를 위하여 필요하다. 이번 조사를 통하여 해당 인물에 대한 많은 자료를 수집할 수 있었다. 대부분 고문서로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부족하지만, 정리가 이루어진 후에는 쓰임새가 다양한 자원들이다. 소위 문화 콘텐츠로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더욱이 관련 후손들의 직접적인 관심사이므로, 문종과 연계하여 계발할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련자료의 수집·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며, 이는 미래의 전시·홍보·교육 자원의 축적이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안이다. 현재 관심이 큰 후송 또는 문종이라 할지라도, 관리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영구 또는 장기 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장·전시가 가능하다고 본다.

관련 문종과의 연계를 염두에 둔다면, 복합전시설 내에 그들을 위한 집회 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상주하는 인원은 불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부정기적인 회합을 위한 장소로 이용할 수 있으면 될 것이다. 실내의 회의 장소, 그리고 야외 관련 정려 주변 벤치와 같은 간단한 시설이면 충분하리라 본다. 실내 회의장은 청소년층을 위한 교육공간으로, 야외의 휴식공간은 방문객들이 쉼터로도 사용할 수 있다.

복합전시공간에 대해서는 절을 달리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다. 다만 복합전시공간은 대규모의 투자가 있어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이러한 시설의 신축이 불가능할 경우에 대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대규모 사업이 불가능할 경우라면, 전통문화공간을 활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학문과 함께 성현에 대한 제례를 역할의 주요 두 축으로 삼았고, 학문 가운데서도 예학(禮學)이 중시되었던 조선시대 학문을 고려한다면, 향교와 서원은 효행·우애와 관련한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적지로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도 절을 달리하여 상론하게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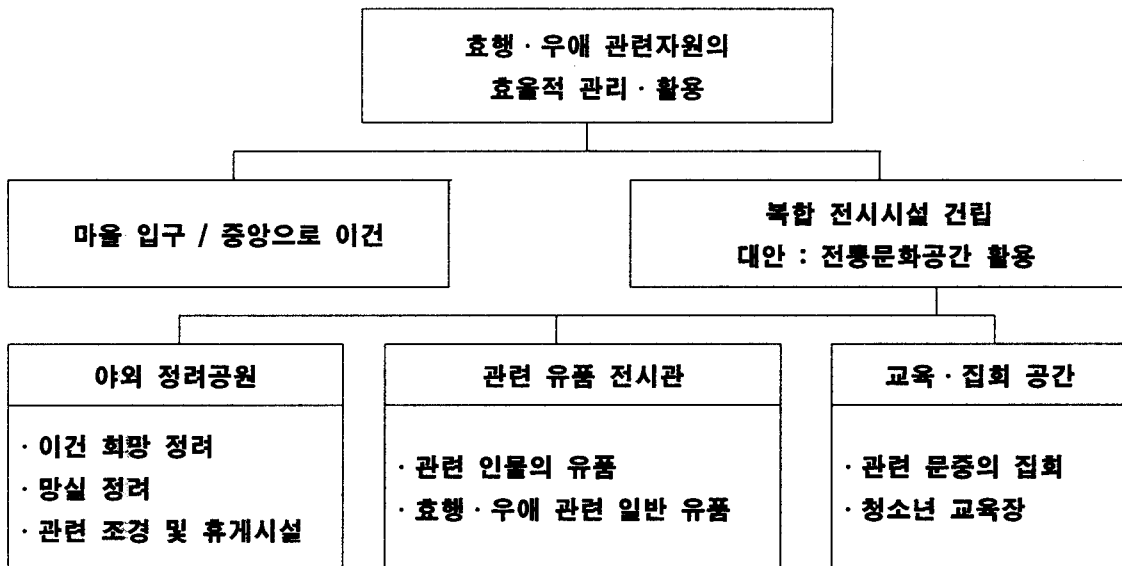
효행과 관련하여 예산군의 큰 자원은 「원흥장전」이다. 조선시대 이래 건립된 사우(祠宇)는 대부분 실존 인물을 모시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허구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사회적 귀감이 될 인물의 경우, 최근까지 신건하는 사례들이 있었다.

1878년 이전에 건립된 경상남도 진주의 아량사, 1931년 전라북도 남원의 춘향사, 그리고 최근에 건립된 충청남도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의 속칭 도미부인사당, 정절사(貞節祠)

및 정절각(貞節閣)이 그러한 사례들이다.

지역적 연고가 확실한 경우라면, 허구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지역의 상징인물로 부각시키기에 충분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논란이 여지가 많은 「심청전」 보다는, 「심청전」의 근원 설화 가운데 유력한 대상이라 할 수 있는 「원홍장」을 부각시키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이성만 형제 우애비는 원 위치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원래 우애비는 옛 치소로 진입하는 입구였던 가방교에 위치했는데, 예당저수지의 축조로 인하여 수몰된 것이다. 뒤에 다시 발견하면서 면사무소 앞으로 옮겼고, 최근 부근에 새로이 동상을 제작 건립하였다. 그러나 예당저수지를 찾는 외부인이 많으므로, 수상 데크를 세워 원 위치로 옮긴다면, 내방객들에게 잠시 경유하는 명소가 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 지역적 연고가 확실한 「원홍장전」 중시의 필요성
- 이성만 형제의 대표성 부각

## 2. 관련자원의 활용방안

### 1) 답사코스 개발

답사 코스는 유사한 성격의 자원을 선정하여 하나로 묶는 작업이 된다. 따라서 예산군 관내·외의 연관된 자원들의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다음으로는 자원들을 상호 연계시킬 수 있는 도로체계, 그리고 이와 관련한 인근 편의시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예산군 내에서 역사·문화자원이 가장 밀집한 지역은 덕산면 일원이다. 상가리 가야동 일원의 불교유적, 시량리의 윤봉길 의사 및 보부상 관련 유적, 그리고 사천리의 수덕사 유적 등이 밀집한 까닭에, 이미 오래 전부터 예산군의 대표적인 유적지로 알려져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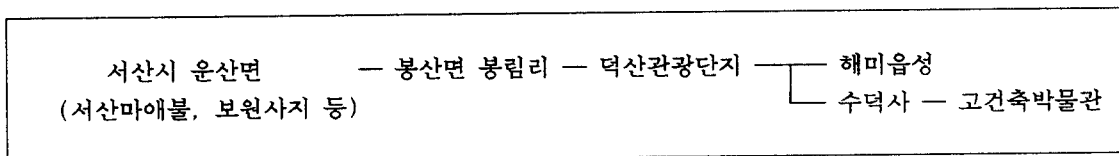
이와 함께 서산시에 속한 가야산 북·서쪽 능선의 자원들과의 연계개발의 가능성도 높다. 해미읍성과 그 주변, 서산마애불 등 운산면 일원의 불교유적들은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유산들이다. 더욱이 서해안고속도로가 가야산 서쪽 능선을 따라 신설되었으므로, 특히 서울·수도권 주민들이 덕산권역으로 진입하려면 운산면 소재 서산 톨게이트 또는 해미읍성 인근 해미 톨게이트를 이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덕산권은 이들 자원과의 연계개발을 적극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덕산, 봉산, 고덕 일원의 효행·우애 관련 유적들은 자원의 다양화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특히 관련 유적들이 예산군 덕산면과 서산시 운산면 사이에 위치한 봉산면과 고덕면에 집중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므로, 내방객들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경유지로는 적격이라 판단된다.

특히 봉산면 봉림리의 경우, 문화재자료(유형)으로 지정된 정대영가옥과 이의배신도비, 조선시대 덕산현의 유일한 서원이었던 회암서원(晦庵書院)의 옛 터, 그리고 효자 이후적 정려, 효자 박희적·박희택 정려, 열녀 우봉이씨 정려, 효자 김의재 처 열녀 창원황씨 정려 등이 산재하여 유교자원 개발 후보지로서 충분하다.

위와 같은 자원의 분포 현황을 고려한다면, 서산시 운산면 - 고덕·봉산의 유교자원 - 덕산권역 - 수덕사 또는 해미읍성으로 이어지는 코스의 설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표 4. 답사코스(1) : 덕산을 중심으로>



예당저수지변은 옛 대흥 고을의 치소(治所)였을 뿐만 아니라, 임존성, 대련사 등의 문화유적이 남아 있는 곳이다. 더불어 이성만 형제 우애비의 경우, 국내 유일의 유적이라는 점에서 예산군의 상징으로 삼을 만한 대상이 된다.

한편 아산시에는 맹씨행단,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등 역사 또는 민속 관련 유적지에 내방객들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아산시의 외암민속마을을 관람한 뒤에 예당저수지로 이동하려면 616번 지방도를 경유하게 된다.

그런데 616번 지방도에서 약 1km 정도 떨어진 대술면 상항리와 방산리 일원에 관련 유적이 다수 분포하고 있어서 눈길을 끈다. 상항리에 석불(石佛, 도 지정 有形文化財)과 이남규선생 고택(도 지정 有形文化財)이 있고, 방산리에는 이광임선생 고택(도 지정 有

形文化財)과 아계 이산해선생의 묘역과 유품이 전해지고 있다. 이웃한 장복리 지방도 변에는 문화재자료(有形)로 지정된 삼층석탑도 전해진다.

한말 홍주의병운동에 깊이 간여했던 수당(修堂) 이남규(1855~1907) 선생이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에 피살된 곳이 외암민속마을 입구에 해당하는 평촌리 역말 천변이므로, 외암 마을과 상항리 고택은 무관한 곳은 아니다.

616번 지방도를 경유하여 32번 국도를 따라 남쪽으로 가다가 신양면에서 광시·대홍방면으로 접어들면 예당저수지로 갈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살펴볼 때, 아산시 관련 유적 - 예산군 대술면 상항·방산리 유적 - 대홍·광시면 관련 유적을 잇는 코스를 상정할 수 있다. 특히 상항리와 방산리에는 고택, 정려, 묘역 등 한산 이씨 관련 유적이 남아 있어서 역사적 경관을 구성할 뿐만 아니라, 마을 숲을 비롯한 자연자원도 수려하여 체험·휴양지로서 가꿀 수 있는 여지가 크다. 이에 대해서도 뒷 부분에서 자세히 다루게 될 것이다.

<표 5. 답사코스(2) : 예당저수지를 중심으로>

아산시 관련유적 (온양민속박물관, 외암민속마을 등)	— 대술면 상항·방산리 — 대홍·광시면 관련 유적 (임존성, 우애비, 예당저수지 등)
---------------------------------	--

예산군 답사거점으로 삼을 수 있는 후보지로는 신암면 용궁리 일원의 추사 관련 유적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인접한 삽교읍과 오가면의 뚜렷한 역사·문화유적이 없으며,<sup>4)</sup> 북쪽으로 이웃한 당진군 합덕읍에는 솔피성지와 합덕성당 등 천주교 성지들이 산재하고 있을 뿐이다. 두 유적은 북학(北學)과 서학(西學)이라는 조선 후기 사상사를 음미하려는 학도들에게 흥미로울지는 모르나, 일반인에게는 다소 다른 유형의 인식될 소지가 큰 자원들이다.

더욱이 주변도로 정비가 미흡한 상황인 까닭에, 직선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은 덕산권이 나 대홍권과의 연계도 기대하기가 쉽지 않다. 만일 추사고택 주변 간선도로망이 정비 또는 신설된다면, 고덕면 또는 삽교읍을 경유하도록 하는 덕산면과의 연계 코스의 개발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서 예당저수지 - 추사고택 - 덕산단지 - 수덕사를 연결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코스는 다음과 같다.

4) 삽교읍 신리 석조보물입상(보물 제508호)은 수암산 중턱에 위치하여 사실상 덕산권의 유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표 6. 답사코스(3) : 예산군 관내 답사코스(예상)>

대흥	—	삽교	—	추사고택	—	고덕·봉산	—	덕산단지	—	수덕사
- 임존성				- 사면석불				- 덕산온천		
- 예당저수지				- 봉림리 유적		- 윤봉길의사		관련유적		
- 우애비 등						- 가야동 유적(남연군 묘 등)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추사고택과 화전리 사면석불 주변 도로망, 봉산과 서산시 운산간 도로망, 그리고 덕산읍내에서 가야동으로 진입하는 구간의 정비가 필수적이다.<sup>5)</sup>

## 2) 캐릭터의 개발 (별도 발표문 참조)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으로는 ‘이성만 형제의 우애’와 관음사사적기에 대흥 고을을 적시하고 있는 「원홍장전」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캐릭터를 개발하여, 각종 마케팅에 활용할 여지가 크다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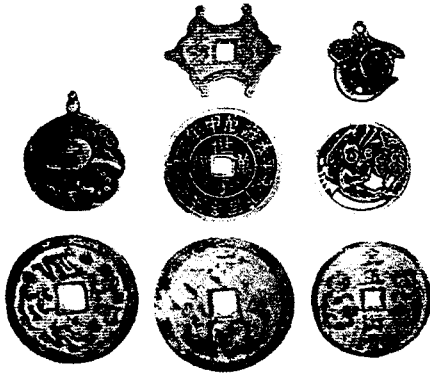
이 외에도 원래의 형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여지가 큰 자원도 무수하다. 우선 병풍 형태 등으로 전해지는 다양한 형태의 효자도를 들 수 있는데, 특히 『동국신속삼강행실도(東國新續三綱行實圖)』에 수록된 예산 효자의 그림 7건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동판 부조로 제작하여, 예산군을 방문한 귀빈을 위한 기념품으로, 또는 효행 관련 시설의 벽면 장식으로 이용할 수가 있다. 특히 이성만 형제의 효자도는 최근 조성된 동상과 함께 전시할 수도 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효자도 외의 자원은 선점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다. 이 가운데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는 조선시대 별전(別錢)이 있다. 별전은 조선시대, 특히 숙종 이후 일종의 기념주화로 만들어져서, 왕실을 비롯한 상류층들이 장식품으로 쓰였던 주화였다.

이러한 별전 가운데에는 효제(孝悌)·우애(友愛) 등과 관련된 것들도 많이 전해진다. 이러한 별전들은 과거의 노리개처럼 기념품으로 제작할 수도 있고, 관련 시설의 문양으로 채택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제작하는 기념품에 ‘禮山’ 또는 ‘禮의 고장’ 등으로 명기하여 효행과의 연상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다.

5) 예산군 답사에서 도로망의 정비는 전반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다. 신양에서 예당저수지로 진입하는 부분, 예산 읍내에서 예당저수지로 진입하는 지점 등을 확인하기가 무척 힘들다. 관광 분야를 진흥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난점을 해결하여 할 것이다.

<사진 1. 조선시대 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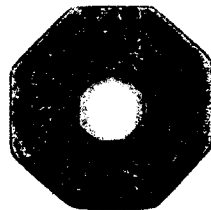
<여러 종류의 별전>



<별전피불>



<효제충신전>



<효제충신예의엄치전>

- 캐릭터의 개발 : 이성만 형제, 원홍장
- 원형의 활용 : 효자도, 別錢
- 활용 방안
  - 예산 특산품 포장지
  - 기념품 제작(노리개)
  - 관련 시설 조각 또는 문양으로 활용

### 3) 문화 프로그램

#### \* 전통 가족생활 체험 프로그램

- 목적 : 가족이 함께 일과 휴식을 같이 하는 체험을 통하여,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함
  - 대상 : 가족 단위
  - 기간 : 하계 휴가 기간 중 (3~7일)
  - 장소 : 전통 가옥(고택 포함) 활용 (예시 : 대술면 상항·방산리)
  - 전통 농촌 가족생활 체험
    - 텃밭 가꾸기 : 여름 채소와 과일 (원두막 체험 포함)
    - 벚짚 공예 시연 및 제작
    - 술 담그기 (예시 : 전통 소주 내리기)
    - 칠석 또는 백중놀이 : 천렵 (낙시)
  - 이벤트 : 가족 역할 바꾸기 (1일)
  - 절식(節食) : 토종닭 백숙, 어죽, 보리밥 찜, 삶은 옥수수
  - 1일 답사 : 주변 유적 답사, 외암민속마을 답사 (주말 이벤트), 가족 동반 (천방산)
- ※ 주말 프로그램으로 확대되는 경우 : 산나물(봄철), 감 따기·밤 줍기(가을철)

#### \* 하계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 장소 : 향교의 강당 및 동·서재 활용
- 내용
  - 조선시대 윤리 입문서[소학, 동몽선습, 격몽요결] 강독 (매일 오전)
  - 문안편지 쓰기, 매일 아침·저녁 안부 전화하기
  - 특별활동 : 서예, 그림 등 전통과목 교육 (매일 오후)
  - 종가(宗家)의 제례 참관 (1회)
  - 시묘 체험 : 관련 유적[효자샘 등]이 전해지는 곳 (1일)
  - 예산의 역사와 문화 (1일)
  - 도보 체험 : 예산 문화유적 답사 (2박 3일)
  - 특별 강좌 : 전통시대의 가족과 효(孝)
- 이벤트 : 벚짐 지고 나르기
- 백일장 실시 (1회)
- 종합 평가

## IV. 관련 복합단지(Complex) 조성계획

### 1. 조성의 필요성 및 기준

전반적으로 볼 때 전통문화에 대한 일반의 관심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특히 일반인의 관심이 높은 유산은 장식용 소품으로 인기를 구가하는 상황이다. 한낱 실내외를 장식하는 소품으로 전락하였다는 비판을 하는 견해도 있다. 그러나 무관심으로 지금까지도 망실되는 사례에 비한다면, 그나마 다행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골동품이 가격으로 평가되는 세대에 대한 개탄의 소리는,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라 하여야 할 것이다. 오히려 골동품 또는 문화재 분야가 이제는 ‘산업’으로 변신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갖추었을 때, 점차 치열해 가는 문화산업의 경쟁 속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반의 관심이 저조한 분야의 유산들이 경제적 가치가 낮다는 인식으로 인하여 급속하게 훼손되고 있다면, 그 가치를 제고시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는 낡은 시대의 윤리로 전락하여 버린 효행과 우애와 관련된 자료 역시 일반의 관심이 저조한 분야이다. 다만 청소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와 관련하여 인성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할 때에나 제기될 뿐이다.

그러나 역사자원에 대한 관심은, 사회적 수요가 변함에 따라 달라진다는 단순한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황폐화되는 사회 속에서, 가족의 소중함과 가족 윤리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늘어갈 수밖에 없다. 산사(山寺)의 체험 프로그램이 개인 단위의 정신 휴양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면, 이제는 가족 단위의 윤리 프로그램도 생각해 볼 단계가 된 것이다.

효행·우애 관련 자원은 이러한 맥락에서 접근하여야 할 사안이라고 본다. 우선 현재 사회적인 무관심 속에서 관련 유적들이 지속적으로 망실되거나 훼손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차원과 더불어, 관련 유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교육 등의 기회로 활용하려면, 총괄적으로 담당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관련 유적을 모았을 경우, 특히 전시와 홍보의 측면에서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그리고 관련 후손들의 집회장소로 이용하도록 한다면, 지속적으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고, 궁극적으로 역사적 정체성의 확립에 도움이 되리라 본다.

이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교육 및 홍보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① 다른 지역으로부터 접근이 용이한 교통상의 요충지 또는 관광객들이 많이 모이는 곳, ② 관광상품화가 가능한 여타 관련 역사·자연 자원과의 연계 개발이 가능한 지역, 그리고 ③ 효행·우애 관련 유적이 밀집하고, 특히 연관된 일화 등이 많이 전해지는 지역을 택할 필요가 있다.

※ 후보지 대상 수

- 제1안 : 1지역 (예산군 전체 유물 총괄 정리)
- 제2안 : 3지역 (옛 군현별 정리 : 예산, 대흥, 덕산)

## 2. “수변 형제 공원” “옛 대흥 고을의 우애” (예시)

가) 위치 : 예당저수지주변

나) 선정 이유

- \* 옛 대흥 고을의 치소(治所)로 역사 유적이 다수임
- \* 이성만 형제의 우애비가 현존하고 있음
- \* 원홍장 관련 사업의 경우, 옛 치소를 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음
- \* 대전-당진 고속도로의 개통 후 외부에서 접근하기 용이해질 전망

다) 관련 자원 현황

: 이성만 형제우애비, 대흥관아, 임존성, 예당저수지(국민관광단지), 대련사 등

라) 사업 내역

- \* 기초조사 : 옛 치소로서 많은 유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함
- \* 이성만 형제우애비 수상 데크 시설 : 우애비가 원래 위치했던 수물지구 내의 가방교[속칭 ‘개뽕다리’]에 수상(水上) 데크를 설치하고, 본래의 석교(石橋 : 충북 진천의 농다리 형태라고 함)를 복원한 후, 우애비와 최근 조성한 동상을 옮김.
- \* 야외 정려공원 : 수상 데크 인근 천변에 이건을 회망하는 정려 등으로 호행·우애 공원을 조성하여, 효과를 극대화 시킴
- \* 이성만 형제 및 원홍장 사우(祠宇) 건립 : 공원 내에 옛 대흥현을 상징할 수 있는 이성만과 원홍장의 사우를 건립. 특히 「원홍장전」의 경우, 사찰 등에서 판소리와 비슷한 형식으로 연행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극화시키는 방안도 모색
- \* 수변 생태공원 : 호수 변에 위치한다는 장점을 살리고, 수질 개선의 부수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하여 갈대와 같은 수생식물을 식재한 후, 관찰 데크를 설치하여 환경 교육의 현장으로 활용

- \* 예산 국제품물제의 유치 : 수상(水上) 무대를 만들어 예산 국제품물제와 같은 행사를 유치하는 행사를 개최
- \* 전시관 : 정려 공원으로 옮긴 경우를 포함하여, 산실될 소지가 많은 천장 등 관련 문건을 소장·전시할 수 있는 전시장 건립
- \* 청소년 수련 시설 : 부정기적인 집회 또는 교육장소로 이용할 수 있는 강당과 숙박시설을 갖춘 수련시설을 건립하는 바, 특히 청소년의 여름방학을 이용한 camp 장소로 활용. 숙박시설의 경우 전통적 미학을 살린 향교 등의 동·서재(東西齋)의 형태를 빌림. (당장은 대흥향교의 동·서재를 숙박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이용객이 증가할 경우, 성균관의 형식을 빌린 별채를 건립할 수 있음)
  - 수련 시설의 교육 프로그램 : 이성만형제비(孝), 임존성(忠)
  - ※ 예당저수지의 하계 체육시설(體)
  - ※ 광시면 신흥리 독립운동과의 연계 가능성 검토
- \* 연계 개발의 추진
  - : 아산 외암민속마을 등 - 대술면 상항·방산 '선비마을' - 예당저수지

마) 추진 일정 및 재원

: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후, 상품의 다양화라는 측면에서 실시

### 3. “옛 선비 마을의 향취” “충과 효가 있는 체험 농촌”(예시)

가) 위치

: 대술면 방산리-상항리 일원

나) 선정 이유

- \* 다양한 유형의 자원 분포
  - 정려 : 효자 이승유 정려
  - 고택 : 이남규 고택, 이광임 고택
  - 아계 이산해 묘역 및 유품
- \* 수려한 자연 환경 : 방산저수지에 수몰된 구역도 생태자원으로 활용 가능
- \* 훼손되지 않은 역사경관
  - ⇒ 옛 반촌의 경관을 충분히 복원할 수 있는 고장

다) 관련 자원 현황

: 이승유 정려, 이상빈 처 신씨 정려, 이남규 고택, 이광임 고택, 아계 이산해 묘역 및 유품, 방산저수지

라) 사업 내역

\* 콘도민박 체험촌

- 마을에 있었던 집을 초가집으로 복원하여 체험형 선비마을 조성
- 이광임 고택과 이남규 고택 활용 : 사랑채 서당 운영 등
- 기존의 고택과 정려를 활용하고, 마을 숲 정비, 서낭당 복원 등을 통한 옛 역사경관 연출
- 이남규 고택 - 이광임 고택 - 방산저수지 천변로 - 아계 이산해 묘역으로 이어지는 도보 산책로 조성

\* 전시관

- 아계 이산해 유품
- 이남규 열사 관련 유적
- 효자 이승유, 이상빈 처 신씨 관련 자료

\*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의 운영

- 별도의 대규모 수련시설을 건립하기보다는, 기존의 고택과 복원되는 초가집을 활용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수련 프로그램의 주제 : 이남규(忠), 이승유(孝), 열녀 신씨(烈), 이산해(선비의 일상)

\* 연계 개발의 추진

- : 아산 외암민속마을 등 - 대슬면 상항·방산 '선비마을' - 예당저수지
- ※ 수당 이남규 선생이 홍주의병과 관련하여 서울로 압송되는 도중, 외암민속마을과 이웃한 아산시 송악면 평촌리 천변에서 아들·종복과 함께 피살되었으며, 현재 이를 기념하는 기념비가 건립되었으므로, 연계성이 충분함

마) 추진 일정 및 재원

- : 예당저수지변 사업이 내포문화권 개발 사업대상으로 확정된 후, 개발 가능성 재검토 (장기적으로 추진 요망)

4. “가야산자락 선비의 생활” (예시)

가) 위치

- : 봉산면 봉림리

나) 선정 이유

- 서산 마애불 ~ 덕산 유적지를 연결하는 지방도의 중간 지점으로 중간 경유

지로서의 장점을 살리기 용이한 위치

- 다양한 역사자원의 분포

: 봉림리 (이후직 정려, 박희적·박희택 정려)

회암서원지

北兵使 鄭見龍 고택 (정대영 가옥으로 지정되어 있음)

열녀 우봉이씨 정려

효자 김의재 처 열녀 창원황씨 정려

문열공 이계전 부조묘

이의배 신도비

(한산) 이후직 가문 소장 근·현대의 농사 관련 문건

봉림저수지

※ 조극선 관련 유적이 위치한 효교리 인근 : 교통이 불편하고, 뒷산 개발이 진행 중으로 경관이 훼손되고 있음

자원 현황 : 덕산면 당곡리 (舊 조극선 정려, 傳 야곡의 거주지, 석각:정문동)

시동리 (묘소, 어필각, 조극선·조정교 정려)

효교리 (효자교)

冶谷 (한양)趙克善 일괄 문서

다) 관련 자원 현황 : 나) 선정 이유 참조

라) 사업 내역

- 전시관 및 야외 정려공원 : 현재 경작지로 묵히고 있는 회암서원지 일원
- 청소년 수련원 : 덕산관광단지 내에 건립되었을 경우, 답사코스로 이용
- 연계 개발의 추진

: 개심사 - 서산마애불 - 덕산온천 - 보부상 - 충의사 - 수

덕사 - 한국고건축박물관 또는 해미읍성

마) 추진 일정 및 재원

: 서해안고속도로 개통 이후 덕산온천과 서산마애불을 찾는 관광객이 급증하는 추세이므로, 중간경유지로서 민자 유치 개발 가능지역으로 보임



## 5. 덕산향교 (예시)

### 가) 위치

: 덕산면 사동리 (북동부 구릉지)

### 나) 선정 이유

- 현재 활동이 저조한 향교 또는 서원의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업으로서 추진  
: 향교 자체의 공간은 협소하나 남서부 방향으로 들판이 펼쳐지고 있어서 공간 확보 가능
- 윤봉길 의사 유적지와 인접하여 충(忠)과 효(孝)의 연계개발 가능

※ 온천관광단지와 인접하고 있으나, 현재로서는 외진 지점이고, 온천관광과의 연계성이 낮다는 약점이 있음  
→ 덕산 남연군묘~서산 마애불 중간 봉림리 회암서원지와의 비교 검토가 필요함

다) 관련 자원 현황 : 덕산온천, 윤봉길 의사 관련 유적, 보부상 관련 유적 등

### 라) 사업 내역

- 정려 공원 조성
- 전시관 건립
- 동·서재의 확장 : 청소년 숙박시설로 이용
- 효 관련 프로그램 운영 (덕산향교)

### 마) 추진 일정 및 재원

#### ※ 기타 후보지역

##### \* 삼티공원 (방맹 정려 소재지)

- 접근이 어려운 지역으로, 현재 종교인이 점유하고 있으나, 방치 상태임

##### \* 예산 향교

- 주변에 인가가 밀집하고 있어서 공간 확보가 여의치 않음

##### \* 덕잠서원지

- 1868년 훼손된 이후 현재까지 초석만 남아 있고, 편액만 보존되는 형편임
- 현재 공터로 남아 있으나, 1984년 유허비를 건립할 때에도, 원 위치에 민가가 들어서서, 서원 제향 인물인 자암 김구(1488~1534) 묘역에 세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한 형편임

## V. 단계별 추진전략





## 부 록

- ☐ 예산군 지역정체성의 캐릭터 활용화 방안  
- 권영현(충남발전연구원 디자인팀장)
- ☐ 『동국삼강행실도』의 예산군 효자도



# 예산군 지역정체성의 캐릭터 활용화 방안

권 영 현(충남발전연구원 산업디자인팀장)

1. 지자체의 캐릭터 활용
2. 지자체의 캐릭터 활용사례
3. 지자체의 캐릭터 문제점
4. 이상적인 캐릭터의 개발방향
5. 예산군 정체성 극대화를 위한 캐릭터 개발
6. 예산군 캐릭터의 성격 설정

## 1. 지자체의 캐릭터 활용

- 지역이 간직한 유·무형의 이미지를 구체적으로 형상화하여 지역정체성 확립에 활용  
한 사례는 흔히 볼 수 있다. 이러한 지역 정체성 사업에는 실제 존재하는 유형의  
산물이나 자연·명소 뿐 아니라 형상이 없는 지역만이 간직한 고유한 정서나 의식,  
사고 등도 차별력 있는 효과적인 소재로 활용되고 있다.
- 이러한 유·무형의 지역 이미지화 소재의 활용 방안중 하나로 캐릭터화 방안을 대표  
적으로 꼽을 수 있다. 지역이 보유한 이미지에 설정된 생명력을 불어 넣어 구체적  
인 실체를 갖춘 강력하고 친밀도 높은 커뮤니케이션의 도구로 다방면에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근래 지자체가 지역 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C.I(시티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을 개  
발하는 과정에서 C.I의 가장 효과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 캐릭터 (마스코트)를 갖  
게 되면서 캐릭터란 곧 어떠한 단체나 조직을 상징할 수 있는 마스코트로 인식하  
게 되었다.

- 캐릭터의 개념은 사용되어지는 분야나 시각에 따라 제각기 다를 수 있지만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사용되는 캐릭터의 범위 안에서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할 수 있다.
- 캐릭터란 어떠한 주제나 철학을 내포하면서 기업이나 단체의 이미지를 대표하거나 상승시키고 마케팅 활동을 활발하게 하여, 재화나 용역의 판매증대와 같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 가상 또는 실존하는 인물, 동물 또는 무생물에 의도한 특성, 성격을 설정하여 생명력을 불어 넣은 시각적 상징물이라 할 수 있다.

## 2. 지자체의 캐릭터 활용사례

- '97년 개발된 서울시의 “왕범이”는 C.I.사업을 진행하면서 개발된 예로 지역이미지를 원활하게 전달하고 주민의 동질감을 제고하며, 지역 홍보, 지역주민과 행정기관의 커뮤니케이션 외에도 지역경제의 활성화 수단으로 제작되었다.
- 캐릭터 개발의 선두 주자로 전남 장성군을 들 수 있는데 장성군과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이 공동으로 개발하여 1차단계로 기본형 및 응용형을 개발, 상품화 한 이후 새로운 버전의 캐릭터를 개발 소구대상에게 항상 새로운 분위기를 전해주고 있다. 이지역은 지방자치단체의 상품화로서는 최초로 전통문화의 고부가가치화를 창출하려는 시도로 많은 관심을 끌고있다.

각 지자체에서 개발된 캐릭터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 1) 지역의 특산물을 주제로 한 사례

- 장수군은 고장의 특산물인 사과를 의인화 했으며,
- 고추장의 산지로 알려진 순창은 고추 대신 콩을 의인화한 커플 캐릭터를 이루었으며,
- 음성군과 영양군 청양군은 지역 특산물인 고추를 의인화 하여 사용하고 있다.
- 진천군은 고장의 특산물인 쌀, 장미, 비단잉어로 복수캐릭터를 개발 마케팅 효과를 기대하였다.
- 횡성군 역시 한우, 더덕, 찢빵을 캐릭터화 하였다.

### 2) 지역의 대표하는 인물을 주제로 한 사례

- 논개의 출생지인 장수군과 축석루가 있는 진주시에서는 논개를,



- 남원은 춘향과 이몽룡을
- 영월군은 김삿갓을
- 진천군과 군위군은 김유신을 소년 모습으로 캐릭터화 하였다.

### 3) 지역의 대표하는 동식물을 주제로 한 사례

- 평창군은 군조인 까치를 캐릭터화 했으나 최근 들어 까치의 유해 논란으로 교체하려 하고 있으며,
- 진해시는 벚꽃,
- 장성은 단풍잎을 모티브로 하고 있다.

### 4) 지역의 문화유산, 행사를 주제로 한 사례

- 무주군은 반딧불을 캐릭터로 개발했는데, 반딧불이 무주의 대표하는 상징성 뿐만 아니라 청정지역의 척도라는 전달력이 있다. 반딧불 캐릭터를 지역행사인 반딧불축제의 행사캐릭터로 활용할 뿐 아니라 지역 농특산물의 공동 브랜드로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무주의 사례는 지역이미지와 관련된 사업의 기획 뿐 아니라 실제 활용면에서도 이상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 부여군은 능산리에서 발굴된 국보급 문화재인 백제금동대향로를 모티브로 캐릭터화 했으며,
- 고창군은 고인돌을
- 청도군은 대표적 지역행사인 소싸움을 내세워 소를 캐릭터화 했는데, 단순히 1가지 유형의 개발로 그친게 아니라 매체의 다양함에 맞춰 2가지 버전으로 제작하였다.
- 양주군은 지역의 전통놀이인 오광대를 모티브로 하였는데 표현방법을 색다르게 붓으로 하여 다른 캐릭터와 차별이 되며 나타내고자 하는 이미지를 더욱 풍부하게 표현하고 있다.

### 5) 지명, 지역정서를 주제로 한 사례

- 고성군은 강원도 심산을 상징하는 감자바위를
- 삼척시는 지명을 잘 연상시킬 수 있게 삼척동자를 캐릭터화 하여 참신한 느낌을 주었으며,
- 제천시 지역의 명소인 문경새재를 배경으로 길 떠나는 나그네와 배웅하는 여인을 모티브로
- 사천군은 첨단과학도시로의 발전을 기대하며 우주소년을 캐릭터화 하였다.

### 3. 지자체의 캐릭터 문제점

지자체의 캐릭터의 유형은 큰 범주인 코퍼레이트 캐릭터로 행사용 캐릭터와 상징적 캐릭터를 포함 시키는데, 활용은 캐릭터의 본래 용도와 다른 브랜드 캐릭터로까지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 대부분 C.I개발의 과정에서 얻어진 결과물로 활용범위가 제한적이고 보편적이기 때문에 세분화된 용도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
- 지역의 특산물이나 인물을 모티브로 하여 개발한 경우 타지역과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지역의 특색화나 정체성 확립에 역행되다. (논개 : 장수군, 남원시 / 김유신 : 진천군, 군위군 / 고추 : 음성군, 영양군, 청양군)
- 매체의 다양화로 1가지 스타일의 캐릭터로는 원활한 활용이 어렵다.
- 지역의 특산물로 캐릭터화 한 경우 다른 품목에 적용하기 어렵다.
- 캐릭터의 질이나 완성도가 낮게 개발되는 예가 많다. (지나친 만화 스타일)
- 외국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스타일을 그대로 답습하는 경우가 많고, 마치 한 작가의 작품처럼 동일한 유형으로 개발되어 독창성과 차별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 지역 특유의 얼굴형태나 체형이 고려되지 않고 복식 또한 정확히 재현되지 않고 있다.
- 실제 상품화에 활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캐릭터의 성격과 상품과의 불일치)

### 4. 이상적인 캐릭터의 개발방향

- 지역의 정서나, 역사, 문화, 유적, 경제구조, 의식 등에 대한 철저한 사전 조사와 분석 그리고 폭 넓은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 캐릭터가 개발되면 어떠한 용도로 어느 분야에 활용할 지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효익을 예상한다.
- 캐릭터의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템 별로 상품화 가능성 및 판로, 유통조사와 소구층의 시장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 시대 유행에 지나치게 민감하게 대응하여 개발하게 되면 캐릭터의 수명이 짧아진다.
- 처음 개발한 캐릭터를 장기간 변화없이 사용하기 보다는 주기적으로 캐릭터를 리디자인하여 신선한 감각을 유지한다.
- 다른 지역의 캐릭터와 차별력을 주어 독창성 있게 개발한다.
- 캐릭터의 네이밍은 브랜드화 하여 적극적으로 병용 활용하고 상표 및 의장등록 등의 과정을 거쳐 법적인 보호 및 지적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게 한다.

## 5. 예산군 정체성 극대화를 위한 캐릭터 개발

예산군 효행 사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로 예산군의 지역 정체성으로 꼽는 “효심”과 “우애”라는 정서를 구체적으로 형상화 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학술적 이론상태로 그치지 않고 지역 자원화하여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는 물론 또 하나의 지적 재산을 보유하게 된다.

더우기 다른 지자체의 캐릭터 유형에서 나타났듯이 단순한 지역의 인물이나 특산물로는 한계가 있으며, 더우기 캐릭터의 특성인 가공된 존재라는 한계를 벗어나 1) 실존되었던 2) 지역의 정서와 부합되며 차별성 있고 3) 시대를 초월하는 교훈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스토리를 내포한 주제의 활용은 그 파급도와 캐릭터 개발에서의 관건인 생명력(수명) 또한 짐작하게 한다.

### 예산군 캐릭터의 활용 방안

① 예산군 코퍼레이트 캐릭터 이미 완성된 사과 형상의 캐릭터를 대체하여 활용

② 지역 행사 및 테마공원용 캐릭터 (효행공원, 이성만 공원)

지역 축제의 캐릭터로의 활용은 물론 효나 우애같이 정감나는 예산의 정서를 파급시키고 관광 상품화 하는 테마 공원용 캐릭터로 활용 (예산의 경우 추사 김정희와 같은 개발 소재가 많음)

③ 관광 기념품

캐릭터의 이미지나 모티브를 활용한 관광 기념품을 개발

④ 농특산물의 캐릭터

예상되는 농업 구조의 변화에 대비하여 고품질의 우량 농특산물에 기존의 인증마크 대신 캐릭터와 브랜드를 활용한다면 지역의 최대 장점인 감성 → 인간미 → 상품의 신뢰로 이어지는 구매력을 이끄는 차별화된 동기 요인으로 작용

농특산물용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다양한 품목에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응용형 캐릭터의 전개와 공동브랜드화 그리고 체계적인 포장디자인의 활용 사업이 종합적이고 일관되게 기획되고 진행되어야 함

## 6. 예산군 캐릭터의 성격 설정

이성만 형제의 이미지화 과정 단계로 우선 실존 하는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문헌과 그외 자료를 통해 활동하던 시대, 연령대, 신분(계층, 직업), 건강정도, 일화를 근거로 추출해 성격을 설정할 수 있지만, 지난달 예산군 대흥면에서 건립된 이성만 형제상의 형상과는 다소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이 있어 다양한 관점으로 도출해 냈다.

① 활동시대

고려말에서 조선 초기에 생존하였기 때문에 복식이나 관은 그 시대와 일치하게 구성

② 연령대

벚가리를 서로 나르던 시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 문헌이나 교과서에 수록된 내용을 살펴보면 동생인 이순이 갓 결혼한 시기였기 때문에 당시의 결혼 적령기로 보아 20세 전의 청년으로 묘사되어야 한다. 반면 동상에서 나타나는 형제의 연령대는 동생은 장년층 형은 안면의 묘사나 자세등을 미루어 초로의 연령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신분

문헌상 형제의 신분은 호장으로 유복한 자영농으로 해석하였고 그에 따른 복식의 수준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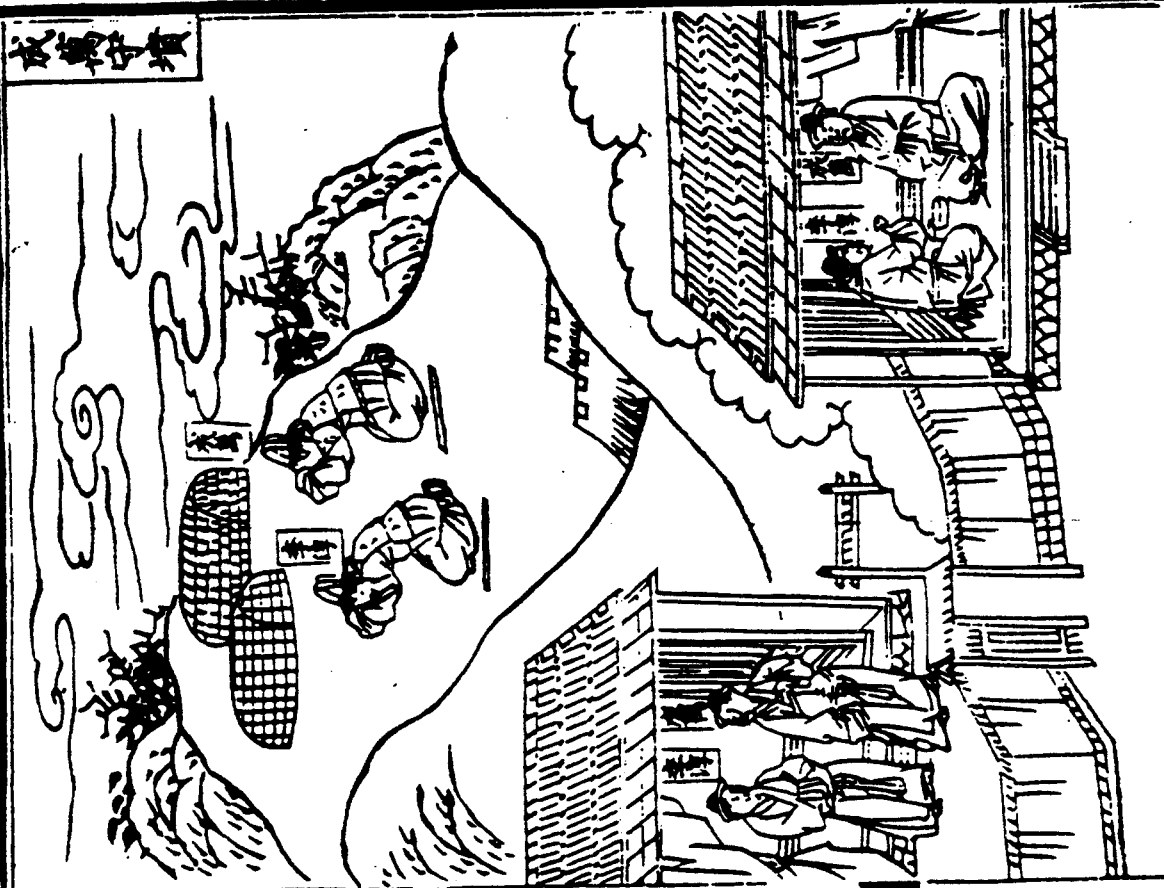
④ 건강

연령대나 형제 모두 부모 묘소에서 시묘한 점으로 미루어 건강한 캐릭터로 끌어냈다.

⑤ 성격

무대가 되는 예산지역은 대표적인 내포지역이라 낙천적이고 유순하고 무미하지 않고 감성적인 성격으로 묘사 했다. 형제의 우애의 적극적인 표현이나 자주 부모를 위한 연회를 연 것도 이러한 성격과 무관하지는 않다.

成萬守墳



新續孝子圖卷

三十三

李成萬大興縣人成萬與其弟淳俱至孝父母死成萬守父墳淳守母墳各盡哀敬三年制訖朝則弟就兄家暮則兄就弟家得一味不相會則不相食 旌閭

니성만은대흥현사람이라성만이그아옴으로써더브러다지  
구호회러니부모죽거늘성만이노아비무덤디키고쇼이노어  
미무덤디키여가개의경을다항더니삼년삼제못고아져기어  
도아이형외지비나아가고나죄히어두형이아의집외나아가  
되호맛난것어드면서루몰디아니호야셔노서루몰디아니터  
라 정언하시니라

朴忠廉墓



幼學朴忠廉山縣人有學行父病侍藥不怠母喪哀毀過制廬墓

粥三年服闋猶行朝夕奠父感之終身不再娶 旌門

유학 박충은 네 산현사들이니 후학이 일더니 아비 병의 되셔 약  
항기를 깨울 리아니고 고어의 상수의 슬허상 휘하기를 법제에  
넘게 하고 무덤의 내막야 죽먹기를 삼년을 하고 부근에 오  
히려 요석 제를 더러아 비감격하야 종신토록 다 시취쳐를 아  
니하다 정문하시니라

方碩廉墓



鄉方碩廉山縣人事親誠孝父歿葬祭以禮廬墓三年躬執奠饌

喪畢出入必告于神主 恭傳大玉朝旌門

향니 방딩은 네 산현사들이니 어버이 섬기물 성호하더니 아비  
죽거늘 영장과 제스물 네로 배하고 시묘 삼년을 고몸소 제찬을  
자바하고 상수대매 출입의 반드시 신주외고하더라 공회  
대왕요애 정문하시니라



新續李氏圖考卷七  
 孝事李文卿植山縣人掌令李思恭之子也思恭有孝行文卿早喪父事母誠孝年六十母歿哀毀過禮葬終以禮三年居廬一不到家不脫表不見滿厥闕為父心夜三年晨昏調廟如在草土時 恭憲大王朝旌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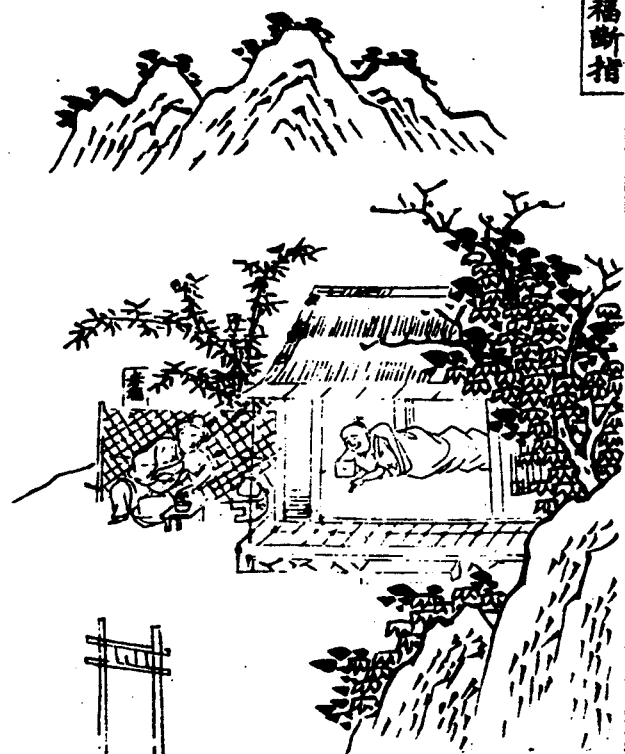
봉수니문경은네산현사둔이니장녕니스공의아들이라스공이효형이안더라문경이일아비를일코어미섬기물정성과효도하더니나히여쇼의이미죽거늘슬허상휘호를법제에넘게하고영장제스를배로배우고삼년의녀막사리하야호반도지보니라다아니하야초복을편다아니하더니로드러다아니하더라복기부초배아비를위하야심상삼년고새배어울메스당의복기를초토의이실시전기타하더라 공헌대왕묘에정문하시니라



幼學朴元忠大興縣人癸未年監選兵元忠應滿其弟事覺倅欲以軍法斬之元忠訴曰兄實無罪願代兄死元忠曰用情欺官者兄也弟不當死倅兩釋之六十遺倅亂負母而行母歿哀毀幾至滅性三年喪滿居廬逐日省墓雨雪不廢年八十三哀慕益萬今 上朝旌門

유호박원충은대흥현사람이라게이년에군병생기보아호를시원충이그아은은누히열다가일이나타나원이군법으로배버히고저하더니원회할아닐오더형오실로죄입스니원컨면형을타히여죽거지라하고원충은닐오더스정배구의소김오형의다치라아온만생이주갑죽다아니라하대원이들호다노하니라여쇼에왜안만나어미로업고돈다더니어미죽거늘슬허상휘하거의주급애니라다삼년을죽마시며너만살이호되날마다무덤에슬퍼눈비에페티아니하고나히여도세히로되널위스모하거노더옥들힘더라금 상묘에정문하시니라

春福斷指



新續孝子圖卷八

四十八

庶人白春福德山縣人孝性出天父病劇百藥無效斷指出血和藥  
以進病即愈今 上朝旌門  
상인회춘복은덕산현사람이라호성이연성의나아비병이극  
중이온간악기호형업고늘손가락을베쳐피를내여악에빠발  
주오니병이즉시요호니라금 상묘애정문하시니라

二子誠孝



新續孝子圖卷八

七十九

私奴允熙風伊兄弟德山縣人父歿養其偏母盡其孝誠溫清定省  
終始不怠期望必具酒饌以歡其心母歿泣血三年今 上朝旌門  
스노윤희와풍이형데는덕산현사람이라아비죽거늘그어미  
치기늘그호성을극진이하여더운가치운가하며아침나죄죄  
기늘종시여게울리아니하고악망에반드시슬파음식을조  
와그부모를돌리게하더니이민주거늘피나뒹굴기늘세히느  
하니라금 상묘애정문하시니라